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II)

서수정 Seo, Soo Jeong
김영현 Kim, Young Hyun
조시은 Cho, Sea Eun
이언화 Lee, Eon Hwa
류현숙 Lyu, Hyeon-Suk
정지범 Chung, Ji-Bum

(a u r 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08-01
AURI-협동-2012-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II)

지은이: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이언화, 류현숙, 정지범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05호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2012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9,000원, ISBN: 978-89-97468-59-1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08-0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조시은 연구원 이언화 연구보조
협력 연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부연구위원 정지범 부연구위원	

3. 연구심의위원

소속	연구심의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연구위원
명지대학	김혜정 교수
명지대학	박인석 교수
경기대학	이영범 교수
목원대학	최봉문 교수
국토해양부	김성호 과장
국토해양부	이현상 사무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도시 내 중요한 공공장소이자 기반시설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전체 건축물 신축행위 가운데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건축 디자인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지역경쟁력 및 이미지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건축·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국유재산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며, 2011년 중앙정부 공공건축 관련 전체예산은 4조 7,370억 원에 달하는 등 공공건축이 국가자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분야의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14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체계 상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건축 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두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부처별 특성과 지자체 규모에 따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이 일회적인 업무에 국한될 수도 있고, 몇 년 단위로 발생하는 제한적인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아 모든 부처와 지자체마다 전담조직을 두는 것도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산으로서,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반시설로서의 공공건축물이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2차년 연구로 1차년도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검증과 환류를 통한 기존 행정조직체제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 및 지자체 정책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지원을 포함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등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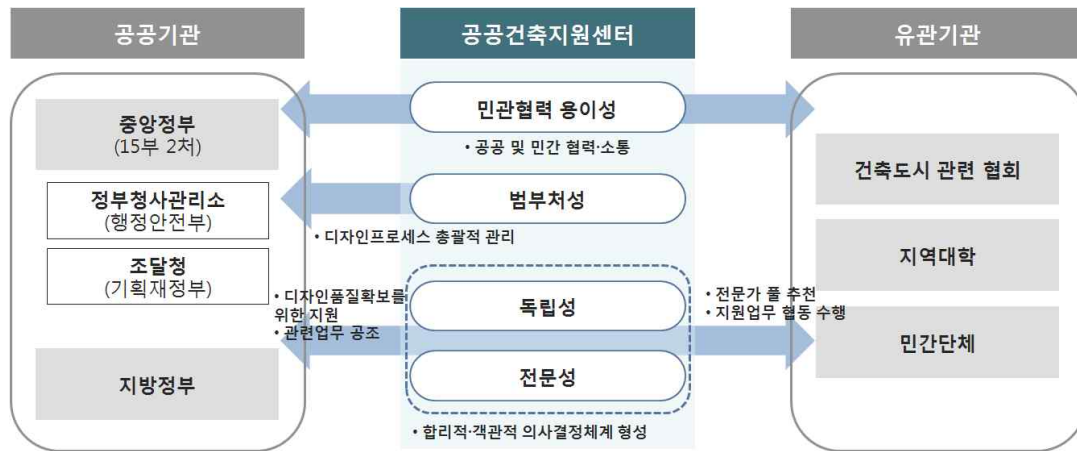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①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②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정상화, ③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④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 등 4가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민관협력의 용이성 등 4가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개입하고 지원을 수행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전담조직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범부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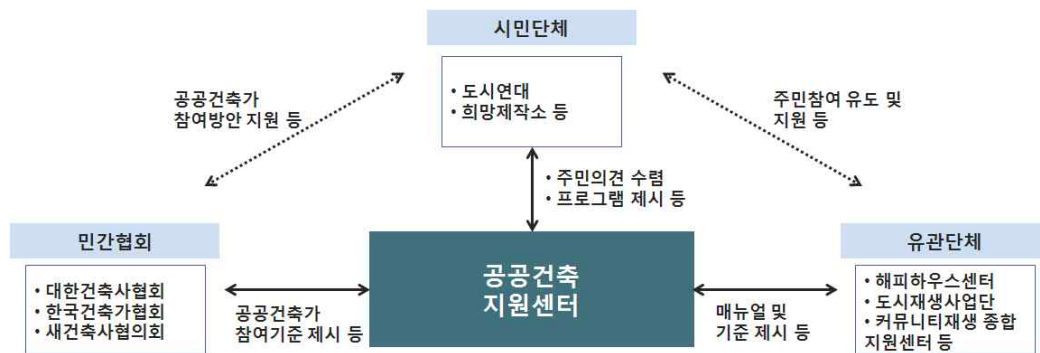
넷째,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향상은 프로젝트 성격과 유형에 따라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공공건축 관련 조직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형 지원센터 기능으로 행정기관의 조력자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다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행정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과 함께 행정과 민간기관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전제로 공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민관협력형 조직으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둘째,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의 허브(hub)로서 행정조직간, 민간조직 및 전문가간, 지역지원센터간 연계를 도모하는 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기존 공공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허브로서 기능해야 하며, 공공건축에 대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문기관으로서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기능으로 ‘전문가 주도-행정지원형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디자인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타당한 목표 설정, 다양한 대안 검토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이후 설계, 유지·관리단계까지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사업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전과정을 관리·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사업유형 및 참여주체별 다양한 매뉴얼과 가이드를 개발하고, 공공건축 관련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한 모든 정보가 지원센터를 통해 수발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

3장에서는 국내외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 및 민간전문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일본 관청영선부의 기획서,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 지침, 미국 건설산업연구소의 PDRI, 영국 CABE의 Design Review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

구 분	미국 설계이행지침 PDRI지표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일본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정비 기획서	영국 CABE의 Design Review
적용대상	산업시설 및 건축	시 소유의 공공건축	국가 소유의 공공건축	공공 및 민간 건축
적용단계	기획 및 설계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설계
주요내용	3부문(사업진단기준, 디자인기준, 사업수행방식), 11카테고리, 64세부 항목	계획론(물리적 계획의 방향 설정) 운영론(매니지먼트) : 프로세스 디자인과 어카운터빌리티	계획개요, 프로젝트의 시점, 수준적용표, 면적산정표, 시설개요, 비용배분표, 부지	사업기본방향, 기존 시설평가, 도시맥락 고려, 부지 건축물 관련 사항, 기타
운영목적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 방향성 및 사업수행절차와 관계자별 업무 설정	기획내용 명확화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기획의도 확인	우수설계안 선정 지원
운영주체	퍼실리테이터	행정담당자(주관부서 및 설계부서)	관청영선부 소속 행정담당	디자인리뷰패널
비 고	법적 의무사항 아님	권장	필수	권고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국내 사례는 민간전문가 활용이 행정체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주시에 대한 심층조사와 공공건축가 운영 초기단계에 있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및 중앙부처 시범사업에서 민간전문가가 활용되고 있는 시범사업 등을 조사하였고 해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지자체 단위에서 민간전문가 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구 분	총괄형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영주시	영국 버밍엄	프랑스 리옹	서울시	중앙정부	영국 Enabling
명 칭	도시디자인 관리단장	도시디자인 단장	공공건축가	서울형 공공건축가	사업별 상이	Enabler
위 치	시장직속, 외부민간 전문가	도시계획·재개발부 소속 도시디자인팀	도시개발부	외부민간 전문가	외부민간 전문가	외부자문 위원
선정기준	건축, 도시, 조경 설계 전문가로 국내외건축사 자격 소지	학사급, 2개 이상 분야의 경력 3년 이상	국가공인 건축사, 경력 8년 이상	건축, 도시, 조경설계 전문가	건축, 도시, 조경설계 전문가	-
역 할	기획, 자문	프로젝트 관리, 정책수립	사업총괄관리, 심의, 설계	자문, 설계	관리, 자문	자문
업무범위	시범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지원, 기획업무 실시, 디자인 자문	장소단위계획, 디자인 전략 및 가이드 수립, 건축 관련 자문	시 립 시 설 의 건축사업 총괄 관리, 일부 사업 직접설계, 설계 안심사	건축정책수립 자문, 정비계획 수립자문, 소 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사업·역할별 상이 총괄관리, 사업수행, 모니터링 등	디자인 지침 작성, 현상설계 공모 운영, 설계자 선정, 사업관리 지원
보수기준	자문비 지급	공무원7급기준급여	고위공무원 기준급여	자문비 지급	자문비 지급	-
근무형태	주2회 상근	상근직	상근직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국내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및 공공건축가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디자인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과정에서의 칸막이식 행정과 사업초기의 업무 부실로 인한 후속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미국, 일본, 영국 등지에서는 공공건축 조성사업 시 일관성 있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업 수행에 대해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그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공공건축가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업무단위 구분 및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공공건축 조성사업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공공건축가, 행정담당자 및 관련 용역수행자, 주민 등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핵심주체인 공공건축가는 세부단계별로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고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획업무를 사업단계로 독립시키고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후속단계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기획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담당자에 의해 간소화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이나 외부전문가를 배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전체 일정 및 예산 뿐 아니라 디자인 품질 확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기획업무를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를 병행운영하여 체계적인 공공건축 조성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 개별적인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운영하는 총괄형 건축가와 개별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각각의 역할이 구분된다. 두 가지 유형의 공공건축가가 지자체 내에서 병행해서 운영이 되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결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업무 기준과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공공건축가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건축가 운영조직으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실시하는 주체는 공공건축가이나 공공건축가의 자격기준 및 선정에 관여하며 운영방식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면서 전문가 및 행정 등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및 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업무능력도 요구된다.

제4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성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민간전문가 지원을 시범적용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 사업 중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운영, 디자인리뷰 실시 등의 업무가 연구기간 내 적용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업의 업무범위

구 분		수원시 (물체현관 신축)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신축)	영주시 (월림보건진료소 신축 및 문수면사무소 증개축)
기획 단계	사전기획서 작성	●	—	—
	과업지시서 작성 검토 및 지원	●	—	—
	본기획서 작성	●	—	—
	설계이행지침	●	—	—
	최종 기획서 작성	●	●	●
설계 단계	디자인리뷰회의 운영	—	●	●
	디자인리뷰결과서 작성	—	●	●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 행정조직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없는 부서에서 공공건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계획을 비롯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기획업무 내용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공공건축가 지원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 DQI 등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범운영한 기획서와 설계이행지침은 공공건축가나 행정담당자 모두에게 업무 수행범위와 단계별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는 기획업무 및 설계수행과정에서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 사이에 의사결정이 대립할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추진사업별 발주기관 전문성, 사업규모 및 부지 특성, 시설 이용자 요구사안 등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및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가 사업 이해관계자간 공유되어 일관된 방향 아래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피드백 과정이 관리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와 공공건축가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 행정절차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프로세스가 발주자인 행정측이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체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담당자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과 같이 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양식의 내용구성, 작성요령 등에 대해 발주기관, 공공건축가 모두가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 및 기회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획서 작성 및 설계이행지침과 같은 업무는 발주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이며,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 간 활용방식과 관련한 연속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와 발주기관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업무추진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제5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중앙부처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디자인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공공건축가와 공동 작업을 수행한 지역 건축가들의 의견수렴이 병행되었으며, 지역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공공건축가들의 활동은 미미하지만, 이미 공공건축가가 활동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 참여하였고, 주당 평균 1~2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단계의 경우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과업지시서 검토에 주로 참여한 반면 예산계획 및 사후 유지관리 계획에의 참여는 미진했다. 디자인

검토위원들의 경우 주로 기획안·계획안·디자인 검토와 해당 지역 현황 분석 작업에 주로 참여했으나,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나 예산 배정에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을 가장 중요시 했고, 과업지시서 검토, 발주방식 제시, 디자인 관리방안 제시 등도 중요한 역할로 인식했으나, 유지관리계획이나 관련법률 검토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했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단계에서 예산 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하나 현행 행정체계 하에서는 예산 결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시장 및 주요 공무원의 자의적 의사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전 기획단계에서 예산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비용의 마련,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건축의 사후 유지관리계획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과 공공건축가 모두 사후 유지관리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유지·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초 사전기획단계부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염두하고 구체적인 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셋째,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간의 연륜 차이, 서울과 지방사이의 거리상 문제, 불명확한 공공건축 선발기준에 대한 불신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가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본 장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체계 구축과 운영방안을 설정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을 위한 단계별 세부업무와 공공건축가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체계는 범부처 차원의 중앙센터로서, 지자체 지원센터로서, 그리고 행정조직체계의 법정 및 비법정기구와의 상호협력적 조직으로서 그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지원센터의 핵심기능에 따라 총 4개의 실무팀으로 구성되는 조직구성(안)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국내외 유사 조직들의 설립당시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살펴봄으로서 신설기관의 인력을 14인, 소요예산을 약 12~1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주·관리하는 공공건축 및 관련 사업으로 제시된다. 중앙 및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요청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운영의 지원, 지자체는 총괄형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한 지원 등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센터 설립 초기에는 행정조직과 공공기관 위주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민간사업 중 공공성을 담보해야하는 사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확장하여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선정 대상은 지자체 요청 사업 중 40억 미만 소규모 시설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한 시설들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서는 1차년도에 내용을 발진 및 보완하여 크게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관련 업무와 교육 및 홍보로 구분하였으며,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단계에서 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을 통해 기획업무 및 사업 타당성 업무를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를 통해 작성되는 기획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지원업무에 대한 협의체로서 코디네이팅을 담당한다. 기획업무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자문회의, 워크숍 운영방식, 참여 인력 선정 등 실질적 업무운영을 위한 사안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지원센터는 건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정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적합한 전문가에 의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업무를 크게 사업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규모 40억 미만, 4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건축비) 500억 미만, 500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규모별 수행 업무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발주기관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 디자인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다.

기획·설계단계에서는 사업수행 관계자에 의해 사업의 전반적인 고려사항들을 자가 진단하고 기획업무의 충실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인 설계이행지침을 운영한다. 설계이행지침 운영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의 공공건축가가 도출한 항목들을 검토하고 설계이행지침 운영을 위해 관계자 소집, 평가자료 수령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되며 기획단계에서는 ①사업진단기준, ②사업수행방식의 운영이 가능하고, 설계단계에서는 ③디자인기준이 운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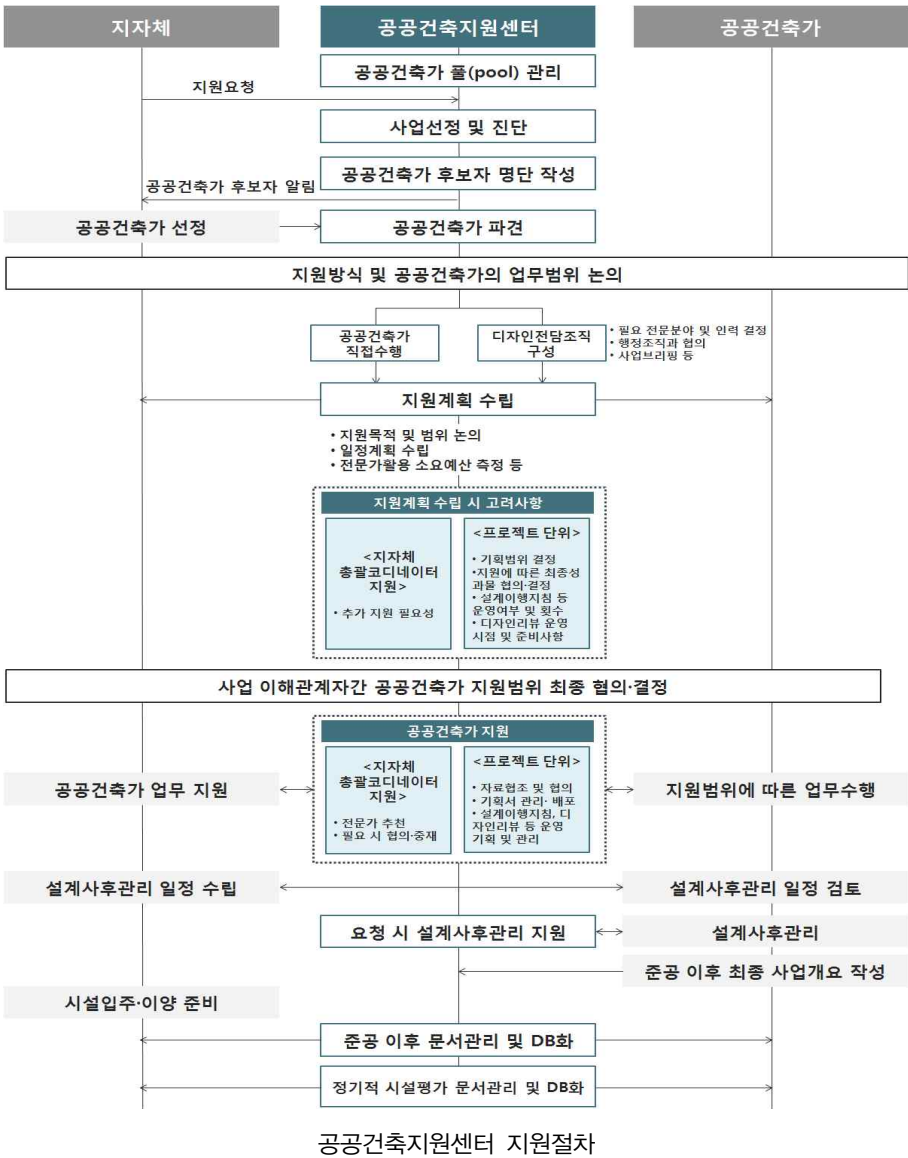
설계단계에서의 주요업무는 디자인리뷰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의 운영과 다양한 발주방식 지원의 일환인 설계공모사업 대행이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 및 설계단계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리뷰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를 운영하며, 리뷰 및 평가지표의 운영 시기, 횟수, 참여 전문가 등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조직의 요청에 따라 설계경기방식을 선정하고 기획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공모지침서 작성과 심사과정에서의 지원 등을 수행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공단계에서 사후설계관리 조율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디자인프로세스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궁극적으로 공공건축 관련 업무수행 관계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건축의 핵심적인 디자인가치를 이해하는 공공건축가의 육성,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포함하며,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의 협력적 업무수행체계 보장을 위한 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의 조성현황과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문서를 체계화하여 공공건축의 통합적 DB를 구축하는 업무가 있으며, 이는 공공건축 디자인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주요업무로 인식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더불어 앞서 제시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는 공공건축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역할에 따라 ①지자체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②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건축가의 업무 성격과 지위에 따라 권한 및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여러 부서를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므로 시장직속의 정무부시장급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축가 선정방식은 단계별 적용방안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심사, 건축사등록원 연계와 장기적 방안으로 공인시험 도입이 가능하며, 다분야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육성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7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화 방안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법제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의 최적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있도록 공공건축가의 지위 및 권한 확보,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 지원방안도 제안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설립 방법과 센터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①건축기본법 개정, ②일반법 제정, ③별도 조직법 제정 방안 등 세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중 건축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1)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2)특수법인(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3)기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4)특정 기관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각 대안별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별로는 1차년도에서 설정했던 조직화를 위한 대안설정 기준인 7개의 원칙인 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조직효율성, 민관협력의 용이성, 입법추진의 용이성에 근거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장단기 최적안을 제시하였다.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대안별 비교

대안 비교 항목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1)	특수법인 (공익법인)으로 설립(2)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존기관을 지정 (3)	특정 기관에 권한을 위탁(4)	조직법 제정 (5)	일반법 제정 (6)
법적 통제력	강함	강함	보통	미약	강함	강함
범부처성	미약	미약	보통	강함	강함	강함
독립성	미약	보통	보통	보통	미약	미약
전문성	강함	강함	보통	보통	강함	강함
조직효율성	미약	보통	보통	보통	강함	강함
민관협력 용이성	미약	보통	보통	강함	강함	미약
입법추진의 용이성	보통	보통	강함	강함	미약	미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에 관한 구체적 정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관련사무 및 규정을 명시한 일반법 제정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공공건축 조성관련 포괄적 법제가 없고, 기존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공공성을 규정한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법률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동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건축가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건축에 관한 일반법을 새롭게 제정해 공공건축의 명확한 개념설정을 도모하고 공공건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으로서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권한 확보 방안,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별도의 업무단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기존 공공건축 행정절차에 공공건축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단기(기반구축단계), 중기(센터정착단계), 장기(지역센터 확대단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추진방안

구 분	단 기 (기반구축단계)	중 기 (센터정착단계)	장 기 (지역센터 확대단계)
근거법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정		· 별도조직법 제정 - 특별법에 의한 단독 법인 설립
조직형태	범부처형의 행정조직 산하 위탁		공공기관으로서 독립법인형태
조직구성	설립초기 14~15인 구성		40~50인으로 확대
지원대상	· 프로젝트 단위 40억 미만 지자체 사업 우선지원 · 프로젝트 단위 총 공사비 500억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 중앙정부 사업 및 40억 이상 지자체 사업 · 총괄계획가 파견 요청 지자체 ※ 단,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지원범위를 최소화		· 국가 차원에서 상징적이며 중요성이 인식되는 사업 · 다수의 지역 협의가 필요한 사업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	· 디자인프로세스 지원 운영 및 모니터링 · 지자체 총괄 공공건축가 파견지원 및 모니터링 · 공공건축 조성과정 DB 구축 사전준비 · 지역 지원센터 설립 지원	· 공공 및 외부전문가 협업 구성 컨설팅 · 지역 지원센터 설립 확산 및 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 · 공공건축 관련 통합적 DB 구축 · 매뉴얼 및 지침 개발보급 · 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한 홍보
지역 지원센터와의 관계	지원대상으로서 지역의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수직적 관계	역할분담에 의한 상호 협력관계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독립적, 협력적 관계
공공건축 지원센터 활용증진 방안	-	-	· 센터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융자심사 시 가점 부여 · 요청사업의 국비예산확보 인센티브 부여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7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7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8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0
1) 연구방법	10
2) 연구추진과정	12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5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5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15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16
3)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20
4)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	22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	23
1) 성격	23
2) 역할 및 기능	25
3.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29

제3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33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	33
1) 기획 및 설계단계_미국 설계이행지침 PDRI	34
2) 사업 전 단계(기획에서 유지·관리)_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40
3) 기획단계_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정비 기획서	50
4) 설계단계_영국 CABE의 『Design Review』	56
5) 시사점	59
2.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62
1) 총괄형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62
2)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87
3) 시사점	121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과제	125
1) 디자인프로세스의 총괄관리	125
2)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	128

제4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성과131

1. 시범운영을 위한 개요	131
1) 시범운영 필요성	131
2) 시범적용 대상 및 내용	132
3) 시범적용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모형	135
2. 공공건축가 지원에 따른 운영과정 모니터링	138
1) 영주시 공공건축가 지원	138
2) 평택시 공공건축가 지원	149
3) 수원시 공공건축가 지원	155
3. 시범적용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65
1)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의 시범 운영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65
2)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66
3) 공공건축가 참여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69

제5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171

1. 민간전문가 의견조사	171
1) 조사방법 및 개요	171
2) 참여주체간 수행업무 파악	172
3) 설계이행지침에 대한 의견	185
2. 지역건축가 FGI	189
1) 공공건축가 활용의 긍정적 측면	189
2) 공공건축가 활용의 부정적 측면	189
3) 종합의견 및 향후 개선 방안	190
3. 시사점 및 과제	191
1) 설문조사 결과 종합	191
2) 주요 문제점 및 과제	193

제6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195

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구축	195
1) 조직구성을 위한 기본방향	195
2) 조직체계	200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204
1) 지원센터 주요업무	204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10
3) 지원방법	212
3.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방안	214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단계별 지원방안	214
2)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234

제7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245

1. 공공건축지원센터 법제화 방안	245
1) 건축기본법 개정 방안	245
2) 별도의 조직법 마련 방안	254

3) 일반법 제정방안	257
4) 장단점 분석을 통한 법제화 방안 제시	260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265
1)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권한 확보	265
2) 기획업무를 별도의 업무단위로 정착	268
3)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	270
4) 증장기 추진방안	273
제8장 결론	277
참고문헌	280
Summary	283
부록1. 기획업무양식서 작성기준	286
부록2. 설계이행지침 운영기준	304
부록3. 디자인리뷰 운영기준	313
부록4. 민간전문가 활용현황 및 공공건축가 업무 적정성 파악을 위한 조사	316
부록5.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례 회의록	330

표차례

[표 1-1] 국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주요 조사내용 및 방법	10
[표 1-2] 국내외 민간전문가 운영 사례의 주요내용 및 방법	11
[표 1-3]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업의 업무범위	12
[표 3-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의 적용범위	34
[표 3-2] 미국 건축PDR(Building PDR) 평가부문 정리	35
[표 3-3] 교토시 공공건축부의 소속과의 주요 업무	41
[표 3-4]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개발 경과	42
[표 3-5]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개발방법 및 내용	42
[표 3-6] 어카운터빌리티 대상과 내용	48
[표 3-7] 공공건축디자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범위	49
[표 3-8] 관청영선부 세부 조직별 주요 업무	50
[표 3-9] 관청영선부 업무별 인원	51
[표 3-10] 기획서 시행판의 내용 구성	54
[표 3-11] 기획서 주요 내용	54
[표 3-12] 기획서를 활용한 단계별 주요 업무	55
[표 3-13] 학교시설 디자인리뷰 평가기준 사례	57
[표 3-14] 『Design Review』 제도를 통한 주요 자문내용 정리	58
[표 3-15]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7개의 거점사업의 내용과 관련부서	63
[표 3-16] 영주시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65
[표 3-17] 중앙부처 시범사업 별 민간전문가	68
[표 3-18] 영주시 민간전문가 주요 업무	68
[표 3-19] 영주시 공공건축가 참여 디자인시범사업	69

[표 3-20] 조제보건진료소 사업의 일정, 예산 및 공공건축가 역할	69
[표 3-21] 소롱보건진료소 사업의 일정, 예산 및 공공건축가 역할	71
[표 3-22] 건축가와 현장기술수준의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74
[표 3-23] 사용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 중심의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76
[표 3-24]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소통 부재의 구체적 사례	77
[표 3-25] 도시디자인팀의 조직체계	81
[표 3-26] 국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평균월급 기준	86
[표 3-27]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88
[표 3-28]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논의 내용	89
[표 3-29] 서울형 공공건축가 역할	89
[표 3-30] 설계운영사례의 사업일정 및 예산	90
[표 3-31] 설계업무범위 설정 미흡의 구체적 사례	92
[표 3-32] 불합리한 사업예산 편성의 구체적 사례	92
[표 3-33] 이해관계자간의 협의 및 소통 부재의 구체적 사례	93
[표 3-34] 중앙부처 시범사업 별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95
[표 3-35] 각 중앙부처 시범사업별 공공건축가의 호칭 및 역할	96
[표 3-3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선정기준	97
[표 3-37]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지원방안	99
[표 3-38]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보수운영 기준 예시	99
[표 3-39]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공공건축가 계약 및 근무형태	100
[표 3-4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역할, 자격 및 위촉방법	102
[표 3-4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기준	104
[표 3-4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자격요건 및 선정	105
[표 3-4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보수 및 근무 형태	106
[표 3-44] PM의 주요업무	108
[표 3-45] 컨설팅단의 주요업무	109
[표 3-46]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선정기준	112
[표 3-47] 중앙부처 시범사업의 공공건축가 활용 비교	115
[표 3-48] 『Enabling』 제도를 통한 지원업무 내용 정리	119

[표 4-1] 지자체 프로젝트 단위 시범적용 대상 비교	133
[표 4-2]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업의 업무범위	134
[표 4-3] 기획서 주요내용	136
[표 4-4] 설계이행지침 주요내용	137
[표 4-5]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단계별 역할	137
[표 4-6] 월림보건진료소 기획서 주요내용	140
[표 4-7] 문수보건진료소 기획서 주요내용	146
[표 4-8] 영주시 사업 관련 지원일정	148
[표 4-9] 설계이행지침에 의한 기획내용 리뷰	150
[표4-10]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사업 관련 지원일정	153
[표4-11] 디자인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와 경기도 공공건축가의 역할	157
[표4-12] 공공건축가가 제시한 설계기본원칙	159
[표4-13] 기획추진단 회의를 통한 사전기획 반영 내용	160
[표4-14]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	161
[표4-15]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 사업 관련 지원일정	161
[표 5-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71
[표 5-2] 각 단계별 주당 회의 회수 (회)》	174
[표 5-3] 총괄계획가의 사업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_기타의견	177
[표 5-4] 디자인검토위원의 사업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_기타의견	182
[표 6-1] 지원센터와 관련조직간 협력방안 정리	197
[표 6-2] 공공건축지원센터 인력운용(안)	203
[표 6-3] 해외국가별 주요 개발 매뉴얼	208
[표 6-4]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211
[표 6-5]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 단계별 주요 실시내용	215
[표 6-6] 기존 법에서의 기획업무와 연구제안에 의한 기획업무 내용의 비교	217
[표 6-7] 사업규모별 기획단계 업무	218
[표 6-8] 사업규모별 기획단계 용역 수행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역할	221
[표 6-9] 기획단계 설계이행지침 운영 항목	224
[표 6-10] 설계단계 설계이행지침 운영 항목	225

[표 6-11] 디자인리뷰 주요업무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디자인리뷰패널의 역할	229
[표 6-12] 공공건축가 선정방식 비교	240
[표 6-13] 국내·외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비교	242
[표 7-1]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247
[표 7-2]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249
[표 7-3] 유사기관을 지정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251
[표 7-4] 특정기관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253
[표 7-5] 가칭 공공건축진흥원법 제정안	254
[표 7-6] 가칭 공공건축진흥법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안	257
[표 7-7]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대안별 비교	260
[표 7-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안	261
[표 7-9] 공공건축가 활용 방안	272
[표 7-10]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추진방안	275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범부처성	23
[그림 2-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25
[그림 2-3] 민관협력형 조직으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26
[그림 2-4] 네트워크센터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27
[그림 2-5] 정보발신기지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29
[그림 3-1] 일반적 건축사업 조성과정에서의 PDRI 적용가능한 단계	38
[그림 3-2] 미국 PBS 기획단계(『Capital Program』)에서의 PDRI 제출단계	39
[그림 3-3] 교토시 행정조직 내의 공공건축부	41
[그림 3-4] 교토시 공공건축 프로세스디자인	47
[그림 3-5] 관청영선부 업무 프로세스	52
[그림 3-6]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영주시 조직운영	64
[그림 3-7] 디자인관련 사업 자문수행 과정	65
[그림 3-8] 영주시 디자인관련 사업 참여 민간전문가 관계도	66
[그림 3-9] 조제보건진료소 배치도	70
[그림 3-10] 조제보건진료소 평면도	70
[그림 3-11] 조제보건진료소 모형 이미지	70
[그림 3-12] 조제보건진료소 준공 이미지	70
[그림 3-13] 조제보건진료소 일정 및 참여주체	71
[그림 3-14] 소룡보건진료소 배치도	72
[그림 3-15] 소룡보건진료소 평면도	72
[그림 3-16] 소룡보건진료소 모형 이미지	72

[그림 3-17] 소릉보건진료소 준공 이미지	72
[그림 3-18] 소릉보건진료소 외부 전경	72
[그림 3-19] 소릉보건진료소 내부 이미지	72
[그림 3-20] 소릉보건진료소 일정 및 참여주체	73
[그림 3-21] 식재를 고려한 중정 계획	74
[그림 3-22] 콘크리트 마감되어 식재가 불가능하게 된 중정	74
[그림 3-23] 사선으로 계획된 출입구	75
[그림 3-24] 직선으로 변경 시공된 출입구	75
[그림 3-25] 조제보건진료소	75
[그림 3-26] 소릉보건진료소	75
[그림 3-27] 조제보건진료소	76
[그림 3-28] 소릉보건진료소	76
[그림 3-29] 현재 이용 중인 출입구	77
[그림 3-30] 건축가가 의도한 주 출입구	77
[그림 3-31] 버밍햄시 조직도	81
[그림 3-32] 기존 시정건축가와 현재 도시디자인단장 의사결정체계의 변화	83
[그림 3-33] 리옹시 조직도	84
[그림 3-34] 서울시 조직도	87
[그림 3-35]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조직	88
[그림 3-36] 2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89
[그림 3-37] 3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89
[그림 3-38] 설계 참여방식	89
[그림 3-39]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단계별 사업관련 주체	91
[그림 3-40]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단계별 사업관련 주체	91
[그림 3-4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참여주체간의 관계	98
[그림 3-42]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추진 절차	101
[그림 3-4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주체간의 관계	105
[그림 3-44]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절차	107
[그림 3-45]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참여주체간의 관계	112

[그림 3-46]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절차	113
[그림 4-1] 지원센터 시범적용 대상의 업무 추진	135
[그림 4-2] 월림보건진료소 위성사진	138
[그림 4-3] 모형사진-전경(Case Architects)	138
[그림 4-4] 모형사진-조감(Case Architects)	138
[그림 4-5] 월림보건진료소 세부 추진일정	139
[그림 4-6] 영주시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관계도	140
[그림 4-7] 문수면사무소 전경(Wonder Architects)	144
[그림 4-8] 문수면사무소 및 주변시설 위치(Wonder Architects)	144
[그림 4-9]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세부 추진일정	145
[그림 4-10] 팽성읍객사	149
[그림 4-11] 읍사무소 주차장	149
[그림 4-12] 읍객사 진입경로	149
[그림 4-13] 팽성읍사무소 세부 추진일정	149
[그림 4-14] 공공건축가 스케치	152
[그림 4-15] 기존 설계안	152
[그림 4-16] 수정된 설계안	152
[그림 4-17] 물체험관 부지	155
[그림 4-18] 물체험관 부지 주변환경	155
[그림 4-19] 수원시 물체험관 신축 세부 추진일정	157
[그림 4-20] 수원시 물체험관 사업의 각 단계별 참여주체 및 의사결정 주체	158
[그림 4-21] MA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158
[그림 5-1] 시범사업 이전 총괄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 존재 여부 (단위: %)	172
[그림 5-2] 기존 총괄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와의 협력 정도 (단위: %)	172
[그림 5-3]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존재 여부 (단위: %)	173
[그림 5-4]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반영 정도 (단위: %)	173
[그림 5-5] 총괄계획가들의 업무 단계별 참여 정도	173
[그림 5-6] 기획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175
[그림 5-7]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175

[그림 5-8]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의 업무 일관성 정도	176
[그림 5-9] 전반적인 사업 참여 과정에서 문제점의 수준	177
[그림 5-10] 기획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수행 업무의 중요성 수준	178
[그림 5-11]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수행 업무의 중요성 수준	178
[그림 5-12] 시공 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수행 업무의 중요성 수준	179
[그림 5-13] 총괄계획가의 바람직한 지위 형태	179
[그림 5-14] 총괄계획가의 보수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180
[그림 5-15] 디자인검토위원들이 기획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180
[그림 5-16] 디자인검토위원들이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181
[그림 5-17] 디자인 검토회의 운영의 적정성 평가	181
[그림 5-18] 기획단계 업무와 설계단계 업무의 일관성 정도 평가(디자인검토위원)	181
[그림 5-19] 전반적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 디자인검토위원 평가	182
[그림 5-20] 기획단계 디자인검토위원의 수행 업무 중요도 인식	183
[그림 5-21] 계획·설계·사후설계관리 단계 디자인검토위원의 수행 업무 중요도 인식	184
[그림 5-22] 디자인검토위원의 적정 보수 수준 (단위: %)	184
[그림 5-23] 사업 진행 시 설계이행지침의 필요성 인식 수준 (단위: %)	185
[그림 5-24] 사업진단기준 측면에서 필요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	185
[그림 5-25] 디자인 기준 측면에서 필요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	186
[그림 5-26] 사업 수행 방식 측면에서 필요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	186
[그림 5-27] 사업 진행 시 설계이행지침의 필요성 - 디자인검토위원 평가	187
[그림 5-28] 사업진단 기준 측면의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	187
[그림 5-29] 디자인 기준 측면의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	188
[그림 5-30] 사업 수행방식 측면의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	188
[그림 6-1]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관계도	196
[그림 6-2]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관계	198
[그림 6-3] 지원센터와 법정 및 비법정기구와의 관계	200
[그림 6-4]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201
[그림 6-5] 기획업무 지원 절차	220
[그림 6-6] 사업규모 별 기획단계에서의 공공건축가 개입 및 역할	223

[그림 6-7] 디자인리뷰 절차 (기본설계단계)	228
[그림 6-8] 사후설계관리 절차	232
[그림 6-9] 행정절차에 따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233
[그림 6-10] 총괄형 공공건축가 지원방법	235
[그림 6-11] 지자체 디자인 총괄관리자로서 공공건축가의 역할	235
[그림 6-1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지도	236
[그림 6-13] 시범사업 예시_부산 중구 영주동	236
[그림 6-14]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 지원방법	238
[그림 6-15] 지자체 총괄 및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 공공건축가 업무체계	239
[그림 6-16] 행정체계 내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공공건축가의 위치(안)	241
[그림 7-1] 가칭 ‘전략기획단’ 조직구성(안)	271
[그림 7-2] 타당성조사 절차	271
[그림 7-3]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추진방안	275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 및 지역자산으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 부각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대신하고 있는 지금, 도시의 장소가치를 결정하고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¹⁾. 공공건축의 디자인가치를 강조하며 품질향상에 주력하였던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우수한 공공건축 사례가 민간부문 건축의 품질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건축·도시 공간의 환경수준을 한 차원 높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²⁾.

이와 같이 공공건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구이자 다양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기반’ 이자, ‘집합적 삶의 차원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축물’³⁾로서 사회문화적 자산으로

1) 우리나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건축은 도시의 집합적 환경수준과 질을 결정’하며 ‘한 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2008. (제주일보, ‘시민과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 공공건축’ 2010.03.23)

2) 공공건축의 가치와 직결되는 안정성, 보건, 문화와 환경, 교육, 기반시설의 5개 항목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고 있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평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위에 랭크되는 멜버른, 비엔나, 밴쿠버, 토론토 등의 도시는 공공건축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 3위에 랭크된 캐나다 밴쿠버는 문화와 환경 분야에서 100점을 획득하였으며, 종합 4위인 토론토도 97.2점을 획득(EIU 『A Summary of the Liveability Ranking and Overview』 (8월, 2011), 서수정외, 201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2.

인식되어 왔으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적 공간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며 지역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이다. 지역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조성되어야 하는 공공건축은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소통 행위에 의해 산출되는 공공영역(하버마스, 1966)으로 계획되어야 하지만 조성과정에서는 공공성의 개념보다 기능적 요구에 충족하거나 국공유자산의 개념으로서의 관리대상으로만 인식되었으며, 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입지에 조성되는가 하면, 지역주민에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계획되는 등 공공적인 가치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낮은 디자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전체 건축물 신축행위 가운데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건축 디자인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지역경쟁력 및 이미지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건축·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관리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축 자산 증대

2009년 기준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국유재산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며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은 24조원 규모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공공분야의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14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2011년 중앙정부 공공건축 관련 전체예산은 4조 7,370억 원에 달하였으며,⁶⁾ 신축·증축·이전 관련 예산이 3조 243억 원,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1조 7천 127억 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등을 포함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공공건축 관련 예산은 약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조명래, 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설계포럼 자료

4) 엄철호외, 2010,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 2011년 공공건축 관련 예산은 2008년 3조 1,094억 원, 2009년 3조 4,795억 원 규모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

6) 서수정외, 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1차년도), p.45-46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존 행정인력의 한계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사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의 자산규모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⁷⁾. 특히 공공건축의 시공 및 유지관리측면에서 비용절감, 시설물 이용·사용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초기 사업기획⁸⁾은 건축기본법에 기획제안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2009년 국토해양부 고시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기준(디자인 프로세스 지침)’ 및 2010년 건설기술관리법의 기본구상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 기본구상 업무에 기획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예산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 행정절차에서 독립된 업무로서 기획업무의 정착은 미약⁹⁾한 실정이다.

공공건축의 기획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담당자들은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기획과 프로그램 구상, 디자인원칙에 입각한 사업목표 수립 등은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기획업무 수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¹⁰⁾.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체계 상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건축 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두는 것도 쉽지 않다¹¹⁾.

7) 이상민(2008), 염철호(2009), 김진욱(2010), 서수정(2011) 등은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 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건축 기획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8) 공공건축의 입지, 용도, 규모 예산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9) 일선 지자체 공공발주 담당자들은 대형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기획에서 사업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3일 이내에 결정되므로 기획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차년도)에서 개최한 지자체 워크숍 토론결과, 2011.12.23)

10)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기획업무가 사업의 최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0.8%가 ‘높음’으로 응답하여 다수가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과중업무 등으로 인해 ‘기획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에 55% 공감하고 있었다.(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차년도), pp.130~131.)

11) 공공건축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조사 결과, 15부 2처 18청의 총 40개 기관 중 절반이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단위 이상 조직을 보유한 경우는 1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도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5인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공공건축 관련 업무 수행자 설문조사 결과 중앙 및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부서의 평균 건축직은 1.1인으로 나타났다.(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차년도), pp.110.)

또한 부처별 특성과 지자체 규모에 따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이 일회적인 업무에 국한될 수도 있고, 몇 년 단위로 발생하는 제한적인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아 모든 부처와 지자체마다 전담조직을 두는 것도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디자인전담조직은 '도시디자인과'나 '경관과'와 같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비롯하여 경관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이나 일회적인 디자인개선사업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으며, 지자체내 수평적으로 독립된 부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공공건축 관련 담당은 지자체 내에서도 시설유형별, 업무(기획, 발주, 운영관리 등)에 따라 담당부서가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해 전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는 해마다 일괄대행서비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달청 역시 10인 내외의 건축행정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업무까지 감당할 만한 인력확보는 미흡하다. 또한 조직설립의 목적 자체가 조달업무에 두고 있어 기획업무지원이나 공공발주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2011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준비하면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근거¹²⁾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 국토해양부 국정업무 보고에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지자체 공공건축가 지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시범 적용을 통해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기획행정 및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에서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이 제시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체계적인 조직이나 인력,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자문이나 일부 사업에 제한공모자격으로 참여시키고 있어 중간지원기능으로서 공공건축가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치사슬(Value Chain)에 기반한 기획업무 강화 및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지원 조직 필요하다.

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회자본형성의 토대로서 공공건축의 통합적 관리 필요

한편 공공건축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단순한 공간관리 차원의 시설기준만이 제시되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필요시설 및 기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배제한 채 타 지역과 경쟁적으로 시설유치를 추진하여 실제 지역인구 규모에 비해 과대한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자체 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시설의 재활용 등을 통해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도모해야하나 소유 및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 단위의 공공건축 현황 및 이용 실태의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건축의 합리적 조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형성의 토대로서 공공건축 자산에 대한 조성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수요 파악 등을 통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 및 집행관리, 물량위주의 단위시설물 확충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기획·집행 및 품격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전문가 주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질적 향상과 공공발주 프로세스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화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기존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범부처 차원의 외각 지원조직인 공적 기능의 코디네이터 조직으로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원센터의 업무로는 지자체 및 공공건축 관련전담 부서가 없는 중앙부처 공공건축 관련사업 기획업무지원, 디자인 프로세스관리, 공공건축 DB구축, 공공건축가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1차년도를 통해 제안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기존 행정조직 체계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지자체를 비롯하여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디자인까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구성방안과 운영체계, 공공건축가의 역할모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성과에 대한 환류과정으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기능과 역할, 업무에 대한 시범적용과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2차년 연구로 1차년도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검증과 환류를 통한 기존 행정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 및 지자체 정책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지원을 포함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등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기존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행정담당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영역에 대한 지원 및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조력자(enabler or facilitator)로서 공공건축가의 위상과 권한, 책임을 설정하고 기획업무지원 및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 운영기준(toolkit) 마련을 통해서 거버넌스형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제도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안)을 제안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이외에 건축기본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관련 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1차년도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공공건축 조성절차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외부 지원조직으로서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영국 CABE, 프랑스 MIQCP, 핀란드 국유재산관리소, 미국 PBS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종합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방안과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수행하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기획업무 지원과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디자인리뷰,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침서 제공 및 활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지원센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 조성 운영실태조사와 공공건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를 비롯하여 각 중앙부처의 공공건축 조성프로세스와 전담인력, 운영체계 등을 조사하여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인구규모별 지방자치단체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공공건축 조성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전담인력과 운영체계 등을 조사하여 공공건축 조성 절차상의 한계,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1차년도 연구성과로는 국내 공공건축운영사례, 해외 사례 분석,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법률적인 검토과정도 거쳤다. 지원센터의 성격에 따라 ①법적 통제력, ②범부처성, ③독립성, ④전문성, ⑤조직 효율성, ⑥민관협력의 용이성, ⑦입법 추진의 용이성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범부처형태의 지원센터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축기본법 개정과 건축서비스진흥법 제정(안)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지원센터의 역할, 업무범위, 운영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2차년도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라고 판단된 지자체 공공건축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실현가능한 법안 제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의 기본전제가 되는 성격과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제시하였다.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디자인전담조직 구성 지원, 공공건축 통합 DB구축, 홍보 및 각종 매뉴얼 제공 등의 지원업무와 공공건축 지원기관으로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기획업무 컨설팅 및 위탁수행, 설계이행지침 · 디자인품질평가지표 · 디자인리뷰 운영, 설계공모사업 대행 등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국내·외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 및 민간전문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일본 관청영선부의 기획서,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미국 건설산업연구소의 PDRI, 영국 CABE의 Design Review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민간 전문가 활용에 대한 국내 사례는 민간전문가 활용이 행정체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주시에 대한 심층조사와 공공건축가 운영 초기단계에 있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및 중앙부처 시범사업에서 민간전문가가 활용되고 있는 시범사업 등을 조사하였고 해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지자체 단위에서 민간전문가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중앙부처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디자인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검토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민간전문가 지원을 시범적용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 사업 중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운영, 디자인리뷰 실시 등의 업무가 연구기간 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시범적용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방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인력구성 및 운영전략, 소요예산 추정 등 지원센터 운영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조직체계와 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지원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법제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의 최적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있도록 공공건축가의 지위 및 권한 확보,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지원방안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 국내외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및 공공건축가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1차년도에는 중앙부처 차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되었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제도 및 정책 등의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건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도적 수단을 통해 합리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표 1-1] 국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주요 조사내용 및 방법

	일본		미국	영국
대상	관청영선부	교토시 공공건축부	PDRI	CABE
내용	기획서의 내용 및 운용방안	공공건축 디자인지침 개발 배경 및 사업 단계별 운영방안	지표내용 및 운용방안, 절차, 적용범위 등	민간전문가 선정·관리체계, CABE의 업무범위 및 역할
방법	문헌조사, 담당자 e-mail 질의회신	문헌조사, 담당자 e-mail 질의회신	문헌조사, 담당자 전화 인터뷰	문헌조사, 담당자 e-mail 질의회신
활용	기획서 양식 작성 시 참조	디자인프로세스 절차 구성 시 반영	설계이행지침 체계 설정 시 참조	디자인리뷰

또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공건축가 운영사례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역전체의 통합적 공공건축 관리차원에서 공공건축 전담부서를 두고 시정건축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와 영국 버밍엄, 프랑스 리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개별사업단위에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사업”을 조사·분석하였다.

[표 1-2] 국내외 민간전문가 운영 사례의 주요내용 및 방법

	총괄형		사업형	
	영주	해외사례	서울	중앙부처
조사 대상	민간전문가 5명 및 행정 담당자 4명 ¹³⁾	담당자 및 관계자	공공건축가 3명	사업담당자
내용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 및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례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 및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례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
방법	심층면담	심층면담,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심층면담	관련 문헌 및 사업보고서 분석, 전화 인터뷰 및 심층면담

□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내용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서 제안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주로 지자체 공공건축가 지원 및 기획지원,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등이며, 이러한 업무가 기존 행정 조직과 행정운영과정에서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 및 행정절차와의 부합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적집단면접 방법에 의한 전문가 면담(FGI)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등 공공발주 사업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64인을 대상으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역할,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¹⁴⁾

□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범적용 운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적용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과 기존 행정절차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연구결과와 2차 연구에서 도출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와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차년도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시범적용(Test Bed)과 모니터링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13) 민간전문가: 도시디자인관리단장 1명, 공공건축가 4명, 행정담당 : 도시디자인과 담당 4명

14) 협동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결과로 제시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공공건축가 운영과 업무범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사업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개별사업의 사업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설계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기획업무 지원, 디자인리뷰 수행과 기획서 작성과 설계이행지침 이행 등을 실시하였다.

[표 1-3]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업의 업무범위

구 분		수원시	평택시	영주시
기획 단계	사전기획서 작성	●	—	—
	과업지시서 작성 검토 및 지원	●	—	—
	본기획서 작성	●	—	—
	설계이행지침	●	—	—
	최종 기획서 작성	●	●	●
설계 단계	디자인리뷰회의 운영	—	●	●
	디자인리뷰결과서 작성	—	●	●

또한 행정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작성한 기획서 및 디자인리뷰 결과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응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충실히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범적용을 통해 도출된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운영기준을 국내현실에 적용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는 환류과정을 거쳤다.

2) 연구추진과정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용모델에 대한 시범 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과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력연구 및 법제연구원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다학제적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
3.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공동체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건축의 사회적, 생활공간적, 문화적 공공성이 부각되었으며,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폐쇄적으로 조성되었던 공공건축의 디자인과정은 시민의 삶을 담아야 하는 생활의 그릇으로 그 기능이 부족하였고, 이에 공공건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공건축에서의 공공성 개념은 공동성(common),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개방성(open), 공개성(publicity)을 의미한다. 공공건축은 공공적 기념성과 상징성을 내포하며, 개별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집합적인 환경수준은 도시문화, 건축문화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건축은 도시라는 공간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합적 삶의 차원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축물’임과 동시에,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선도’하고 ‘개별화된 도시적 삶을 소통하는 공동체가 민주적인 것으로 이끄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 (조명래, 2007)이다. 이렇듯 집합적 삶을 담아내는 건축물로서의 공공건축은 조성과정에서도 그 공공성의 개념이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공공성은 각기 다른 사회구성원 사이의 말과 행위 즉, 의사소통 행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 공공영역은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가능하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성이 전제되는 곳¹⁵⁾’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결과물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닌 공공성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시민참여에 의한 개방적인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통해 공공건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동체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이러한 공공성 회복과 지역자산 가치증진에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유사사례 조직인 영국 CABE에서도 공공건축을 지역자산으로서의 공공적 가치를 지닌 시설로 강조하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의 정의와 요소에 대해 ‘사용자들의 향유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PDRI 디자인기준도 ‘지역사회에의 기여’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수행되는 등 공공건축의 지역에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역시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가치 제고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

□ 디자인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회복은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디자인 가치는 시각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의 공적인 관점에서 공공건축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좋은 디자인은 인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지속가능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Plater-Zyberk, 1994). 따라서 좋은 디자인은 시각적, 기능적, 사회적, 환경적 척도의 의미를 모두 갖추는 것이며(RTPI, 2002, p.46), 디자인 가치는 단순히 계획 체계 내 고려사항이 아닌 주된 목표로서 인식된다¹⁶⁾.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좋거나 혹은 나쁜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좋은 디자인의 핵심가치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15) 이진후·태정호 역(1996), “인간의 조건”, 파주:한길사, pp.102-112.

16) Eric Dawson & Marilyn Higgins, How Planning Authorities Can Improve Quality through the Design Review Process: Lessons from Edinburgh, Journal of Urban Design, Vol.14, No.1, 101-114, February 2009

출발한다.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우수한 디자인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장소 제공에 기여하는 것이며,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디자인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PPS1 34항). 또한 CABE는 발주자를 위한 지침(Creating excellent buildings-A guide for clients, 2010)에서 디자인품질의 세 가지 측면으로서 지역성 고려, 이용자를 배려한 좋은 환경의 제공, 건축적 디테일의 가치를 제시하였다.¹⁷⁾ 공공건축지원 센터의 역할을 설정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광역의 의미에서 디자인 가치 제고는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 (지역적 고려) 공공건축물의 주변 가로환경, 건물 및 지역문화에 대한 고려와 지속개발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숙고
- (개인을 고려한 사항) 시설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사용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
- (건축적 디테일) 자연채광의 활용, 적합한 환기 시스템 사용 또는 시공의 수준 높은 마감 등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세스 정착

공공건축의 공공성 회복과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관주도의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었던 공공건축 조성과정인 디자인 가치를 담보한 프로세스의 관리로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은 그동안 디자인 가치보다는 일반 물품생산과 같이 행정의 합리성, 객관성을 중시하는 행정주도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기획업무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단계별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관행적인 설계발주 업무와 시공, 준공 후 시설사용자에게 이양되는 기능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디자인 가치를 중심으로 기획에서 설계, 시공, 공공건축물의 내부 준공 및 입주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총 소요시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 프로세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17) CABE, 2010.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 Why insist on design quality? 내용 요약정리

□ 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주도-행정지원’ 프로세스 정착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첫 관문인 기획업무는 단순 행정업무에서 ‘전문가주도-행정지원’ 프로세스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또는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발주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업무가 예산확보를 위한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획업무는 빈번한 설계변경과 예산변경, 과도하거나 필요조건에 충분치 못한 예산 배정에 의해 디자인가치 저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순환보직에 의한 담당자 노하우 축적 부족 등 관료적 행정체제로 인해 초기 기획업무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기획업무는 과업의 목표와 설계방향, 유지·관리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설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자 예산낭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단위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획업무는 사업 필요성, 타당성, 적정한 예산계획, 발주방식 결정, 프로그램 기획 등 건축가 뿐 아니라 회계, 사업성 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야 전문가간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함으로써 공공건축 조성업무를 지원하고자 한다.

가치사슬(value-chain)에 기반한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는 기획업무 초기부터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건축 사업 특성상 내부인력만으로 기획단계 업무가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통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디자인 가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좋은 공공건축 디자인을 위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앞서 강조한 가치사슬에 기반한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발주자의 역량은 공공건축의 공공성 및 디자인 가치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발주자는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지도력의 발휘와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전문적 지식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¹⁸⁾

18) CABE, 2010.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 Principles of being a good client 내용 요약정리

영국 CABE에서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자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주자가 갖추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공공건축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의 지도력 발휘(strong leadership)

- 사업의 명확한 목표설립과 관련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공공건축물 발주청, 프로젝트 파트너 및 기타 참여 주체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장·단점 및 필요 사항과 욕구 파악
- 우수한 공공건축물 사례의 답사 등 기존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성공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준비(good organisation)

-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법률적 맥락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극대화
- 사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며, 최우선순위의 목표들이 달성되기 위한 소요예산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수립
- 공공건축물 조성의 모든 단계에서 디자인 품질이 보장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각 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기준 유지
- 공공건축물 조성의 총 소요시간, 디자인 품질, 예산에 대한 고려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사업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을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인식

■ 전문적 지식 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sound advice & informed decision making)

- 예산 소비 및 법률적 사항으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의 방지를 위해 사업에 적합한 조달 계약 방식 선정
- 외부 인력지원을 통해 발주청 전담조직의 전문능력을 향상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품질 관련 및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
- 공공건축물의 조성단계별 진행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공공건축물 발주자는 궁극적으로 디자인프로세스 전 과정을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행하는 사업의 결정적 주체로서 사업전반에 걸친 총지휘관이다. 이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발주자가 공공건축 프로세스를 관리할 경우, 장소 만들기로서의 공공건축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발주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공공건축가가 발주자와 함께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before you star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목표 및 비전 수립, 외부 자문위원 선정, 발주청 내 전담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수행, 전담팀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방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입주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계획 등에 관하여 준비
 - (build an in-house team) 발주청 조직 내 보유한 전문적 기량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밝혀내며, 이를 감안하여 사업에 가장 적합한 전담팀 설립
 - (do a feasibility study and prepare a business case) 타당성 조사는 외부업체에 의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예산안 수립 병행
 - (develop and test the outline brief) 준비단계에서 수립되었던 사업 목표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기초 및 전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개요 작성
 - (work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 project's location) 입지 선정은 향후 최종성과물의 지속 개발가능성과 사회적 및 경제적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규모, 형태, 장소성, 안전성 등 다방면적인 검토 수행
 - (select the procurement route, contracts and delivery team) 조달업무 계약 및 발주방식은 공공건축 사업 성패의 큰 요인이므로 개별적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 선정
 - (participate in the design stage) 발주청은 설계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설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설계안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에 적용되는 건축 법률적 사항의 엄수 여부 확인
 - (stay involved during construction) 시공단계에서도 디자인 및 시공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공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예산 조정에 따른 디자인 품질 저하에 특히 유의하여 사업 진행
 - (prepare for occupation) 발주청은 시설 입주의 순조로운 진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설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 ※ 출처 : CABE, 2010.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 The client's role throughout the process 내용 요약정리

3)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 칸막이식 행정에서 개방적인 행정체계 마련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한 통합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칸막이식 행정에서 벗어나 부서c간 협력과 소통에 의한 개방적인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칸막이식 행정은 다양한 하부조직 단위 간에 행정업무의 분리를 통한 조직 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보장에는 유용하나 기획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일관된 디자인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하는 공공건축 조성업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칸막이식 행정은 업무의 기능적 분화라는 순기능 보다는 업무의 중복과 단절로 인한 정책집행의 어려움, 재정의 낭비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획단계 업무가 전체 디자인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서 간 정보공유나 소통의 단절로 인해 기획단계 이후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업무가 상호 협조적인 업무로 수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단절은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에도 장애를 초래한다.

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개방적인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조직의 성격상 모든 업무를 개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디자인프로세스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개입에 의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지원프로세스와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는 각종 법정, 비법정 행정절차의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소통에 의한 사회적 공간 창출 기반 마련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기획업무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 유지·관리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며, 공공건축의 우수한 디자인 품질 확보를 위해 각 단계별 관계자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공공의사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자원의 낭비, 정책실패, 사회적 혼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간 합리적인 기획과 의사결정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선 기획업무 초기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수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와 소통에 의한 거버넌스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그 자체가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시설 관리자, 사용자, 조성주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단계부터 의견수렴과 소통, 합의형성과정을 거쳐야 조성 이후 유지관리까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해 디자인리뷰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디자인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계획체계에서 디자인리뷰의 역할은 개발기준을 향상시키고 빈곤한 건축물 설계를 방지하여 디자이너가 질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공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선축된 대표에 의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끌어 전문가와 비전문가적 취향사이의 갭을 연결시키는 역할(Eric Dawson, 2009)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디자인리뷰는 설계담당자 이외에 설계, 경제, 환경,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장소 가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4)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

□ 기존 공공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통합적 DB 구축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간, 부처간 흩어져 있는 공유자산에 대한 통합적 DB구축을 통해 지역의 공공자산으로서의 공공건축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공공건축과 중앙정부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축자산을 장소단위로 통합하고 관리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시 기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수요, 인접지역에 건설된 공공건축 조성현황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과다한 설계, 중복투자의 문제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통합적 DB구축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요한 업무로서 인식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공공건축 재고와 신축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시설의 재활용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장기적인 업무로 정립할 수 있다.

□ 공공건축 조성과정 및 구체적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DB구축으로 타 사업에 참조선례 제공

공공건축의 DB화는 현존하는 시설의 관리 뿐 아니라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공건축 조성 전 과정에서 수집된 현황조사, 건축물 개요, 설계내역, 예산 배정, 운영 프로그램 등 상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시 참조 선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건축 및 도시 관련 직종이 부재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축 사업 추진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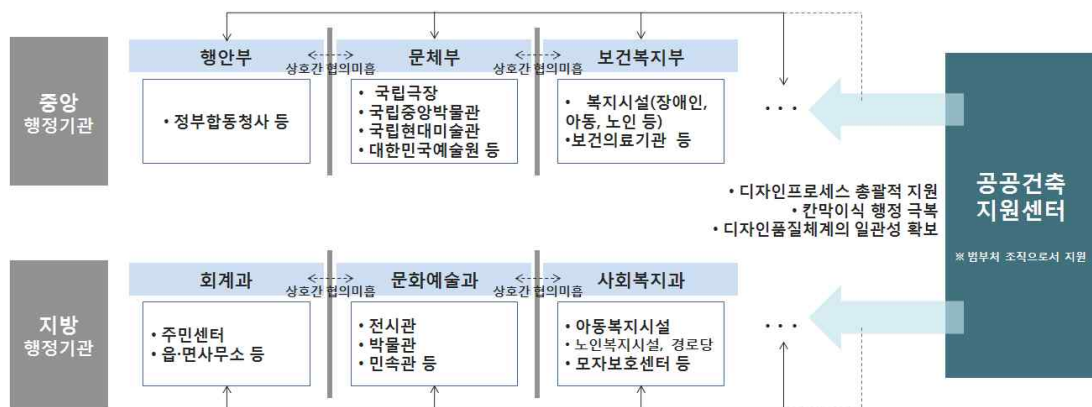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안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격

□ 범부처성

공공건축의 조성 및 관리는 특정 부서 및 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중앙과 지자체 행정 조직체계 모두 유사하게 수직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 유형별로 담당 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의 재정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지자체 사업일수록 중앙부처와의 수직관계 형성과 밀접하다. 이러한 수직적 행정조직체계에 따르는 한계는 관련 부서간 협력 미흡, 업무 중복성 및 지연,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사업내용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저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개입하고 지원을 수행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전담조직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 차원의 조직은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과 디자인품질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DB구축 시행도 용이하게 하는 등 공공건축 품질의 총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건축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범부처성

□ 독립성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범부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공공건축가 개인은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해 소신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산 사용과정에서 행정의 개입으로 디자인 조정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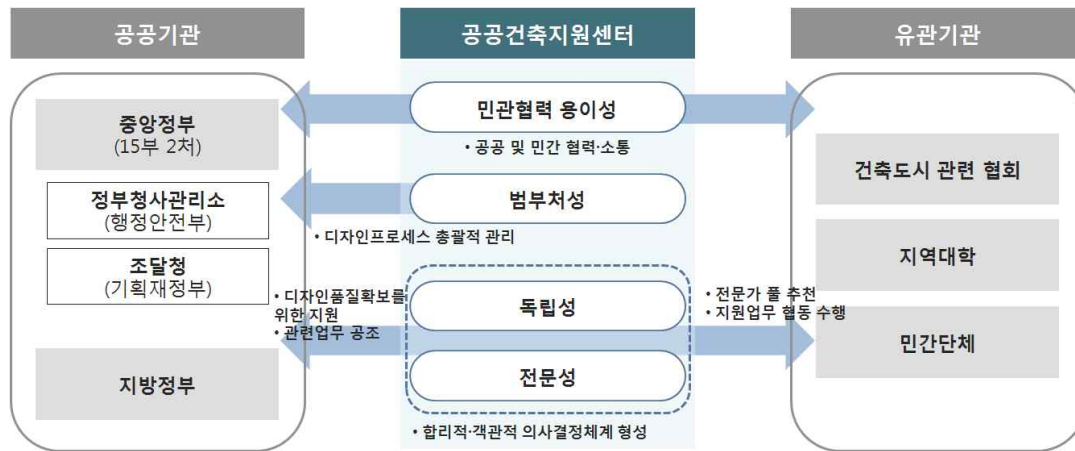
□ 전문성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에 기반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건축관련 전문성과 더불어 기존 행정절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디자인 품질 개선을 요하므로 공공발주사업 관련 법적, 제도적, 행정절차 측면의 전문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건축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합리적 예산의 활용, 일정 추진, 준공 후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행정적 전문성을 갖추어 지원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민관협력의 용이성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향상은 프로젝트 성격과 유형에 따라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인력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에는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각기 필요한 전문분야가 다르므로 모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공공건축지원센터만으로는 복잡한 공정과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공공건축 관련 조직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민관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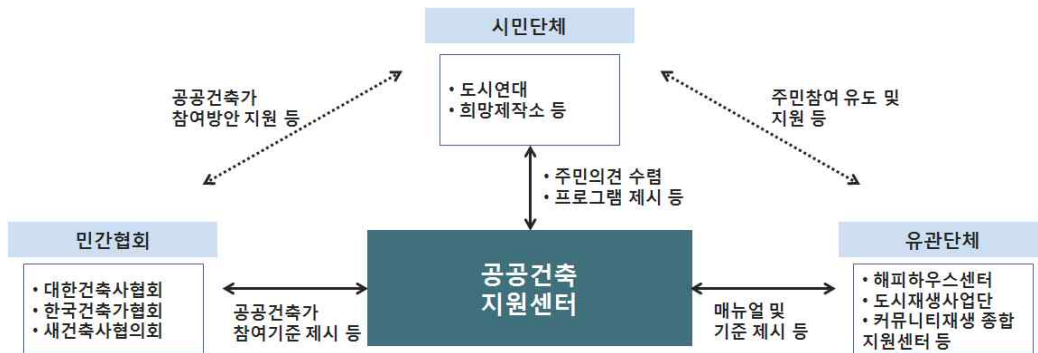
[그림 2-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2) 역할 및 기능

□ 민관협력형 지원센터 기능 - 행정기관의 조력자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가치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공공건축이 지역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생산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행정절차 위주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주도의 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문가 지원 체계가 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은 모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행정운용의 재정여건, 인력충원의 한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조직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업무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행정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고자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행정기관의 조력자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 기관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전제로 공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기획업무, 디자인리뷰 등과 같은 개별업무가 이루어지는 디자인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행정-민간조직간 코디네이팅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 민관협력형 조직으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의 허브(hub) 기능 - 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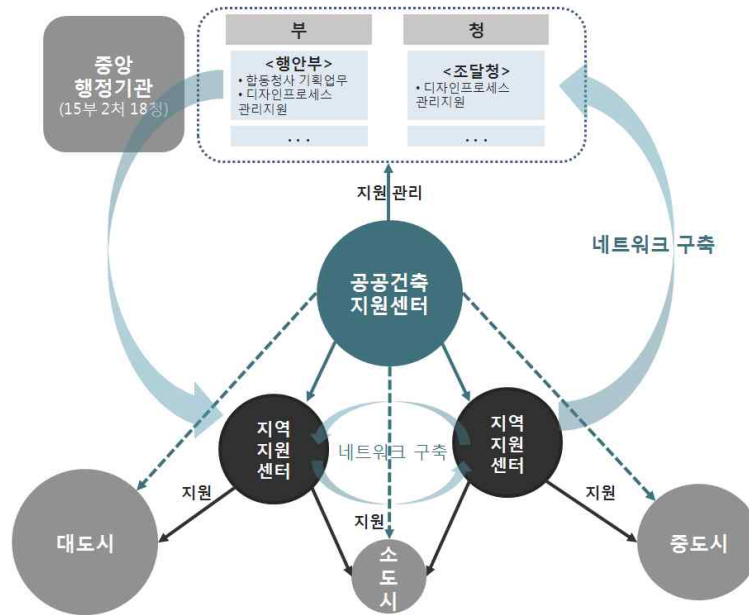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네트워크센터로서 행정조직간의 연계, 민간조직 및 전문가간의 연계, 지역지원센터간의 연계를 모두 도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절차에서 거쳐야 하는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공공 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허브로서 기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상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며,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조직과 관련하여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기지로서 그 역할이 정립된다. 공공건축가는 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건축도시 관련 협회, 학회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전국단위의 인력과 우수한 신진건축가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 단위의 경험을 축적한 공공건축가들이 향후 지자체 총괄코디네이터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 기여하며, 지자체 디자인 전담팀과 총괄 코디네이터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자체 시정건축가, 공공건축가, 디자인관리단장 등 다양한 총괄 코디네이터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 정보 등을 공유하여 공통의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공공건축가 스스로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센터로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관리체계 확산을 위해 향후 지역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며 지원센터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업무 노하우 축적과 체계적인 사업정보 관리를 통해 전문가 지원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급하며 개선시키는 중앙조직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림 2-4] 네트워크센터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 전문기관으로서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기능 - ‘전문가 주도-행정지원형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발주기관이 개별 프로젝트의 제약과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성과물을 담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전문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전문가의 개입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첫 단계인 기획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획단계가 사업의 타당한 목표 설정, 다양한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디자인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발주방식 등을 결정짓는 주요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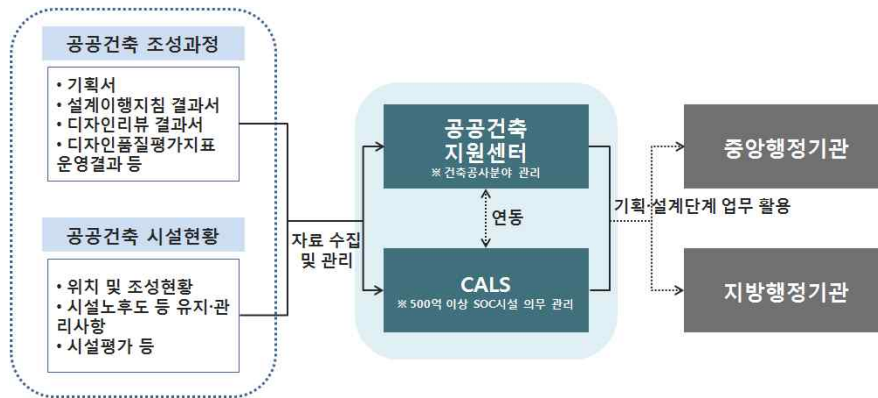
예산과 전반적인 방향이 설정되므로 건축과 행정의 균형 잡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기획업무 이후 설계, 유지·관리단계까지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사업방향으로 진행됨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주도의 업무수행체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장기적 시간을 소요하고 발주기관의 내·외부적 요건에 의해 변동이 많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전문가 주도의 디자인관리체계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특히, 예산 및 일정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여러 제약에 의해 당초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진행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목표 설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개입을 보장하고 향후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다양한 여건 변동 속에서도 디자인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정보발신기지로서의 기능 - 홍보와 DB운영 주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유형 및 참여주체별 다양한 매뉴얼과 가이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보발신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건축에서의 우수한 디자인이란 시설 이용자의 요구 수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지역 정체성 등의 요소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며 이해관계자들간 공유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건축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가 정착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역할 정립, 업무수행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건축 관련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한 모든 정보가 지원센터를 통해 수발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공공건축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현재 지역 및 발주주체별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공공건축 DB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민간전문가와 행정담당자 모두 유사용도 및 규모 사업 추진 시 용이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5] 정보발신기지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3.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지위 확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범부처의 독립적 성격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공, 민간조직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객관적인 설립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건축서비스진흥법(안)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별도의 규정으로 반영하였으나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안을 재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상시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함께 DB구축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상주 인력이 필요하므로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 민간전문가 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수단확보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은 행정적 판단과 건축적 전문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행정절차와 전문적인 판단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공건축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디자인품질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정 주체에 의해 사업진행과정이 편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툴(tool)의 활용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설계이행지침, 디자인

품질평가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양한 톨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존 행정조직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업무가 최종성과물 디자인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 및 체계와의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건축가는 지원업무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업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기존 행정체계 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건축가의 업무가 기존의 공공건축 관련 전문조직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체간 역할, 업무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지원업무가 단순히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 담당자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존 행정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원센터는 행정담당자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산계획, 설계품질 관리 등 지원이 시급한 업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적정히 대응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디자인 프로세스 정상화를 위한 기획업무의 독립적 업무단위 설정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단순 행정절차로 수행되고 있는 기획단계를 사업의 종합적인 여건과 시설 유지·관리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지선정, 프로그램 기획, 설계원칙 수립 등과 같은 업무는 사업의 디자인 품질과 설계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나 행정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설계 품질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획단계의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과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획업무를 별도의 사업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규모에 따른 기획업무범위와 프로세스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설정

공공건축가 지원업무의 실효성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업무 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 지침과 같은 업무의 시범적용을 통해 기획업무 지원 성과를 검증하고, 기획업무 내용의 피드백을 통해 협력형 설계 도모를 위한 디자인리뷰 운영, DQI와 같은 톨의 운영방안이 연계되는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선도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업무 간 연계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공공건축가의 적정 업무범위 및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고 정제될 수 있다.

□ 공공건축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보급방안 설정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조성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와 공공건축의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자료 축적을 통해 정보발신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적으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기획서, 디자인리뷰 운영 결과서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이루고 공공건축 조성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향후에는 핀란드의 국유재산관리소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스톡(stock) 관리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정보발신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련 통합적 DB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는 필수적이며, 별도의 연구를 통해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행정조직,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련 정보를 보급하고 우수한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홍보업무 등 장기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
2.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3. 시사점 및 과제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품질은 내실있는 기획에서부터 우수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 전반에 걸친 디자인프로세스의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도록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제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일본 관청영선부의 기획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자가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한 미국 PDRI, 사업 전 단계에 있어서의 목표 및 관계자의 업무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전문적인 설계안 검토를 통해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는 영국 CABE의 『Design Review』 등이 있다.

국내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의 공공건축사업 정비에 있어서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각각의 운영 사례는 기획 및 설계 등의 일부 단계에 특화되어 활용되거나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디자인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적용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의 적용범위

단 계	미국 설계이행지침 PDRI지표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일본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정비 기획서	영국 CABE의 Design Review
기 획	●	○	●	
설 계	○	○	○	●
시 공		○	○	
유지·관리		○	○	

● 주 업무 단계(작성 및 적용) ○ 활용가능 단계(적용)

1) 기획 및 설계단계_미국 설계이행지침 PDRI

□ PDRI 운영주체 및 개발배경

미국의 PDRI(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는 산업시설과 건축 프로젝트의 조성 과정에서 과업성격 및 범위를 정의내리고, 사업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평가지표이다. PDRI는 일반적으로 건축사업의 기획·계획을 전담하는 조직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사업 착수 초기단계에서 수립된 계획내용의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발전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PDRI는 건축물의 조성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집행하는 사업 주체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주체 변동여건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활용된다.

PDRI는 건설산업연구소¹⁹⁾(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CII)에 의해 9년에 걸쳐 진행된 예비 기획단계(pre-project planning) 관련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미국 건설산업연구소는 건축 사업 초기단계 업무절차의 중요성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인 예비 기획단계가 사업비용을 2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예산 감소를 사업 예측성(project predictability)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사업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 이전에 과업범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19) 건설산업연구소는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에 기반을 둔 기관으로 시설 소유주(owner) 및 엔지니어링 업체(engineering-contractor) 등 100개 이상 기관과의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루며, 연구사업, 기관간 협력 사업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건설산업연구소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개발을 통해 건설산업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보급하는 등 컨소시엄 멤버 기관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예측성을 제고시키고 명확한 과업범위 설정이 가능한 PDRI 지표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건설산업연구소는 PDRI 항목 적정성과 가중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1998년 7~10월 총 7차례에 걸쳐 전문가 69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유주 기관 11개와 엔지니어링 도급업체(engineering-contractor)기관 24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건설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PDRI의 효용성 및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업성평가 좋게 평가되었던 사업과 나쁘게 평가되었던 사업 총 33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샘플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PDRI의 최종 평가점수가 사업의 예산, 일정 등에 대한 효용성 및 시설 이용자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²⁰⁾하였다.

□ PDRI 주요내용

PDRI는 산업시설용(예_플랜트 시설, 정제공장, 중·공업시설 등)과 건축용으로 구분된다. 1996년에 개발된 산업시설용 PDRI 운영의 효용성이 입증되어 1999년에 건축용 PDRI가 추가적으로 개발되었다. 건축용 PDRI는 총 38쪽 분량의 지표로 3 부문, 11 카테고리, 64세부항목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사업계획의 완수정도를 평가하여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²¹⁾으로 운영된다.

PDRI의 부문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부문인 사업진단 기준에서는 사업의 기본적인 전략 및 시설 운영·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사업의 지향 가치, 디자인 기준, 과업범위, 사업일정 등과 같은 주요사안들을 검토한다. 2부문은 디자인기준을 점검하는 단계로 사이트, 시설 프로그램, 장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문인 사업수행방식에서는 조달관련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제출해야하는 최종 성과물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사업집행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20) PDRI 지표 효용성 검증을 위해 가중치에 대한 정보가 없는 PDRI 평가 설문지를 33건의 사업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여 각 64 항목에 대해 사업 시공단계 이전의 시점에서 예비 정도가 어떠했는지 표기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최종 수집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건설산업연구소는 평가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감안하였으나, PDRI 개발 관련 높은 전문성이 투입되었던 점과 높은 샘플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21) PDRI의 총 합산 점수는 최소 70점에서 최대 1000점 사이에 채점되나 점수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평가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종 채점점수가 낮을수록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22) 개념정립 평가(Definition level)는 추진사업의 PDRI 각 항목별 사안이 어느 정도 면밀히 고려되어 정립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채점하기 위해 사용된다. PDRI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에 의해 표기되며, 최종적인 합산 점수로 사업의 예비단계의 완수정도를 평가한다.

[표 3-2] 미국 건축PDRI(Building PDRI) 평가부문 정리

구 분	검 토 사 항							총 점수범위 (range)
	항 목 내 용	개념정립 평가 ²²⁾ (Definition level)						
		0	1	2	3	4	5	
1부문 사업진단기준 (Basis of Project Decision)	〈사업전략(A. Business Strategy)〉							0~241
	·A1. 사용목적	0	1	12	23	33	44	
	·A2. 사업타당성	0	1	8	14	21	27	
	·A3. 사업계획	0	2	8	14	20	26	
	·A4. 경제적 분석	0	2	6	11	16	21	
	·A5. 시설 필요조건	0	2	9	16	23	31	
	·A6. 미래 증·개축계획	0	1	7	12	17	22	
	·A7. 입지선정계획	0	1	8	15	21	28	
	·A8. 사업목표 서술	0	1	4	8	11	15	
	〈발주기관의 사업철학(Owners Philosophy)〉							0~68
	·B1. 신뢰성 원칙	0	1	5	10	14	18	
	·B2. 시설관리원칙	0	1	5	9	12	16	
	·B3. 시설운영원칙	0	1	5	8	12	15	
	·B4. 디자인원칙	0	1	6	10	14	19	
	〈사업 필요조건(Project Requirements)〉							0~131
	·C1. 가치 분석과정	0	1	6	10	14	19	
	·C2. 사업 디자인기준	0	1	7	13	18	24	
	·C3. 기존시설의 평가 및 분석	0	1	7	13	19	24	
	·C4. 과업범위 설정	0	1	5	9	13	17	
	·C5. 사업일정	0	1	6	11	15	20	
	·C6. 추정 소요예산	0	1	8	15	21	27	
2부문 디자인기준 (Basis of Design)	〈사이트 정보(Site Information)〉							0~109
	·D1. 사이트 레이아웃	0	1	4	7	10	14	
	·D2. 사이트 감정/조사	0	1	4	8	11	14	
	·D3. 토목/지질공학 관련 사항	0	2	6	10	14	19	
	·D4. 법률제도 관련 사항	0	1	4	8	11	14	
	·D5. 환경평가	0	1	5	9	12	16	
	·D6. 유틸리티 공급 관련 사항	0	1	4	7	10	13	
	·D7. 사이트 안전 관련 사항	0	1	2	4	6	8	
	·D8. 폐수처리 필요조건	0	1	3	6	8	11	
	〈시설 프로그램(Building Programming)〉							0~162
	·E1. 프로그램 개요	0	1	5	9	12	16	
	·E2. 빌딩 공간 리스트/인벤토리	0	1	6	11	16	21	
	·E3. 평면 다이어그램	0	1	3	6	8	10	
	·E4. 스택킹 다이어그램	0	1	4	7	10	13	
	·E5. 단계적 개발계획	0	1	5	8	12	15	
	·E6. 동선 및 공개공지 필요조건	0	1	4	7	10	13	
	·E7. 기능적 관계도	0	1	3	5	8	10	
	·E8. 로드/언로드/창고 필요조건	0	1	2	4	6	8	
	·E9. 교통 필요조건	0	1	3	5	7	9	
	·E10. 빌딩 마감	0	1	5	8	12	15	

구 분	검 토 사 항							총 점수범위 (range)
	항 목 내 용	개념정립 평가 ²²⁾ (Definition level)						
		0	1	2	3	4	5	
3부문 사업수행방식 (Execution Approach)	·E11. 실별 데이터	0	1	4	7	10	13	0~122
	·E12. 가구, 장비, 빌트인 시설	0	1	4	8	11	14	
	·E13. 창문 처리 관련 사항	0	0	2	3	4	5	
	〈빌딩/디자인 파라미터(Building/Project Design Parameters)〉							
	·F1. 사이트 디자인	0	1	4	7	11	14	
	·F2. 건축 디자인	0	1	7	12	17	22	
	·F3. 구조 디자인	0	1	5	9	14	18	
	·F4. 기계설비 디자인	0	2	6	11	15	20	
	·F5. 전기설비 디자인	0	1	5	8	12	15	
	·F6. 시설 안전관련 필요조건	0	1	3	5	8	10	
	·F7. 시공가능성 분석	0	1	4	8	11	14	
	·F8. 기술적용 관련 사항	0	1	3	5	7	9	
	〈시설장비(Equipment)〉							
	·G1. 시설장비 인벤토리	0	1	5	8	12	15	0~36
	·G2. 시설장비 설치 도면	0	1	3	5	8	10	
	·G3. 시설장비·유틸리티 설치 필요조건	0	1	4	6	9	11	
	〈조달전략(Procurement Strategy)〉							0~25
	·H1. 조달소요기간이 긴 시설장비 및 자재	0	1	4	7	10	14	
	·H2. 조달절차 및 계획	0	1	3	6	9	11	
	〈최종성과물 정의(Deliverables)〉							0~11
·J1. CAD/모델 필요조건	0	0	1	2	3	4		
·J2. 최종문서	0	1	2	4	6	7		
〈사업관리 방식(Project Control)〉							0~62	
·K1. 사업품질 확보 및 관리	0	1	3	4	6	8		
·K2. 사업예산 관리	0	1	4	7	10	13		
·K3. 사업일정 관리	0	1	4	8	11	14		
·K4. 리스크 관리	0	1	6	10	14	18		
·K5. 안전절차	0	1	3	5	7	9		
〈사업집행계획(Project Execution Plan)〉							0~60	
·L1.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	0	1	3	5	8	10		
·L2. 소유주 승인 필요조건	0	1	4	6	9	11		
·L3. 사업 진행방안	0	1	5	8	12	15		
·L4. 설계/시공계획 및 업무 수행방식	0	1	4	8	11	15		
·L5. 입주예비 필요조건	0	1	3	5	7	9		
합 계							1000	

0 해당사항 없음 1 구체적 개념 정립 2 개념 정립의 경미한 결점 발견
 3 개념 정립의 결점 발견 4 개념 정립의 심각한 결점 발견 5 불완전한/미숙한 개념 정립

* 출처 : Chung-Suk Cho, Jeffrey C. Furman and G. Edward Gibson Jr.(Dec 1999), 「DEVELOPMENT OF THE PROJECT DEFINITIONRATING INDEX (PDRI) FOR BUILDING PROJECT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PDRI 운영방식

PDRI는 일반적으로 사업조성의 초기단계, 추진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사용되나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활용 가능하다. PDRI는 일반적인 건축사업의 조성과정에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며 시공업무의 직전 단계까지 활용될 수 있다. 특히 PDRI의 2부문인 디자인기준의 세부항목들은 기획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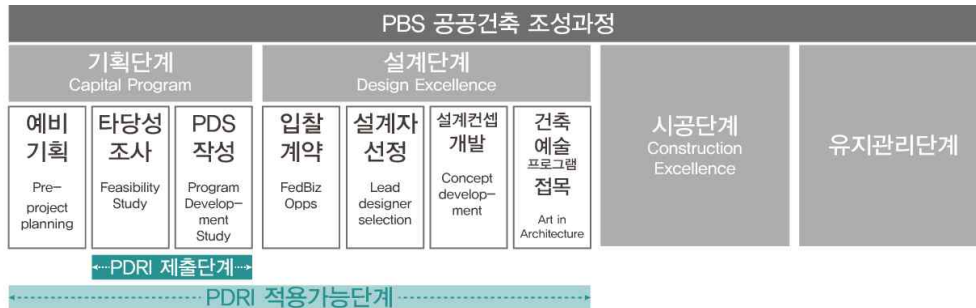


[그림 3-1] 일반적 건축사업 조성과정에서의 PDRI 적용가능한 단계

출처 : Chung-Suk Cho, G. Edward Gibson Jr.(Dec 2001), 「Building Project Scope Definition Using 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 Journa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DRI의 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국 조달청인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Capital Program』을 통해 타당성조사 및 PDS 작성과정에서 PDRI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PDRI 분석을 통한 건축부지/디자인 개요(outline) 및 예산안을 제출하며, PDRI의 1부문인 사업진단기준과 관련된 요소들을 전문가, 시설 이용자, 시공사 단체로 구성된 타당성조사팀에 의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에 PDS 작성 단계에서는 PDRI 분석을 통한 건설지침 및 예산안을 제출하며,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도출된 공공건축 건설 대안에 적합한 건설규모 및 설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PDRI를 활용한 분석자료는 해당사업의 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s)에 제출되며 이에 대한 1차 평가는 중앙사무국(Central Office)에서 이루어지고, 2차 평가는 예산사무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이루어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PDRI를 통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사업은 신뢰도가 제고되어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DRI의 효과가 입증되어 민간부문에서도 내부방침에 의해 PDRI 활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3) PDRI 지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2012.1.20, 3.9, 4.6에 실시한 전문가(조정석 부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서면자료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2] 미국 PBS 기획단계(『Capital Program』)에서의 PDRI 제출단계

PDRI의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PDRI 운영에 앞서 준비를 위해 PDRI 평가 멤버들과 함께 각 항목을 읽고 이해하며, 사업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PDRI를 운영할 때 각 항목에 대한 정의를 내려 채점을 하는데 모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간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 PDRI의 평가 항목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여 점수 가중치를 재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채점이 완료되면 개별 채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PDRI 점수를 산정한다. 부문 및 세부항목별 점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사업의 필수항목들을 재검토하며, 사업에 따른 리스크와 연계된 항목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세부항목 점수 확인과 사업 리스크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관리 및 참여주체간 적절한 향후방침에 대한 협의를 이룬다. PDRI 운영시간은 사업 초기에는 2.5~4시간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이후에는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PDRI는 사업별 최소 2회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공기 및 공사금액 등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PDRI는 운영주체인 퍼실리테이터²⁴⁾(facilitator)와 발주기관 관계자, 설계자 및 엔지니어, 기술자, 시설 이용자, CM(Construction Manager) 등의 참여를 통해 운영된다. 이 때, 퍼실리테이터는 회의를 진행하는 주체로서 사업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24) 퍼실리테이터는 PDRI 평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PDRI를 도입 및 적용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에 따라 퍼실리테이터 자격, 모집방식, 근무형태 등이 정해진다. 퍼실리테이터 자격 인증에 대한 별도 절차는 없으나 건설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PDRI 매뉴얼을 숙지하거나 관련 전문가(예 PDRI 개발 인력, 교수 등)에 의한 트레이닝을 통해 PDRI 카테고리 및 세부항목을 파악한 개인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 내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 중 사업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퍼실리테이터로 선정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핵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PDR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화시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매니저급 인사 중 필요인원을 선출하여 퍼실리테이터로 임명하여 교육 및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논의 사항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간과될 수 있는 평가사항들을 상기시켜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회의 전·후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논의를 통해 PDRI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단, 퍼실리테이터는 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수립하거나 프로젝트 팀을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의에 앞서 사업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PDRI 운영의 의미는 채점 점수 자체에 있기 보다는 채점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제기되고 의논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 3자 또는 중립적 개체에 의한 운영 또는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업 전 단계(기획에서 유지관리)_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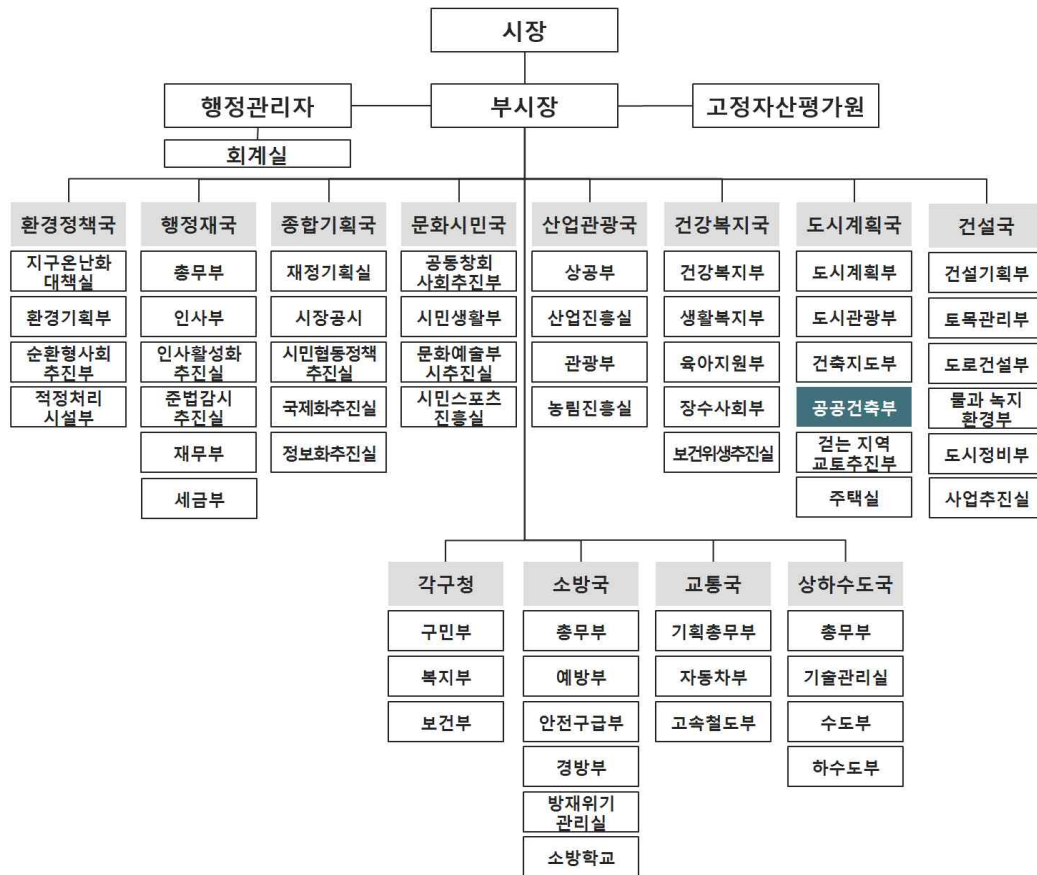
□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운영주체 및 개발배경

교토시는 최근 시민의식 향상, 생활양식 변화, 환경문제 확대, 대규모 재해 대응 등 공공건축과 연계된 영역들이 확대·고도화되면서 공공건축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토시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예산감축에 대처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공건축의 통합적 관리와 기획업무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부를 만들어 ‘공공건축의 장기수명화’, ‘친환경 공공건축’, ‘안전한 공공건축’을 목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건축부는 효율적인 공공건축 자산 관리를 위해 교토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기획, 설계²⁵⁾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조사 및 보전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 정비에 관련된 양식 및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에 제정된 PFI법²⁶⁾에 기초하여 공공건축의 정비를 실시하는 시설관리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기도 한다. 공공건축부는 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국 소속이며 기획설계과, 정비지원과, 공무감리과의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25) 기본적으로는 설계업무 위탁처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나 소규모 사업일 경우 내부만으로 진행하기도 함

26)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 :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림 3-3] 교토시 행정조직 내의 공공건축부

[표 3-3] 교토시 공공건축부의 소속과의 주요 업무

구 분	업 무
기획설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상담 · 기획, 구상, 계획 등의 작성 · 시유건축물의 건축, 개축, 증축 등에 필요한 건축 및 전기·기계설비의 설계 · 시설관리부서에 대해 기술적 지원
정비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건축물의 보전에 관한 상담 · 기획, 계획안 등의 작성 · 시유건축물의 유지수선 등에 필요한 건축 및 전기·기계설비의 설계 · 건축물의 내진성능, 내력도 또는 열화도의 조사
공무감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건축물의 신·개·증축, 대규모 개수 및 유지수선 · 건축 및 전기·기계설비 의 공사감리 · 시설관리부서에 대하여 공사감독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공공건축부는 1999년 7월 16일에 건축 및 도시 전공 교수(4명), 건축 관련 단체(2개의 단체에서 3명), 교토시 직원(5명)으로 구성된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연구회²⁷⁾’를 구성하였다. 연구회의 활동의 결과로 2000년 4월에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기획) 구상, 설계, 시공, 관리 등의 단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건축 디자인지침을 책정하였다.

[표 3-4]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개발 경과

개 회 개 요		내 용
제1회 연구회	1999년 7월16일	· 조사의 진행 · 교토시 영선행정의 개요 등
제2회 연구회	1999년 9월27일	· 교토시의 공공건축 작품 소개 · 디자인지침의 아웃라인 · 에코오피스매뉴얼의 아웃라인 · 타 도시 히어링(hearing) 결과보고 등
제3회 연구회	1999년 11월16일	· 디자인지침 내용 · 에코오피스매뉴얼 내용 등
제4회 연구회	2000년 1월14일	· 디자인지침의 세부내용 · 사례집의 이미지 · 위원에 의한 공동집필 등
제5회 연구회	2000년 3월13일	· 디자인지침 최종안 등

연구회는 공공건축 관련업무 행정담당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회, 실무자회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지침의 내용이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절차 및 업무에 적절한가에 초점을 두었다.

[표 3-5]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개발방법 및 내용

개발방법	주 요 내 용	
	구 성 원	내 용
청 내 검토회	· 교토시 도시계획국 우메하라이사 및 관련 7국11부15과 (총무국, 이재국, 환경국, 보건복지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방국)	· 검토회 2회 개최 · 지침내용에 관한 청 내 조정 실시
워킹회의	· 교토시 도시계획국의 건축, 설비 기술직 직원 ·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연구회의 위원 · 건축 관련 단체	· 연구회자료 정리 · 디자인팀 및 에코오피스팀과 회의 진행(합동개회는 3회)

27) 연구회는 8개월에 걸쳐 총 5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침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개발방법	주 요 내 용	
	구 성 원	내 용
타 도시 앙케이트	· 전국의 도도부현 및 인구 약 35만인 이상 시 (총 96지자체)의 영선부서	· 공공건축디자인의 기준지침, 청 내의 공공건축 검토 프로세스, 발주 방법 등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1999년 11월9월)
	·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오사카시, 고베시	· 영선행정의 현황과 공공건축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위한 히어링 (hearing)조사 실시
공공건축 포토 콘테스트	· 도시계획국의 챌린지 프로젝트팀(교토 공공건축탐험대)	· 지침에 실리는 사진을 시청 직원으로 부터 모집(1999년 12월13일 ~ 2000년 1월31일) · 21명이 103점의 작품을 응모하여 11 점을 지침에 게시

□ 공공건축디자인지침의 주요내용

공공건축디자인지침에서는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계획론’ 과 ‘운영론’ 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획론은 공공건축의 물리적 계획에 대한 교토시의 관점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계 이후의 시공, 운영관리의 단계를 고려하여 계획설계단계에서 반영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 계획론의 주요 내용

- ① 3개의 마음가짐 (디자인을 대하는 설계자의 기본자세와 필수적인 준비작업)
 - (1) しつらえる(설비하다, 마련하다) 공공건축으로서의 컨셉(기본이념)을 만들어낸다.
 - (2) よみどく(해독하다) 부지조건,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 (3) おしはかる(추측하다, 헤아리다) 시설이용의 시점을 배려한다.
- ② 5개의 기법
 - (1) つろくさせる(주변을 배려하다) 경관·가로와의 관계성을 만든다.
 - (2) ころをくばる(배려하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점을 갖는다.
 - (3) なじませる(길들이다) 생태·환경공생의 시점을 포함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
 - (4) そなえる(대비하다) 방재·안전성에 대응한다.
 - (5) しまつする(마무리하다) 전생애주기비용이나 예산 감축 등 경제성을 고려한다.

운영론은 공공건축의 계획설계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관한 교토시의 관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다. 특히, 공공건축의 정비에 관련된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 협력 및 연대와 원활한 의사전달 등에 관해서는 설계 담당부서가 주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계획·설계의 진행방법, 관계자와의 조정에 관한 기본자세(2개의 마음가짐), ② 주체간의 연대·조정,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법(5개의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운영론의 주요 내용

① 2개의 마음가짐

- (1) みわたす(멀리 바라보다) 작업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하다.
- (2) わかりあう(서로서로 알다) 계획내용이나 검토 경위를 적절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

② 5개의 기법

- (1) ひろげる(넓게 하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 (2) ととのえる(조정하다) 관계부·국간의 긴밀한 협력·연대를 구축하다.
- (3) たずさえる(함께 데리고 가다) 설계업무 위탁처와 협동작업으로 질 높은 디자인을 목표로 하다.
- (4) みちびく(도출해내다) 더 좋은 디자인의 형성을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다.
- (5) かえりみる(뒤돌아 보다) 사업평가와 운영현장에서 피드백을 한다.

특히 운영론에서는 사업수행절차 및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설정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관련 관계자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설계를 즉흥적으로 변경하여 당초의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적인 공공건축 정비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디자인²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공공건축사업 운영 시의 주요한 업무로 제시하였다.

프로세스디자인의 핵심 주체는 행정담당자로 단계별 주관부서와 설계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관련 주체들과의 협의 및 의사결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업무의 흐름에서 절차에 대한 조정 미흡이나 역할의 모호성, 수순의 혼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프로세스 디자인을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로세스 디자인은 계획(본 연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르면 기획에 해당)부터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한 목표 및 달성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제시하고 관련된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과 중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8) 프로세스디자인이란 구상(기획),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각 단계에 발생하는 업무나 관계가 있는 주체 상호간의 역할분담, 연대방법, 스케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 교토시 프로세스디자인 업무기준²⁹⁾

- **공공건축의 기본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공공건축의 정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체(주관부서, 재정부서, 설계담당부서, 설계업무 위탁처 등)들은 어떻게 공공건축의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표준패턴을 정비하여 공유한다.

- **각 단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공의 각 단계에 있어서, 업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나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한다.

-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공공건축의 정비에 관한 각 주체의 상호 연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 어떤 방법으로 정보전달을 하는지 사전에 정해놓고, 일련의 과정 중에 각 단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업무가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각 단계간의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이나 의사형성의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 **무리없는 스케줄과 계획적인 작업 실시를 유도한다.**

공공건축의 정비에 관한 사업 스케줄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초기의 예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설정비의 결정(사업예산배정)에서 공사착공까지의 기간이 짧아 충분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일정의 여유를 확보하는 등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을 계획한다. 또 설계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조건으로서 시설 운영 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프로세스디자인의 계획단계는 크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으로 나누어지고 기본구상에서는 주관부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부지확정, 시설 개요 등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설계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아 개략적인 사업비나 일정을 설정한다. 기본계획에서는 주관부서와 설계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설계 발주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의 조건 등을 설정하고 검토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설계단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며 기본설계에서는 발주자인 설계담당부서가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한다. 기본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계담당부서와 설계업무 위탁처가 연계하여 실행해야 한다. 실시설계 역시 설계담당부서가 주가 되고 설계업무 위탁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담당부서가 공사감리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에 대응하며, 주관부서는 유지관리에 대비한 준비를 실시한다. 사용단계는 주관부서 및 설계

29)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44p를 정리

담당부서뿐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주관부서는 공공시설로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설계담당부서는 건물의 관리·보수를 담당하며, 시민은 시설 이용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부서는 각 단계별로 사업비를 검토하고 실시내용에 따른 비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설계담당부서에서는 공공건축정비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어카운터빌리티³⁰⁾ 시트(Accountability Sheet)’ 작성을 통해서 공공건축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를 구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단계별로 각 사업관련 주체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데 대상에 따라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내용과 관련 자료의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 정비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시민은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시민설명회와 그를 통한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고 있다.

[표 3-6] 어카운터빌리티 대상과 내용

대 상	설 명 내 용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민	· 주관부서의 광고 ·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주관부서의 광고 · 활동이나 시민참가에 대한 지원	· 시설의 정리목적 ·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설명 - 설계주지 · 검토경과의 설명 등	· 시설의 완성 이미지의 제시 · 설계 주지 · 공사계획의 설명 · 검토경과의 설명 등
주관부서	· 기본구상의 내용 - 기획안의 내용 - 시설계획의 개요 등	·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설명 - 규모산정근거 - 건축계획의 내용 등	· 기본설계의 내용에 관한 설명 - 설계취지 - 사양결정의 근거 · 검토경과의 설명 등	· 실시설계의 내용에 관한 설명 - 설계취지 - 사양결정의 근거 · 검토경과의 설명 등
재정부서	※ 주관부서의 예산 요구에 관한 사업 상담에 대응	※ 주관부서의 예산 요구에 관한 사업 상담에 대응	· 기본설계의 내용에 관한 설명 · 개산(개요계산)건축근거의 설명	· 실시설계의 내용에 관한 설명 · 공사비적산근거의 설명 등
설계업무 위탁처			· 설계조건에 대한 설명 - 전제조건 - 요구수준 - 검토 스케줄 등	· 설계조건에 대한 설명 - 전제조건 - 요구수준 - 검토 스케줄 · 기본설계의 설명 등

* 출처 : 교토시공공건축디자인지침 56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

□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운영방식

공공건축디자인지침은 주로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내용과 교토시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사업 진행시 지침을 참조할 수 있도록 운영

30) 어카운터빌리티는 설계담당부서가 사업에 관련한 주체들에게 사업에 대한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치게 하는 업무로서 설명책임의무로 설명할 수 있다.

되고 있다. 법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담당자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시민들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의 범위는 교토시 소유 공공건축에서 새로 정비하는 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가소유 공공 건축물은 관청영선부에서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표 3-7] 공공건축디자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범위

용도구분	시 설
청 사	사무시설(시구청, 관리사무소, 소방본부·경찰서 등), 문화시설(박물관, 도서관, 박물관, 자료관 등), 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복지시설, 처리시설(클린 센터, 매립 관련 시설 등), 운동시설(체육관, 캠핑 등), 공원시설(공원화장실, 대기소, 휴게소 등), 공용주차장·자전거주차장, 보육, 대학(시립예술대학), 관저·관사(직원주택, 관저 등), 시험장, 아동관, 장례식 장·묘지, 병원·진료소, 목욕탕(공설목욕탕), 공중 화장실 등
학 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등
주 택	공영 주택, 개량 주택 등

공공건축디자인지침은 행정 담당자의 주도로 운영되며 특히 공공건축의 정비주체인 행정 소속 건축가는 건축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총괄계획가(total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건축디자인지침은 설계 업무의 위탁 등으로 공공건축의 정비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지침으로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지침에 담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은 일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다.

■ 설계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담당자가 수행하는 ‘디자인’의 범위)

- (설계기술자) 스스로 계획·설계를 수행하는 기술자
- (건축기술 컨설턴트) 주관부서의 구상계획 등에 대하여 건축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자로서 적절한 어드바이스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술자
- (공공건축의 성능관리담당자) 공공건축이 달성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유지해 가는 기술관리자
- (설계·시공 발주관리자) 외부에 위탁하는 설계·시공업무 등에 대하여 사양대로 적절하게 실시되는 지 점검하는 관리자
- (조정담당자) 주관부서의 의향정리, 지역 등의 관계자간의 의견정비,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계획·설계의 조정자

3) 기획단계_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정비 기획서

□ 관청영선부 개요 및 조직구성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는 “관공청 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소유 공공건축 총괄관리 기관이다. 국가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관청시설, 국가 성, 청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관리³¹⁾하고 있다.

관청영선부는 공공건축(국가소유시설)을 정비를 담당하는 주체로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된 참고기준 및 서식들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공공건축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기획단계’ 업무를 ‘기획서 양식’ 및 ‘매니지먼트 요령’ 등에 의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관청영선 관련 조직은 내각관방, 지방정비국의 영선부³²⁾, 북해도개발국의 영선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에 조직을 구성하여 일본 전국에 대한 관청영선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표 3-8] 관청영선부 세부 조직별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관리과	부내 업무의 종합조정, 예산, 특정 국유 재산 특별 회계 관리, 영선공사의 경쟁 참가 자격 및 계약 사무
계획과	관청영선 상담창구, 기술종합조정, 공공시설의 영선계획, 적산기준, 지역 연계, 도심 관리
보전지도실	관청시설의 보전 (유지 관리) 기준, 보전 조사지도
정비과	관청시설의 건축 설계·구조·시공 기준, 설계자 등의 선정 기준, 건축 자재 평가
특별정비실	중요한 시설(안개가 심한 지역의 관청시설 등)의 영선 공사(설계·시공) 및 보전지도 실시
시설평가실	관청시설의 데이터 관리, 시설평가기술 개발
목재이용추진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기본방침 및 계획, 공공시설의 목조 기준
시설·환경과	관청시설 설비설계기준, 시설장비등급, 편의시설 기술개발공사 검사·성적 평가
영선환경대책실	관청시설의 환경부하저감 등의 환경 대책, 그린 조달

※ 일본 관청영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 (http://www.mlit.go.jp/gobuild/org_gyoumunaiyou.htm)

31) 단, 국회의사당, 형무소, 학교 등은 예외

32) 일본 전역에 8곳의 정비국이 포진되어 있다

2006년 국토교통성 자료³³⁾에 따르면 본청, 지방정비국 및 북해도개발국을 합쳐서 총 1,199인의 직원이 관청영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청영선업무 관련 기준 및 시스템 개발로 인한 업무효율의 강화로 2006년 기준 향후 5년간 인원감축계획이 실시되어 현재(2011년 기준)는 약 1,077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9] 관청영선부 업무별 인원

업 무 구 분	인원 수(인)
장기 건축과 계획의 수립 및 건축과 계획에 대한 의견서 수립 송부	198
위치·규모·구조 기준 설정 및 실시 권고	245
위험 청사 등의 개축·수선의 권고	176
보전 기준 설정 및 실시 권고·지도	217
국가 기관의 건축물의 기획·조달에 관한 업무	363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의 건축물의 기획·조달에 관한 업무는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어 관청영선부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발주조건의 설정(기획), 조달(사업자의 선정 등) 및 품질확보(감독, 검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설계 및 시공은 원칙으로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 관청영선부의 디자인 총괄관리 체계

관청영선부에서는 체계적인 디자인 총괄관리를 통해 양호한 관청시설의 정비와 보전을 통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환경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 건축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건축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앞장서며,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명책임을 다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주력한다.

관청영선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조성 프로세스는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행정 프로세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기획단계는 각 부처의 영선계획서 제출과 관청영선부의 의견서 작성 순으로 구분된다. 영선계획서에 대해 장기영선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해 관청 시설의 위치, 규모,

33) 관청영선관계에 대하여 (官庁營繕関係について), 2006년 5월 12일 국토교통성 자료 6-3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서를 통해서 지형, 인프라, 규모, 심사평가, 구조, 안정성, 지역의 문화 조화, 에너지의 이용, 리사이클 등을 평가하며, 중요도, 시급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한다. 그리고 설계발주에 앞서서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배경, 목적, 시설 개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설계단계는 설계회사 등록, 설계제안서 제출, 설계심사 순으로 구분된다. 설계회사 등록희망업체는 계약부서에서 등록 심사를 받으며 특정지방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만 입찰이 가능하다. 설계제안서에는 주변경관과의 조화, 환경·에너지 구현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계획 설계, 구체적 설계 여부, 과제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개념도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설계심사항목은 실적, 경험, 보유자격, 환경, 발주자 요구 등이며, 설계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설계심사위원으로는 영선부 및 계약부 담당자가 참여하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청영선부는 보전업무 지원 시스템(BIMMS-N) 구축을 통해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건축과 관련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배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사후건물평가를 통해서 기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업무를 피드백하고 체계적인 DB관리를 통해서 차기사업에 반영하고 있다.³⁴⁾



[그림 3-5] 관청영선부 업무 프로세스

□ 기획서 개발배경

1995년 공공건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입지의 선정, 건축 규모 및 구조 결정을 기획하는데 활용 가능한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입지, 규모 구조의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1년에는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기준’을 제정하여 관청시설이 만족해야 하는 항목(사회성, 환경보전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에 대한 기술적인 성능 규정을 정하였다.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기준’은 기존의 설계기준과의

34) 이상만외, 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6~87을 참조하여 정리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기준에 근거해서 발주자가 성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식이 필요했으며 설계단계에서도 발주자(행정담당자)와 설계수행자가 공유하여 성능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했다. 2006년 3월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기준’이 일부 개정되고 ‘영선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요령’이 책정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기획서 개발연구가 관청영선부 정비과에 의해 수행되었다. 기획서는 영선사업의 설계 업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개발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영선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요령³⁵⁾’에 근거하는 기획내용을 명확히 하고, 설계심사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서식으로 책정된 것이다. 내실있는 기획서 작성을 통해서 영선사업의 기획입안 및 설계매니지먼트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영선사업에 관한 설계 품질의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실시에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획서는 2006년 10월에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연구회 건설기술연구개발 평성 17년도 성과발표회’에서 ‘관청시설의 설계품질확보를 위한 업무관리수업의 개발’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졌다. 관청영선부 정비과에서는 기획서의 시행판을 작성하여 이를 각 지방정비국의 영선부에서 시범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서를 완성하였다.

관청영선부에서는 먼저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기획서 양식과 개정된 ‘관청시설의 성능적 기준’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기획서 시행판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시행판을 각 지방정비국에 배포하여 신축사업과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각각 한 건 총 2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개·보수공사 시의 이용단계를 고려한 서식의 개선’과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기획내용 설명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35) 영선사업의 프로젝트매니지먼트요령(営繕事業のプロジェクトマネジメント要領), 국영정 제 166호, 2006년 3월 31일(일부 개정 국영정 제 44호, 2009년 6월 1일)을 참조

- 국토교통성의 영선사업 기획입안에서부터 공사 완성 후속업무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설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책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책정
- 적절한 사업실시에 의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필요 성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정 업무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주요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사업단계별 실시사항, 시책별 유의사항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행정담당자가 실시해야 하는 업무 내용 제시

[표 3-10] 기획서 시행판의 내용 구성

항 목	내 용
0. 기획개요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리하고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자료
1. 프로젝트의 시점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정리하고 전하기 위한 자료
2. 수준적용표	성능기준을 근거로 각 성능항목에 따라 목표에 따른 수준을 일람으로 명시하기 위한 자료
2-1 건물 및 특이사항	
2-2 실 등	
3. 면적비교표	발주자로서 생각하는 각 실 면적 등 정리하여 전달하기 위한 자료
4. 시설요건	시설 요건을 정리해 각 요건에 대한 발주자의 이미지를 전하는 자료
5. 비용배분표	당초의 비용 배분을 정리하여 전하기 위한 자료
6. 지역의 상황	부지의 상황 등을 정리하여 전하기 위한 자료

각 지방정부국으로부터 기획서 시행판의 각 항목별로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여 개보수공사 시의 기획서 구성안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내용전달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시설관리자가 운영관리 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에 중점을 맞춰서 기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는 건축물의 전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했을 때 운영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기획서 주요내용 및 운영

기획서는 총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발주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수준 적용표는 공공건축으로서 가져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능기준 등에 대하여 각 시설에 적합한 필요수준을 기입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항목의 경우에도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들³⁶⁾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1] 기획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계획개요	부지, 규모/구조, 예산, 정비공정, 시설정비 배경, 지역의 특징, 입지 및 시설의 특징
프로젝트의 시점	사업의 목표, 중점정비항목, 시설기대효과, 상위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률 및 제도, 기타 유의사항
수준 적용표	수준적용표 (건축물 및 외부공간) - 사회성·환경보전성·안전성·기능성·경제성, 수준적용표 (실 등) - 안전성·기능성
면적 산정표	실명, 시달면적, 요망면적, 기획면적, 기획면적에 대한 정리내용, 비교
시설개요	시설 규모, 입주관리자, 외부공간, 내부공간, 설비 기능, 기타
비용배분표	건축공사, 전기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승강기설비, 직접공사비, 부담금 등
부지	부지 개요, 도시계획, 기후 및 토양, 에너지 등의 공급, 기타

36) 국가 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위치·규모·구조 기준, 신영일반청사 면적산정기준, 종합내진계획기준, 환경보전성기준 등

기획서는 설계수행자에 대하여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여(발주자로서의 주문서) 게시하는 등 기획단계 이후의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행정 담당자가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적절한 사용 및 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는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안이 건축물의 성능 수준이나 사업의도가 부합하는지를 기획서에 비추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공,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시공 품질 확보와 준공 후의 적절한 사용 및 보전 지원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이나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전조사 및 사전검토 등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서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화된 서식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광의의 기획서로 작성하는 유연한 운영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표 3-12] 기획서를 활용한 단계별 주요 업무

단 계		업 무
기획 단계	사업입안 단계 (사업화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관한 요구가 발생한 배경 및 사업실시의 요건 파악 · 사업목표 결정 · 관청영선의 시책, 기존시설의 이용현황이나 기능 노후화 현황을 다양한 시점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파악 · 타 기획서와의 비교를 통해 기획서 내용 개선
	사업입안 단계 이후 (사업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한 정보를 수립하여 시설관리자 등과의 조정 도모 · 사업목표나 설계·시공단계에서의 중점정비항목 등을 명시 · 사업입안단계(사업화 이전)에서 작성된 기획서를 재검토하여 내용 수정·보완
설계 단계	설계 매니지먼트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를 위해 기획서를 게시하여 발주자로서의 조건이나 의도 명시 · 설계자가 제시한 설계안이 기획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사업 조건 및 취지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검토 수행
시공 단계	시공 매니지먼트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기획내용)를 충분히 숙지하여 이해 · 공사내용이 발주자가 제시한 조건 및 의도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점검
유지 관리 단계	Follow-up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기획내용)를 면밀히 파악 · 시설정비의 의도를 만족한 시설이용 및 적절한 보안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출처 : 관청시설의 기획서 및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국영정 제 151호, 국영건 제139호

4) 설계단계_영국 CABE의 『Design Review』

□ 제도의 도입배경

CABE의 『Design Review』 제도와 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한 반면, 2차년도에서는 제도의 도입배경 및 정착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Design Review가 운영되었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주요 평가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³⁷⁾

CABE는 Design Review를 통해 의사결정주체인 발주기관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를 두며, Design Review 결과는 설계 승인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최종결정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강조하였다³⁸⁾. 특히 CABE는 PPS1³⁹⁾을 인용하여 우수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자체 신축 및 개발사업 추진 시 디자인품질 제고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해 CABE의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Design Review를 통해 제공되는 독립적 전문 평가의 반영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계안을 발전시키는 초기단계에서 운영해야함을 밝혔다. 이러한 디자인리뷰 활용의 중요성은 2012년 국가계획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자체의 디자인품질 기준 평가와 지원을 위해 CABE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디자인은 개발허가를 제한하도록 권고⁴⁰⁾하고 있다.

□ 제도 운영내용

Design Review는 CABE 설립해인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공공청사, 공공공간, 주민센터, 학교시설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 총 3000여건 이상의 사업에 대해 운영되었다. 이중 학교시설은 물리적 요소와 관련하여 고유 평가항목이 존재

37) 본 연구보고서 6장에서 제시된 디자인리뷰와는 별개의 사례로 구분을 위해 영문으로 표기함

38) 디자인리뷰는 2006년 커뮤니티 및 지역관리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의해 발행된 문서를 통해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2006년에 발행된 문서는 2001년 5월 환경교통지역개발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가 고위직 공무원(Chief Planning Officers)을 대상으로 공표한 내용을 대체한다.

39) PPS 1 지속가능한 개발사업(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의 33항은 모든 개발행위에서 우수한 디자인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40) 국가계획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7. 우수디자인 확보(Requiring good design), 항목 62~64, p. 15, 16

하며 조정 및 부지계획,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 역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시설에 대한 디자인리뷰 평가기준

- 『The CABE Schools design reviews』는 “미래를 위한 학교 건축” 계획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10가지 구체적 평가 항목을 제공하여 2007~2010년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중등학교의 계획안에 대해 조언
- 10가지 평가 항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점수를 부여하며 이를 통합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품질에 대해 최종 판단
 - (만족, Very good) 타당한 설계와 함께 이용자들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고무적인 교육환경을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계획안으로서 BSF⁴¹⁾ 최소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 (통과, Pass) 기본적 설계 개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리뷰 내용을 포함한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으며, 공공자금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계획안으로서 BSF 최소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 (불충분, Unsatisfactory) 몇가지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학습·교육환경의 질이 다소 떨어지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한 경우 등 전반적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학교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계획안으로서 최소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
 - (불만족, Poor)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계획안으로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함

[표 3-13] 학교시설 디자인리뷰 평가기준 사례

구 분	만족	통과	불충분	불만족
1. (장소) 학생과 지역사회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		o		
2. (위치) 최선의 부지 사용		o		
3. (운동장) 학교 자산으로서의 외부공간		o		
4. (구성) 건물에 대한 명확한 다이어그램	o			
5. (건물) 형태, 매스, 외관의 조화		o		
6. (내부) 교육과 학습에 맞는 공간 창출		o		
7. (자원) 환경적 전략의 배치		o		
8. (안정감)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		o		
9. (전생애주기 및 융통성) 변화를 수용하고 진화할 수 있는 학교		o		
10. (조화) 주변 맥락과의 조화		o		

* 출처 : Schools design panel:assessment report, CABE에서 일부 발췌하여 정리

CABE는 『Design Review』 제도 운영 시 평가사업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⁴²⁾하고 있다. 설계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사업 목표에 대응하는지를 점검하며, 단순히 사업목표 및 제약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조 및

41)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는 영국의 학교건설 제도로써 지역학교의 신축·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였으며, CABE를 통해 학교사업의 설계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42) 『디자인리뷰, CABE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품질 평가 방식(Design review, How CABE evaluates quality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p.17

형태 측면에서 심미안적으로 충족시키는 제안인지 논의한다. 그리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목표 아래 사업 취지가 설정되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시설의 내구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며 건축자재, 에너지 효율성, 디자인 혁신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CABE는 디자인리뷰 대상사업의 공공성을 평가한다. 해당사업이 공공공간 활용제고에 기여하는지, 넓은 의미의 시설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며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우수 공공건축상(Public Building Award)」 시상 사업들의 건축품질 수준과 견줄만한지 점검한다.

Design Review는 설계안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조달 및 실행전략의 적정성, 예산책정의 현실성 등도 점검하며 설계안의 단장기적 가치를 판단한다.

[표 3-14] 『Design Review』 제도를 통한 주요 자문내용 정리

구 분		디자인리뷰 자문내용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부지조건, 일정상의 제약사항 등의 파악 · 설계안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식 및 제의에 대한 견해 제시
기존시설 평가		· 역사 보호지정 건물 보존관련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도시맥락 고려		· 부지와 인접한 지역의 향후 발전가능성, 변동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권유 · 부지가 자체적으로 갖는 의미, 중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성 강조 등
부 지	일반적 사항	· 부지의 기하학적 구조 관련 사항 · 인근부지 활용 관련 사항
	접근방식	· 복합시설간 다른 기능의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 전망 관련 사항 지적 ·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 활용 제고방안 검토 권유 · 부지 접근방식 효과 제고를 위한 디자인 고려사항(예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형성을 위해 정류장, 포장계획 등에 대한 견해 제시 등) · 급경사면과 같은 부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접근 효율성, 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 제시
	경계부 디자인	· 이용성, 경계로서의 인식 가능성 등 검토 · 보안상의 문제점 지적 · 경계부 활성화 방안 검토 · 건물 매스와 경계부의 관계를 고려한 연계성 검토
	공간이용계획	· 지층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활용의 중요성 지적
건축물 관련 사항		· 건축 입면계획에 대한 평가 · 향후 건축물 확장 가능성을 염두한 내·외부계획에 대한 견해 제공 · 건축적 디테일의 수준 평가 등
기타		· 계획실행을 위한 자금마련 방안의 현실가능성 지적 · 공공예술품 등 계획안의 주요 요소들의 활용방안 및 연계성 고려

Design Review의 정착은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발주기관 담당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CAFE에 의해 수행되었던 고위직 지자체 담당자 345인을 대상으로 하는 Design Review평가조사에 따르면 91%가 디자인패널을 통해 사업진행 및 관리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설문에 따르면 Design Review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패널을 통한 객관성 확보, 전문지식 및 능력 강화 등을 꼽는다⁴³⁾. 2011년 발간된 CAFE 조직 및 업무평가보고서인 『Bishop Review』에서도 Design Review를 검증된 디자인 품질 평가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CAFE 자체 조사결과 95%의 높은 만족도⁴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디자인위원회 CAFE 조직합병 이후에도 Design Review 운영은 주요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Design Review의 활용방안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ishop Review』는 전문가 및 담당자들 의견조사를 통해 Design Review 대한 평가가 분분⁴⁵⁾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평가내용을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5) 시사점

해외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사례들은 정책 및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등의 매뉴얼 제공을 통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수립 및 운용

공공건축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사항 및 기획에서 유자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목표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것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외

43) 『디자인리뷰, 원칙과 실행(Design review, Principles and practice)』 (CAFE, 2009), Introduction p. 3

44) 『Bishop Review』 (Design Council, 2011), 6. 계획체계에서의 디자인품질 확보(Achieving design quality through the planning system), p.26

45) 디자인리뷰를 계획 과정에 통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디자인리뷰가 형식적이고 불투명하며 신속한 피드백, 지역패널간 역량 수준 극복 등이 개선과제로 남아 새롭게 합병된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사례에서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기획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지침이나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시는 공공건축디자인지침과 같이 사업 전 단계에 걸쳐서 발주기관, 민간전문가, 용역팀, 시민 등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나 운영수단은 발주기관 및 사업이해관계자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실제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관청영선부에서는 기획업무가 필수적인 절차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국 PDRI 및 영국 『Design Review』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허가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이 효용성을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PDRI 리포트나 『Design Review』 결과를 첨부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쉽다는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기획업무의 중요성과 전체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행정절차와의 정합성, 객관적인 운영지침의 마련 등은 행정주도의 공공건축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요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각종 서식의 제공

앞선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들은 기획, 설계 등 각 주요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성 및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양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사업 진행에 있어서 각 단계별 수행업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 평가 및 검토 등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 영선사업 기획서 및 미국 PDRI 등은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발주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영선사업 기획서는 관청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성에서 제시된 공공건축 관련 예산, 시설규모, 환경성 등에 관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발주자로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국 PDRI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경험 부족으로 인해 간과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사업진단기준 및 사업집행방식으로 구분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자가점검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 및 서식 등이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주체에 전달되어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관청영선부의 기획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작성 이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수시로 활용되고 있는데 발주 기관으로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관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PDRI의 활용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활용을 통한 효과가 검증되어 민간부문에서도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당위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사례라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기준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각 단계에 맞는 세부적인 양식 등의 지원은 기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을 확보하는 공식화된 문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객관성 확보

한편 디자인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중요하다.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행정조직 내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수 사례에서 경험 있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 확보와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PDRI 검토의 업무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임하여 회의 진행 및 중재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퍼실리테이터는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영국 CABE에서는 『Design Review』 제도 도입을 통해 설계안 평가 관련 자문을 제공하여 디자인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설계안의 객관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우수한 공공건축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또한 『Design Review』 결과를 행정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공공건축가에 대한 체계적인 풀(pool) 관리를 통해서 각 사업에 맞는 전문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공공건축가 운영사례는 지자체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근무하는 ①총괄형 공공건축가와 ②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로 구분된다.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지자체 행정조직체계 내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지역 디자인정책 및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별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는 요청업무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성 보완을 위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괄형 공공건축가 국내사례로서 영주시를 조사하였으며, 해외사례는 지자체 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이 정착화된 영국 버밍햄시와 프랑스 리옹시를 조사하였다.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 사례로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와 중앙정부 시범사업에서의 민간전문가활용 및 영국의 『Enabling』 제도를 조사하였다.

1) 총괄형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1) 영주시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가 도입배경

영주시는 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이하, 도시디자인관리단장)와 개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를 모두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영주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시재생 방안’을 통해 도심지 내 공공건축 통합관리와 장소중심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부터이다. 장소중심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에서는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한 3개의 핵심 축과 7개의 거점 프로젝트를 도출하였고 프로젝트 단위별로 장소만들기를 위한 사업내용을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장소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약되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또한 거점화된 장소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간 이해관계 조정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총괄관리조직과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행정조직 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시장 지시 하에 영주시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장소중심의 핵심 전략사업을 총괄적으로 코디네이트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부서인 도시디자인관리단을 설치하게 되었다.

[표 3-15]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7개의 거점사업의 내용과 관련부서

거 점 사 업	사 업 내 용	관 련 부 서
역사문화거리조성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거리 조성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택지적과
삼각지 녹색거리	· 삼각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서천, 원당천을 잇는 녹색거리 조성 · 기존 주택 보존 및 환경개선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경제활성화팀, 투자유치팀
시청앞거리	· 공공서비스 프로그램과 공공이 연계된 공공가로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재래시장권역	· 차량접근을 제한하고 편안한 쇼핑을 위한 상업가로 조성	경제활성화팀,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주택지적과
역세권역	· 보행가로 확장 및 녹지공간과 연계한 상업가로 조성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거점사업의 물리적 연계	· 보행로 연결 · 자전거도로 조성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도시디자인과, 문화관광과

□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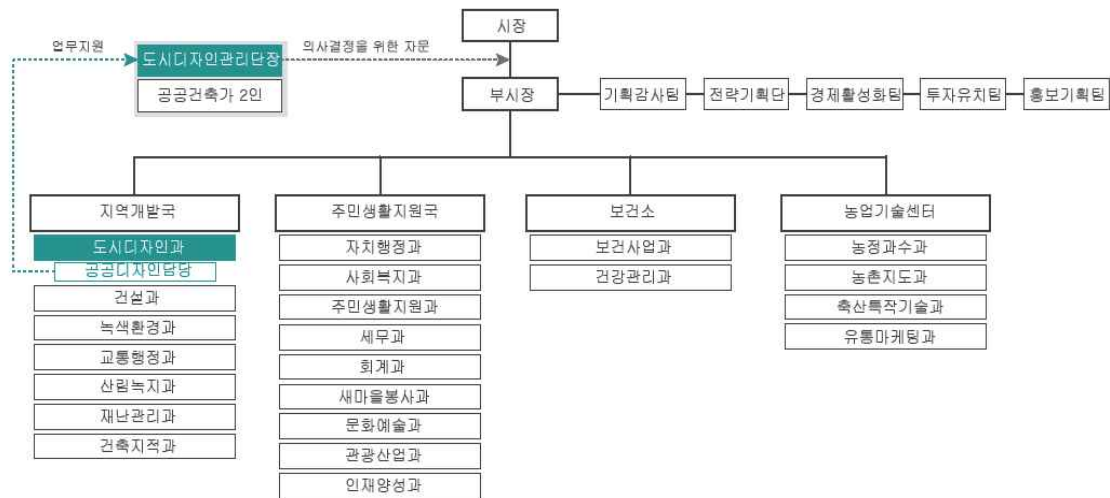
영주시는 초기에 총괄디자인 조직으로서 시장 직속의 디자인관리단 구성을 계획하였으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별도의 행정인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영주시 전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의회 승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공공건축가는 시장직속의 전담 자문위원으로 두되, 도시디자인관리단장과 공공건축가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조직은 지역 개발국 산하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도록 구성하였고,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을 지원하는 공공디자인담당을 계단위로 조직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⁴⁶⁾

영주시 공공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와 건축기본법

46) 2012.7월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정 면담결과

제21조에 의한 건축디자인기준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활용근거를 두고 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기준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지역차원의 건축디자인기준을 전국에서 최초로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영주시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디자인관리단장 1인과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 건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1기 공공건축가 3인을 선정하여 자문 및 시범 사업을 수행⁴⁷⁾하였다. 2012년에는 2기 공공건축가 3인을 위촉하여 현재 영주시 공공건축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자문 및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6]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영주시 조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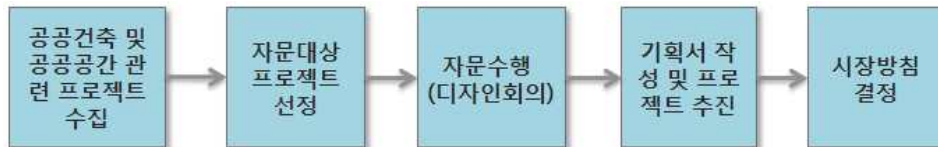
외부 전문가로서의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 근무형태, 위촉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 방침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시 예산범위 안에서 소속 전담 전문가를 위촉하되, 비상근형태로 일주일에 2일만 영주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47) 디자인관리단장을 위촉하기 전에 영주시는 관사골 거점확산시범사업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MP가 선임되었고, 국토해양부시범사업인 삼각주 프로젝트를 총괄 담당하는 총괄계획가가 선임되어 활동 중에 있었다.

[표 3-16] 영주시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구분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		공공건축가 운영 근거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업무기준 ⁴⁸⁾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디자인관리단장	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	
자격 요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건축도시조경 설계 전문가로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별도로 지정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근무 형태	비상근직, 개인사무소 운영과 병행하여 업무 수행 가능	일주일에 2일을 영주시에 상주		-
계약 체계	계약직 공무원 또는 비상근 계약직	자문업무 발생 시 방문 상시자문위원		-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영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단계 시 사후설계관리까지 디자인프로세스 전 과정에 관여하고 조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정례적인 디자인 회의를 통해서 각 과에서 수행하는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수집하고 디자인총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연초에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자문결과를 토대로 기획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시장방침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디자인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그림 3-7] 디자인관련 사업 자문수행 과정

48)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의 자문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컨설팅회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2차례 정도의 디자인검토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설계단계 자문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건축·도시 관련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보다는 전문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문행위가 많았다. 하지만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의 자문을 거친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장 보고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시장직속의 전담 자문위원으로서 위상을 존중받고 있다.

2기 공공건축가 3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단위의 설계 및 자문은 도시디자인관리단장과 공공건축가 협의에 의해 자문대상 프로젝트를 공공건축가가 분담하여 서면 또는 자문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계자가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계담당자와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디자인컨설팅회의를 통해 자문이 이루어지며 도시디자인관리단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공건축가의 발언과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비해 존중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

영주시에는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위촉된 도시디자인관리단장, 공공건축가 이외에 기존 중앙부처 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던 총괄계획가와 영주 지역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역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가 각각 역할과 업무의 차별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8] 영주시 디자인관련 사업 참여 민간전문가 관계도

49) 2012.7월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장 면담결과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영주시 공공건축/공공공간사업 총괄마스터플랜 수립을 바탕으로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시범사업 공모 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총괄 마스터플랜에서 상정한 7대 거점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공모에 대응하고 제안서 작성을 지원⁵⁰⁾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관련 연구 및 용역(후생시장 연구, 도시 관리차원의 풍기 마스터플랜 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업무 및 디자인 자문⁵¹⁾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인의 공공건축가와 분담하여 기획단계부터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체 영주시 차원의 경관관리와 통합된 디자인 관리를 위해 종합적 시각에 의한 코디네이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획단계에서는 기획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지침서, 발주방식, 설계방향 및 기준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설계자와 행정담당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상하반기 분기별 1회씩 영주시 과장급이 참여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실시하여 개별부서의 사업들과의 중복성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인력이나 시간의 제약에 따라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업무나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들이 장소단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건축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조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주시 가흥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주택건설 시 허가 과정에서 민간과 행정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가로등, 도로포장, 가로장식물 등 토목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과업발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위촉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있던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MP와 계획관련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시범사업 내의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시 총괄 MP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50) 디자인관리단장이 위촉된 이후에 행안부 시범사업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U-City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51)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이후, 디자인 자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획단계부터 자문을 수행한 사례보다 설계단계에서 자문 수행한 사례 비중이 높다. 2012.7월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정 면담결과

[표 3-17] 중앙부처 시범사업 별 민간전문가

역 할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총괄MP	1인	1인	멘토 1인
지원MP	2인	1인	-
디자인검토위원	-	3인	-

공공건축가는 영주시 디자인관리 운영규정에 의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자문대상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컨설팅을 수행하고 설계과정에서는 디자인 자문을 수행한다. 2011년에 한해서는 ‘영주시 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건축가 2인이 각기 2개의 프로젝트를 기획에서 설계, 실시설계, 준공까지 담당하였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좋은 공공건축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공건축가가 지역 건축가와 협력하여 기획단계에서 기본설계단계까지 참여한 시범사업이었다. 2012년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건축가와 협업을 수행하되 공공건축가는 기본설계단계까지 관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건축가의 경우에는 기존에 영주시 발주의 공공건축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에는 외부 전문가인 공공건축가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건축 디자인품질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건축가가 맡은 설계업무 중 기본설계는 공공건축가 주도로 지역건축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실시설계는 지역건축가 주도로 작성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월림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과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이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의 협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표 3-18] 영주시 민간전문가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역 할
디자인관리 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공건축공공공간사업 총괄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디자인 총괄관리 · 중앙정부 지원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 · 각 부서의 프로젝트단위 기획업무 및 디자인 자문 · 중앙부처 시범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영주시 전체 프로젝트의 정합성 확보 	영주시 전체 총괄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공공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단위의 디자인 자문 ·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계획·기본설계 참여 (지역건축가와 연계) 	프로젝트 단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지역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참여(공공건축가와 연계)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

□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설계운영 사례⁵²⁾

영주시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장소이지만 디자인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가가 직접 기획에서 설계, 시공과정에 개입하여 예산의 증액 없이 동일한 예산으로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도된 전례가 없는 소규모 공공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의 역할을 담보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시범설계를 추진하였다.

디자인시범사업은 가격중심의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디자인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건축물인 보건소, 마을 회관 등의 5개소를 추진하였다.

[표 3-19] 영주시 공공건축가 참여 디자인시범사업

프로젝트	주요업무
조제 보건진료소	기본 및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
소룡 보건진료소, 두전리 마을회관	
휴천3동 노인회관, 두산리마을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디자인시범사업 중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과정의 사후설계관리까지 디자인 과정까지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조제 보건진료소 및 소룡 보건진료소의 수행과정 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표 3-20] 조제보건진료소 사업의 일정, 예산 및 공공건축가 역할

구분	주요내용
사업일정	· 총 10개월(기획단계 제외) · 기본설계 2개월, 실시설계 2개월, 시공 6개월
예산	· 총 2억 3천만 원 책정(부지 매입비 제외, 설계비는 1450여만 원) · 평당 480만원(공사비, 설계비 포함)책정되었으나 가격입찰로 낙찰가가 85% 내외로 조정되면서 평당 400만원으로 진행
공공건축가의 역할	· 기본 및 실시 설계단계 수행 · 시공단계에서 주1회 사후설계관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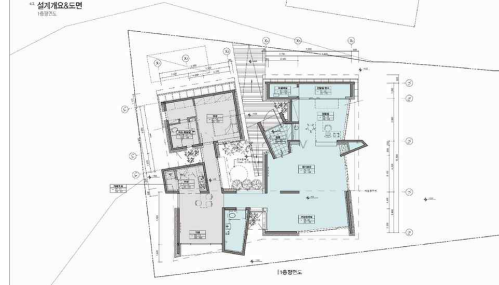
52) 제1회 Good Design City 영주 포럼 공간환경 디자인과 도시재생_발제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영주시 문수면 조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 위 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544-4, 545-5번지
- 부지면적 : 595m²
- 건축면적 : 151.02m²
- 용 도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보건진료소
- 건 폐 율 : 25.38% (법정 60%)
- 용 적 율 : 25.17% (법정 80%)
- 층 수 : 1층
- 주차대수 : 1대



[그림 3-9] 조제보건진료소 배치도



[그림 3-10] 조제보건진료소 평면도



[그림 3-11] 조제보건진료소 모형 이미지



[그림 3-12] 조제보건진료소 준공 이미지

* 배치도 및 평면도는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공

조제 보건진료소는 공공건축가가 설계에서부터 사후설계관리, 자재선정까지 세부 사항에 직접 참여한 결과 기본설계에서 시공과정까지 일관된 프로세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특성 상 예산배정단계 이전에 기획이 미흡하였고, 부지선정단계에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약지반을 선정함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지반안정화를 위한 토목공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건설해야 하는 사업특성상 공공건축가 개인의 노력과 희생이 수반되었으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할 보건소장, 이용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했다.



[그림 3-13] 조제보건진료소 일정 및 참여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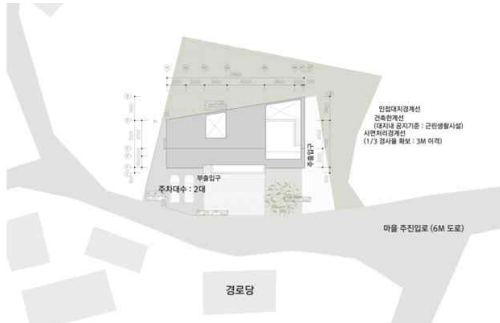
소롱보건진료소 또한 조제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공공건축가가 시공관리까지 참여하였으나 적정한 시기에 사후설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단기간에 건설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로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부족에 따른 설계안의 수정이 있었고, 이용자나 운영관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준공이후 외벽색채 불만족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다.

[표 3-21] 소롱보건진료소 사업의 일정, 예산 및 공공건축가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개월(기획단계 제외) 기본설계 2개월, 실시설계 2개월(기본설계 변경 포함), 시공 4개월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억 3천만원 책정(부지 매입비 제외, 설계비는 14,600,000원) 평당 480만원(공사비, 설계비 포함)책정, 가격입찰로 낙찰가가 85% 내외로 조정되면서 평당 400만원으로 진행
공공건축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및 실시 설계단계 수행 시공단계에서 사후설계관리 일부 수행

■ 영주시 장수면 소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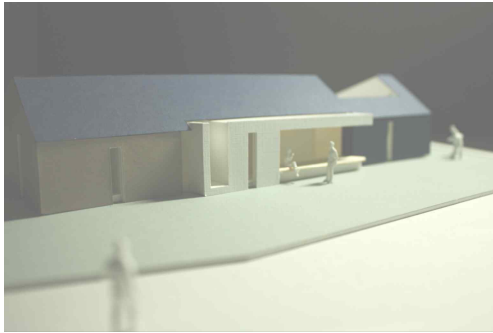
- 위 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룡리 940-2번지
- 부지면적 : 825m²
- 건 폐 율 : 18.13% (법정 60%)
- 층 수 : 1층
- 용 도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보건진료소
- 건축면적 : 149.57m²
- 용 적 율 : 18.00% (법정 80%)
- 주차대수 : 2대



[그림 3-14] 소룡보건진료소 배치도



[그림 3-15] 소룡보건진료소 평면도



[그림 3-16] 소룡보건진료소 모형 이미지



[그림 3-17] 소룡보건진료소 준공 이미지



[그림 3-18] 소룡보건진료소 외부 전경



[그림 3-19] 소룡보건진료소 내부 이미지

*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이미지는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공



[그림 3-20] 소롱보건진료소 일정 및 참여주체

두 개의 시범사업은 초기 사전기획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업비로 인한 문제점을 겪었다. 복지과가 보건진료소 건립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사비만 산정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조명, 토목 설계 등의 공사비용에 대한 비용 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준공 이후 추가로 예산변경이 수반(조명공사비는 건설 이후에 별도의 예산으로 조성할 예정)될 예정에 있다. 특히 연약지반인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보건진료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반강화를 위한 추가 토목공사비가 발생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입지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대지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했어야 하지만 복지과 담당자는 일반 행정직으로 그동안 보건진료소를 건설발주 선례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대지에 건설하는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예산증액 대책은 미흡하여 기존 건축공사비에서 분담하게 되어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진료소 건설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2010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지만 2011년부터 정부지침에 의해 ‘가격입찰’ 방식으로만 사업을 발주하도록 제한되었다. 이에 공공건축가가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발주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격입찰방식에 의한 낙찰로 인해 원래 부족한 공사비가 85% 내외로 감액되어 사업결과물의 디자인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가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었으며, 조제보건소의 경우 공공건축가 개인의 친분에 의해 할인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조달받아 공사비를 맞추었다.

가격 입찰로 인한 발주는 건축가의 디자인가치와 현장 기술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두 사례 모두 공공건축가의 디자인을 시공과정에서 시공주체가 이해하지 못해 디자인 의도가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구조, 전기, 디테일 등의 도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시공주체의 참여로 인해 시공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역건축기술에 부합하는 설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도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표 3-22] 건축가와 현장기술수준의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조제보건진료소	소룡보건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가 기초공사의 높낮이를 임의로 조정 · 식재 계획을 세운 중정공간에 콘크리트 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업체가 도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박공지붕 천장을 평지붕으로 시공 · 출입구 측 콘크리트 타설을 사선에서 직선으로 변경 ·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마감하는 등 임의로 시공

〈조제보건진료소〉



[그림 3-21] 식재를 고려한 중정 계획



[그림 3-22] 콘크리트 마감되어 식재가 불가능하게 된 중정

〈소릉보건진료소〉



[그림 3-23] 사선으로 계획된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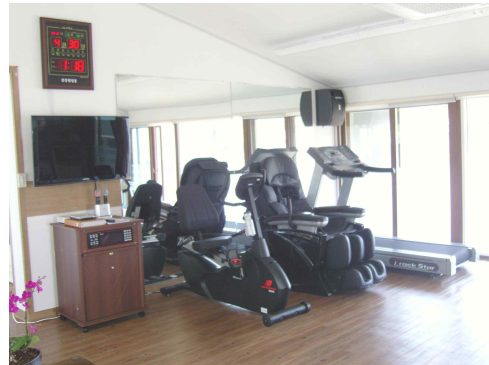


[그림 3-24] 직선으로 변경 시공된 출입구

시공과정에서 설계와 시공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두 보건진료소 사례는 사후설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시공감리가 별도로 발주되지 않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감리를 수행해야 하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주시의 한계로 담당 공무원이 전담하여 시공감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공공건축가가 일주일에 1회씩 현장에서 사후설계관리를 한 조제보건진료소가 소릉보건진료소에 비해 시공과정에서 변경행위가 적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설계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후설계관리가 최종 건축물의 디자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림 3-25] 충분한 사후설계관리 이행으로 미세한 마감 수준을 유지(조제보건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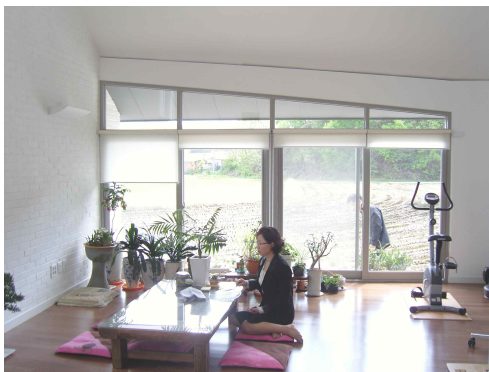


[그림 3-26] 사후설계관리 이행 미흡으로 두 번 시공한 내부 천장마감(소릉보건진료소)

두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사용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 중심의 설계로 인해 사용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초기단계부터 이용자와 사후 관리를 고려해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관리를 고려한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23] 사용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 중심의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조제보건진료소	소룡보건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자연채광과 환기에 집중하여 설계 수행 · 건축물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개구부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저하 · 사택공간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열로 인해 온도 차이가 급변하여 거주 성능 저하 · 월 100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예상되어 보건진료소 운영비의 대부분이 난방비로 지출되는 등 예산운용상의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이후 현관 바닥을 기존 타일시공에서 나무무늬 장판으로 재시공 · 주민들이 신발을 신고 내부 공간으로 들어오는 일이 빈번하여 관리차원에서 추가 시공 · 진료소 내부 진료실은 외부 방문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관측에 창문이 있어야 하나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진료실 출입문을 계속 열어 놓아야 하는 어려움 발생



[그림 3-27]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창문을 많이 설치하여 겨울철 난방효율이 낮아 유지관리상 어려움 발생 (조제보건진료소)



[그림 3-28] 진료실에서 외부방문객 출입여부 파악이 곤란하여 진료실 출입문을 상시 열어두고 있음 (소룡보건진료소)

또한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발주부서, 주민, 시장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설계진행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자의 요구와 예산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일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취향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설계초기단계에 보건소 관리주체인 보건소장과 이용자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건축가와 사용주체간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으나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주체나 구체적인 수단이 미흡하였다.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사업진행 초기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해관계자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표 3-24]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소통 부재의 구체적 사례

조제보건진료소	소룡보건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입구에서의 접근성으로 인해 건축물 옆쪽으로 난 보조문이 현재 주출입구로 사용 · ‘정면성’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해석과 주민들의 견해차가 발생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성이나 건축물의 외관이 기존 영주시의 보건소 디자인에서 볼 수 없었던 사례 · 준공 이후 건축물 지붕과 벽면을 일체화하여 디자인 수준을 제고시키려고 한 건축가의 의도를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검은색 벽면을 다시 페인트 해야 하는 상황

두 사업에서 보여준 추진과정상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수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공공건축 건설과정은 설계단계에서 적정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품질평가지표(DQI)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조제보건진료소〉



[그림 3-29] 현재 이용 중인 출입구



[그림 3-30] 건축가가 의도한 주 출입구

□ 성과 및 한계⁵³⁾

영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총괄형 및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 제도를 일찍 도입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 및 한계도 가시화되고 있다.

53) 제1회 Good Design City 영주 포럼 공간환경 디자인과 도시재생 발제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사업초기 기획업무 지원으로 행정역량 강화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축직이나 관련 전문직종이 없는 부서에서는 수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초기 기획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새로운 참조 선례를 구축할 수 있었다.

■ 농촌기술센터의 사업 기획 및 발주업무 대리 진행

- 디자인관리단장은 공·사과 친환경체험단지계획과 공세계박물관 사업을 동시에 PQ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계획과 공세계박물관 계획을 분리발주 하도록 권장
- 공·사과 친환경체험단지계획의 과업지시서와 예산 검토하고 발주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업무 대리로 진행

- 다른 부서 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관리로 시너지 효과 발생

특히 총괄형 공공건축가인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이 영주시 전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통합·조정함으로써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영주시라는 ‘장소’로 통합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였다. 영주시가 2010년도에 작성한 공공건축을 통한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설정한 거점장소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사업들을 동시에 디자인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시각적으로 연계하고, 장소단위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효과를 발휘했다.

■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과 타부서 사업의 연계

-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삼각지 내 공원 부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던 중, 시내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삼각지 내 공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유치

- 민간전문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성 확보

영주시는 도시디자인관리단장과 공공건축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자문은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이, 도시, 인테리어, 공공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은 공공건축가가 수행하였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건축가에 의한 일관된 관리와 책임 있는 자문으로 이어졌으며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을 중심으로 공공건축가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수행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 공공건축가 업무 수행 원칙

1. 자문 후 2일 이내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공공건축가 웹하드로 자문결과 통보
2. 자문은 최소한 기획단계, 계획진행단계, 최종계획 결정단계 등 3회 정도 실시(시공단계의 자문 권장)하고 최종적인 준공단계의 결과를 받아 다음 사업을 위한 피드백 작업 수행
3. 각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 자문 진행속도에 차이 발생 시에는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에 의해 자문일정 결정
4. 자문내용 마지막에 다음 자문 5일정에 대한 내용 첨부
5. 자문에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용어는 통일하여 표기
6. 민간전문가들의 자문 일정을 사전에 결정하여 표로 정리

- 자문대상에 따른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방안 마련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주시 사업 중 디자인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직접관리대상과 간접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총 71건의 사업 중 64건의 직접관리대상은 필수 자문 52건, 단계별 참여자문 13건, 사업정보 요청 6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접관리대상은 연구 용역 및 조사용역 6건과 기본계획 1건으로 총 7건이었다. 당해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디자인관리단장이 직접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비전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 자문 역할에 초점이 되어 근본적인 기획업무 지원 기회 부족

하지만 공공건축가 제도가 초기단계이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각 과에서 수행하는 초기 기획업무를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개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 정도의 역할에 국한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획단계에 조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비슷한 성격의 법정 심의기구나 설계자문위원회 등과의 중복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각종 설계자문위원회와 법정 심의위원회가 부서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의 자문이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기구 등과의 자문시기와 업무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건축가의 권한 미흡으로 인한 디자인자문의 실효성 문제 제기

공공건축가의 권한이 미흡하고 과업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규정이 없어서 형식적인 자문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에 도시디자인관리단장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자문절차에 대한 조례제정 추진을 통해 기획업무 지원에 대한 권한 및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 사업참여주체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도구로서 DQI 적용 필요성 확인

초기 기획단계에서 사업참여주체 간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점도 제기되었다.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DQI⁵⁴⁾를 적용해봄으로써 기획단계의 의견이 의도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품질 확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안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을 판단된다.

(2) 영국 버밍햄시 도시디자인팀 소속 도시디자인자문위원

□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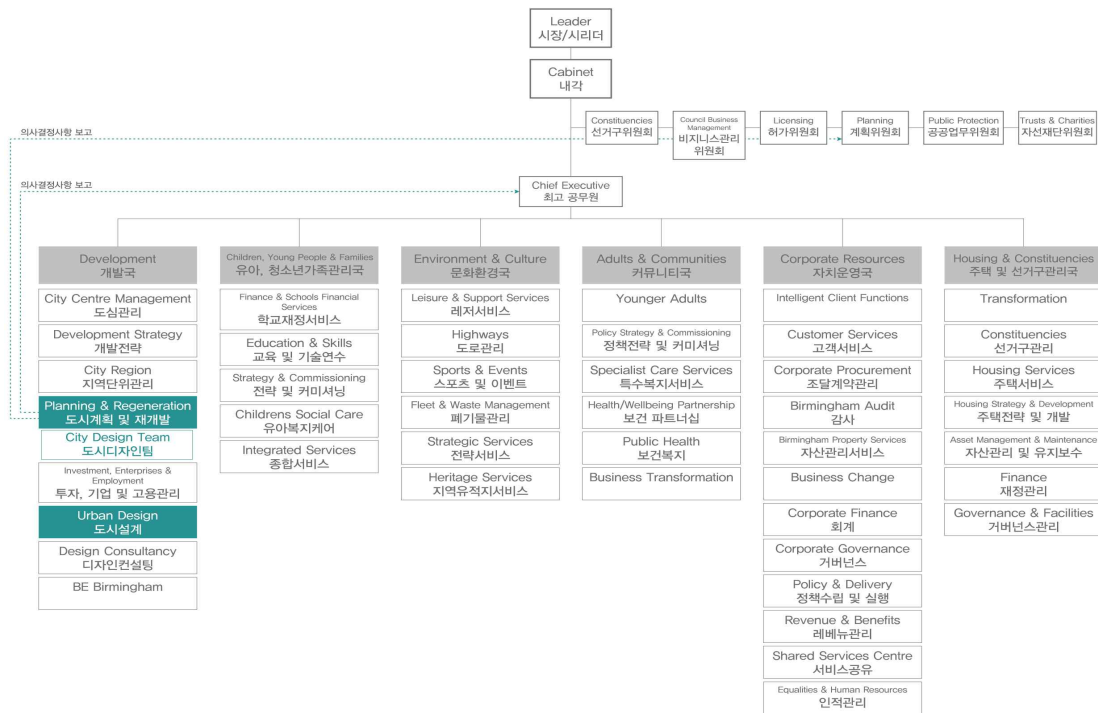
버밍햄시의 도시디자인팀(City Design Team)은 개발국 산하 도시계획·재개발부(Planning and Regeneration)에 소속되어 있으며 도시디자인단장(Head of City Design⁵⁵⁾)이 팀장으로 위임되어 있다.

도시디자인단장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디자인팀의 주요역할은 건축, 조경설계, 역사적 시설의 보존(conservation) 등 개별 프로젝트 관리와 주요 사업들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우수한 건조환경 및 성공적인 장소 만들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 브리프를 작성하고 개발계획(development framework)과 디자인정책을 수립하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내부 디자인리뷰 운영을 총괄한다. 또한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⁵⁶⁾을 제공하고 버밍햄시에서 진행되는 주요 계획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54) DQI(Design Quality Indicator) 디자인품질지표

55) 2011년 버밍햄시 내부적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도시디자인자문위원(City Design Advisor)의 명칭이 도시디자인단장(Head of City Design)으로 변경되었다.

56) 버밍햄시는 고층빌딩과 관련하여서 「Highplaces」, 주거단지와 관련하여서는 「Places for Living」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1] 버밍햄시 조직도

도시디자인팀의 모든 직원은 학사급 이상 전문가들로 3년 이상 경력직⁵⁷⁾이다. 다수의 직원은 2개 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 18인 근무인력 중 16인이 상근직 공무원이며 2인은 주당 4일 근무하는 비상근직이다.

[표 3-25] 도시디자인팀의 조직체계

구 분	직 위	근무인력(인)
7등급	도시디자인장(Head of City Design)	1인
6등급	도시디자인 및 역사적 시설의 보존 매니저 (City Design and Conservation Manager)	1인
5등급	도시설계자(Principal urban designer)	2인
4등급	고위 도시설계자(Senior urban designer)	3인
	조경설계자(Landscape officer)	2인
	고위 역사적 시설 보존관련 전문가 (Senior conservation officer)	2인
	고위 수목관련 전문가(Senior tree officer)	2인
5등급	설계 기술자(Planning technicians)	3인
	도시 고고학자(City archaeologist)	1인
	3D 비주얼 담당자(3D visualiser)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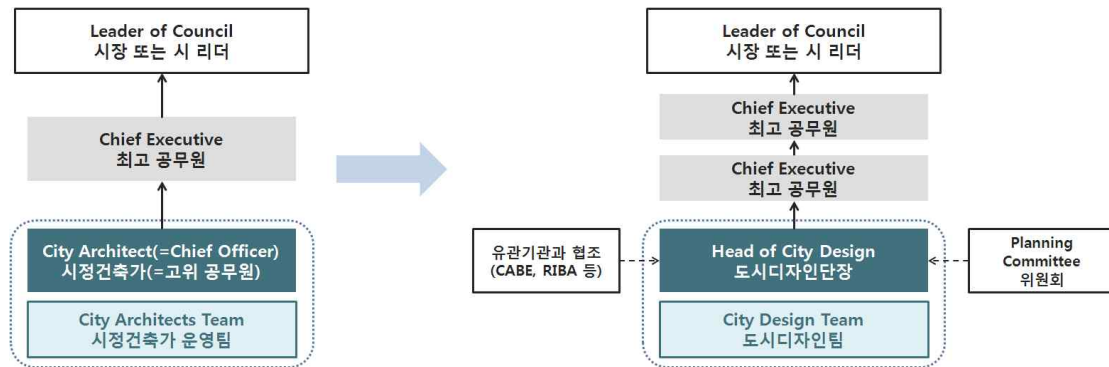
57) 도시디자인팀 직원 선발 시 경력은 주요사안이며, 오히려 공인 전문가단체(예, 왕립영국건축가협회 등)의 멤버십 여부는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3 관계자 면담

□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

도시디자인팀을 총괄하는 도시디자인단장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디자인품질 가치를 촉진시키고 미래지향적 개발을 지원하며 외부전문기관(예_디자인위원회 CABE, 왕립영국 건축가협회 등)과의 협력 과정에서 시를 대표하는 핵심적 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디자인단장은 버밍햄시 기존 시정건축가의 역할이 진화하여 정착된 총괄형 공공 건축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단장의 선례 모델인 버밍햄 시정건축가(city architec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주거시설 부족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 필요성에 의해 1952년에 도입되었다. 시정건축가는 전쟁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핵심인사로서 당시 시정 엔지니어(city engineer)의 역할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직급이었다. 당시 시정건축가는 공공사업부서(Public works department) 소속 고위 공무원(chief officer)으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시정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팀이 구성되어 최대 200인의 건축가, 기술자 및 보조인력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정건축가의 자격요건은 영국건축사 등록위원회(Architects' Registration Council of the UK, ARCUK) 및 왕립영국건축가협회(RIBA)에 의해 공인된 건축가로 한정하였었다. 그러나 1974년을 기점으로 시정건축가가 소속되어 있던 공공사업부서와 건축·계획부서(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Planning)가 통합되면서 시정건축가직은 최고계획자(chief planner)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로 조직개편 및 변동사항에 의해 현재의 도시디자인단장으로까지 소속과 직위가 진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시정건축가는 고위직 공무원(Chief Officer)으로서 최고직 공무원(Chief Executive)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자문내용이 시장 또는 시의회위원장에게 보고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시정건축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현재 도시디자인단장으로 출범함에 따라 도시디자인단장의 위치는 행정체계 내에서 한 단계 강등하였다. 따라서 도시디자인단장은 고위직 공무원(Chief Officer)에게 보고하며, 고위직 공무원이 최고직 공무원(Chief Executive)과 시장 또는 시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림 3-32] 기존 시정건축가와 현재 도시디자인단장 의사결정체계의 변화

현재의 도시디자인단장은 버밍햄시의 전반적인 건조환경 품격에 기여하기 위해 장소 단위 계획과 디자인전략 및 가이드 수립을 총괄한다. 또한 디자인리뷰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고,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디자인품질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도시 디자인단장의 직책 및 책무에 의하면 국제적 프로그램의 외부예산 조달업무 지원까지 하는 등 사업의 실행 및 신속한 진행에 대한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도시디자인단장의 직책 및 책무(2.0 Duties & Responsibilities)

- 2.1 디자인품질 및 건축혁신에 대한 토론을 선도 및 발전시키며 버밍햄의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 및 중요성을 함양시킨다.
- 2.2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디자인리뷰의 역할, 적용 및 영향력을 제고시킨다.
- 2.3 도시설계 및 장소성(place-making)을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 도시의 주요 특성으로 인식하도록 촉진시킨다.
- 2.4 핵심전략(Core Strategy), 장소단위 실행계획(Area Action Plan), 빅시티플랜(Big City Plan)과 관련하여 장소계획수립의 주요업무를 담당한다.
- 2.5 버밍햄시를 위한 명확한 디자인전략을 수립하며, 디자인가이드(design guidance) 및 기준이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여 준비, 채택, 실행단계까지 지원한다.
- 2.6 공공발주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적 요소를 접목 및 촉진시키며 선도적 사례를 지원한다.
- 2.7 공공기관 내·외부적으로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용이한 사업 운영방식을 채택하며 특히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확보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도시공간 환경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설계 구현을 도모한다.
- 2.8 도시설계 전문팀을 총괄·운영하여 혁신적인 사업 접근방식을 통해 획기적이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 2.9 디렉터(Director)와 전략디렉터(Strategic Director)와 협력하여 건축 및 디자인품질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 2.10 특정 요구 발생 시, 시의 발전목적과 부합하는 광역단위, 국가차원, 유럽차원(ERDF, ESF 등), 국제적 프로그램의 외부예산 조달업무를 지원한다.

■ 도시디자인전문위원회의 경력에 관한 사항

- 2.11 건축가 또는 도시설계가로서의 경력이 인정되며 혁신적·비전적인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2.12 다분야적(multi-disciplinary) 전문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고위직급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업 참여 경험이 인정되는 자
- 2.13 지역 및 광역단위의 건조환경에 영향을 미친 규모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2.14 공공 및 민간부문의 대규모 사업관련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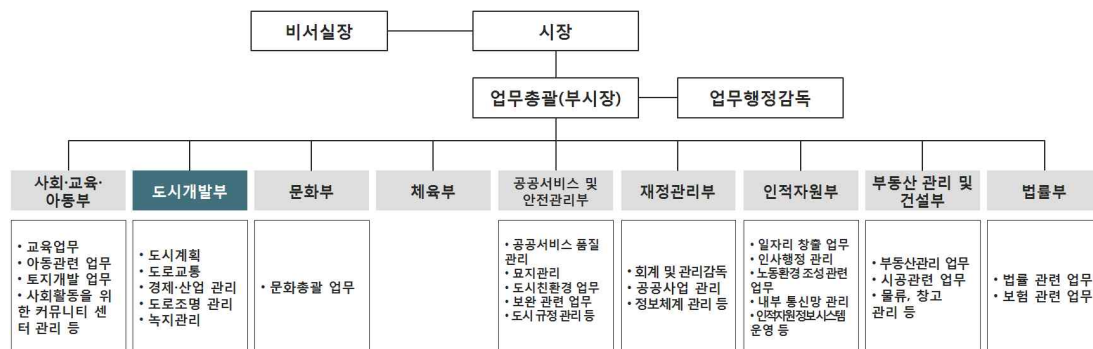
□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방안

도시디자인단장의 선정은 채용공고를 통해 후보자 선출 후 간부급(Director level) 인사 및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패널과의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내부적 절차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도시디자인단장은 팀장급 인사로 상시 근무하며 표준 공무원 계약(standard council contract)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수 기준은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보수로 연봉 최대 67,000파운드(한화 약 1억 2천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프랑스 리옹시(Lyon) 도시개발부 소속 공공건축가

□ 조직체계

리옹시 공공건축가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건축,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는 고위직 공무원(공무원 카테고리 A+)으로 도시개발부에 소속되어 있다. 리옹시는 시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라 국가인증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AUE) 중 ABF(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 소속 건축가 또는 UE(Urbaniste de l'État) 소속 국가 도시계획가를 공공건축가로 임명하고 있다.



[그림 3-33] 리옹시 조직도

□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

리옹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건축 또는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자 선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ABF 소속 건축의 자격으로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사유지의 유지·보수와 시립시설의 신축 사업에 참여하며, UE 소속 도시계획가는 도시개발, 장기계획 구상 및 수립과 「Grand Lyon」 사업의 감독 등을 담당한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사업예산에 따라 구분되는데, 우선 경쟁입찰 대상⁵⁸⁾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가는 공모전의 기획, 발주, 프로그램 구성 및 감독 등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해당 사업을 지휘한다. 경쟁입찰 제외대상일 경우에 공공건축가는 발주자인 동시에 설계자로서 직접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가는 여건에 따라 기술위원회 또는 설계 심사위원으로 참석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건축가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리옹시를 대표하는 인사로서가 아닌 건축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이며, 리옹시는 공모전 운영규정상 공공건축가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시대대표로 선출된 인사가 심사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방안

공공건축가의 선정은 리옹시 또는 AUE 소속 회원 커뮤니티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간행지에 채용 공고가 된 이후 리옹시 자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리옹시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은 첫째 국가인증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인 AUE (Architectes et urbanistes de l'État)⁵⁹⁾, 둘째 프랑스 공인 건축사, 셋째 공익단체, 건축사무소 또는 공기업에서 계획 및 건설사업 관련 경력 8년 이상의 전문가이다. 또한 리옹시는 건축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능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해야 하며, 뛰어난 작문 능력 및 대화 능력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8) 프랑스는 건축법상 설계자 계약금이 관세를 제외하여 200,000유로(한화 약 2억 9600만원)를 상회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59) 프랑스 AUE는 국가소속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로서 해당분야 학위취득자에 한해 1993년부터 시행된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있다. 합격자는 기념물 역사 및 보존 고등연구센터(Ecole de Chaillot)나 국립 토목학교(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에서 1년 동안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건축가는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소속 '건축, 도시, 조경적 유산' 분야에 지원, 도시계획가는 친환경 지속발전·교통부(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소속 '도시공학과 개발' 분야에 지원하며, 첫 발령 이후 경력을 쌓은 이후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분야가 변경 가능하다. 근무경력 8년 이상의 최소 40세 이상의 전문가는 정부소속 수석 건축가 또는 도시계획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건축가의 근무형태는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비공무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 상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공공건축가는 행정조직 내에서 승진이 가능하며, 공공시설 건축허가를 제출할 때 설계자로서의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다. 비상근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공공건축가는 영구적 기간 계약이 가능하며, 동시에 개인 사무소 운영을 병행 할 수 있다. 비공무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 보충을 위해 임시로 임명되는 직분이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정리되면 계약 역시 종료된다. 단, 비공무원 직원은 업무기간, 추천 등에 따라 비공개 경쟁채용 시험 응시를 통해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의 보수기준은 직위와 경력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의 표와 같다.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인턴 평균월급은 1,662.27유로(한화 약 244만원)이며, 최고 경력직 수석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의 평균월급은 4,896.85유로(한화 약 7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국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평균월급 기준

수석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구 분	단 계	단계별 기간	인상 지수	카테고리 A+ 세전월급(유로)
7단계 B지역 외	HEB3	1년	1058	4,898.85(한화 약 720만원)
	HEB2	1년	1004	4,648.81
	HEB3	1년	963	4,458.97
6단계 A지역 외	HEA3	1년	963	4,458.97
	HEA2	1년	916	4,241.35
	HEA1	1년	881	4,079.29
	5è me	3년	821	3,801.47
	4è me	2년	793	3,671.82
	3è me	2년	734	3,398.63
	2è me	2년	680	3,148.60
	1er	2년	619	2,866.15(한화 약 420만원)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단 계		단계별 기간	인상 지수	카테고리 A+ 세전월급
10è me		－	734	3,398.63(한화 약 500만원)
9è me		2년	696	3,222.68
8è me		2년	658	3,046.73
7è me		2년	619	2,866.15
6è me		2년	582	2,694.83
5è me		2년	546	2,528.14
4è me		1년 6개월	514	2,379.97
3è me		1년 6개월	476	2,204.02
2è me		1년 6개월	441	2,041.96
1er		6개월	379	1,754.88(한화 약 258만원)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인턴				
1er		1년	359	1,662.27(한화 약 244만원)

2)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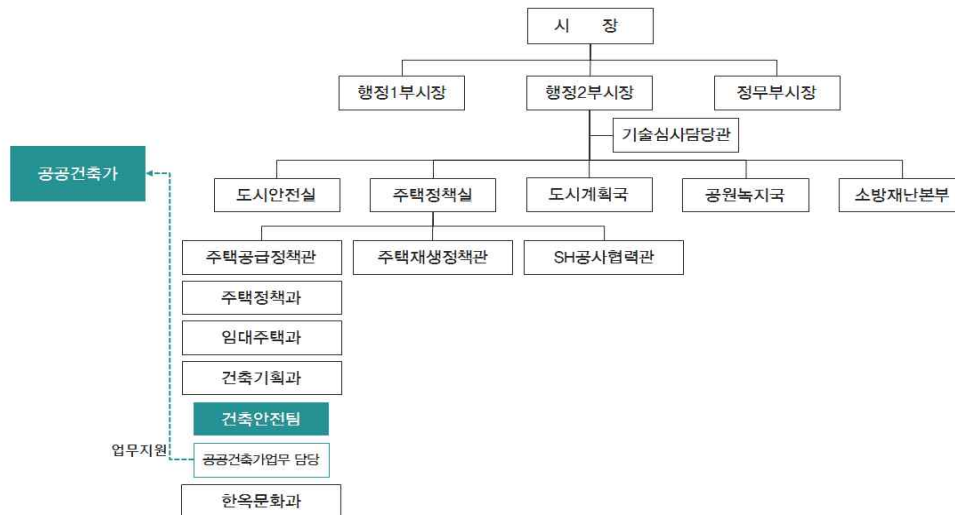
(1) 서울형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가 도입배경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시경관향상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특별경관설계자” 제도⁶⁰⁾를 운영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디자인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이에 걸맞는 도시와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 참여에 의한 디자인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다분야의 전문가와의 연구 및 논의⁶¹⁾를 통해서 2011년도에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⁶²⁾하였다.

□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전담 부서는 없으며, 주택계획국 산하 건축기획과의 건축안전팀 1인이 일부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34] 서울시 조직도

60) 주민제안에 의해 추진되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으로 수립되면서 도시경관 악화, 공공시설 효율성 부족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구릉지, 서울성곽, 문화재 인근지역 등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및 주거형태의 차별화 또는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경관설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61) 2009.9.15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공공건축가의 수행업무의 범위 및 책임한계, 공공건축가 선정을 위한 디자인 능력의 객관적 검증방안, 투명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62) 2011.7.6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공공건축가는 공모를 통해 포트폴리오, 경력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초기에 지원자들로부터 신청받았던 신진건축가, 총괄계획가, 디자인우수 3분야로 재분류되었다. 공공건축가 선정 후에는 각 부처 및 서울시 산하의 관계기관에 공공건축가 풀과 함께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공공건축가 자체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분장 및 운영지침 등을 구상 중에 있다.

[표 3-27]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3년 이상 종사) · 건축·도시·조경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3년 이상 경력) · 건축·도시·조경 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3년 이상 종사) · 건축·도시·조경 관련 건축계획(기획) 및 디자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중앙부처로부터 우수(신진)건축가로 선정된 자 ·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 정비계획의 수립 및 단지설계 등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 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근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 개인사무소 운영 및 교수직과 병행 가능
계약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장이 임명 ·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음 ·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 서울시에서 산하 기관에 공공건축가 활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시행한 후, 서울시 구로 소방서에서 77인의 건축가 모두에게 입찰참여 연락을 하여 18팀이 참가하게 된 이후 공공건축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조직
- 77인의 건축가들이 신진건축가, 총괄계획가, 디자인 우수 각 분야에서 추천 및 투표를 통해서 다득표 순서대로 총 10인의 운영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운영위원장 1인을 선출
- 총 3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공공건축가 관련 조례화 추진, 업무 발표 등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3-35]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조직

[표 3-28]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논의 내용

일 시		논 의 내 용
1회	2012.04.07	공공건축가 운영원칙 및 운영방향, 5개 팀별 담당업무
2회	2012.05.01	공공건축가 참여 선행프로젝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발주 및 계약 관련 운영위원회의 역할
3회	2012.05.24	서울형 공공건축가 총회 준비



[그림 3-36] 2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그림 3-37] 3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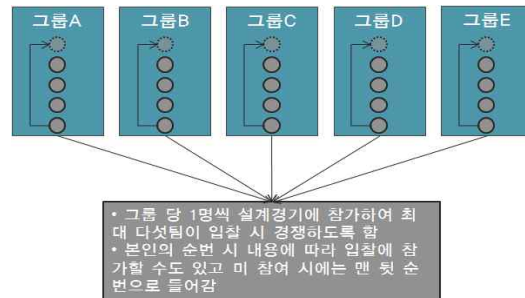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자문역할과 직접설계업무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건축사자격증이 있고 건축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며 비자격증자에 한해서는 기본설계단계의 참여만 허용하고 있다.

[표 3-29] 서울형 공공건축가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기 획	·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에 참여
자 문	· 공공발주사업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디자인 자문 제공 · 정비계획(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수립 및 자문
설 계	· 서울시가 3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건축가 대상 지명설계 공모 · 수의계약에 의해서 기본·실시설계 수행

■ 설계참여 방식

- 총 77인을 5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설계공고시에 각 분과별로 한 명씩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과열 경쟁 방지



[그림 3-38] 설계 참여방식

□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설계운영사례⁶³⁾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이후 좋은 디자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 하에 지명 혹은 제한 입찰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에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한공모로 추진된 프로젝트 중 설계단계가 완료된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한계 및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은 SH공사가 사업시행주체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공원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철도공사가 시행주체로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였다. 두 사례 모두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 입찰⁶⁴⁾을 수행하였고, 일정과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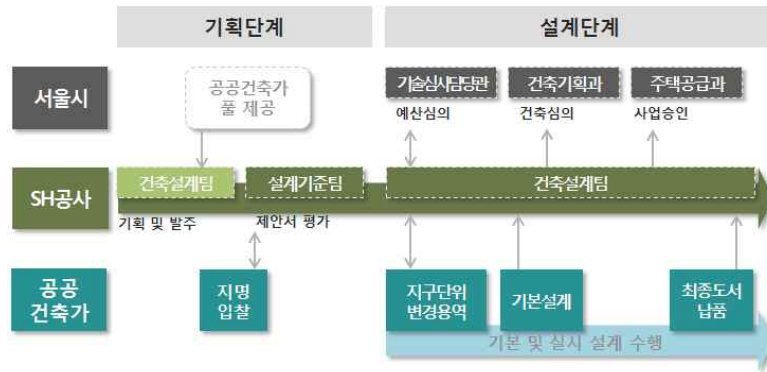
[표 3-30] 설계운영사례의 사업일정 및 예산

구 분	사 업 별 주 요 내 용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사업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2011.12 ~ 2012.02 (착수일로부터 64일) · 2단계 : 2012.03 ~ 2012.07 (1단계 준공일로부터 15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설계용역 발주 · 2012년 5월 최종도서 납품 완료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용역비는 2억 5600만원 · 설계비용 1억 8900만원, 특별업무 (지질조사, VE, 각종인증 비용 등) 67백만원 · 전기·통신설계공사 별도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설계 비용 1천만 원이 책정 · 이후 공사비 총액은 6억으로 증가하나 설계비에는 변동 없음

사업추진과정에서 장기전세 설계용역은 SH공사의 건축설계팀이 업무협의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 건축기획과, 주택공급과가 추진절차상의 심의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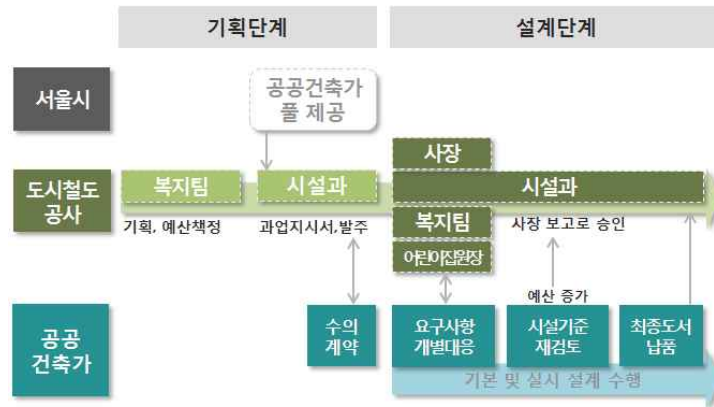
63) 2011년 5월, 7월의 두 차례에 걸쳐 서울형 공공건축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 정리

64) 지명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 형식으로 진행되어 입찰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참여는 많지 않았다. 2012.5.8 서울형 공공건축가 대담



[그림 3-39]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단계별 사업관련 주체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서울시가 공공건축가 풀(pool)만 제공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시설관리과에서 모든 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조절을 담당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획단계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담당부서인 복지과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자와 관리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했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림 3-40]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단계별 사업관련 주체

공공건축가의 개입 시기는 두 사례 모두 예산배정 이후인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다.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및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 발주되어 기획단계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두 프로젝트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도입에 따라 초기에 실시되어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행정담당자가 수행한 기획단계에서 사업범위와 목표설정, 프로그램 기획에 따른 예산계획, 발주방식 결정,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과업범위 설정으로 설계단계에서 추가 업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계비용 증액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업무범위를 고려한 설계기간과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업무를 부실하게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초기 기획업무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3-31] 설계업무범위 설정 미흡의 구체적 사례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공공원룸텔(연남동, 문정동)설계용역 ⁶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공공청사부지에 발주된 프로젝트 ·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부지 · 별도의 용역계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행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에서 부지의 적합성 미확인 · 도시계획도로폭(4m) 미확보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 배정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담당부서는 시범사업에 따른 별도의 기획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했던 가격에 의한 설계발주를 진행하여 불합리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

[표 3-32] 불합리한 사업예산 편성의 구체적 사례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나 설계비에 변화된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반영 미흡 · 친환경설계비가 약 2200만원이나 관납료(인증료)가 900만원이 포함된 예산책정으로 설계의 품질 저하 우려 ·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용 5천만 원(예산)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기존 선례- 1억 9천만 원 예산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감액하여 2천 9백만 원으로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기준 검토 등 기획업무 이행 미흡 · 건축팀에서는 변경된 어린이집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작성 후 발주 · 이로 인한 설계단계에서의 검토과정에서 과다한 예산 변경 발생 · 예산은 총 공사비 2억5천만 원에 설계비 1천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예산변경(공사비 6억으로 증액)에 따른 설계비는 변동 없었음

65) 본 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례는 아니나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과 함께 발주되어 서울형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에서 설계, 시공, 내부시설 준공 및 입주준비가 완료되기까지 절대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준공시기만 고시하여 설계기간 내 설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설계기간은 보고·승인·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를 포함하여 50일이며 설계도서 납품 이후에 14일의 검수기간을 거치는데, 사업일정 수립 시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검수기간을 설계기간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작업 등을 요구하였다. 공공건축 조성사업에서 총 소요시간, 디자인 품질 및 예산계획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의 과도한 설계변경 요구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 공공건축물 조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영주시의 디자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두 프로젝트 역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및 소통이 미흡했다. 계약이후 SH공사와 서울시, 공공건축가간의 의사결정에 따른 협의와 의사소통 미흡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건축가들은 빈번한 설계변경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디자인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소통을 위한 매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표 3-33] 이해관계자간의 협의 및 소통 부재의 구체적 사례

신정동 장기전세 설계용역	대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인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설계 단계(1차 설계단계는 설계도서 납품까지이며 2차 설계단계는 시공 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응)의 업무에 대해 공공건축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 체결 · 2차 설계단계업무의 경우에는 설계비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시공단계의 별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가의 참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초기단계에서 시설팀, 복지팀, 도시철도 공사사장, 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관련 주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설계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개별적 요구에 대해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 성과 및 한계

- 신진건축가 육성 및 기획업무 중요성 파악의 계기로 작용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신진건축가 등을 발굴하여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만의 특성있는 공공건축가 운영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들 스스로 기획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범위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몇 번의 지명현상 경험을 토대로 공공건축가 역할을 컨설팅과 기획업무 지원에 집중하자는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업무 수급의 불균형 발생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전담부서 부재로 인해 업무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관계로 서울시의 각 부서 및 관련 기관에서는 공공건축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건축가에게 직접 연락하게 되어 공공건축가의 개인별 업무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합관리, 지원하는 전담팀 부재로 공공건축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파악과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공공건축가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규정 부재

공공건축가가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때와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의 행정의 태도에 간극이 발생⁶⁶⁾하며, 직접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건축가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설계업무 수주의 불공정성 등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건축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공공건축가를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는 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 서울시 내의 조례 등의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 기획단계의 공공건축가 참여 미흡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등에서 기획단계 업무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축 사업들을 건축기획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작 기획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상태이다. 추후에는 행정과의 긴밀한 협의와 기획단계에서의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체계적인 기획업무의 수행을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6) 자문에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나 설계 시에는 행정과의 갑을 관계가 되므로 행정 측 입장에서는 공공건축가의 지위를 설정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임

(2) 중앙정부 주관 시범사업의 공공건축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투입 효과가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 지원 제도를 적용하여 계획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전문가 시각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2008~2012년)’,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2011년)’ 등이 있다.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포괄보조금 지원 대상인 농촌마을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주도의 사업추진에서 전문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는 사례는 총괄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성격에 따라 자문의 성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건축가는 각 시범사업의 프로젝트 단위로 총괄계획가나 디자인검토위원을 두는 경우가 있고,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디자인총괄계획가나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사업의 PM, 행정안전부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멘토전문가는 프로젝트단위의 공공건축가 역할로 프로젝트별 1~2인이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반면에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별도로 프로젝트 단위의 디자인리뷰를 수행하는 디자인검토위원을 별도로 두고 각 단계별 모니터링을 수행·지원하며 2010년까지 프로젝트별로 3인을 두었으며 2011년부터는 2인의 디자인검토위원이 각 단계별 검토를 실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프로그램의 컨설팅단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외부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3-34] 중앙부처 시범사업 별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구 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국토부)	문전성시 (문광부)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범사업 총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운영위원회(9인 내외)	컨설팅단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22명)
프로젝트단위 지원	디자인총괄계획가 (1~2인)	PM(1인)	멘토(1인)
디자인리뷰	디자인검토위원 (2~3인)	-	-

시범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공건축가 운영방식이나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명칭 또한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 3-35] 각 중앙부처 시범사업별 공공건축가의 호칭 및 역할

구 분	명 칭	역 할	인원
국토해양부	모니터링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와 각종 업무지침 제시 · 공공건축가 역할제시 및 운영	3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총괄계획가	· 기획단계에서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는 사업전반 전담	사업별 1인
	디자인검토위원	· 시범사업 프로젝트 단위별 디자인 검토 수행	사업별 2인
문화체육관광부	PM (Project Manager)	·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및 정산·결과보고 까지의 최종책임자로 관련 주체와의 협의 · 사업실행 및 관리 담당	사업별 1인
문전성시 시범사업	컨설팅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및 진행방식 제시 ·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업무 수행	7~8인
행정안전부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	·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22인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멘토전문가	· 사업전반에 대해 총괄계획가로서 계획, 업체선정, 시공 과정 등에 자문역할 수행(각 지자체별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상이)	사업별 1인

국토해양부는 각 시범사업별 디자인총괄계획가를 1인, 디자인검토위원을 2~3인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연도의 시범사업 업무지침에는 이들 전문가의 역할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전에 컨설팅단을 설립하여 사업구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획을 하였으며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 컨설팅단의 일부는 시범사업의 평가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PM이 되어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최초 컨설팅단은 총 7인(실무진 5인 별도)으로 출범하였으며 2010년에는 평가 3인, 사업 참여 7인이었다가 2011년에는 평가 및 모니터링으로 8인이 참여(2011년에는 계속사업만 있었으며 2012년으로 문전성시 시범사업은 완료됨)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9월에 발족한 행정안전부 소속 디자인위원회인 지역 공공디자인포럼의 22인의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과의 논의 및 자원을 통해 10인을 선정하였고 각각 한 개의 지자체를 맡아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①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공공건축가 활용배경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사업을 공모하여 시범 사업으로 지정·지원하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지나친 성과 위주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인한 디자인 품질의 저하, 잦은 설계 변경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었으며 행정의 순환보직에 의한 인사체계로 인해 일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행과정에 공공건축가를 투입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단계까지 디자인의 일관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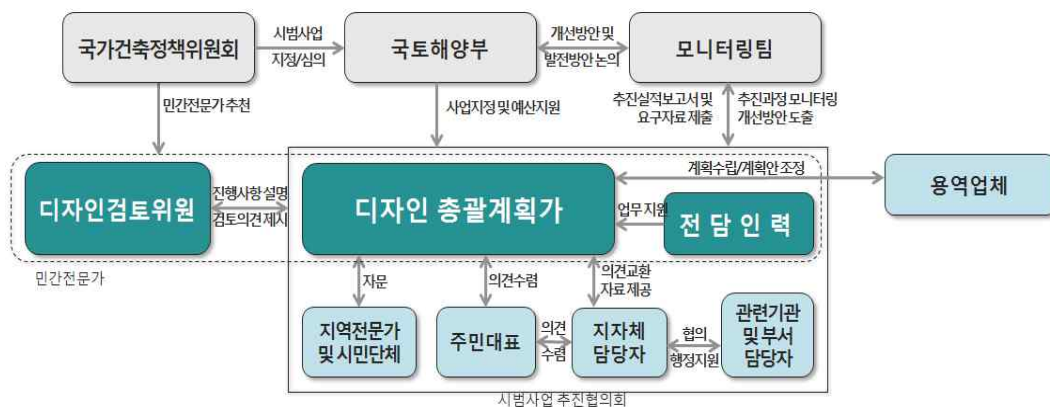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이 기능위주로 건설되거나 과도한 디자인으로 경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적인 디자인정책이 부재한 채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회성 사업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공간관리 방향과 공간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사업간 연계강화와 통합적 도시 경관 형성 도모
- 사업대상 :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공간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2012년 공모지침 기준)

[표 3-3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선정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서면 심사	사업 목표의 적절성	시범사업 취지와와의 부합 여부, 공공건축, 공공공간 등 지역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상위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
	실현가능성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기본방향의 적절성, 공공건축, 공공공간 관련 거점사업 구상의 적절성, 사업비 확보방안의 타당성
	기대효과	지역발전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정부지원 선도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추진체계	추진협의회 구성의 합리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현지 심사	자료의 사실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파급 효과 정도
	사업추진 의지	단체장 등의 추진 의지
가점 사항	경관계획 수립	여부, 디자인 전담지원부서 여부, 예비 총괄계획가 선정 및 적절성, 공모 성적우수 가점

□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건축기본법 제21조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건축디자인기준에 의해 프로젝트 단위의 디자인총괄책임제도와 디자인검토제를 시범적용하였다. 디자인총괄책임제는 시범사업 프로젝트 단위별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지정하여 기획단계에서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는 사업전반을 전담하는 것이고 디자인검토제는 시범사업 시 수립되는 계획안의 디자인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3-4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참여주체간의 관계

※ '201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 연구' 8페이지의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관련 주체 및 관례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회는 건축, 도시, 조경 관련 전문가로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성하였다. 디자인총괄계획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 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성격에 적합한 디자인총괄계획가 후보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가 지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디자인검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2인으로 구성·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였다.

[표 3-37]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지원방안

구 분	공공건축가 지원방안	
디자인 검토위원	예산 +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풀) 중에서 디자인검토 위원 지정 지원 · 선정위원회 위원 1인이 각 시범사업 1개 지구씩 전담하여 디자인검토 수행 지원
디자인 총괄계획가	예산 +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풀) 중에서 디자인 총괄계획가 지정 지원 · 지자체 내에 시범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디자인 자문위원 등의 전문가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에 추천하여 검증 후 지정
디자인총괄 전담인력	예산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총괄계획가와 협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예산지원

각각의 공공건축가에 대한 보수는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직접 지급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시범사업 지원비용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총괄 전담인력은 월급여 형태로 산정기준을 작성하여 지급하였고, 디자인검토위원은 검토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표 3-38]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보수운영 기준 예시

구분	디자인검토위원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총괄 전담인력
기준	① 사전검토 및 검토 의견 작성 296,00원×3일×3회 = 총 : 2,664,000원 (총액 : 87,912,000원 / 33명 기준) ② 회의 참석수당 70,000원×회 (2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교통비 실비 지급	① 사전검토 : 2,368,000원/ 월 296,00원×8일×4회 = 총 : 9,472,000원 (총액 : 104,192,000원 / 11명 기준) ② 회의 참석수당 70,000원×회 (2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교통비 실비 지급	① 사전검토 : 1,638,000원/ 월 234,00원×7일×4회 = 총 : 6,552,000원 (총액 : 72,072,000원 / 11명 기준) ② 회의 참석수당 70,000원×회 (2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교통비 실비 지급
합계	09년 공공건축가 운용 총 소요예산비용 : 약 2억 9천 5백만원 선 ※ 09년 공공건축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3억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대표MP), 특급기술자(지원MP) 사전검토수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09)」 준용

디자인총괄계획가와 전담인력은 시범사업추진협의회의 일원으로 협력적 설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었으며 디자인검토위원을 포함하여 공공건축가들은 비상근직으로 각각의 업무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표 3-3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계약 및 근무형태

구 분	내 용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근무형태	비상근으로 원래의 보직과 겸업	
	사전검토 및 회의참석 각 4회	디자인검토 2회 의무수행
계약체계	민간전문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하도록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기획단계에서는 행정담당자와 정례적인 디자인회의를 추진하여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 검토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 단계 이후 설계용역이 발주되면 선정된 설계팀과 주민협의회,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주도로 디자인회의를 수행하고 피드백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디자인 샤렛 형식의 디자인과정을 거쳤다. 디자인검토회의는 기획단계 1회, 설계단계인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는 2회 이내로 진행하도록 업무지침에 정하고 있으며, 기획의도가 설계단계에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디자인검토회의에서는 디자인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팀이 참여하여 각 공공건축가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회의주제와 시범사업 취지 등에 대한 업무지침 성격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디자인검토 내용이 전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출된 의견이 시범사업취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추진절차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팀이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 국토해양부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 3-42]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추진 절차

※ 2011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추진절차 및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2011 국토 환경디자인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 연구' 참조)

□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범위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전체 사업에 대한 디자인 측면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검토위원 및 디자인총괄 전담인력 등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3-4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역할, 자격 및 위촉방법

공공건축가		역 할
디자인 총괄 조정 자	디자인 총괄계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추진위원회 일원으로 참여 · 시범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결정 및 과업지시서 검토 · 기획제안서 수정안 작성 · 지역의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및 운용방향 제시 · 디자인팀 운영방안 및 디자인관리 방식 결정 · 계획수립에 대한 총괄계획 및 조정 ·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디자인 총괄 전담인력	· 디자인총괄계획가와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디자인 기획업무,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계획업무 조정과정에 전담인력으로 참여
디자인 검토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 디자인검토 수행 · 계획단계 디자인검토 수행 · 국가건축디자인기준에 근거한 지자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방향 검토 ·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각 지자체 시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 성과 및 한계

디자인총괄계획가에 의해 기획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도록 업무지침에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단순행정업무로 추진하던 기획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특성상,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기획업무 수행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국내에 기획업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무범위, 기준, 보수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공공건축가 참여로 인한 사업의 일관성 확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행정조직이 변경되기도 하고 담당자가 빈번하게 바뀌어 시범사업의 취지가 담당자의 특성과 취향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었으나 디자인총괄 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이 시범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 공공건축가의 권한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 시 역할 축소

기획과 설계관리는 시범사업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발주업무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등의 칸막이식 행정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발주방식이 회계과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디자인총괄계획가가 지시한 발주방식이 반영되지 않거나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설계공모내용으로 발주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총괄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 권한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 권한과 책임 범위를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사업취지 이해부족에 따른 역할수행 미흡

시범사업 초기에 워크숍을 거쳐 디자인총괄계획가 및 디자인검토위원의 참여시기와 역할을 설명하였고 디자인검토회의 시에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모니터링팀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시범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대와 홍보 부족, 일부 참여 전문가들의 인식부재로 각자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그동안 행정조직과 결합하여 디자인프로세스를 진행했던 경험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었으며 디자인검토회의 과정 자체가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공공건축가 역할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미흡

디자인검토회의에서의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효율적인 디자인검토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디자인검토위원들에게는 디자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정확한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 디자인 중심의 검토회의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명확화 필요

공공건축가 보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한 일일 회의비용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보수 지급과정에서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공공건축가 활용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시쇠퇴의 원인의 하나로 지역 전통시장의 침체화가 거론되면서 문화적 매력이 가미된 ‘전통시장’ 만들기라는 차별화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은 정책추진단계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는 시범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예산만 지원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기획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는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 생활권 인근 전통시장(점포수 50~200개 내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 시장)
- (사업예산) 시장 당 연간 1.5~3억(지방비 50% 매칭), 2년간 지원(1차년도 사업평가 후 2차년도 지원결정)

[표 3-4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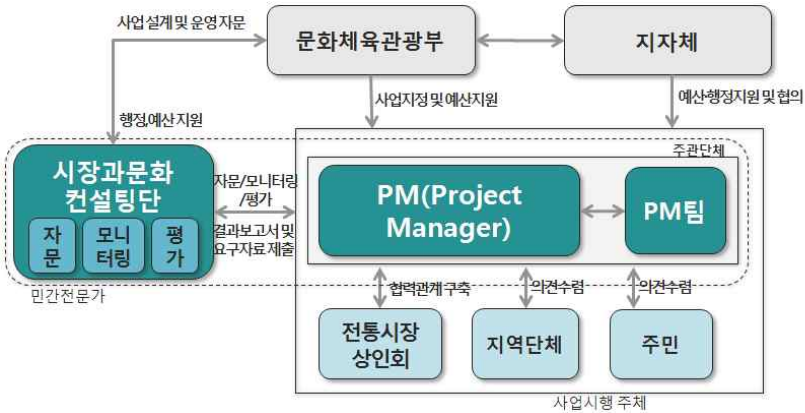
구 분		상 세 내 용
시장의 잠재력	시장의 적합성	시장규모의 적정성, 이용객 현황, 주요 취급품목, 매출액 추이, 시장유형과 입지여건 (배후상권과 경쟁점포 현황)
	상인의 협조가능성	상인조직형태, 상인회 조직력과 수용성
	시장의 공간적 여건	문화사업 활용가능 공간, 편의시설 정비 정도
문화관광 자원의 잠재력	지역문화 관광자원	시장 및 인근지역의 역사·지역적 특성, 문화·관광자원 현황
	지역 인적자원	지역의 문화예술인력·단체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연계활용 가능성	연계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사업 현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이해도,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역특성의 분석 및 반영도, 프로그램의 상인 참여가능성
	사업시행주체의 적절성	사업시행주체의 역량 및 추진가능성 등
정책 효과성	재원확보	재원조달계획 (확보가능한 재원의 규모 및 시기)
	지속가능성	지자체, 시장, 주민의 지속사업 추진 의지
	파급효과	예상 사업추진효과, 지역 파급 효과

시범사업은 시장의 역사·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 맞춤형 컨설팅, 후 사업추진’ 으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하여 차별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 및 예술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 기획단계부터 관여하게 하였다.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이끌어갈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진행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PM(Project Manager)을 사업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운용하였다.

□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시범사업의 공공건축가로는 사업의 심사, 컨설팅 및 평가의 역할을 하는 컨설팅단과 사업추진주체인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였다⁶⁷⁾. 시범사업 1개소마다 PM이 선정되어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지역상인회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초기(2008년)에는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시범사업의 취지를 숙지하고 있는 컨설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PM으로 지원하여 활동하였다.



[그림 3-4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주체간의 관계

문화를 주제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의 자격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공이 요구되었다.

[표 3-4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자격요건 및 선정

구 분	컨설팅단	P M
자격요건	· 건축, 도시설계, 문화기획, 공공미술, 지역문화마케팅, 관광스토리텔링, 문화 예술교육, 컨설팅 등 다분야의 전문가	· 지역문화, 커뮤니티아트,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간설계 등 다분야에 대한 통합적 기획이 가능한 자 ·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단체 또는 개인
선 정	· 문화체육관광부내의 추천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위촉	· 사업시행주체로서 적합한 기관단체를 컨설턴트가 추천 ·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3배수를 선정 · 각각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1인 선정

6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2008)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컨설팅단은 컨설팅 횟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며 PM은 제한된 인건비상한선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여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였다.

[표 3-4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보수 및 근무 형태

구 분	컨 설 팅 단	P M
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컨설팅 200,000원/회, · 방문 컨설팅 400,000원/회 · 사업평가비용은 시장 당 8,500천원 (예산 항목으로 책정) · 홍보 비용은 시장 당 6,000천원으로 컨설팅단 혹은 컨설팅단이 선정한 홍보 대행사와 홍보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상한선은 월 3,500천원으로 사업기간으로 적용 ※ 문선성시 사업 전체 형평성 및 PM 실투입률 고려
근무형태	· 비상근 근무(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자문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 비상근 또는 상근 근무(상근의 형태를 권장)

의사결정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 사업예산을 초기에 PM단과의 계약을 통해 교부하면서 사업의 진행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PM이 가지게 되었다. 사업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관련 주체들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지역상인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결정권한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림 3-44]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절차

□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범위

PM은 컨설팅단 자문을 받아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 추진과 정산까지 수행하였다. 특히 시장상인,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장분석,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 수요조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3-44] PM의 주요업무

단 계				주 요 업 무
기획 단계	공 모	공모 전 단계	시범사업 계획 수립	후보 시장 물색 및 지자체 건의, 사업구상 소개
		공모 단계	지원신청 준비	사업설명회 참여, 대상시장 선정
			사업신청서 작성	시장 실태 및 현황조사 착수, 사업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현장실사 진행	현장실사 준비, 현장실사 진행
	계 획	계획 컨설팅 단계	기본계획 준비	예비계획서 보완 작성 및 제출,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워크숍 참여, 기본계획서 작성 제출, 컨설팅 통한 기본계획 완성
			실행계획 확립	PM간 교류 워크숍 참여, 기본계획서 발표, 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컨설팅을 통한 실행계획 완성
		계획 확정 단계	계획확정 공지	실행계획서 발표, 시장별 사업설명회 준비, 컨설팅단 사전교육 참여 및 관리지침 습득
설계 및 시공 단계	실 행	착수 전 단계	사업집행 준비	주관단체 확정 및 단체등록, 사업추진에 관한 지자체와의 협약서 작성 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PM단 사무국 설치, 인력 채용 및 조직구성
		착수 후 단계	사업실행	사업설명회 개최, 상인회와의 초기모임 추진, 상인주도 사업 발굴, 사안 발생 시, 컨설팅 요청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 단위사업의 단계별 운영 전개, 시장홍보 계획 및 기초조사 착수
			추진사업 관리	PM단 조직의 사업진행 관리, PM단 회의, 상인설명회, 프로그램 기획회의와 평가회의, 지자체 보고, 컨설팅단 요청서류 등 행정관리, 중간정산, 단계별예산 교부 등 회계관리
유지 관리 단계	평 가	사업 평가 단계	올해 사업정리	사업기록과 자료수집, 사업의 정보화와 출판물, 우편물을 통한 사후 홍보, 정산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PM단 자체평가 정리,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문화부 평가 협조
			다음해 사업준비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휴지기간 관리, 사업 종료 후 별도 사업 모색 등 사후관리 모색, 차년도 계획 수립, 사업 종료 후 상인 중심의 문화사업 유지계획
		환류단계	실행계획 재수립	2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서작성 체결, 기본 계획 수정 및 당해년도 목표재설정, 사업내용 결정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시장별 2차년도 사업설명회 개최

컨설팅단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및 진행방식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업 성과, PM 평가, 상인방문객 만족도 등)를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컨설팅단이 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등 초기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2008년

도에는 이들 중 PM이 선임되기도 하였다. 시범사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컨설턴트는 현장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3-45] 컨설팅단의 주요업무

단 계				주 요 업 무
기획 단계	공 모	공모 전 단계	시범사업 계획 수립	당해년도 시범사업계획 수립 자문, 당해년도 시장 선정기준 마련, 대상시장 심사 선정계획 수립
		공모 단계	지원신청 준비	사업설명회 준비 및 실시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안내
			현장실사 진행	후보시장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보시장 현장답사, 선정 결과 통보
	계 획	계획 컨설팅 단계	기본계획 준비	컨설팅 전 예비계획서 접수, 시장별 담당컨설턴트 결정,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기본계획서 작성 제출 요청, 기본계획 컨설팅
			실행계획 확립	PM간 교류 워크숍 개최, 기본계획 발표회 개최,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요청, 실행계획 컨설팅
		계획 확정 단계	계획확정 공지	실행계획 발표회 개최, 컨설턴트의 사업계획 확정, 컨설팅단의 최종승인 및 문화부 제출, 시장별 사업설명회 진행, 문전 성시 사전교육 진행, 사업기간 중 컨설팅 공지
설계 및 시공 단계	실 행	착수 전 단계	사업집행 준비	PM단 조직에 관한 지원
		착수 후 단계	사업실행	시장별 컨설팅, 시장별 기타지원, 중앙홍보 및 평가계획 전달, 관리
			추진사업 관리	중앙홍보, PM의 기초조사와 자체평가 등 PM단에 요청, 지자체로부터 문화부로의 중간정산, 단계별 예산교부, 중간 보고 등, 현황파악 및 미비사항 관리
유지 관리 단계	평 가	사업 평가 단계	올해 사업정리	문전성시 정책포럼 등 종합발표 실시, 컨설팅단 중앙홍보 자료집 제작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결과보고서 및 기타 자료 취합, 시장평가 진행, PM단·상인회·지자체에 대한 컨설턴트 정성평가 진행, 컨설팅단 평가원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문화부 제출, 차년도 지원 계획에 대한 컨설팅위원회 소집
			다음해 사업준비	휴지기 활동, 후속활동, 차년도 계획 등에 대한 정보 확보
		환류 단계	실행계획 재수립	시장별 담당 컨설턴트 결정,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보완 컨설팅 실시, 담당 컨설턴트 확정, 컨설팅단 최종승인 및 문화부 제출, 2차년도 사업계획 발표회

※ ‘문전성시 핸드북(PM단을 위한 가이드) - 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을 참고하여 정리

□ 성과 및 한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은 문화적인 관점이 부각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전문가인 PM이 사업기획에서 수행, 최종 마무리까지 일관된 체계로 진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하게 되었다.⁶⁸⁾

- 전문가 자격 및 업무에 대한 규정 부족으로 인한 개인별 업무 격차 발생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 중 PM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컨설팅단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인해 컨설턴트 개인에 따른 수행업무에 격차가 발생하였다⁶⁹⁾. 경주 불국외동장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3인의 컨설턴트가 전문분야에 대한 제시 없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PM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주 가정터미널장 시범사업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해 상인의 자율적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1년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매뉴얼이 수립되어 PM뿐 아니라 컨설팅단의 역할 및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시범사업이 2012년을 기점으로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 전문가 권한 미흡에 따른 사업수행 지연 발생

사업시행주체인 PM의 권한 부족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예산결정권 등 주요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서 예산변경 등에 따른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동 하개장터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PM이 상하관계로 맺어져 세부 사항까지 부군수 결제를 받는 구조에서 오는 일정지연,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인회, 지자체 등과의 관계에서 전문가인 PM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며 컨설팅단 등의 자문 등을 통해서 결정 권한에 대한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8) '2010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평가' 및 '2011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69) 2011년 실시한 컨설팅단 평가에 따르면 컨설팅 전문성 만족도가 2009년에는 7.25 ~ 9.50, 2010년에는 3.33 ~ 8.67, 2011년에는 5.50~9.08로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개인에 따른 컨설팅 수준 격차로 인해 자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지역전문가 활용에 따른 시범사업 성과 제고

시범사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지역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 못하여 현장감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사업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PM의 경우 사업추진 성과와 상인들의 만족도 등이 높았으나 외부에서 지원 온 PM은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에 대한 해결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못하였다. 한산 5일장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상시근무자가 없어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으나, 후에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PM단에 포함시켜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 전문가 자격조건에 대한 제고

2010년 PM단 평가⁷⁰⁾에 따르면 PM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상인과의 친화력에 따라 사업 만족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목포 자유시장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상인회 및 지자체가 문선성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역적 기반 및 전문성을 가진 PM이 중개자로 협의를 유도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이자 원만한 대화능력을 갖춘 PM을 선정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③ 행정안전부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공공건축가 활용 배경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디자인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고 지역별로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가 10인을 선임하여 기획단계에서 자문을 수행하였고, 심사, 시범사업 선정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문내용을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반영하였다.

시범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행정안전부 소속의 디자인위원회인 지역공공디자인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역공공디자인 포럼위원들이 참여해 제안서 심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이후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럼 소속의 민간전문가를 사업별 멘토전문가로 지정하여 사업진행을 관리하였다.

70) 정량평가(설문조사)와 정성평가(현장 모니터링)를 실시(2010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평가 P.20 ~ 84)하였다.

■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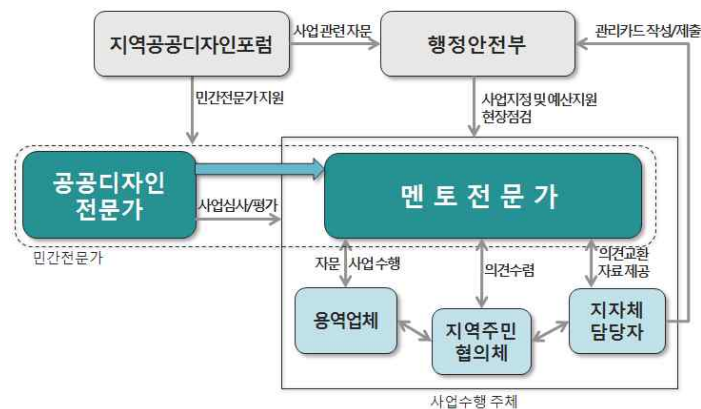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도시 및 지역공간 조성사업에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을 적용시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을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지자체 공공디자인 정책의 선진화
- 사업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공 지원
- 사업예산 : 총 80억원 (특교세 50%, 지방비 50%)

[표 3-46]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자치단체 추진역량	공공디자인 전담인력 확보,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작성 여부, 기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실적, 자체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선정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지역의 문화적·자연적 환경과의 조화 가능성, 사업계획의 창의·독창성, 사업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등 삶의 질 향상도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대책의 실효성	주민협의체(공공디자인 탐사대)활용 계획 적정성, 사업시행 후 사후 관리대책의 실효성, 공공디자인 전문가(공공디자인 포럼 등)활용 여부

□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별 배정된 멘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사업용역업체와 멘토전문가의 마찰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 3-45]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참여주체간의 관계

멘토전문가는 2010년 9월에 발족한 행정안전부 소속 디자인위원회인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의 22인의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과의 논의 및 자원을 통해 10인이 선정되었다. 해당

10인이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10개 지자체 사업 중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수는 자문 횟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지자체 사업비에 책정하였다.

멘토전문가는 시범사업 제안서의 검토 및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는 멘토전문가의 운용 및 권한에 대한 지침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경우 자문 수행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사업진행 중에 작성하는 관리카드에도 멘토전문가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결정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 등을 거치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림 3-46]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절차

□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범위

멘토전문가는 사업 진행 시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하도록 제안되었다. 하지만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각 지자체 사업 별로 멘토전문가의 역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역량 및 노력에 따라 사업에 깊게 관여하여 사업수행자 결정, 지역주민협의체와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자문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 성과 및 한계

- 전문가 투입에 따른 시범사업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했던 공공디자인사업은 사업취지와 달리 일회적인 이벤트 사업에 국한되었던 반면,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멘토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 중심의 거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 멘토전문가의 업무 및 자격에 대한 규정 미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멘토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개별 역량에 따른 사업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멘토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임한 시범사업 (포천, 제주, 부산, 영주)의 경우 ‘최우수’, ‘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시범 사업은 멘토전문가의 소극적 대응으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특히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기존 위원회 소속의 멘토전문가보다는 실무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의 투입이 요구되었다.⁷¹⁾

- 지역전문가 활용 필요

원거리에 있는 멘토전문가의 경우, 서면·유선 등에 의한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자문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④ 종합분석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이 공공건축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긍정적인 사업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참여자인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권한은 미약했다. 역할에 따라 총괄, 평가, 자문, 용역 등 민간전문가의 자격조건을 차별화하여 전문적인 업무의 수행이

71) 2012년 3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중

요구되었으며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의 통일된 민간전문가 활용기준을 토대로 각 부처의 시범사업에 변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역의 민간전문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7] 중앙부처 시범사업의 공공건축가 활용 비교

구 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명칭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PM(Project Manager)	컨설팅단	멘토전문가
참여 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건축디자인시범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운영 기간		2008~		2008(사업별 2년간)~		2011~
역할		사업전반 전담	프로젝트 단위별 디자인 검토 수행	기획, 실행 및 정산·결과보고	자문 및 실행 계획 수립 컨설팅	MP 혹은 자문
업무		·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 조정 · 기획안 작성 주관 · 발주방식 제시 · 과업지시서 검토 · 디자인팀 운영방안 및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 기획 및 계획단계 디자인검토 수행 · 각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상인 및 이용객 수요조사 실시 ·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 · 예산 정산 · 결과보고서 작성	· 선정기준 마련 · 사업사업 심사 진행 · 기본계획· 실행 계획, 자문 · 현장 모니터링, 실무자 인터뷰	· 기본계획 수립 자문 · 업체 선정, 시공 · 과정 등에서 조언
근무 형태		비상근 근무	비상근 근무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	비상근 근무	비상근 근무
자격 요건		건축 도시 조경관련 전문가		지역문화, 커뮤니티 아트, 시각예술, 공연 예술, 공간 설계 등 분야에 대한 통합적 기획이 가능한 자	해당 업무를 수행 가능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한 전문가	행정안전부 소속 디자인위원회인 지역 공공디자인포럼의 22명의 민간전문가
		디자인 전 과정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1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2인			
선정 방식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	· 컨설턴트 추천 · 3배수 선정 (포트폴리오) · 최종 1인 선정 (사업계획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권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획수립단계까지는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이 우선	-	· 계획수립, 예산 집행 등 · 지자체나 상인회 협의에 의한 결정이 우선시	· 자문, 사업 평가 위주 · 중요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음	· 자문의 역할 · 사업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짐
보 수	산정근거	· 사전검토수당 : 인건비 상한선 이하 기술자 노임단가 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단가 · 회의수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의 위원회 참석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에 의거		-
	보수기준	① 사전검토 : 2,368,000원/월 ② 회의 참석수당 70,000원×회	① 사전검토 및 검토 의견 작성 296,000원/회 ② 회의 참석수당 70,000원×회	· 인건비 상한선은 월 3,500,000원 · 사업예산에 따라서 조정	· 서면 컨설팅 200,000원/회 · 방문 컨설팅 400,000원/회	· 자문 횟수에 따라 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
업무 매뉴얼		업무지침 (매년 내용이 약간 달라짐)		문전성시 핸드북 (2011년에 제작)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3) 영국 CABE의 『Enabling』 제도

□ 제도 도입배경

영국 CABE에 의해 운영되었던 『Enabling』 제도는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공시설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CABE가 발간한 『발주주체를 위한 가이드(Creating excellent buildings: A guide for clients)』(CABE, 2010)에서도 ‘전문적 지식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sound advice & informed decision)’을 좋은 발주기관의 원칙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이드에서 일정 예산규모의 사업은 별도의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⁷²⁾하다고 밝힌 바 있다.

CABE는 『Enabling』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제도 운영 목표와 공공시설 발주과정에서의 전문적 역량 확보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당시의 대법관부⁷³⁾(Lord Chancellor's Department) 발주 사업 6개를 위임받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Enabling』 제도 도입 초기 시점에는 유아 및 학교시설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었으며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의 예산을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관여하게 되었는데, 2005년 이후에는 학교사업에 집중적으로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이외에도 복지 및 문화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앙부처의 적극 참여를 통한 도입과정을 지나 CABE는 개별 공공건축과 비교하여 마스터플랜 및 전략 수립 사업의 전문성 결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Enabling』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Enablers)들은 2008년 신설조직이었던 주택재생정책기구⁷⁴⁾(Housing and Communities Agency, HCA)의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재생 예산이 대폭 증가되면서 사업 운영과정에서 정책 제안자들과 실무자간 의견을 수렴하는 중개역할도 담당하였다. CABE는 『Enabling』 제도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축적된 사업 경험들을 토대로 다양한 가이드 및 업무지침을 발간하였으며,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Enabling』 제도의 성과를

72) 예산규모 100만 파운드(약 17억 5천만원) 이상 500만 파운드(약 88억원) 미만 사업은 발주기관 내 임명된 디자인챔피언과 더불어 별도의 외부 자문위원과 함께 사업이 수행될 것을 권유하였으며, 500만 파운드 이상 사업은 발주기관 대표자, 디자인 챔피언, 프로젝트 매니저 및 별도 외부 자문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발주주체를 위한 가이드(Creating excellent buildings: A guide for clients)』(CABE, 2010)

73) 당시의 대법관부(Lord Chancellor's Department)는 현재의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이다.

74) 주택재생정책기구는 2008년 영국 국립재생공사(English Partnerships)와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의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신조직이었다.

홍보하여 정착시켰다. 초기 발간업무로는 조달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과 협력하여 공동발간한 공공건축 조달계약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가 있었으며, 『LIFT(Local Improvement Finance Trusts)』 도입 등을 통해 『Enabling』 제도의 실효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공공시설 발주기관 내 고위 공무원을 디자인챔피언으로 임명하여 행정 체계 내 디자인가치를 촉진시키고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공공 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자인 챔피언(Design Champion)

- 디자인 챔피언의 자격요건
 - 내각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가급적이면 건축, 계획, 공원, 도로공사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인사를 추천(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유리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건축 계획사업에 대한 관심, 열의 및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업무 경험이 많으며 능숙한 고위 행정직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
 - 커뮤니케이션 및 설득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내 · 외부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가치를 홍보 · 촉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
 - 지자체 내 모든 부서의 업무 및 행정체계를 잘 이해하는 자
 - 사업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
- 디자인 챔피언의 책무
 - 외부기관들이 쉽게 인식 및 접촉할 수 있는 인사로서 활동
 -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행사
 - 지자체 관련업무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해당 지자체 내 수립되는 주요 정책들이 건조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보장
 - 지자체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필요시 외부지원 및 자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디자인 챔피언(Local Authority Design Champions)」(CABE) 내용 발췌 및 정리 요약

□ 제도 운영내용

『Enabling』 제도의 운영사례는 시설유형별로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보건시설, 문화 및 커뮤니티 시설, 법정 및 행정시설, 긴급구조 및 치안시설, 폐기시설,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거 및 도시재생사업, 사회 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에 동참한 중앙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 문화 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등이 있으며, 그 외 공공조직 연계사업 사례도 다양하다.

CABE의 『Enabling』 제도가 적용되었던 가장 두드러진 시설유형은 교육과 문화 시설이었다. 2001년 교육부는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CABE에게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모든 학교건립 사업⁷⁵⁾에 대한 기획안 작성 및 설계와 조달계약 관련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CABE는 9년간 13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2002년 교육부의 「지역 및 보육시설 개선(Neighbourhood & Nurseries)」 공모 기획에 참여하였고, 2004~2008년에는 아동·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 Families)가 운영하였던 ‘공립 사회문화시설 프로그램(Surestart)’에 참여하였던 지자체를 지원했다.

CABE는 문화 및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조직과 연계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2001~2008년에 걸쳐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문화미디어체육부 요청으로 도서관 건립 관련 행정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9년에는 교육부 요청으로 청소년 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는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CABE는 2001~2010년 동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관리 아래의 10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다. 보건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국민보건서비스(NHS) 내 디자인리뷰 패널을 설립하였고, 보건부의 디자인 챔피언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 관련 사업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협력하여 부처 내 디자인패널을 설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으며, 내무성(Home Office)의 요청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의 설계 및 조달 관련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폐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의 요청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폐기시설 관련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였다.

■ 보육시설 사례_히스필드 유치원 및 아동 센터(Heathfield Nursery & Children's Centre)

- (사업개요) 공립 사회문화시설 프로그램(Surestart)의 일환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히스필드 보육 시설은 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공존하며, 지역사회의 탁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시설

75) 구체적으로는 민간투자개발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과 ‘미래를 위한 학교(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모든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였다.

- ‘Enabler’ 수행업무
 - 본 사업은 2단계 설계공모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Enabler’ 는 현상설계공모 과정 지원 및 운영
 - 설계자 선정을 위한 면담과정(interview process)에 참여하였으며, 면담패널 멤버 중 유일한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서 독립적 견해 제시

■ 중국예술센터(Chinese Arts Centre, Manchester)

- (사업개요) 지속적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맨체스터 도심지역에 위치하는 예술센터로 문화·예술 시설을 통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전시공간, 다과방(tea room), 아티스트 작업실, 갤러리샵 등의 다양한 용도가 공존하는 중국예술센터 건립 추진
- ‘Enabler’ 수행업무
 - ※ 중국예술센터 건립은 『Enabling』 제도를 가장 초기에 적용했던 사업 중 하나로 일반적인 『Enabling』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늦은 시점에서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짐
 - 본 사업은 2002년 1월에 건축 인·허가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3월에 ‘Enabler’ 가 파견 되었으나, ‘Enabler’ 는 설계 및 사업의 세부사항을 재점검하여 개발자에 의해 진행된 계획의 오류를 발견하고 건물 설비시스템의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공단계가 원활히 진행되어 사업일정에 맞게 준공될 뿐 아니라 196,000파운드(한화 약 3억 4천만원) 절감
 - ‘Enabler’ 는 절감된 비용이 지역의 예술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객기관을 대신하여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와 협상

* 출처 : Creative Exchange_ st Noeots_Cambridgeshire, CABE에서 일부 발췌하여 정리

이후 CABE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주거 및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에 한하여 디자인 지침(design brief)작성 지원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사회 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지침 작성, 설계자 선정절차 개입 등을 통해 우수한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지원하였다.

[표 3-48] 『Enabling』 제도를 통한 지원업무 내용 정리

구 분	‘Enabler’ 의 구체적인 지원업무
디자인지침/기획안 (design brief)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정의 및 수립 ·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제시를 통한 사업방향 결정 지원 · 해당지역의 현 건축정책과 연관하여 장기적 지역전략 수립 · 요청기관과 협력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분명하고 간결한 지침 작성 · 수립된 디자인지침 검토를 통한 피드백 제공
현상설계공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현상설계공모 기획 및 관리 · 설계지침 작성 지원 · 작성된 설계지침 내용 검토 및 평가

구 분	'Enabler' 의 구체적인 지원업무
설계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자문위원회의 구성인력에 대한 자문 제공 · 설계안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에게 사업 디자인 목표 및 주요쟁점 설명 · 설계자 선정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제공 · 최상의 설계안 구현을 위해 설계자에게 통합적인 사업관련 자료 제공 · 설계자 선정 인터뷰 참석 · 설계안 발전 및 진행 과정 평가 · CABE 운영 디자인리뷰(Design Review)를 받도록 권유
사업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 역할 수행 · 사업 주요쟁점을 확인하고 참여주체간 견해 수렴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 사업실행계획(project delivery plan) 수립 지원 및 자문 · 요청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리더십 지지 · 지자체 내 디자인 검토 담당자를 위한 1:1 전문가 파견 · 주민참여형 사업 도모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한 디자인포럼(Design Forum) 기획 및 운영
타 주체 및 기관과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개최 및 운영 · 벤치마킹 사례 이해 및 사업 주요쟁점 파악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운영 · 설계자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 · 요청기관 및 설계자를 대신하여 건축 인·허가 부서 대응 · 예산절감 비용이 지역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단체와 협상 · 추가예산을 위한 협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운영 지원 · 지역단체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3) 시사점

사례조사 결과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운영사례의 근본적인 차이는 업무수행 주체인 전문가가 행정체계 내부 또는 외부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 행정조직과의 관계 설정, 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이 결정된다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유형별 공공건축가 역할 차이를 고려한 업무수행 방식 설정 필요

행정체계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개별 프로젝트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지역 디자인방향을 설정하는 거시적인 업무 수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 공공건축가는 개별사업의 진행과정에 보다 밀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국내외 총괄형 공공건축가들은 지자체의 건축 및 도시개발의 총 책임자로서 시에서 발주되는 공공건축 사업들이 일관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 수립, 자문을 통한 사업관리 및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그 중에서도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주요 업무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장기 비전, 장소단위의 계획 수립 등을 총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는 영주시, 프랑스 리옹시 및 영국 버밍햄시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총괄형 공공건축가제도는 일관된 지역 디자인방향의 틀에 기초하여 개별사업의 디자인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별사업의 디자인품질 관리는 자문을 통한 관리와 설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주시의 경우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타부서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장소’로 통합되는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자문대상에 따라 체계적인 개별사업 관리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프랑스 리옹시의 공공건축가는 소규모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이는 시의 디자인방향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물리적 결과물 생성까지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사업에 대해 보다 깊은 관여를 허용하는 모델로 파악된다.

반면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는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문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CABE는 『Enabling』 제도를 통해 사업 제약사항, 특성, 일정계획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제약사항과 시급사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문가에 의해 업무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공공건축가의 업무영역이 보장되는 행정조직과의 관계 구축

국내외 총괄형 공공건축가 사례 모두 행정조직 내 특정부서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팀 또는 과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주요역할은 지자체에서의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공공건축가 개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체계 내 효율적인 업무분담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영주시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건축가 및 도시디자인과 행정담당자에 의해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의 업무가 보조되고 있으며, 버밍햄시는 총 18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시는 건축 및 도시설계, 조경설계, 수목관련 전문가, 설계 기술직, 3D 전문가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조직 내에서 특화된 업무까지 직접적으로 수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역할 보장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공건축 업무를 전문가의 참여하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행정조직체계 외부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지원체계는 행정의 순환보직과 무관하게 일관된 디자인관리체계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형 공공건축가와 중앙부처 사례 사업들은 행정조직 내 다양한 실과부서 및 공공조직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칸막이식 행정의 문제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가 실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미흡하여 행정조직의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 단위 외부지원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활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행정조직이 적극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보장하고 활용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는 영국 사례에서도 드러난바 있는데, 외부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Enabling』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영국 중앙부처는 공공건축사업에 CABE를 적극 활용하여 선도 사례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Enabling』 제도의 지원이 자자체로 확산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Enabling』 제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건축적 자문만 이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간 거버넌스 체계 확립, 실행계획 수립 등 발주기관의 실질적인 사업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자문도 제공하였으며, 발주기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신뢰도를 제고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전문가의 지원업무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지원업무 정착을 추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공공건축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행정조직 내에서 운영됨으로서 공공건축가의 선정방식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자격요건, 권한, 의사결정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국가인증체계를 통해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거나 경력 8년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해외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행정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건축가의 건축 전문성과 더불어 행정체계 내에서의 사업관리 능력이 중요시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및 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을 경력, 사업 매니지먼트 능력 및 행정절차 이해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의와 소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행정처리 능력과 법규 및 절차에 능통해야 함을 자격요건으로 포함한다.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는 상근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행정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책무가 명확히 인식되어 있다. 공공건축가가 행정체계 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위 및 경력에 적합한 보수기준을 따르고 업무대가에 대한 모호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국내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격요건 설정이 미흡하고 특히 권한과 보수기준이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중앙부처 시범사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가는 공공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향, 관심정도 등에 따라 사업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격요건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프랑스, 영국과 같이 유사성격 수행 경력, 사업관리 능력, 법규 및 절차 이해도 등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건축가는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간의 협의, 문제 및 갈등 대응 등 사업운영과정에서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공공건축 사업특성상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한 공공성 제고와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한 시설관리계획, 향후 증개축계획 등이 공공건축 디자인의 주요사안임을 인지하여 발주기관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체계 외부전문가의 경우 업무 책임에 대한 소재와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일부 부서 또는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과제

1) 디자인프로세스의 총괄관리

□ 공공건축사업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 필요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전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공공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공건축가 운영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담당자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한 채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칸막이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사업 수행의 목표 및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설정하지 못하여 일정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해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 사례에서는 행정조직 내의 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초반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디자인프로세스관리를 지원하여 공공건축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진행방향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일관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에서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이를 사업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단계별 업무단위 구분 및 역할 설정 필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지원을 통한 사업 전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단계에 대하여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참여주체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사업은 행정담당자, 용역팀 및 시민뿐 아니라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명시와 그에 따른 역할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품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는 사업에 따른 역할뿐 아니라 각 단계에 있어서의 업무도 단위구분이 필요하다. 공공건축사업은 크게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4단계로 나누어지나 단계 내에서는 각각의 세부 진행 절차에 따른 수행업무가 있다. 이를 사업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단계 내에서도 사업수행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전기획, 사업수행이 확정된 이후의 기본기획 등 행정절차와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누고 그에 따른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참여주체 중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가 변화할 수 있다. 프랑스 리옹시에서는 경쟁입찰 제외대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가 설계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관청영선부에서와 같이 대규모의 사업수행 시에는 기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관리의 역할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획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총괄관리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주자인 행정담당자는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며 일정 및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선정된 공공건축가와 함께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객관적인 디자인검토 과정을 걸쳐서 설계안을 작성해야 한다. 영주시나 서울시의 선도사례 등은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설계자로 선정하여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공건축가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계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토대로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및 중앙부처 시범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따라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점검으로 간소화할 수 있으며 디자인리뷰와 같은 외부 민간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 회의를 수행할 수도 있다.

시공단계에서의 업무는 국내 영주시 선도사례의 한계에서도 드러났듯이 설계자에 의한 디자인감리가 실시되어야 하며, 우수한 설계안이 시공과정에서 변동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업무는 공공건축가의 비중보다는 공공건축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행정담당자 및 사용자의 역할이 큰 부분이다. 다만 앞선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첫 단계인 기획에서부터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획업무의 독립 및 전문성 확보 필요

1차년도에서 실시했던 행정담당자 대상의 설문결과나 국내 디자인 선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참여주체 간의 견해차이나 일정 및 예산 변경 등의 문제점들은 기획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영주시 및 서울시 디자인선도사례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일정이나 예산, 발주기관의 입장, 부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해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에서는 기획단계업무를 설계단계에 부속된 것이 아닌 별도의 업무단위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기획서 작성 혹은 이에 대한 상세한 자가점검 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후속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행정조직 내에 350인을 초과하는 전문인력을 기획업무 수행에 배정하고 있으며 기획서 작성 시 필요한 각종 기준 수립 업무에는 250인 가까운 인원이 종사하고 있어 기획단계에서의 업무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행정조직 내부에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기획단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조직을 지원하게 하고 있다.

공공건축사업에서 기획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뿐 아니라 주민 및 행정에서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효율적인 공정관리, 후속단계에서의 문제점 최소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이다. 기획업무는 기존의 관행처럼 설계단계에 부속시키는 것이 아닌 공공건축사업의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여 사업의 수행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축가를 기획단계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에 따른 유형별 특성이 다르다.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특정 지역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의 디자인품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며,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개별사업 특성을 기반으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

□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병행 운영 필요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다양한 지자체 여건, 대상사업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 모두 병행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토대로 공공건축사업 관련 정책 및 통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을 행정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실행시키는데 효율적인 모델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총괄형 공공건축가 유형이 지자체마다 확산되어 디자인품질 관리가 행정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다수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직 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에게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와 같이 신진건축가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등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건축문화를 발전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때, 코디네이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영국 CABE의 경우, 『Enabling』 제도의 적용을 위해 요청 사업마다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공공건축가와 더불어 밀착된 사업관리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간조직의 업무조정이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당한 성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현 시점에서 드러나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공공건축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뿐 아니라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여 행정조직 및 외부전문가간 조정의 역할을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운영기준과 업무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공공건축가 운영 조직으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설정 필요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운영방식 및 절차의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간조직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인증된 전문가 선정절차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적정한 공공건축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공공건축가 자격 요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며, 건축적 재량과 함께 행정조직의 특성과 제약을 파악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이 동등하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총괄형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은 공공건축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객관적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디자인품질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의사결정 권한은 없으나 인증된 절차와 자격요건들에 부합하는 총괄형 공공건축가가 선정되도록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총괄형 공공건축가가 선정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품질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 및 업무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보급하는 정보기지로서의 기능을 이행하여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조직과의 협조적 관계 구축과 코디네이터형 조직으로서의 전문적인 사업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해당사업의 준공까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조직과의 협조적 관계는 사업성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적정 업무와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고 참여주체간 이견 발생 시 협의 및 중재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진행방향이 특정부서 또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 의견에 입각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 주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 CABE와 같이 지원사업별 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진행방향에 대한 밀착관리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성과

1. 시범운영을 위한 개요
2. 공공건축가 지원에 따른 운영과정 모니터링
3. 시범적용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 시범운영을 위한 개요

1) 시범운영 필요성

1차년도 연구는 공공건축 조성과정 및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로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 공공건축가 주도에 의한 공공발주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매뉴얼 및 지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업무 중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모두 핵심주체가 공공건축가이며 실제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행정 조직 지원업무가 진행되게 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매뉴얼 작성과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가의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가 활용을 통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을 현 공공건축 조성 과정 개선을 위한 주요사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전문가 활용이 자문에 국한된 업무, 늦은 개입시기, 행정조직 내 부서와의 협력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주도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 정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행정체계 내 실효성 있는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건축가와 행정조직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전문가 지원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이해관계자간 조정 및 중재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과 운영방안의 합리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공공건축가를 통한 지원업무와 이에 대한 시범적용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지원센터의 역할은 공공건축가가 수행하는 기획서 작성, 디자인리뷰 등과 같은 업무 운영 시 행정조직과 공공건축가의 중개와 사업관리 관련 전반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다.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업무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로 구분되나 본 시범적용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2) 시범적용 대상 및 내용

□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 시범운영하는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지자체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에 대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자의 역할이다.

공공발주 프로젝트에서 기획업무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가장 미흡한 대상은 소규모 공공사업으로서 주로 행정업무 단위로 획일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을 시범 운영해봄으로서 행정절차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건축지원에 의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 개별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 중 투·용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순 행정 프로세스로 디자인관리가 진행되는 40억 미만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다만 초기 기획업무의 정상화를 통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가 가능한 40억 이상 사업도 포함하였다.

□ 시범적용대상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원센터와 공공건축가 업무의 시범운영을 위해 영주시 사업 2개와 경기도 평택시, 수원시 각 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우선 현재 총괄형 공공건축가인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이 운영되고 있는 영주시 사례를 선정하여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지역 건축가간 관계설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업무를 검증하였다. 월림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약 2억 5천만원의 2012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소규모 시설로 기획 적정성 검토 및 설계단계 진행과정에서 지원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면사무소를 수직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획 및 설계단계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자체적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있어 협조하게 되었으며, 총 5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초기기획 및 설계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업무가 적용 가능한 2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수원시는 약 200억 예산규모의 물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이었으며, 초기기획단계 개입이 가능한 예산방침 이전단계의 사업으로서 건축직이 없는 실과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시범적용 대상에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신축사업으로 기획단계 부실로 인해 부지 근처에 위치한 도지정문화재인 팽성읍객사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문화재 심의 불허를 받은 사례이다. 본 사업은 설계추진 과정의 지원을 통해 기획업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연구기간 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건축가 지원업무 전 과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진행 현황 및 일정계획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여 각 사업별 추진단계에 따른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표 4-1] 지자체 프로젝트 단위 시범적용 대상 비교

구 분	대 상	위 치	예 산	진행과정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 인근	약 200억	· 2012.3월 부지선정 · 2012.10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수행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신축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70-2외8	약 47억	· 설계단계 진행
영주시	월림보건소 신축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127-2번지	약 2억 5천	· 2012.4~6월 설계용역 · 2012.7월 착공예정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로 1363번길(문수면 적동리 466-1)	약 9억 2천	· 2012.4~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공공건축가 선정

공공건축가 선정은 사업 특성 및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경험이 풍부하고 디자인프로세스를 총괄적으로 관리가능한 건축가를 섭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 풀 중에서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젊은 건축가를 중심으로 3인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으며, 영주시의 경우 시에서 선임된 기존 전문가와 협력작업을 통해 시범적용을 추진하였다.

공공건축가 1인당 1개의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수원시 물체협관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2인의 공공건축가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의하였다.

□ 시범적용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용 사업에 대해 컨설팅 및 설계이행지침 점검 등의 기획업무를 지원하고, 기본설계안에 대한 디자인리뷰를 운영하였다.

[표 4-2]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업의 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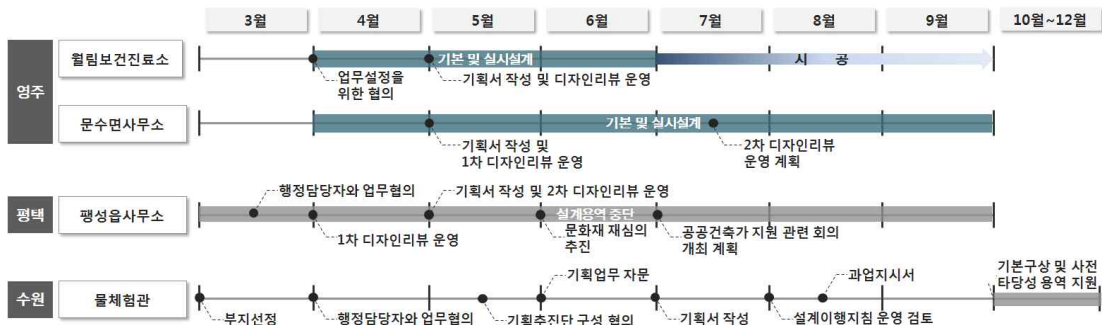
구 분		수원시 (물체협관 신축)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신축)	영주시 (월림보건진료소 신축 및 문수면사무소 증 개축)
기 획 단 계	사전기획서 작성	●	—	—
	과업지시서 작성 검토 및 지원	●	—	—
	본기획서 작성	○	—	—
	설계이행지침	●	—	—
	최종 기획서 작성	● (지원)	○	○
설 계 단 계	디자인리뷰회의 운영	—	●	●
	디자인리뷰결과서 작성	—	●	●
시사업 정리		·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절차에 맞춰 사전 기획서 작성 가능 · 설계이행지침 및 기획서 내용 대응성 검토	· 설계단계에서 개입하는 사업의 디자인리뷰 운영방식 검토	· 소규모 시설 기획 및 설계과정 파악 · 디자인리뷰 운영 방안 모니터링

● 수행된 시범적용 업무

○ 일부 수행된 시범적용 업무

기획업무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 특성 등을 파악하고 건축, 도시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획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획업무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획서 서식에 따라 사업기본구상, 사업수행방식 설정, 사업진단 및 방향 설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하고, 기획업무 충실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설계이행점검을 적용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디자인리뷰 운영을 통해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사업취지, 사업진단 등을 기준으로 기본설계안을 검토하였으며, 설계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 및 설계자 간의 의견 제안 및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4-1] 지원센터 시범적용 대상의 업무 추진

3) 시범적용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모형

시범적용 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센터의 운영방안과 역할을 검증하였다. 지원센터는 발주기관, 행정 담당자,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 함으로서 사업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역할로는 전문적 업무에 대한 조정과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부터 설계단계 업무까지의 디자인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단계별 운영과정을 코디네이팅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서 양식을 제공하고, 전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계이행지침이 활용되도록 제공하였다. 기획서는 일본의 관청영선부에서 운영하는 기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설계 이행지침은 미국의 PDRI와 교토의 건축기획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서 작성을 위해 사업 관련부서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원시 물체험관 신축사업의 기획서 작성과정에서는 사업 이해관계자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기획서 내용구성을 재검토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지원센터는 설계이행지침의 적용을 통해 작성방식, 작성에 따른 실질적 소요시간, 도출내용 등을 파악하여 향후 기획과 설계단계에서 자가 진단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운영하였다. 향후 이러한 단계별 업무에 대한 효용성이 인정되면 국내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획서와 설계이행지침 개발을 위해 별도의 과제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표 4-3] 기획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0.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및 시설에 대한 간략한 개요 · 지역 및 시설의 특징 기입 · 소요예산 개요 · 사업집행방식 기입 · 시설 정비배경 기입 	
1.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기입 · 상위계획과의 관계 등 · 시설 기대효과 · 중점 고려항목 기입 	
2. 사업방향설정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설 평가 · 부지계획 기입 · 조례관련 사항 기입 · 향후 중 · 개축 계획 검토 · 설계 원칙 기입 · 시설유지 · 관리원칙 	
	·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 활용여부 · 설계이행지침 운영여부 · 디자인리뷰 운영여부
	· 경제적 분석	
	· 추정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 · 설계 및 시공비용 · 전문가 활용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 결정 · 사업일정 수립 ·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설정 	
3. 부지	부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부지 면적 · 인접건축물 현황 · 인접도로 현황 · 토질조사자료 · 장애물, 고저차, 경사 · 구역 내 보존건축물 자료 등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 · 사선제한, 고도제한 등 · 용도지역, 방화지역 등 · 배면후퇴 · 건폐율, 용적률 · 건축설비에 관한 조례
4.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 내 · 외부공간 개요 · 입주관리자 개요 · 설비기능 등 	
5. 예산표	·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등 적정공사비 산정	

※ 위 기획서 내용은 기획서양식의 시범적용을 위한 예시로 부록의 기획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4-4] 설계이행지침 주요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항 목 내 용			
1	사업 개요 및 집행 기준	1-1	· 사업추진 목적	1-5	· 행정절차 및 승인이 필요한 문서 확인
		1-2	·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1-6	·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1-3	· 관련 사항사업 타당성 원칙 관련 사항	1-7	·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1-4	· 적용 법률제도	1-8	·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제시
2	사업 진단 기준	2-1	· 부지선정계획의 타당성	2-5	· 기존시설의 평가 및 분석
		2-2	· 증·개축 계획 반영	2-6	·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2-3	· 부지 주변여건 분석 (현황, 경계, 지질, 소음, 일조, 교통, 환경, 경관 등 관련 항목 조사와 시뮬레이션)	2-7	· 사업일정 수립
		2-4	· 유사사업의 평가 및 분석	2-8	· 과업범위 설정
3	디자인 기준	3-1	·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3-5	·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3-2	· 교통 관련 사항	3-6	·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3-3	· 환경 관련 사항	3-7	·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3-4	·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3-8	·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설계단계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연구진이 코디네이터로 디자인리뷰를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참여자간 역할 조정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디자인리뷰 운영에 앞서 사업 현장답사를 통해 부지현황과 주변여건 등 사업의 주요 쟁점을 공공건축가와 함께 파악하였다. 지원센터는 디자인리뷰 전·후의 소규모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하였으며 디자인리뷰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여 실과부서 담당자, 용역팀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4-5]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단계별 역할

구 분		시범적용 과정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역할
기획단계	업무 컨설팅	· 회의 중재 및 운영 · 시범적용 업무 설명 · 시범적용 업무범위 설정 협의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 작성	· 양식 및 운영절차 제공 · 필요 시 행정관련 문서 요청 및 검토 · 작성문서 취합 및 관리
설계단계	디자인리뷰 운영	· 해당 사업 현장답사 · 디자인리뷰 운영 관련 설명 · 디자인리뷰 운영 결과 관리

2. 공공건축가 지원에 따른 운영과정 모니터링

1) 영주시 공공건축가 지원

(1) 월림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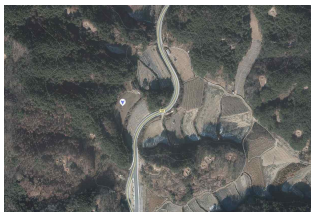
□ 개요 및 추진현황

월림보건진료소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진료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시설의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진료소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소는 두월리와 신천리 지역 주민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로 1차적으로 기존 마을 내에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려 했으나 인접 마을에서의 민원 및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두 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영주댐 건설에 따라 수몰예정지역의 주민들이 부지 인근으로 이주 할 가능성이 높아 마을의 중심적 역할을 제공 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설이다.

본 사업은 당초 2012년 5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7월에 설계 및 용역발주가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월림보건진료소는 3월에 기획업무가 착수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부지 및 예산계획 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업무가 행정업무로 결정되었다. 또한 당초 5월까지 기본설계안을 납품 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지연에 따라 6월 중순으로 미뤄졌으며, 실시설계는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가 협업하여 진행되었다.

■ 월림보건진료소 신축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127-2번지
- 부지면적 : 990.00m²
- 연 면 적 : 148.00m²
- 사 업 비 : 약 251백만원(설계비 : 10백만원, 공사비 : 24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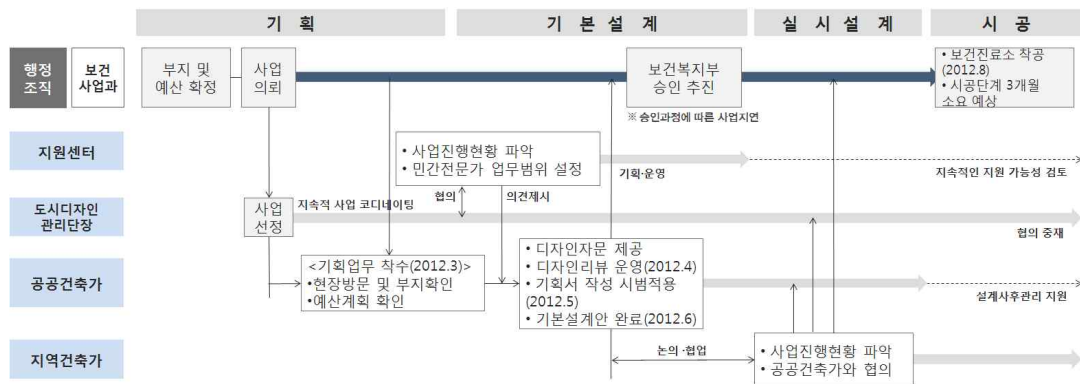
[그림 4-2] 월림보건진료소
위성사진



[그림 4-3]
모형사진-전경(Case Architects)



[그림 4-4]
모형사진-조감(Case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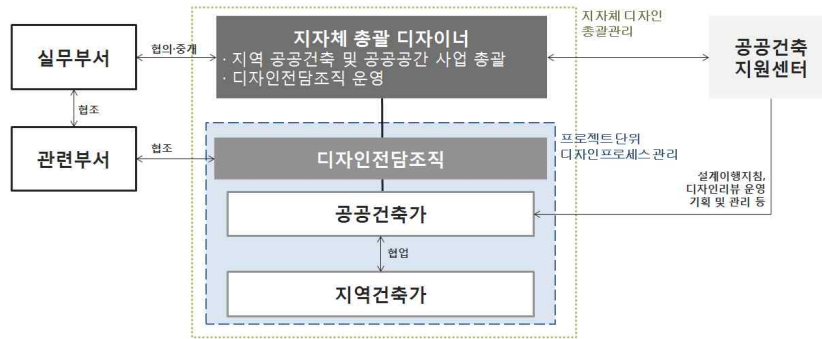


[그림 4-5] 월림보건진료소 세부 추진일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 역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월림보건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서 작성과정과 디자인 리뷰 운영을 관리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획서의 내용이 사전기획과 본기획으로 구분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에는 월림보건진료소의 사업 진행 단계상 본기획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및 예산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기획 내용인 내부공간계획, 입주관리자 인원 및 관리구역 등 소규모 시설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업무를 조정하였다. 디자인리뷰 운영과정에서는 자료배포 및 회의일정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영주시는 공공건축 관련 디자인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영주시 시범 적용 사업에 한해서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영주시 소속 공공건축가 본연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센터 공공건축가로 구분된다. 영주시 공공건축가로서의 역할은 영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과 개별 프로젝트의 기본설계 담당 및 실시설계 협업이며, 지원센터의 공공건축가로서는 영주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자문을 지원센터에서 제시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업무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주시와 같이 디자인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와의 업무관계 설정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었다.



[그림 4-6] 영주시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관계도

□ 공공건축가 수행업무

월림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의 기획업무는 행정절차에 따른 조기발주로 인해 부지현황 파악 등 예산확정을 위한 단순 업무로 수행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공공건축가는 기획서 작성을 통해 초기기획업무 수행 시 제안되어야 했던 사업의 목적 및 설계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 시설 적용 시 기획업무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범위를 검토하였다. 공공건축가는 구체적인 사업 배경, 지역특징, 부지 및 시설의 특징을 서술하였으며 설계의 중점고려항목을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이용, 입면 및 평면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4-6] 월림보건진료소 기획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0. 사업 개요	소요예산 개요		· 총 251,212,000원 중 설계용역 계약금액 10,210,000원, 공사비 241,002,000원
	사업배경		· 농촌 고령화로 인해 매년 이용자 증가, 시설의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가중
	지역의 특징		· 북쪽으로 봉화군을 접경 · 지역의 중앙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내성천을 중심으로 작은 평야 형성 · 영주댐 건설계획에 따라 수몰예정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해야하며 부지인근으로도 10여 가구가 이주할 가능성
	부지 및 시설의 특징	부지	· 대지의 동측에 6m 전면도로가 있으며 대지보다 약 3M 정도 낮음 · 도로는 북측방향으로 두월리, 남측방향으로 신천리를 연결 · 서측에는 높이 250m의 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음 · 동측의 낮은 방향과 북측방향의 길을 따라 열린 조망 · 주도로 건너편으로 수몰 예정지역
		시설	· 시설은 보건진료소로서 진료활동 영역과 숙소영역으로 구분 · 숙소는 진료소장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며, 진료소는 두월리와 신천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 · 두 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곳으로 진료소의 접근 시 차량을 이용 필요 · 부지 인근으로 이주 가구가 형성될 경우 보건진료소가 중심역할

구 분		내 용
1. 사업 목적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시설이 수행할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진료활동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시설 기대효과	·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 가능 · 농촌지역 주민들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 · 건강쉼터, 사랑방으로 역할 기대 · 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점 고려항목	· 배치계획: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이 되도록 함 · 외부공간이용 계획: 공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계획 · 입면계획: 대지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의 형태와 재료고려 · 평면계획: 건물의 방위에 따른 적절한 실 배치, 실의 용도에 적절한 평면계획 수립 · 재료선정: 초기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경제성 확보
2. 사업 방향 설정 및 진단	설계 원칙	· 접근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공공시설로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 주변의 수려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계획 · 사업예산에 적절한 규모와 형태 및 재료사용 계획
	시설유지·관리원칙	·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간계획 및 재료사용 · 적절한 자연채광, 환기 및 단열계획으로 냉난방 부하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고려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영주시 공공건축가 및 타 지자체 공공건축가가 참석하여 디자인 리뷰 1회 진행
	발주방식	· 설계 : 용역비로 수의계약으로 체결 · 시공 : 공사비로 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 주요용도 및 규모(진료활동 : 진료소, 대기공간(주민회관으로 이용), 건강증진실(운동기구설치) / 숙소 : 진료소소장 거주) · 진찰실에서 대기공간과 현관을 인지 가능해야 함 · 대기공간과 건강증진실은 한 공간이되 변형 가능한 칸막이 필요 · 진찰실과 숙소의 동선 짧게 함 · 진료소와 숙소의 입구는 분리

설계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기본설계안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행정담당자, 건축가 등 관계자들과 디자인리뷰를 운영하였다. 공공건축가는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설계 컨셉에 의한 디자인 발전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디자인리뷰 패널은 부지결정 및 예산계획에 따른 제약적 여건 범위 내 최상의 설계안 구현을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 월림보건진료소 관련 디자인리뷰 내용

- **부지 제약 조건**

기획단계에서 인근 두 마을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차량 및 보행자가 드문 두 마을의 중간 지점에 부지가 결정되었으며, 보건진료소까지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 방안이 설계에 포함되어야 함

- **건축 재료**

사전에 결정된 예산에 의해 평당 15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관 및 지붕자재의 선택 시 디자인뿐 만아니라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 벽돌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친숙하나 추후 교체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단열**

시설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난방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고려한 적절한 단열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창호크기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필요가 있음

- **지붕계획**

지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 외관 이미지에 합당한 배수관 처리방식의 고려가 필요

□ 성과 및 한계

월림보건진료소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기획 업무범위와 기획서 작성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기획서 내용은 기획단계 진행 과정을 구분하여 사전기획과 본기획으로 나뉘게 되었으나 현재의 기획서 양식은 소규모 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에 한해서는 기획서를 전반적인 사업비전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따랐다. 또한, 소규모 시설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획업무가 절차 또는 내용 면에서 과도하게 복잡해지면 오히려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획서 양식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소규모 시설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재검토 되어야함을 시사하였다.

영주시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디자인자문이 이루어지는 선도적인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의 기획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전문가 참여에 따라 행정 절차상의 지연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개선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 기획서 양식 작성이 공공건축가에게 업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행정담당자에게는 단순히 절차적으로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수행되고 있는 디자인 자문과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 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참여주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임을 파악하였다.

디자인리뷰 운영은 사업의 기획과정에 대해 서류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제약적 상황을 인정한 가운데 최상의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설계단계의 디자인리뷰를 기획단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기획업무가 행정적 여건,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제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활용되어야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영주시는 공공건축가와 가역건축가가 각각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참여하여 협업하고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공공건축가는 설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지역건축가는 설계권한은 미약하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두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자간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품질평가지표와 같은 객관적 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영주시 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주체가 발생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특성상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⁷⁶⁾.

76) 2012.6.8, 7.6 자문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운영에 따른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

(2) 문수면사무소 이전 리모델링 사업

□ 개요 및 추진현황

문수면사무소는 현재 문수파출소, 보건소, 예비군동대 등의 건물이 공존하는 복합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이 추진된 사업으로 발주기관에 의해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 및 다목적홀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발주기관은 사용자 편의 증대와 시설 현대화 및 체력단련 시설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사용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였다. 공공건축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면사무소의 권위적인 청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물의 정면성을 부각시키며, 지역 정서에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방향을 설정하였고 주민 및 실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주요 디자인 사안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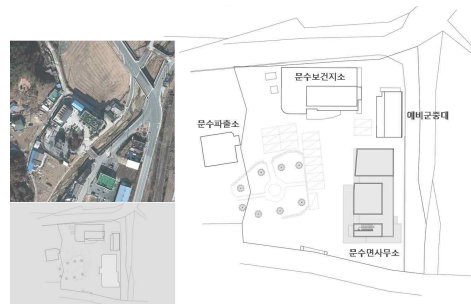
본 사업은 당초 2012년 4~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회계과에서 시공발주를 2013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 7월까지 기본설계안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후 시장보고를 추진하고 회계과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설계단계를 완료시키고 2013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었다.

■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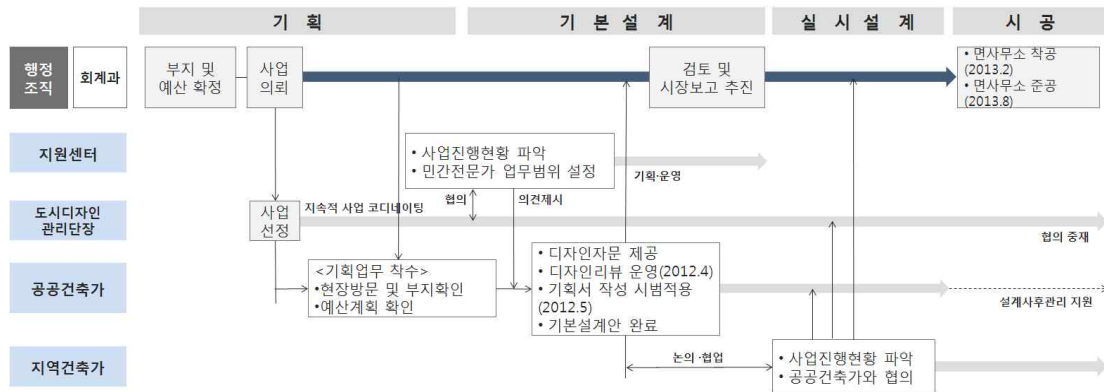
- 위 치 : 경북 영주시 문수로 1363번길(문수면 적동리 466-1)
- 부지면적 : 2,793.00m²
- 연 면 적 : 797.20m²
- 사 업 비 : 약 936백만원(설계비 : 70백만원, 공사비 : 866백만원)
- 현황사진 및 배치도



[그림 4-7] 문수면사무소 전경(Wonder Architects)



[그림 4-8] 문수면사무소 및 주변시설 위치(Wonder Architects)



[그림 4-9]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세부 추진일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 역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월림보건진료소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건축가와 협의를 통해 기획서 작성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에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일부항목들을 검토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리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중재 등 총괄적 관리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수면사무소 사업은 월림보건진료소와 비슷한 시기에 설계단계가 진행되었으며, 기획서 양식 시범작성과 공공건축가의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디자인리뷰가 운영되었다. 특히 문수면사무소는 기존건물의 내부시설에 대한 고려와 발주기관 증축 요구사안들을 수용하여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획서 양식을 통해 통합적인 설계방향 및 원칙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디자인리뷰를 수행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요구사안과 설계안을 통해 제시되는 공간적 대응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 공공건축가 수행업무

공공건축가는 디자인 사전검토를 통해 수직 증축의 합리적인 구조방식, 증축에 따른 위압감 감소를 위한 건축물 분할계획, 옥상연결 옥외계단 처리방안 등 주요 디자인 사안들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회계과와 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디자인자문 및 협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기획서를 작성하였다. 월림보건진료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지 및 예산표와 관련한 세부 항목은 일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작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7] 문수보건진료소 기획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0. 사업 개요	소요예산 개요	· 936백만원 (설계비, 감리비 및 공사도급액,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사업배경	· 기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필요성 · 주민 이용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요구
	지역의 특징	· 남북방향의 문수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상의 적동리에 면사무소 위치 · 문수로 서측에 위치한 면사무소 주위로는 논·밭 · 대부분의 가옥은 문수로를 건넌 동쪽에 위치
	부지 및 시설의 특징	· 문수면사무소, 보건소, 문수파출소, 예비군동대의 건물이 함께 있는 복합단지 · 넓은 부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기존면사무소 건물이 전면도로 및 측면 도로와 인접하여 수평 증축에는 한계 · 면사무소 1층은 민원실, 호적창고, 민원상담실이, 2층에는 면장실, 대강당이 설치·운영, 화장실이 협소하여 증축 요구
1. 사업 목적	사업목표	· 기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필요성과 주민 이용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요구 · 기존 면사무소의 기능 유지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 및 다목적홀 확보 · 면소재지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공공청사 조성 · 주민자체센터의 확보로 주민 복지 향상시키고 문화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생활 기회 확대 · 기존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인한 시설 공간 확보
	시설 기대효과	· 기존 면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 구축 ·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 ·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주민에게 가까워지는 공공청사 · 쾌적한 화장실 공간 확보로 사용자의 편의 증대
	중점 고려항목	· 기존시설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 파악이 선행 필요 · 시설의 리모델링 뿐 아니라 사용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민원 및 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 극대화 · 지역사회에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 한정된 예산 내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 및 공사계획
2. 사업 방향 설정 및 진단	기존시설평가	· 기존시설 : 541.20㎡(지하1층/지상2층) · 단지 내 보건소, 문수파출소, 예비군동대, 나머지 공간 조경 및 주차장으로 사용 · 주변시설의 인근배치로 인해 면사무소의 수평증축 불가
	설계 원칙	· 수직증축을 우선하되 일부 수평증축도 고려 · 내외부 마감재이 교체로 기존 청사의 이미지 탈피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이지만 지역적인 디자인 적용 ·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디자인 및 설비시스템 적용 · 시설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반영(냉난방비, 전력비 최소화 방안) · 자연환기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되도록 창호계획 고려
	향후 증·개축 계획	· 이번 시설 공사가 증개축공사로 향후 추가 증개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 계획 및 설계·공간계획 요구
	시설유지·관리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상주공간과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및 창호 계획 적용으로 시설 운영 시 편리성 제고 · 현 시설의 천정고를 사용실의 목적에 맞게 차등 적용한 에너지 소비 절약방안 고려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증축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수평으로의 증축방안이 있다면 제안 가능 · 증축부분의 주민자치센터 용도와 기존 청사의 용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간 배치계획 ·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조계획(구조검토 포함) · 증축면적은 절대적인 면적이 아닌 대략적인 범위로 예산과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

디자인리뷰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인 체력단련실 설치에 따른 고려사항과 내부시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안 위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디자인 리뷰과정에서 사업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달라져 공사비가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⁷⁷⁾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의 한계가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프로그램 변경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문수면사무소 관련 디자인리뷰 내용

- 체력단련실 설치**
 체력단련실이 발주기관의 요구사안이기는 하나 주민 대부분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안과 같이 3층에 배치되면 별도 출입을 마련하는 등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 부분도 향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임. 체력단련실의 시설 이용성 향상을 위해 하위층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
- 내부 공간 배치**
 체력단련실이 1층으로 배치되면 현재안에서의 내부공간 배치가 재구성되어야 함. 이후 문수면장과의 면담을 거쳐 면장실을 1층으로 이동시켜 건물 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 화장실 증축**
 화장실 공간 확보는 주요 사업목표이나 총 77평의 증축규모 중 약 30평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대안 모색이 다소 한정적. 또한 화장실 증축에 따른 공사비용이 높아 전체적으로 낮게 산정된 건축예산을 맞추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것으로 보임

77) 문수면사무소 당초 예산계획은 시설 증축과 외장 및 창호계획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화장실, 민원실 공간 증가 등의 조건들이 변경되어 공사비가 높아진 사례이다.

[표 4-8] 영주시 사업 관련 지원일정

구 분	회의일시	참석자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주요내용
사업현황 파악	2012.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디자인관리단장 1인 · 공공건축가 2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시 공공건축가 운영현황 파악 · 지원센터 디자인관리프로세스 논의 및 결정 · 공공건축가 및 연구진 상호 역할 및 추진계획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설정	2012.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시 시범적용 대상 선정 및 프로젝트 진행현황 파악 · 프로젝트별 지원방향 및 일정 논의
디자인리뷰	2012.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디자인관리단장 1인 · 공공건축가 2인 · 디자인리뷰패널 2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4인(협동연구기관 연구진 1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림보건진료소,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디자인리뷰 운영

□ 성과 및 한계

문수면사무소 이전증축 사업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기획단계 업무를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용역비와 설계기간에 대한 기준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공공건축가의 업무영역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월림보건진료소 사업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행정체계 내에서는 소규모 사업의 기획업무가 부지선정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공건축가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정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냈다. 또한 문수면사무소 이전증축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명확한 예산기준이 부재하여 사업비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디자인리뷰는 궁극적으로 설계안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목적으로 운영되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단계 업무와 단절되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 조성단계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 이해관계자간 기획 및 설계과정에서 의사결정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설계이행지침과 같은 객관적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객관적 논의의 수단은 디자인리뷰와 같은 설계안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가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2) 평택시 공공건축가 지원

□ 개요 및 추진현황

평택시 팽성읍사무소는 기존 건축의 노후화와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신축을 계획한 사업이다. 기존 읍사무소가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보수가 필요하였으며, 신축 사업을 통해 문화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이후 2011년 8월 인근 경찰서 부지 협의와 9월에 문화재심의 불허로 인해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심의 불허 이후 평면 및 입면계획 수정을 진행하여 2012년 7월에 문화재 재심의를 진행하였다. 팽성읍사무소 사업은 회계과에서 예산배정까지의 기획업무를 완료한 이후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며, 건축과는 설계용역을 가격 입찰로 발주하였다. 그러나 객사에 인접한 부지특성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심의가 부결되었고, 이후 설계용역은 중단되었다. 팽성읍사무소는 사전 기획부실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재 재심의 준비과정과 사업기간이 크게 지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70-2번지외 7필지
- 부지면적 : 5,361.00㎡
- 연 면 적 : 2,140.15㎡ (약 648평)
- 사 업 비 : 약 4700백만원
- 설계 발주방식 : 가격입찰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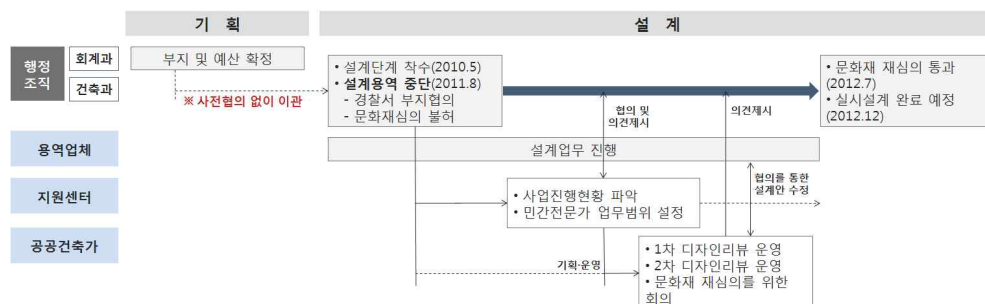
[그림 4-10] 팽성읍객사



[그림 4-11] 읍사무소 주차장



[그림 4-12] 팽성읍객사 진입경로



[그림 4-13] 팽성읍사무소 세부 추진일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 역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팽성읍사무소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담당자와의 1차업무회의를 운영하여 사업 진행현황, 문화재심의 부결사유 등을 파악하고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를 결정하였으며 문화재 재심의를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디자인리뷰를 2회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행정조직에서 수행하였던 기존 기획문서들을 바탕으로 설계이행지침을 적용해봄으로서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기획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설계이행지침의 검토항목은 공공건축가가 선정하여 해당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디자인리뷰 운영을 통해서는 기존 설계안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공공건축가는 기본설계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문화재심의 부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고 문화재 재심의 준비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가와 설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에 대해 중재하였으며 객관적인 설계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공공건축가 수행업무

공공건축가는 기존 기획안을 바탕으로 적용한 설계이행지침을 통해 사업필요성 및 추진배경 설명 부족에 대한 사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신축공사가 타당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전제될 것과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를 원칙으로 설계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표 4-9] 설계이행지침에 의한 기획내용 리뷰

구 분		문 제 점	보 완 사 항
기 획 단 계	사업추진배경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 수요 증가, 21세기 국제화도시의 서비스 등 추상적인 사업배경	· 명확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기존건물에 대한 보수 근거 필요
	이용자의 요구 변화 고려	-	· 수요자(주민)를 고려한 시설임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반영 필요
	시장여건 변동고려	-	· 기존 청사건립사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3개 이상 조사
	시설이용자 및 관리자	· 읍사무소 소장 등 일부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요구사항 반영	· 사전 인터뷰 및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방법 정립

구 분		문 제 점	보 완 사 항
	요구사항 반영 가능성		· 시설이용자는 유사 건축물의 POE(사후 평가)를 데이터 베이스화
	주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의 가치 존중	· 인접한 객사에 대한 배려 미흡으로 문화재 심의 통과 부결	· 지도상 파악과 인근 400M이내를 도 보로 확인 ·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확인
	행정절차 및 승인이 필요한 문서 확인	·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심의 및 각종 보고 등의 파악 미흡	· 관련 공무원과 협조하여 행정절차에 대한 플로우 다이어그램 등을 결정하여 제공하는 방안 고려
	발주방식	· 가격입찰로 인한 용역업체의 설계 수행능력 검증 부족	· 기획의도를 살릴 수 있는 발주방식 검토 · 적절한 시간과 비용의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사전 견적 등을 첨부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 공사비를 건축공사비만 책정	· 과거 유사 사업, 최근 진행사업을 토 대로 예산항목 결정 · 실제 견적을 첨부하여 비용 확인
	사업일정 수립	· 구체적인 사업일정 계획이 부재 ·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미흡	· 기획-유자관리단계까지의 일정 및 행정 업무 일정계획 수립하며 각 단계에서의 예비 기간 설정 · 기획에서 설계, 설계에서 시공간 적정 발주 기간 산정 · 설계는 계획, 중간, 실시 설계로 구분
설 계 단 계	입지 감정/조사	· 배치 및 평면상에서의 객사와의 관계 설정 모호 · 고저차 활용 부족	· 역사적 지도, 인근 도로망, 현황 등을 확인, 역사문화적 가치도 함께 정리 · 읍사무소와 객사의 관계를 고려한 배치도, 평면도 및 단면도 수정
	시설 프로그램기획	· 불필요한 다목적실 등의 계획	· 인근시설의 조사와 사례 분석, 이용자 및 관리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프로그램 제안
	오픈 스페이스	· 대부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지 외곽부근의 자투리 땅은 미 계획	· 관할 행정청의 조경, 녹지과 등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종합하여 제안
	에너지 절약	· 기본설계단계에서는 고려된 바 없음 · 태양광발전 설치 예정	· 상기 항목은 친환경인증기준과 에너지 절약계획을 참고하되 인증대상여부를 확인 결정하고 대상인 경우, 용역비 증가 요인이므로 적절한 계획을 요함

1차 디자인리뷰 시에는 문화재 심의 부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방향에 대해 디자인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공공건축가의 검토 결과 평성읍사무소 사업은 대지분석부터 평면 및 입면계획까지 재수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재심의 결과 수용 이후 명확한 설계진행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설계안에 대하여 대지현황, 입면, 재료, 객사와의 연계성 등의 항목을 문화재심의 의도에 의거하여 설계방향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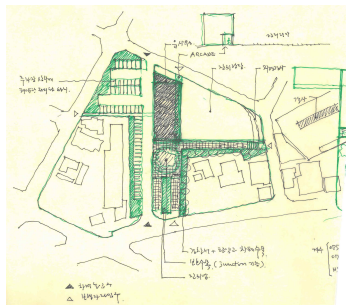
■ 1차 디자인리뷰 시 공공건축가 자문 주요내용

- **(대지현황)** 대상지 내 2m 이상의 고저차, 300년 이상 된 보호수 3그루 등 다양한 물리적 여건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통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입면)** 문화재 심의에 따라 입면의 정체성이 현대적이지도 고전적이지도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배치도, 평면도와 연동하여 입면을 수정해야 할 필요
- **(재료)** 행정측에서는 수지경량 한식기와(지붕), 기와(담장) 등의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역사성 표현을 통해 문화재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평당 약 587만원에 불과한 예산에서 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 **(객사와의 연계성)** 근본적으로 기존 설계안이 객사와의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화재심의 부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 특히 단면도 등에서 객사와의 관계설정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으며, 규모 역시 배치도 상에서 객사와 비교하여 스케일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따라서 객사와의 관계성은 단순히 재료선택을 통한 외관의 모방이 아닌 배치 및 스케일의 모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

2차 디자인리뷰 시에는 1차 디자인리뷰 시 제안되었던 사안들이 수정된 기본설계안에 반영되었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설계업무가 실제로 많이 진행되어 온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 설계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객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재계획하는 방향으로 설계안 수정을 제안하였다. 팽성읍사무소사 기본설계안은 2차례의 디자인리뷰를 운영하여 설계안을 수정한 이후 2012년 7월 문화재 재심의를 신청하여 통과하였다.

■ 2차 디자인리뷰 시 공공건축가 자문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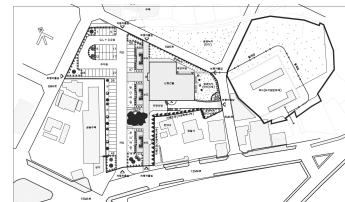
- **(객사와의 연계성)** 객사와의 관계설정이 설계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객사방향으로 1층 아케이드를 만들어 잔디마당을 확보하는 등 지층부에서 객사와의 직접적인 연계 강조
- **(입면)** 읍사무소를 단일동으로 처리하되 평면구성을 단순화시키며 외관형태의 건축형식을 명확히 할 필요
- **(보호수)** 보호수는 객사 쪽 입구 및 전면도로에서 연결되는 길과 교차로 역할을 하도록 함
- **(주차)** 현재 주차대수가 법규를 초과하므로 적정규모 재산정 필요



[그림 4-14] 공공건축가 스케치



[그림 4-15] 기존 설계안



[그림 4-16] 수정된 설계안

[표 4-10]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사업 관련 지원일정

구 분	회의일시	참석자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주요내용
사업현황 파악	2012.3.13	· 경기도청 및 행정담당자 3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사업현황 파악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을 위한 담당자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설정	2012.3.22	· 공공건축가 3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기획업무 지원 시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권한 · 기획업무에 대한 실효성 및 성과물에 대한 논의
디자인리뷰	2012.4.4	· 경기도청 및 행정담당자 3인 · 공공건축가 2인 · 설계업체 1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참여주체간 갈등 및 문제점 파악 · 문화재심의에 따른 설계방향 재설정 관련 자문 제공 · 팽성읍사무소 현장 답사
	2012.5.3	· 경기도청 및 행정담당자 4인 · 공공건축가 1인 · 설계업체 2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문화재심의 대비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 확인 · 경관녹지, 진입로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논의 · 재료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 · 향후 사업일정 논의
기타	2012.5.8	· 경기도청 및 행정담당자 4인 · 설계업체 1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1인	· 문화재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수정 방안 논의

□ 성과 및 한계

팽성읍사무소는 2010년에 착수된 설계업무가 기획부실과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해 사업일정에 큰 차질을 빚은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대표적인 문제양상을 보인 사업이었다.

팽성읍사무소 신축사업은 회계과에서 정해진 예산범위 내 문화재심의 불허에 따른 객사와의 연계성 보완과정이 설계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디자인리뷰 운영은 전반적인 설계방향을 재설정하는데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건축가는 읍사무소와 객사와의 관계가 설계안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평택시 사례에서 드러났던 디자인리뷰의 가장 큰 효용성은 공공건축가라는 독립적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설계안이 재정립되고 평가되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업 이해관계자간 설계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협의점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건축가가 각 주체별 의견을 종합하여 설계안의 최적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디자인리뷰 운영과정에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자문 수위와 피드백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자인리뷰에서 제시되는 자문은 설계안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없으나 행정담당자, 공공건축가, 지원센터간 협조방식과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원시 공공건축가 지원

□ 개요 및 추진현황

수원시는 기후변화 및 물의 중요성 증대, 수원천 복원 등 하천역사 보유도시로서, 타 도시와 차별된 수원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지역 거점공간으로서의 물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물체험관은 예산 약 200억 규모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이지만 공공건축물 발주경험이 없는 실무부서에서 기획단계 업무를 수행하여 설계단계에서 건축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수원시 물체험관 사업은 부지선정이 완료되어 기획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기획업무 추진을 결정하였다. 사업의 규모 및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2.5월에 수원시 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리자 단체, 학계, 관련부서 행정 담당자, 공공건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기획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 현장답사 및 향후 추진일정,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여 운영되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2012.3~7월까지 공공건축가 지원을 통한 기획서 작성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전기획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2.10~12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MA 및 공공건축가가 위촉되고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 수원시 물체험관 신축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00-4번지
- 부지면적 : 약 556평 ~ 657평
- 사 업 비 : 약 200억원 추정(토지매입80, 건축120)
- 설계 발주방식 : 현상설계공모 예정
- 현황사진



[그림 4-17] 물체험관 부지



[그림 4-18] 물체험관 부지 주변환경

□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 역할

수원시 물체험관의 시범운영 결정 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시범운영의 수행목적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공공건축가 선정 이후 물체험관의 기획 중 건축, 도시, 조경 등의 부문에 대한 실질적 컨설팅은 공공건축가가 실시하였으며 지원센터는 행정과의 중재 및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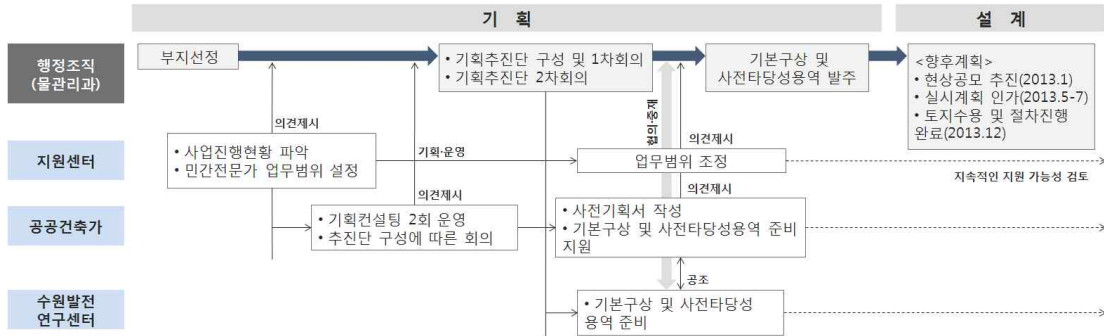
수원시 물체험관은 기획단계 중 사전기획과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전기획에서는 현재 모호한 시설기능 및 용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험관의 설립의도가 설계안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관련 고려사항(예_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진입방식, 하천과의 물리적 관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행정 관계자 및 시설 관리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방향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시설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충실한 기획업무 수행을 위해 수원발전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사전기획에 해당하는 사업기본구상, 사업구상, 사업수행방식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공공건축가는 사전기획 시 제시된 설계기본방향 및 원칙, 과업수행 방식, 유사사례 등을 사전기획서에 작성하였으며 설계이행 지침을 통해 내용의 누락이 없는 지 검토하였다.

사전기획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공공건축가는 물체험관의 정확한 용도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지원, 주변 환경 및 물리적 여건(예_화성박물관, 지동시장, 성곽, 수원천 산책로 등)과의 연계, 사업 집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발주 이후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의 전문가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수원시 물체험관의 기획업무는 시행과정에서 행정측의 의사에 의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획단⁷⁸⁾을 구성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가 이외에도 수원시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수원발전연구센터 등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해 기획업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중재하였으며, 행정담당자에게 기획단계에서의 업무 구분과 단계적 실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하였다. 공공건축 사업은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관리 등이 중요하였기에 관련 전문가

78) 초기단계에서 다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수원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자문단 회의를 2회 개최한 결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내용에 반영하였다.

들과의 자문 및 협의를 실시하였고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MA 위촉에 의한 사업수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일반적인 용역수행 내용과 함께 물체험관 건립을 위한 전체 디자인프로세스와 디자인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용역 수행주체가 이를 따르도록 지침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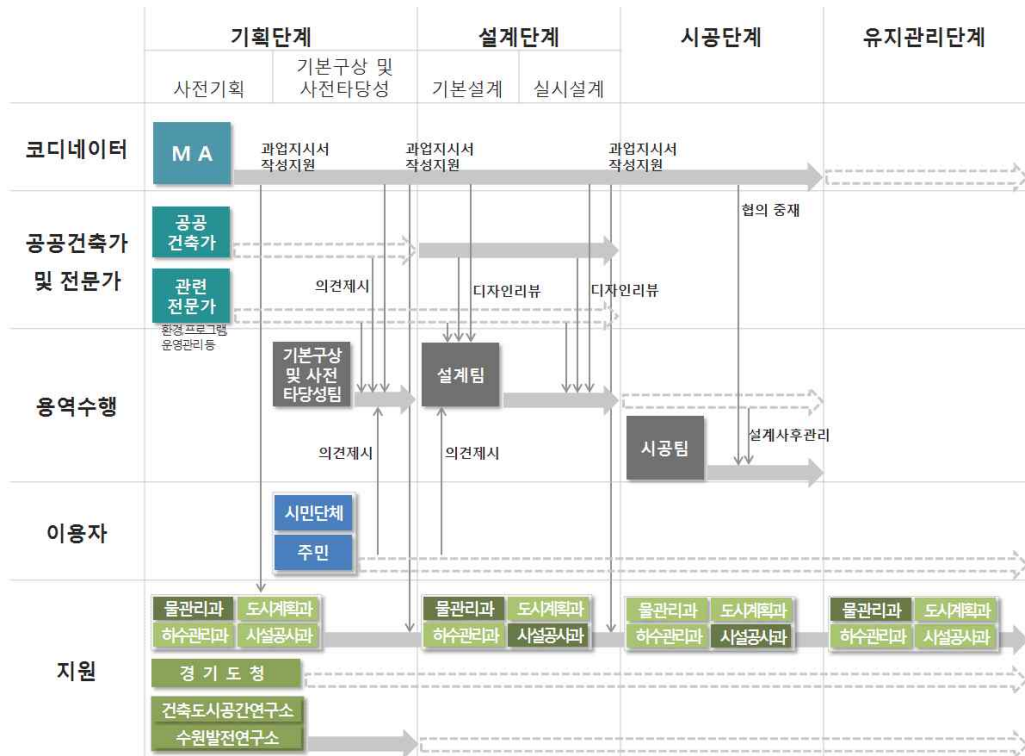
[그림 4-19] 수원시 물체험관 신축 세부 추진일정

물체험관 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는 사전기획단계부터 체험관 준공이후 유지관리까지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계획가방식(MA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은 사전기획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고, 총괄디자이너와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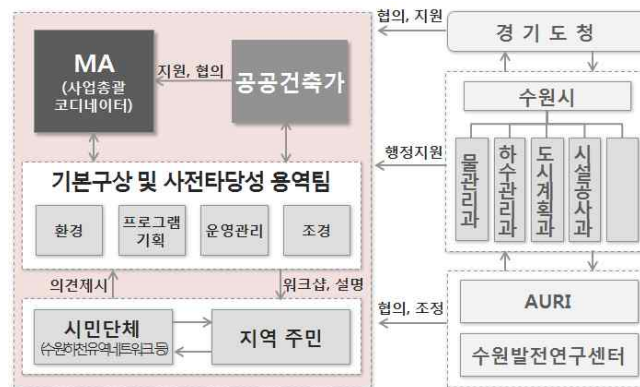
[표 4-11] 디자인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와 경기도 공공건축가의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총괄계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물체험관의 기획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전 과정에서 조연자와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 담당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제공 설계 및 시공발주방식 결정 물체험관 건립에 따른 각종 보고회 및 심의위원회 참석
경기도 공공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구상 단계에서 건축 및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의견 제시 설계단계에서 디자인리뷰 수행

또한 총괄계획가(MA)를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행정담당자(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시설공사와 등 관련 부서), 경기도 공공건축가와 디자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되었으며 기획회의, 워크샵, 디자인샐레 등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축, 도시, 조경, 프로그램/전시 기획, 운영관리 등의 관련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구진으로의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4-20] 수원시 물체험관 사업의 각 단계별 참여주체 및 의사결정 주체



[그림 4-21] MA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 공공건축가 수행업무

공공건축가는 기획단 회의 및 자체 기획업무회의를 통해 물체험관 관련 국내·외 사례의 성공 및 실패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개발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물체험관의 지리적

여건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물체험관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항목 및 중점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사전기획서 작성을 통해 정리하였다.

■ 수원시 물체험관 관련 기획컨설팅 내용

- **(물체험관의 의의)** 수원시의 ‘물’에 대한 테마와 수원천 복원 역사 등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함축하는 체험관의 건립사업이므로 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에서 ‘물체험관’이라는 명칭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물’ 관련 체험에 그치지 않고 복지·휴식 등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필요
- **(프로그램)** 물에 대한 교육전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원시 물체험관은 이런 사례와 비교하여 프로그램 기획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을 갖도록 전시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과 협조 필요
- **(건축규모)** 건축규모의 측면에서는 화성성벽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경사지를 활용하며 수원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건축규모를 최소화하고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주차장)** 물체험관의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과 차량동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화성 박물관과 통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설 내 드롭오프존을 설정하여 주차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 고려
- **(예산항목)** 예산산정 과정에서도 건축비뿐 아니라 교육·체험 등에 따른 비용과 외부공간 계획을 위한 비용 등을 충분히 확보 필요

[표 4-12] 공공건축가가 제시한 설계기본원칙

구 분	주 요 내 용
설계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 및 컨텍스트에 대한 존중 (화성성곽, 수원천, 녹지공원, 옛길, 재래시장 등) · 수원천변 도시조직과 화성성곽 사이의 공간적 연결고리 확보 · 오픈스페이스를 주요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 · 향후 증·개축과 확장이 용이한 공간 사용의 유연성 확보 · 환경인프라로 기능하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건축 공간 모색 · 체험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개방적 접근, 열린 공간, 비움의 공간을 중시 · 어린이 및 노약자에 친화적인 무장애 공간 계획

공공건축가가 작성한 설계원칙과 더불어 수원발전연구센터는 부지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과 시설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 필요성 및 이용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법규 및 보상방식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례 조사분석에 공조하였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기획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시 사전기획의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표 4-13] 기획추진단 회의를 통한 사전기획 반영 내용

구 분	1차 기획추진단 회의 (12.5.16)	2차 기획추진단 회의 (12.6.7)	사전기획 시 반영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대상 : 유아 및 초등 학교 저학년 · 지역주민 배려 · 주중과 주말에 따른 이용자 변화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 설정 필요 · 주변상권과 연계한 이용자 설정 · 화성방문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대상층 미설정 · 화성 방문과 연계한 이용자 설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시티’ 관련 내용 · 하수도 관련 (물 재생, 빗물정화 등)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 시설 도입 · 물 절약 관련 프로그램 · ‘힐링’ 차원의 물 프로그램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빗물·수원천의 활용 및 정화 관련 설비의 상설 전시화 · 패널전시 지양
외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천과 성곽의 연계 · 외부체험시설 계획 · 계절적 요인 고려 · 주차장은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시설과 연계한 주차장 계획 필요 · 드롭오프존 + 최소 주차 · 계절적 요인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시설과 연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외부공간의 적극적 사용 · 드롭오프존 + 최소 주차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안 및 입장료 등을 초기부터 고려 필요 · 기획 시 운영주체 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화 운영 필요 · 운영실무자 미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유료화 · 운영관리자의 용역 참여 유도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공간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 활용 · 수원천과 연계한 지하화 · 규모는 최소화 · 수원의 역사, 전통 반영 · 배리어프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규모는 최소화 · 운영방안과 연계한 공간 계획 · 배리어프리 계획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를 위한 명칭공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 적합한 예산항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에 의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 · 건축, 프로그램, 외부조건 등 필요 예산항목 설정

공공건축가는 사전기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가, 물체험관 관련 운영관련자, 수원발전연구센터, 수원시 물관리과가 참여한 워크숍이 운영되었으며,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공건축가는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내의 과업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단계에서의 업무와 설계단계에서의 업무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4-14]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현황 및 주변 여건(건물/입주가구 현황, 도로 현황 등) 분석 · 주민, 사용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개발여건 및 보상방식 검토
유사사례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사사례 동향 및 문제점 검토 · 각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 및 디자인 전략 도출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와 방향 및 비전 설정 · 부지 주변지역과의 관계 설정 · 운영관리를 고려한 시설 규모 및 프로그램 설정 · 설계기본방향 및 원칙 제시 ·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 디자인 가치향상 및 지속가능한 운영전략 도출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및 관리방안 제시 ·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규모 및 이용자 수요의 타당성 · 운영방침 및 관리방안의 타당성 · 사업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책적 타당성 · 법률적 타당성 · 보상방식 및 이주자대책의 타당성 · 재정계획의 타당성 ·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적정 발주방식 검토 및 제안

2012년 10월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발주 이후에는 MA와 공공건축가, 용역팀, 공공건축지원센터, 물관리과 행정담당자 등이 참여한 업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과업 논의 및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MA와 용역팀과의 의견차이에 의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MA 및 행정담당자와 협의하여 물체험관 사업에 대해 보다 건축적 전문성을 가지고 수원지역에서의 기반활동이 있는 별도의 MA를 재선정하게 되었다.

MA와 공공건축가는 각각 건축, 도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업무회의 및 관련 회의를 진행시에, MA는 회의 주제 및 정리를 담당하고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적 관점에서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업무회의, 브레인스토밍회의, 전문가워크숍 등에서 회의 중재 및 내용 정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제안 등을 수행하였다.

[표 4-15]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 사업 관련 지원일정

구 분	회의일시	참석자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주요내용
사업현황 파악	2012.3.13	· 경기도청 행정담당자 3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사업현황 파악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을 위한 담당자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설정	2012.3.22	· 민간전문가 4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기획업무 지원 시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권한 · 기획업무에 대한 실효성 및 성과물에 대한 논의
기획컨설팅	2012.4.13	· 경기도청 행정담당자 2인 · 공공건축가 3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물체험관 건립사업 기획서 작성방법 및 설계이행지침 적용가능성 검토
	2012.4.24	· 경기도청 행정담당자 3인 · 공공건축가 2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수원시 물체험관 시장방침 사항관련 논의 · 수원시 참고사례 및 주요 컨셉 설정과정 관련 논의 · 주체별 역할 및 일정계획
	2012.6.20	· 경기도청 행정담당자 2인 · 공공건축가 2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수원시 '물체험관' 관련 용역범위 설정 관련 논의 · 사전기획 시의 업무 내용 정리
	2012.7.6	· 경기도청 행정담당자 2인 · 민간전문가 5인 · 공공건축가 2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주체간 기획업무 진행결과 수렴 및 논의 · 주요 업무내용 제시 (기본구상, 사전 타당성)
	2012.7.16	· 행정담당자 1인 · 민간전문가 1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수원시 '물체험관' 사전기획 관련 업무 내용 논의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 잠정적 결정
기획추진단 회의	2012.5.16	· 기획추진단 25인(공공 건축가 2인 포함) · 공공건축지원센터 1인	· 기획추진단의 주요업무 논의 · 향후 회의개최 일정 및 사업진행방식 논의
	2012.6.7	· 기획추진단 25인(공공 건축가 1인 포함) · 공공건축지원센터 2인	· 수원시 물체험관 주체별 토의 · 주체별 역할 및 일정 관련 논의
	2012.8.7	· 기획추진단 25인(공공 건축가 2인 포함) · 공공건축지원센터 2인	· 사전기획 최종발표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내용 검토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업무진행 및 모니터링	2012.10.4	· 행정담당자 1인 · MA 1인 · 공공건축가 1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용역팀 4인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수행 방식 논의 · 회의 횟수, 전문가 보수 및 향후 일정 논의
	2012.10.23	· MA 1인 · 기획추진단 다수 · 공공건축가 1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행정담당자 11인 · 용역팀 4인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 · 향후 용역 진행방향 및 방식 논의 ·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정

구 분	회의일시	참석자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주요내용
	2012.11.1	· MA 1인 · 공공건축가 2인 · 관련전문가 4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2인 · 행정담당자 1인 · 용역팀 3인	· 물체험관 관련 콘텐츠 브레인스토밍 · 유사사례 소개 및 논의
	2012.11.12	· MA 1인 · 공공건축가 1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2인 · 용역팀 3인	· 전문가 워크숍 운영방안 논의 · 브레인스토밍 내용 정리를 통한 진행 방향 제시
	2012.11.23	· MA 1인 · 행정담당자 11인 · 관련전문가 13인 · 공공건축지원센터 3인 · 용역팀 3인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분임토론을 통해 콘텐츠, 이용자, 컨셉, 운영 관리 등의 세부내용 결정

□ 성과 및 한계

- 기획단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체계 채택

물체험관 사업 추진은 행정 담당자가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의 ‘기획’이 일반적으로 행정체계 내에서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기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행정 담당자는 공공건축에 관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사안을 집중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공감한 이후에는 기획업무를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⁷⁹⁾

수원시 물체험관은 예산규모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획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공공건축 조성사례에서 이례적인 모델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규모의 사업마다 이러한 기획단 구성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행정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 목록을 공유하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자문단 등의 형식을 빌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확정 이전 단계에서 기획업무 및 수행업무체계 등이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졌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공공건축사업과는 다르게 예산 확정 이전 단계에서 시설의 목표 및 사업구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사업 진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부지여건, 예산 및 일정계획, 시설 유지·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기획서 작성(사업개요, 사업구상, 사업계획 및 방향설정)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단계에서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79) 2012.7.6 전문가 워크숍 수원시청 행정 담당자 의견

- 기획서 활용을 통한 기획업무의 체계화

물체험관 사업 추진을 통해 기획서 작성 업무가 사전기획과 본기획으로 구분되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공건축가에 의해 작성이 가능한 내용범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사전기획이 사업수행방식과 사업진단 관련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기획의 내용은 설계업무 착수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사전기획과 본기획을 구분하여 수행하거나 사전기획의 내용을 본기획에 일부 포함시키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원시와 같이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계획이 확정된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검증되며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므로 일련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현실적인 설계방향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본기획 작성이 필요하며 기본계획용역으로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체험관 사업은 유사 예산규모의 사업 추진 시 행정담당자들에게 사업집행 참조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며, 이러한 사례 축적이 DB 구축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발주방식의 중요성 확인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발주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건설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본구상 → 타당성 고시 →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 공사수행방식 결정’으로 구분된 기획단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행정상의 이유로 인해 몇몇 과정의 생략 또는 압축하여 진행함이 결정되어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수행이후에 설계단계로 이행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행정절차와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절차가 정합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단계적 절차의 중요성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용역발주 방식에 있어서도 연구용역인 만큼 가격입찰보다는 입찰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안입찰을 제안하였으나, 행정상의 선례가 없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격입찰이 발주되었다. 하지만 가격입찰로 선정된 용역팀은 MA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처음이어서 MA방식을 자문위원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MA와 공공건축가 팀 및 용역팀 사이의 업무 분장 및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시범적용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의 시범 운영에 따른 성과 및 과제

□ 행정조직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주체로서 지원센터 역할 확인

본 연구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수행업무를 시범운영해 봄으로서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원시 물체험관과 같이 건축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없는 부서에서 공공건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계획을 비롯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기획업무 내용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공공건축가 지원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수원시 물관리과에서는 사업예산을 건축물 공사 비용만 상정하여 계획하고 있었으나 공공건축가와 기획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업무, 부지조성과정의 검토 등 상세한 내용이 반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 지원센터는 사업진행과정에서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 DQI 등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범운영한 기획서와 설계이행지침은 공공건축가나 행정담당자 모두에게 업무 수행범위와 단계별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영주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사업에 따라 기획서 양식이나 설계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내용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범적용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사업규모별 적용할 수 있는 양식과 절차를 보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자체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운영절차와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행정담당자-전문가간 협의중재자로서 지원센터 역할 확인

기획업무 및 설계수행과정에서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 사이에 의사결정이 대립할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주요업무인 기획업무 지원, 디자인리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횟수와 업무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지원센터가 이에 대한

조정과 자문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별 프로젝트의 디자인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 관리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이지만 이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적정 업무 범위와 절차, 횟수 등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 전문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프로젝트별 운영과정에 대한 DB가 구축될 것이며 각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만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공공건축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업무는 지원센터가 향후에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따른 성과 및 과제

□ 지원사업 및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필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조직과 공공건축가간 업무범위, 일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코디네이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추진사업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사업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나 추진사업별 발주기관 전문성, 사업규모 및 부지 특성, 시설이용자 요구사항 등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정 업무범위와 수행체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가 사업 이해관계자간 공유되어 일관된 방향 아래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피드백 과정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관리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작성되는 문서를 DB화하여 유사사례 업무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공공건축 사업은 행정일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범 적용의 업무범위 설정이 유기적인 업무임을 강조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적용 사업 운영결과 행정일정이 당초계획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조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설정 시 단순히 개별업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요청사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핵심적 지원 목표와 필수적으로 수행될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설정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공공건축가 지원범위와 활용 예산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원대상을 영주시와 같이 디자인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공공건축 디자인품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가 부재한 지자체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 영주시와 같이 도시디자인관리단장 아래 디자인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는 특수하므로 지원센터는 이러한 특수성의 장점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및 지원방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행정절차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정합성 확보 필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와 공공건축가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 행정절차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행정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실시하던 관행이 남아 있으며 부가적인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디자인프로세스가 발주자인 행정측이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체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담당자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프로세스와 행정절차사이에서 각 단계별로 보완해야 하는 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건축가 지원이 기존의 자문위원 등과 같이 권한과 책임이 미비한 수준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에 대한 행정절차 이해 등의 워크숍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절차와 디자인프로세스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은 기획단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컨설팅을 의뢰할 예산 마련이라 할 수 있다.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국비 비중이 높아 치밀하고 검증된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설계나 시공단계가 아닌 기획단계에서는 공식적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기획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나 단체장의 즉흥적 공약이나 구상에 의한 사업추진은 초기 컨설팅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자체적인 기획서 작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컨설팅 전문가에게 의뢰할 용역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비 지급 예산도 부족하여 일반 공무원의 검토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수원시 물체험관 사업 역시 사전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 및 공공건축가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에 소비된 예산은 시범사업 성격의 연구비로 인한 것이었으며 행정 내에서의 예산 마련은 어려운 부분이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디자인과 공공건축 품질확보를 위해서 행정조직에서 기획 업무를 단위업무로 설정하고 초기 기획에 투입해야 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건축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사업 수행절차를 따르고 있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공공건축가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의 시범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효용성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로의 편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지원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기획단계에는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과 같이 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양식의 내용구성, 작성요령 등에 대해 발주기관, 공공건축가 모두가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 및 기회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획서 작성 및 설계이행지침과 같은 업무는 발주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이며,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간 활용방식과 관련한 연속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와 발주기관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업무추진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의 디자인리뷰는 기획단계의 업무를 바탕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리뷰가 설계안에 국한된 전문가들 사이의 토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설계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지원센터는 발주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사업진행과정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건축가의 지원을 통한 기획업무 운영이 부재한 가운데 설계단계에서 개입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센터는 사업진행과정, 자문 반영가능성, 디자인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수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시범적용 과정에서 기획 및 설계단계 운영 결과, 기존시설 및 지역주민 여건에 대한 이해와 사업 당위성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DQI와 같은 디자인 품질평가지표의 활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주시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확인 결과, 발주기관, 설계자, 시설 이용자 간 설계에 대한 의견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등 소규모

시설일수록 디자인품질평가지표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관리프로세스 관리업무와 디자인품질평가지표가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연동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건축가 참여에 따른 성과 및 과제

□ 기획업무 범위 및 수행방식 결정에 대한 협력적 관계 구축 필요

본 시범적용 과정에서는 공공건축가의 기획업무로 기획서, 설계이행지침 작성과 같은 업무가 제시되었으며,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기획서와 설계이행지침 양식은 기획업무를 체계화시키고 문서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향후에는 공공건축 시설규모에 따른 내용의 분류, 운영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기획서 작성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건축가에 의한 사업진단을 통해 사업의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사업목표와 설계원칙이 도출되고, 설계단계 과업범위 설정의 근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획서 양식은 시설 규모에 따른 구분과 이에 맞는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가 협의되어야 하며, 공공건축가가 기획단계부터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미진한 사항을 밝혀 업무 진행 시 갑작스럽게 문제해결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⁸⁰⁾하는 등 공공건축가의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전문성이 최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범위와 수행방식을 협의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가와 협의된 업무범위 내에서 기획서 내용구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기획서 시범작성을 통해 현재 본기획으로 구분되는 부지현황 및 예산표 등의 일부 내용이 기획설계에 해당하는 범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획설계에 대한 행정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본기획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을 요구하게 되면 향후 설계자 업무만 과중되므로 제도적 보완이 병행 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⁸¹⁾하였다. 이에 반면 영주시 사례와 같이 소규모 시설에 한해서는 사전기획 및 본기획의 핵심적 내용

80)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기획서 작성 지원 전문가(박인수 소장,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자문의건

81) 수원시 물체현관 건립업무 지원 전문가(신승수 소장,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자문의건

만을 도출한 별도의 기획양식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시설에 한해서는 기획업무를 간소화하되 설계단계로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공공건축가에 의해 작성되는 설계이행지침은 선행사례가 없는 업무이므로 검토 및 작성 결과가 공공건축가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설계이행지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획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별 상호보완적 업무로서 완결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명확한 작성요령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항목과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재고 역시 별도의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사업진행 현황을 고려한 설계단계 업무 운영기준 필요

디자인리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보다 정제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원활한 디자인리뷰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주체간 리뷰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영주시 사례에서 이러한 사업의 예산 및 일정의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전문가간 설계안에 대한 논의방식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평택시 사례와 같이 디자인리뷰가 사업이 많이 진행된 도중에 적용되는 경우, 기존안과 자문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공공건축가는 기존 설계안을 존중하는 한정적 범위에서 자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수용되어 적절히 반영되고 문화재 재심의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져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초기 설계단계에서 디자인리뷰가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발주기관과 설계자를 위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주요사업일수록 최대한 이른 시점에 디자인 리뷰를 받도록 권유⁸²⁾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가의 개입시기와 대상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른 디자인리뷰 운영기준과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세밀하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2) 커뮤니티 및 지역관리부 공문 1/2006(DCLG Circular 1/2006) 참조

제5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민간전문가 의견조사
2. 지역건축가 FGI
3. 시사점 및 과제

1. 민간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방법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하여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2009~ 2011년 사이 국토해양부 건축디자인시범사업에 디자인총괄계획가 또는 디자인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간전문가 64인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우편조사(E-mail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일정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 분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조사일정	2012년 4~5월 약 1달 간 실시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존재 여부 및 관련성 · 참여 업무 단계 및 기획·계획·설계 단계 수행 시 업무 관여 정도 · 기획 단계 업무와 설계 단계 업무의 일관성 · 전반적인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 · 기획·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업무의 중요도 · 설계이행지침의 필요성 및 세부 항목의 중요도 · 총괄계획가 또는 디자인검토위원의 지위 및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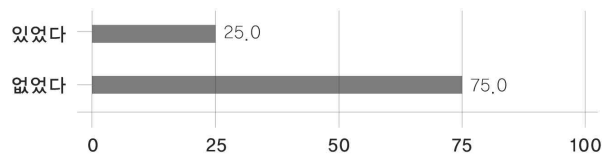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64인 중 총 46인이 설문에 응답하여 71.9%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총 응답자 중 디자인총괄계획가(MP/MA)는 18인, 디자인검토위원은 28인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공공건축가와 공동 작업을 수행한 지역 건축가들의 의견 수렴 작업이 병행되었으며, 지역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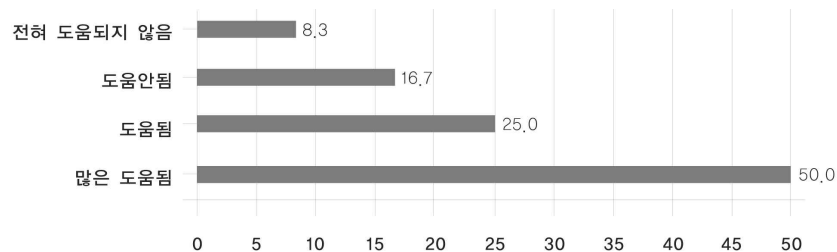
2) 참여주체간 수행업무 파악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부록에 제시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범사업 이전에 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공공건축가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존재했다면 협력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시범사업 이전에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50% 많은 도움이 되었음; 25%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기존의 공공건축가와 협조가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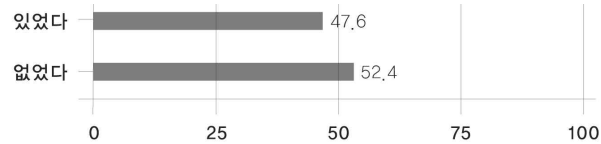


[그림 5-1] 시범사업 이전 총괄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 존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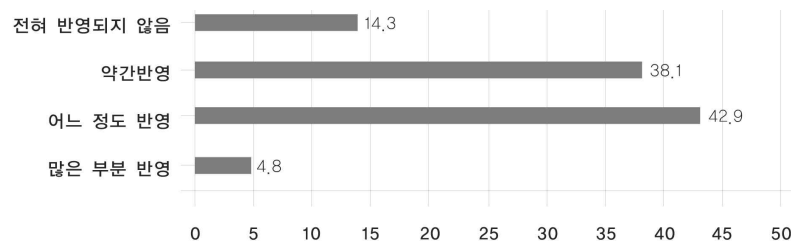


[그림 5-2] 기존 총괄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와의 협력 정도 (단위: %)

기존의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존재 여부와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 중, 기존 계획이 없는 경우(52.4%)가 있는 경우(47.6%)에 비해 약간 많게 드러났다. 기존 계획이 존재했던 경우 이를 마스터플랜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 (42.9%)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5-3]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존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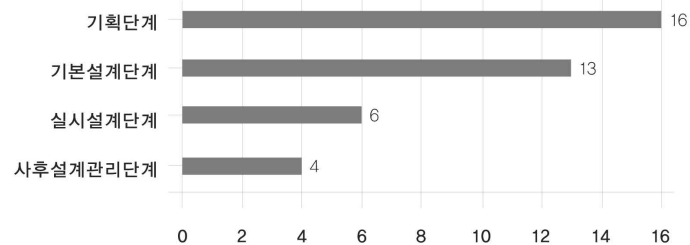


[그림 5-4]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반영 정도 (단위: %)

(1) 총괄계획가(MP/MA) 수행업무 파악

□ 총괄계획가의 업무 관여도

업무 단계별 참여 정도에 대하여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기획단계 및 기본설계단계에 많이 참여했으며, 사후설계관리단계에서의 참여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총괄계획가들의 업무 단계별 참여 정도
(단위: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 수)

총괄계획가들의 각 단계별 업무의 참여 정도로서 주당 회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총괄계획가들은 기획단계에서 가장 많이 개입(주당 평균 2.14회 회의 개최) 하였으며,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참여(주당 평균 1.37회 회의 개최)도 활발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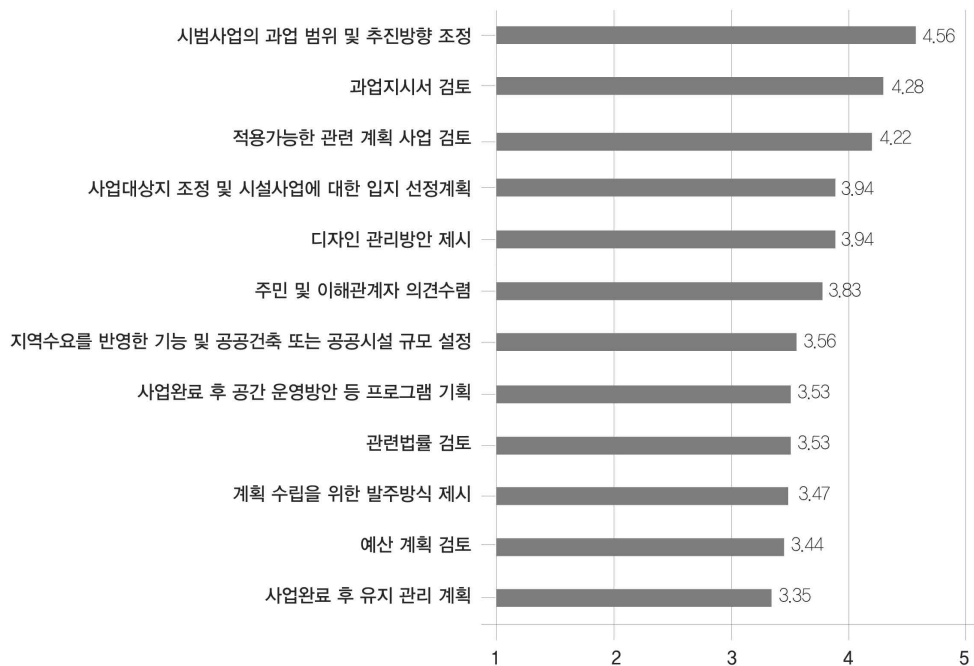
[표 5-2] 각 단계별 주당 회의 회수 (회)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획단계	16	0.75	7.50	2.14	1.89
기본설계단계	13	0.50	3.00	1.37	0.75
실시설계단계	6	0.50	1.00	0.92	0.20
사후설계관리단계	4	1.00	1.00	1.00	0.00

기획단계에서 총괄계획가의 업무 관여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이었으며, 이외에도 ‘과업지시서 검토’,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입지선정 계획’ 분야에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반면 ‘예산계획’ 에 대해서는 관여의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여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사전 연구로 진행된 2011년 연구에서는 공공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세부 기획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업무를 ‘예산계획’ 으로 응답⁸³⁾하였는데 실제 총괄계획가의 업무 관여 정도에서는 낮은 업무로 꼽혔다. 또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이 실제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총괄계획가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시 말해, 실무 담당 공무원이 느끼는 필요성과 디자인 총괄계획가의 참여에는 여러 괴리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세부 기획단계에 있어 공무원들의 필요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이러한 필요성과 참여의 괴리 현상을 조정하여 예산계획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시설 운영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3) 2011년 1차년도 연구에 의하면 공공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기획단계 업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예산계획’(74.1점),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4점), ‘사업 필요성 판단’(70.4점) 순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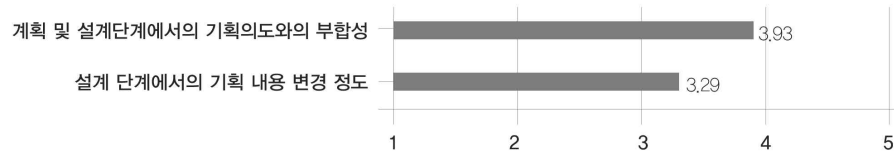
[그림 5-6] 기획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총괄계획가가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총괄계획가의 업무 관여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설정 및 설계안 자문’ 으로 나타났고,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실시 설계안 자문’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괄계획가들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간계획 수립과 같은 공간적 틀(framework)을 구축하는데 활발한 참여를 보인 반면, 실시설계 단계와 같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관여도가 낮은 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7]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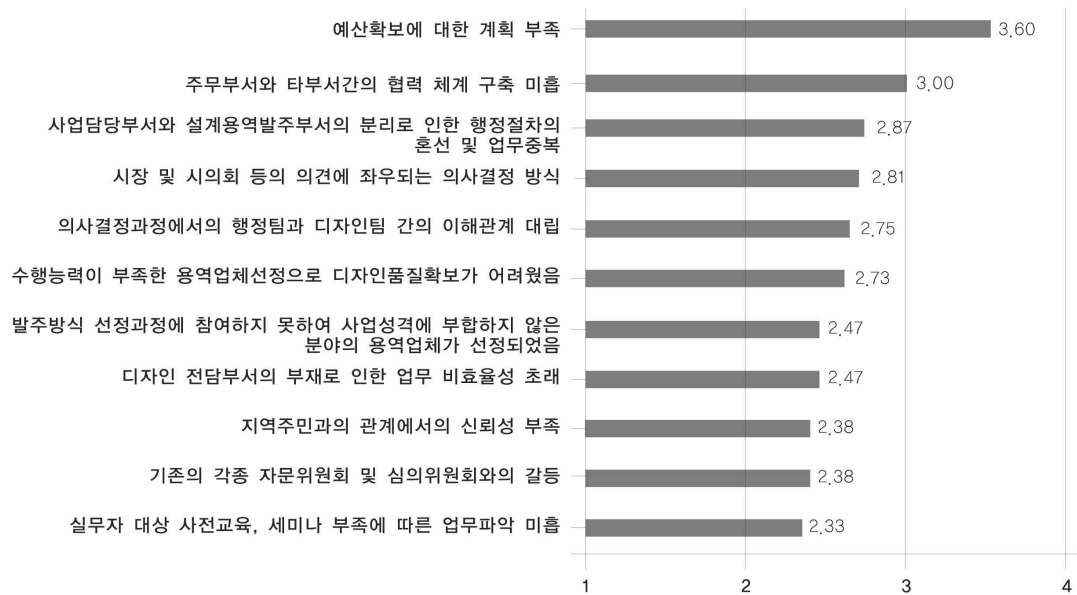
기획단계 업무가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괄계획가들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획의도와의 부합성에 대해서는 높은 편(3.93)이라 답변했고, 설계단계에서 기획 내용의 변동 정도는 보통(3.29)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8]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의 업무 일관성 정도

□ 총괄계획가의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총괄계획가의 전반적인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 부족’ (3.60)으로 나타났다. 예산계획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도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로서 전문가들 역시 합리적인 예산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조직간 협력의 문제로서 ‘주무부서와 타부서 간의 협력체계 구축 미흡’ (3.0)과 ‘사업 담당부서와 설계용역 발주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절차의 혼선 및 업무중복’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는 칸막이식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공공건축 사업과 같이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조직간 공조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비합리성과 수행능력 부족의 용역업체 선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5-9] 전반적인 사업 참여 과정에서 문제점의 수준

그외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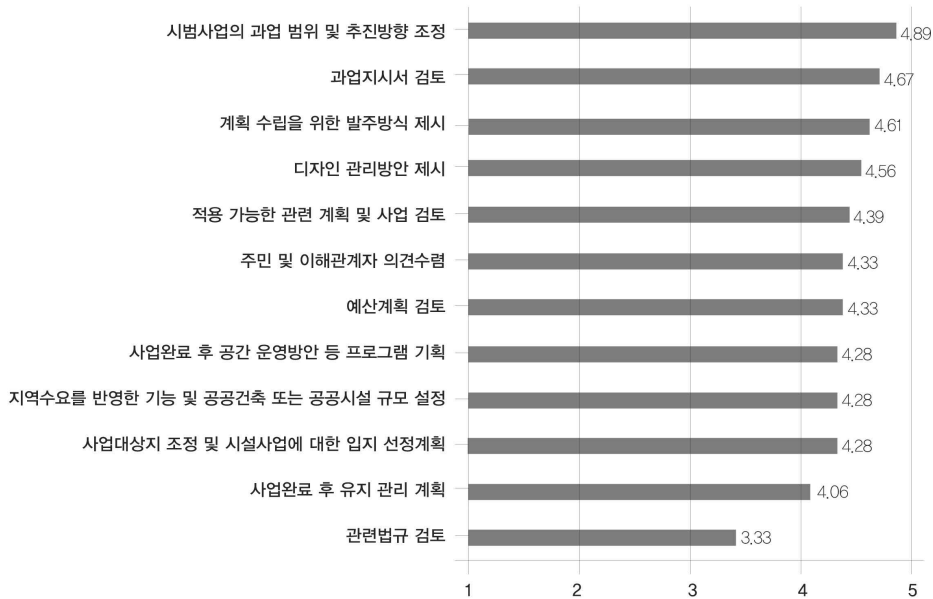
[표 5-3] 총괄계획가의 사업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_기타의견

구 분	기타의견 내용
행정의 지나친 개입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주민의견이 왜곡되고 지역대표(동장 등 각종 직능 단체 대표)의 의견에 지나치게 치중 · 공무원은 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적합하나 기획대상지 선정, 프로그램 등 MP활동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간섭
총괄계획가 업무성격 및 자격요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가 주로 수행한 일은 지자체별, 프로젝트별로 각양각색이어서 일괄적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 총괄계획가의 교수 비중이나 참여비율이 너무 높은(포괄적 의미의 전문가보다는 구체적 실무를 알고 있는 전문가 필요) 것으로 판단
주민 및 부서간 소통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의식이 높아져 다양한 내용의 사업과 방향이 요구되는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
예산의 효과적 활용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디자이너팀간의 소통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의 사용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발생

□ 총괄계획가의 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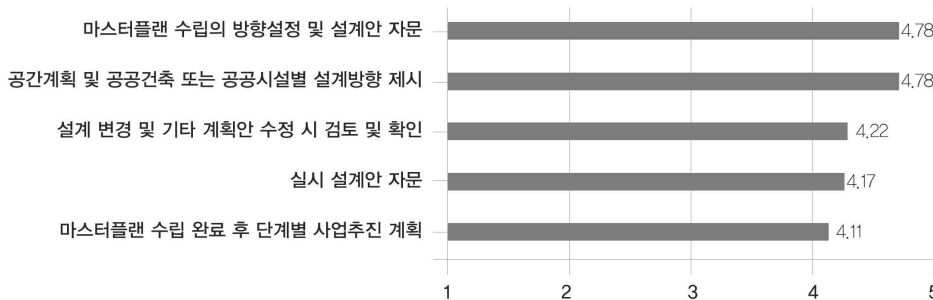
기획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업지시서 검토’ (4.67), ‘발주방식 제시’ (4.61),

‘디자인 관리방안 제시’ (4.56) 역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관리계획’ (4.06)이나 ‘관련법률 검토’ (3.33) 업무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총괄계획가의 업무 관여 정도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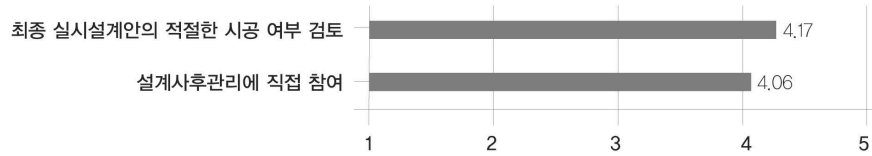
[그림 5-10] 기획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수행 업무의 중요성 수준

계획·설계 단계에서 총괄계획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설계안 자문’ 과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 또는 공공시설별 설계방향 제시’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으며, 이는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보다는 사업의 비전 및 방향제시 위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5-11]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수행 업무의 중요성 수준

시공단계에서 사후설계관리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최종 실시설계안의 적절한 시공 여부 검토’ (4.17)를 ‘사후설계관리에 직접 참여’ (4.06)보다 조금 높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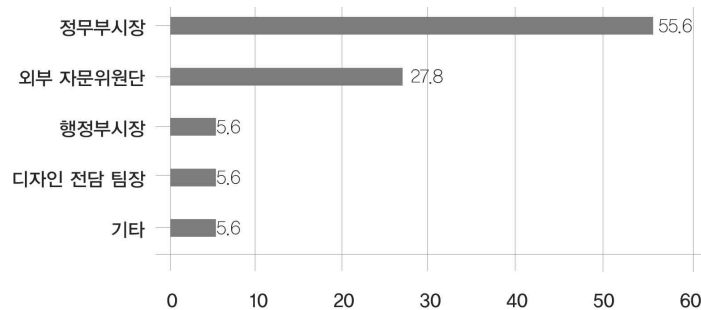


[그림 5-12] 시공단계에서 총괄계획가 수행 업무의 중요성 수준

□ 총괄계획가의 적정 지위 및 보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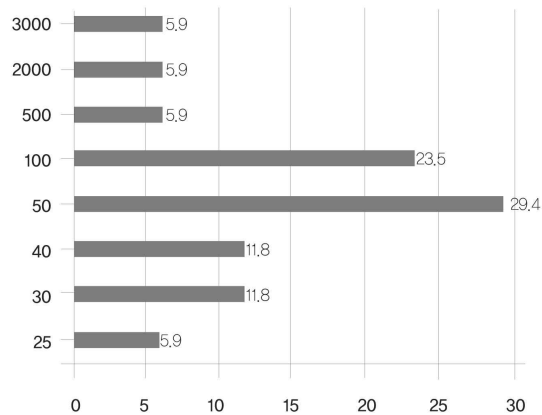
총괄계획가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한 총괄계획가의 지위 형태로 정무 부서장 체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총괄계획가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문성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부 자문단형태로 운영’ (27.8%)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이는 이미 자문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대부분의 운영문화에 익숙한 탓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행정부시장 체제 및 서열이 낮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전담 팀장 제도에 대해서는 선호가 낮았다.



[그림 5-13] 총괄계획가의 바람직한 지위 형태

총괄계획가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회당 50만원 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최빈값). 총 17인의 응답 중 중위값 역시 50만원 수준으로 모아졌다. 반면 평균값은 3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만원, 3,000만원 등 비현실적 답변으로 인해 평균이 높아진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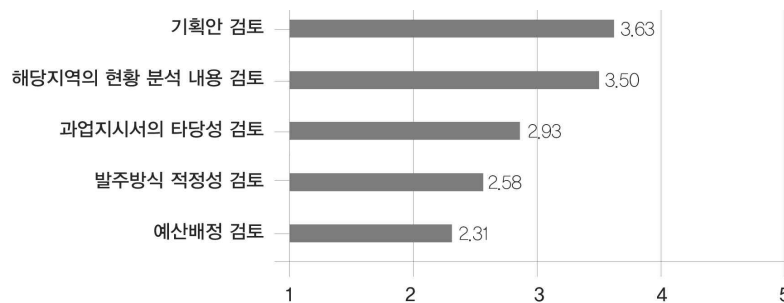


[그림 5-14] 총괄계획가의 보수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2) 디자인검토위원 수행업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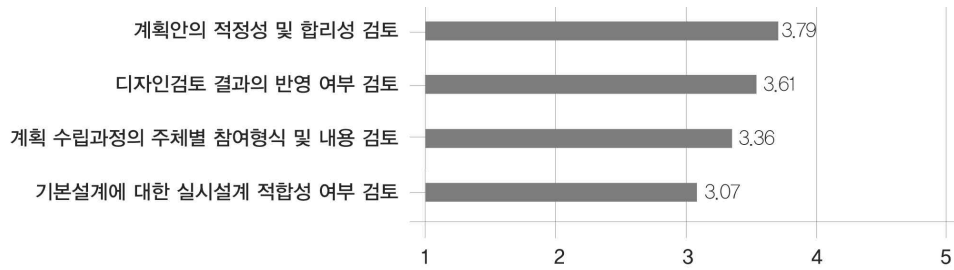
□ 디자인검토위원의 업무 관여도

디자인검토위원들은 기획단계의 경우 ‘기획안 검토’ (3.63)에 가장 업무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고, 반면 ‘예산배정 검토’ (2.31) 및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 (2.58)에서는 참여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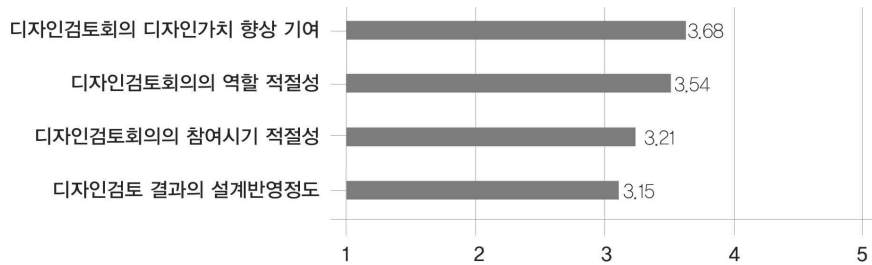
[그림 5-15] 디자인검토위원들이 기획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디자인검토위원들은 계획·설계단계의 경우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 (3.79) 업무에 관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반면 설계단계에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적합성 여부검토’ (3.07)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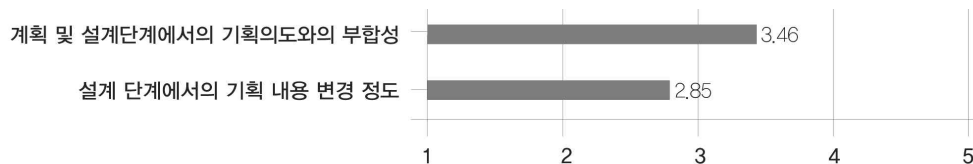
[그림 5-16] 디자인검토위원들이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 정도

디자인검토회의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디자인검토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편(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디자인검토회의가 디자인가치 향상에 기여(3.68)하며, 그 역할도 적절(3.54)하다고 판단하는 등 디자인검토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디자인검토 결과의 설계 반영 정도’ 항목(3.1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디자인검토회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림 5-17] 디자인 검토회의 운영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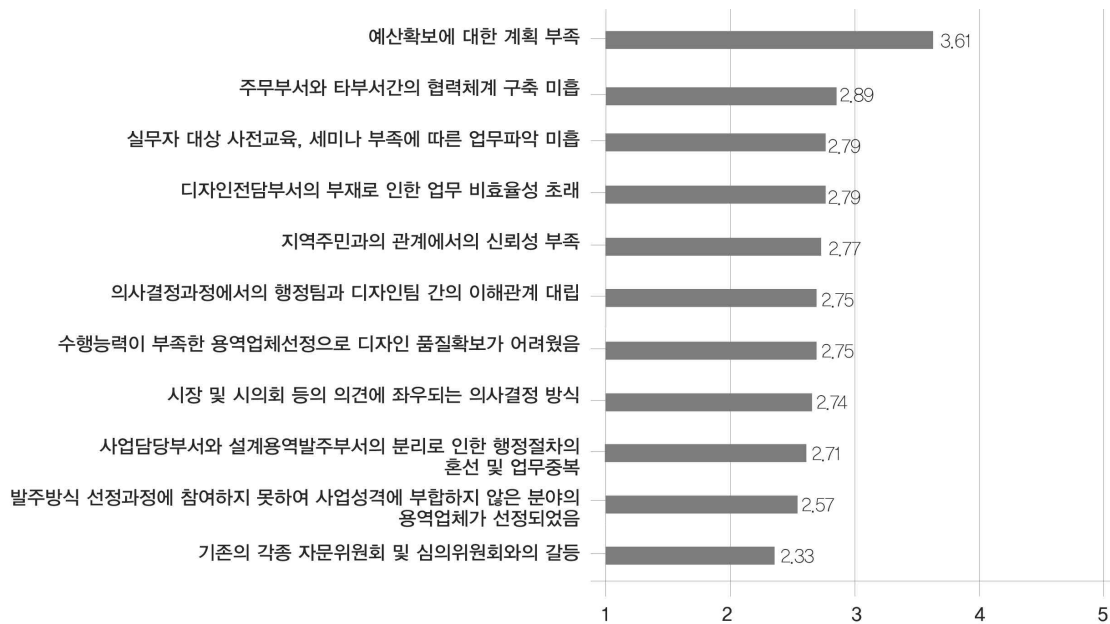
기획업무가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디자인검토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수준(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기획의도와의 부합성에 대해서는 높은 편(3.43)이라 답변했고, 설계단계에서 기획 내용의 변동 정도는 낮은 편(2.85)이라 응답하였다.



[그림 5-18] 기획단계 업무와 설계단계 업무의 일관성 정도 평가(디자인검토위원)

□ 디자인검토위원의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디자인검토위원의 전반적인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 부족’ (3.61)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총괄계획가 답변과 같은 것이었다. 그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총괄계획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단, ‘실무자 대상 사전교육, 세미나 부족에 따른 업무파악 미흡’에 대한 지적이 다소 높게 응답되어 총괄계획가와 대조를 이루었는데, 담당자 전문성 및 업무 이해 부족은 기타 의견에서도 두드러지게 지적된 사항으로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총괄계획가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9] 전반적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 디자인검토위원 평가

이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항목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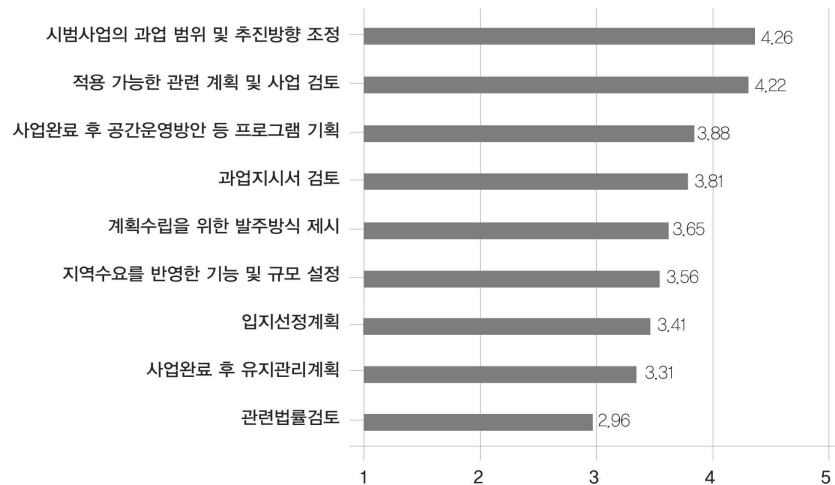
[표 5-4] 디자인검토위원의 사업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_기타의견

구 분	기타 의견 내용
전문성 결여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추진 과정 상 가장 아쉬운 점은 전문성 부족한 감독관의 주관적인 진행 · 총괄계획가의 전문성 부족과 디자인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예산 및 시간 부족으로 전문성 결여 디자인 용역업체 선정 · 조직과 위계에 의한 비협조와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 변별력 없는 발주 시스템 선택, 장기적 비전 부재 등의 문제점 상존

구 분	기타 의견 내용
소통 및 기초조사 부재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하는데, 한 두 사람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 ·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여야함 · 주민역량이 부족해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용역업체가 주민을 대신하여 모든 계획과 디자인을 해주는 프로세스는 개선 필요 · 마을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가 부족한 경우 다수
디자인 자문회의 실효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미 부지, 계획방향, 예산투입방향 등 지자체의 개발방향이 결정되어 있어 지원의 큰 효과가 없었음 · 초반에는 자문회의가 열심히 진행되었으나 마무리 단계에서의 확인 및 참여 부족 ·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이 애매하고 모호

□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

디자인검토위원들은 기획단계에서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을 제시했고(4.26), 이와 함께 ‘적용 가능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4.22), ‘사업완료 후 공간운영방안 등 프로그램 기획’ (3.88) 역시 중요한 항목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유지관리계획’ (3.31)이나 ‘관련법률 검토’ (2.96) 업무의 중요성은 총괄계획가와 같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5-20] 기획단계 디자인검토위원의 수행 업무 중요도 인식

디자인검토위원들은 계획·설계단계에서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 (4.70)와 ‘디자인 평가 및 논의’ (4.48) 항목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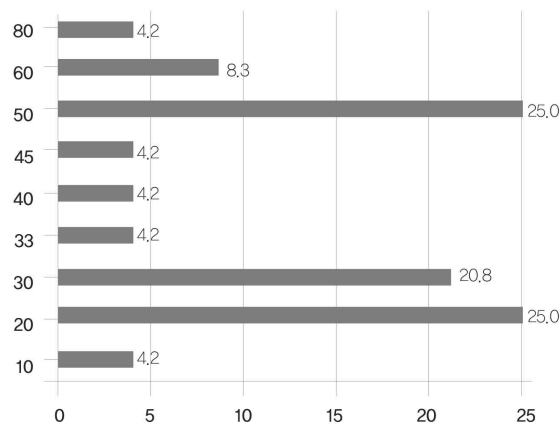
했다. 반면 실시설계안 및 적절한 시공 여부 검토 등과 같이 실제 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항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했다.



[그림 5-21] 계획·설계·사후설계관리 단계 디자인검토위원의 수행 업무 중요도 인식

□ 디자인검토위원의 적정 지위 및 보수에 대한 의견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회당 20만원 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총 24인의 응답 중 가장 많은 답변(최빈값)은 20만원이었으며, 중위값 역시 31만원 수준, 반면 평균값은 37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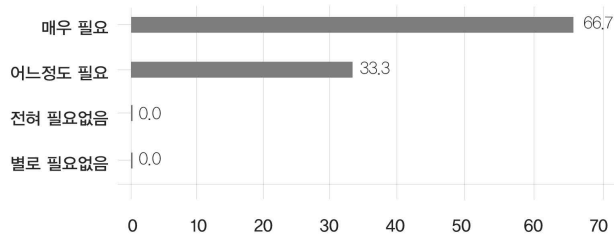
[그림 5-22] 디자인검토위원의 적정 보수 수준 (단위: %)

3) 설계이행지침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고려항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설계 이행지침을 제시하여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매뉴얼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계이행지침은 사업진단기준, 디자인기준, 사업수행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총괄계획가(MP/MA)의 설계이행지침에 대한 의견

먼저 대부분의 총괄계획가들은 설계이행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중 66.7%는 ‘매우 필요’ 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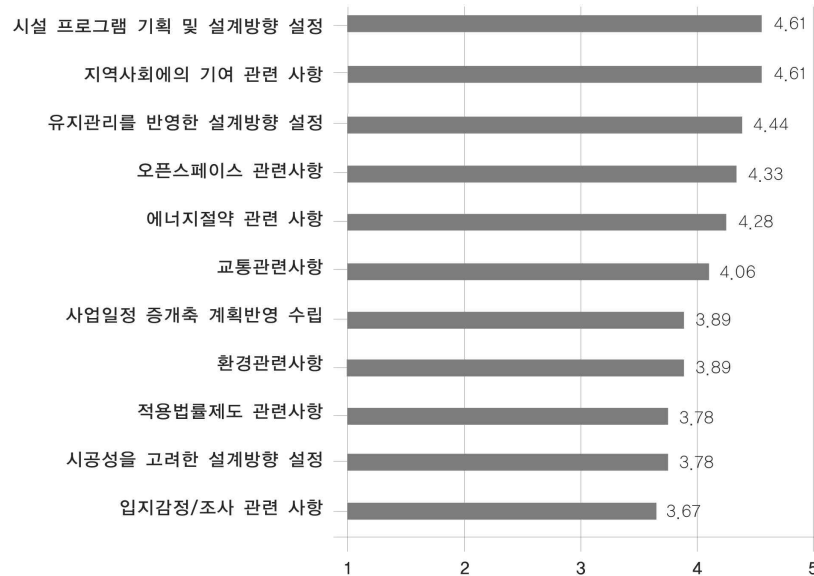


총괄계획가들은 사업진단 기준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항목 [그림 5-23] 사업 진행시 설계이행지침의 필요성 인식 수준 (단위: %) 으로 ‘사업추진 목적’ (4.67)을 제시했다. 그 외 ‘입지선정계획의 타당성(이용수요, 규모와 비용 대비 부지규모, 매입가능성 및 비용 등)(4.35)’, ‘사업규모에 따른 필요조건 제시 (이용자 수, 필요면적 및 시설 등)(4.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총괄계획가들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4] 사업진단기준 측면에서 필요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

디자인기준 측면에서는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프로그램 개요 및 시설의 통합적 공간 구성을 위한 다이어그램 등)’ (4.61)을 꼽았다. 그 외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지역주민의 사용성, 지역경관 형성 등)(4.61)’ ,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방향 설정(4.44)’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림 5-25] 디자인 기준 측면에서 필요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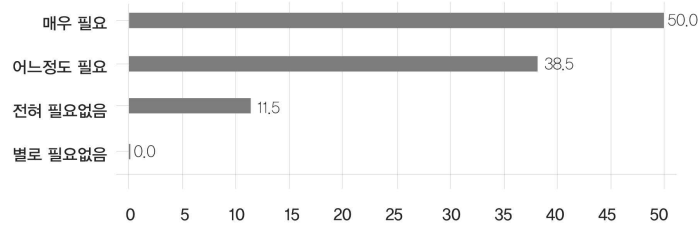
사업수행방식 측면에서 설계이행지침에 가장 필요한 항목은 ‘주민의견수렴 방식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4.50)로 나타났고, 그 외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제시(4.28)’의 중요성도 강조하여 설계이행지침이 참여주체간의 단절과 부적절한 발주방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그림 5-26] 사업 수행 방식 측면에서 필요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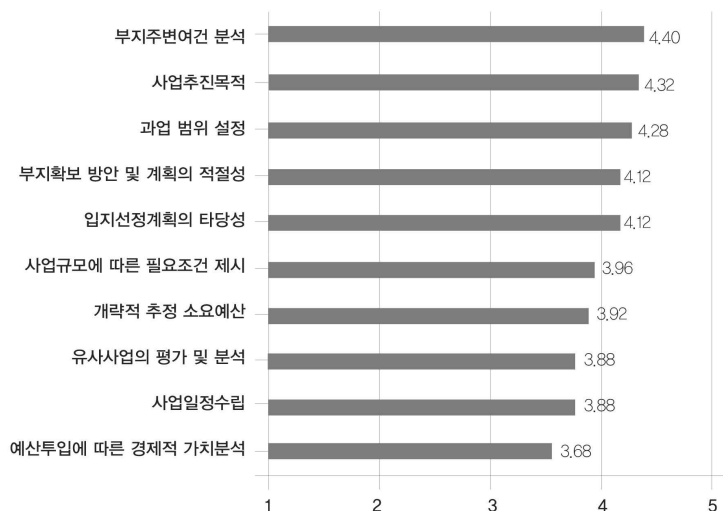
(2) 디자인검토위원들의 설계이행지침에 대한 의견

총괄계획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디자인검토위원들은 설계이행지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0.0%는 설계이행지침이 ‘매우 필요’ 한 것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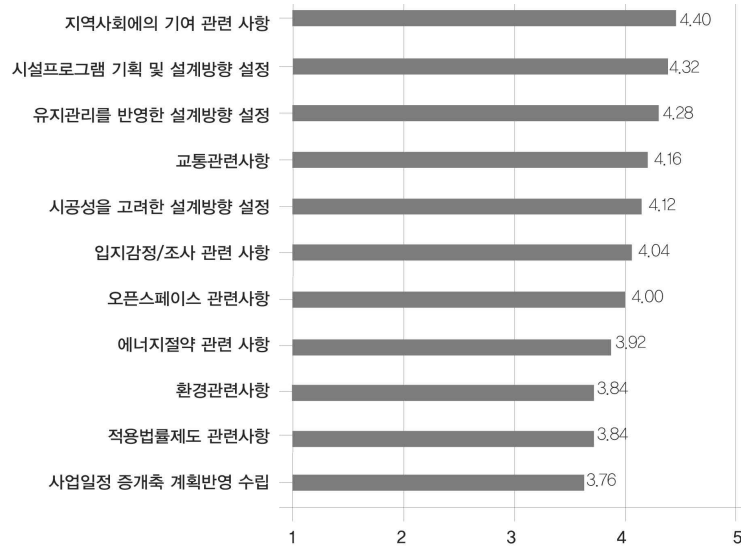
[그림 5-27] 사업 진행 시 설계이행지침의 필요성 - 디자인검토위원 평가

디자인검토위원들은 사업진단 기준 측면에서 설계이행지침에 가장 필요한 항목은 ‘부지 주변여건 분석(주변 교통, 문화재, 용도지역,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주변개발계획 현황 등)’ (4.40)으로 제시하였으며, 총괄계획가들과 같이 ‘사업추진목적’ (4.32)에 대해서도 높게 응답하였다. 그 외, ‘과업 범위 설정(4.28)’, ‘부지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4.12)’, ‘입지선정계획의 타당성(4.12)’의 순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실제 사업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제약이 많이 따를 수 있는 사이트 관련 항목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28] 사업진단 기준 측면의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 - 디자인검토위원의 평가

디자인검토위원들은 ‘디자인 기준 측면’에서 설계이행지침에 가장 필요한 항목은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지역주민의 사용성, 지역경관 형성 등)’ (4.40) 및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프로그램 개요 및 시설의 통합적 공간 구성을 위한 다이어그램 등)’ (4.32)이라고 응답하여 총괄계획가의 중요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5-29] 디자인 기준 측면의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 - 디자인검토위원의 평가

또한 사업수행방식 측면에서 설계이행지침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주민의견수렴 방식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4.16)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외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발주부서와 관련부서와의 관계정립, 참여주체 간 실무관계 정립, 의사결정권자 명시 등)(4.04)’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5-30] 사업 수행방식 측면의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 - 디자인검토위원의 평가

2. 지역건축가 FGI

1) 공공건축가 활용의 긍정적 측면

본 조사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공공건축가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건축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여 공공건축가들과의 협력 과정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했다. 지역건축가들이 공공건축가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지역 건축가들은 시 행정 부문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건축가가 부시장 직급으로 행정체제에 포함된 영주시의 경우에는 시장과의 긴밀한 협의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주시의 경우 공공건축가를 통하여 시 전체의 공공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건축 설계 방향을 마련하기가 용이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가를 통하여 고품질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2) 공공건축가 활용의 부정적 측면

지역건축가들은 장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 절차 증가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시 행정 업무 단계에서 공공건축가의 검토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고 업무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많은 공공건축 업무가 관행에 따라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건축가의 검토 과정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식적인 설계자문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별개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많은 지역건축가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은 중앙에서 파견된 공공건축가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공공건축가는 서울에서 파견되곤 하는데, 거리상의 이유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작업 시 공공건축가의 기획 의도가 잘 파악되지 않아 결과물이 서로 생각한 바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상의 문제는 대부분의 공공 업무에서 지적되는 것이지만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했다. 대부분의 공공건축물들이 이미 예산이 결정된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원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공공건축가들이 원하는 설계 기준이 지방의 현실에 비하여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은 공공건축가가 관여했다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감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며, 건축과정에서 공공건축가의 설계의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입찰, 현상설계 등)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더욱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건축가들은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기 적당한 과제들은 감리가 필요 없는 소형 사업이나, 법적인 절차가 중시되는 대형 사업이 아닌, 중간 규모 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건축가의 애매한 역할 범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적으로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작업 과정에서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애매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건축가와 업무 협의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는 직접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자문과 조언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3) 종합의견 및 향후 개선 방안

일반적으로 지방의 건축사사무소에서 공공건축 관련 업무는 전체의 10%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나 군의 공공건축 사업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지역건축가들은 중앙의 공공건축가 파견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편이었다. 물론 초기에는 공공건축가 파견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인식도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완화된 상태이다.

공공건축가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했던 지역 건축가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공공건축가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위화감이 있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이미 각 지자체에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건축가들이 있는데, 서울의 젊은 건축가들을 파견하는 것은 지역건축가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건축가들 역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중요한 일은 다하고 지방에서 뒤처리하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지역건축가의 자부심을 살려줄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 간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했다. 먼저 거리상의 문제로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공공건축가로 파견되는 사람들의 연배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향후 공공건축가 활용 방향에 대하여 지역 건축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설계단계보다 예산계획 수립과 기획단계에 참여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건축가가 설계부분을 담당하고 공공건축가가 조언 및 자문을 통해 설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양에서 파견되는 공공건축가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인맥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인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역예의 연계 및 지역 거부감 완화를 위하여 학계의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협력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건축가들은 다양함을 갖춘 대학 교수와 현장감이 있는 지역건축가의 조합이 거부감도 적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었다.

3. 시사점 및 과제

1) 설문조사 결과 종합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공건축가 지원은 지역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

아직까지 공공건축가들의 활동은 미미하지만, 이미 공공건축가가 활동한 경우에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에서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 참여하였고, 주당 평균 1~2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단계의 경우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과업지시서 검토에 주로 참여한 반면 예산계획 및 사후 유지관리 계획에의 참여는 미진했다. 디자인검토위원들의 경우 주로 기획안·계획안·디자인검토와 해당 지역 현황 분석 작업에 주로 참여했으나,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나 예산 배정에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에서는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별 설계방향 제시 등의 활동에 주력했다. 총괄계획가들은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을 가장 중요시 했고, 과업지시서 검토, 발주방식 제시, 디자인 관리방안 제시 등도 중요한 역할로 인식했으나, 유지관리계획이나 관련법률 검토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했다.

- 현행 공공건축체계의 문제점과 공공건축가의 한계

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은 예산확보 계획의 미흡을 지적하였고, 행정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정부문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들의 전문성 발휘가 어려웠고, 주무부서와 타부서 및 주민과 행정부서간 소통 및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가가 다양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총괄계획가의 실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 공공건축 설계이행지침 필요성 인식

대부분의 공공건축가들은 설계이행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총괄계획가들은 설계이행지침이 사업추진 목적, 입지선정계획의 타당성, 사업규모에 따른 필요조건 제시, 부지 주변여건 분석, 과업 범위 설정, 부지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디자인기준 측면에서는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교통 관련 사항의 순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자인검토위원들의 경우 설계이행지침에 가장 필요한 항목은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및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을 제시했고, 그 외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방향 설정, 교통 관련 사항,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공공건축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지원형태 구축 필요

총괄계획가들은 바람직한 지위형태로 전문성을 강조한 정무 부서장 형태를 선호했다. 외부 자문형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조직 내 융합에 효과적인 행정부시장 및 디자인 팀장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2) 주요 문제점 및 과제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건축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주요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획업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예산계획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은 기획단계에서 예산 계획의 수립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나 공공건축가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이는 현행 행정체계 하에서 예산 결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시장 및 주요 공무원의 자의적 의사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기인한다. 사전기획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 근거가 없는 문제 및 예산 검토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산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또한 현재의 조달청 기준의 건축비 기준이 현실에 비하여 너무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향후 사전 기획단계에서 예산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비용의 마련,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공공건축 부지선정계획의 전문성 확보 필요

입지계획은 공공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이는 현행 입지선정 제도가 입지의 적정성 위주의 판단이 아닌, 수용 및 계약 가능성에 좌우되는 현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향후 입지계획 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사전에 참여하여 다양한 가능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참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 공공건축 사후 유지·관리계획의 중요성

사후 유지·관리계획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과 공공건축가 모두 사후 유지·관리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자 인터뷰 결과, 사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획단계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험이 부족한 공공건축가들의 경우에는 사전 기획단계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유지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업무를 책임지는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시설의 건축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최초 사전 기획단계에서 동종 시설의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담당 공무원을 함께 참여시켜 공동 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역 건축가와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 조율 필요

일반적으로 경쟁자일 수 있는 공공건축가 및 지역건축가들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건축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자 관계일 수 있는 건축가-건축가의 조합보다는 학계-산업계 연계 등 이중 연계가 바람직할 수 있으며, 한국적 문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연배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즉, 조언을 해주는 공공건축가가 지역 건축가에 비하여 연배가 높은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서로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근접 지역 배치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최초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서로 간의 업무 중복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구축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3.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구축

1) 조직구성을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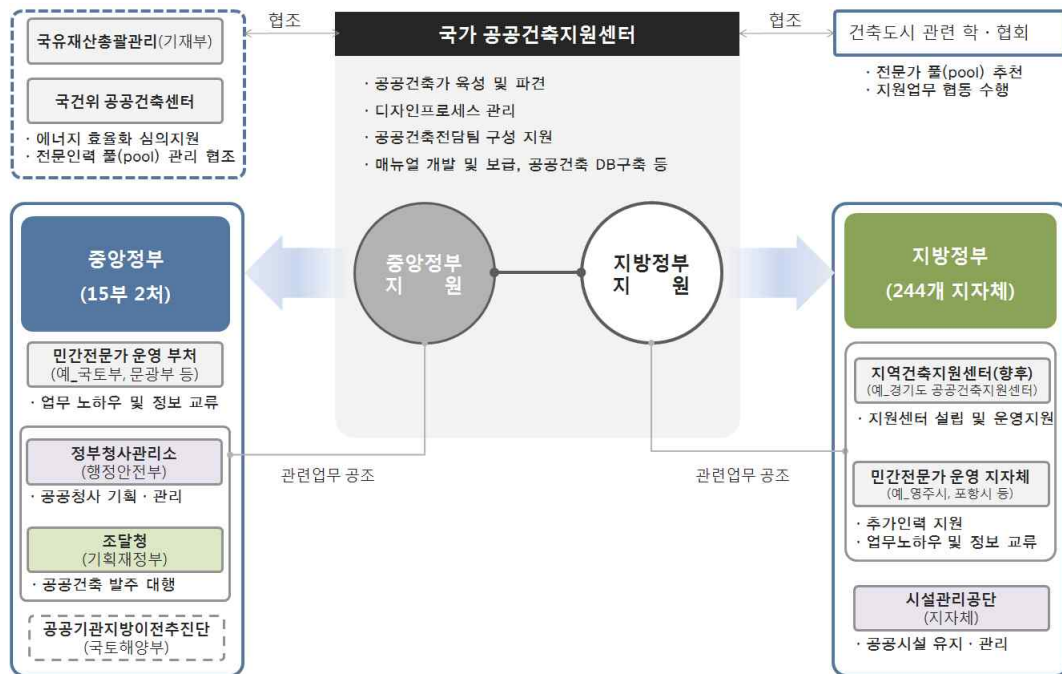
(1) 범부처 차원의 중앙센터로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범부처 차원의 조직으로서 중앙정부 단위 공공건축 관련 전문조직들과 협력하며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일례로 청사수급 관리업무에 주안점을 두는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획단계 업무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계발주 및 계약업무 위주의 조달청과는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건축 관련 전문조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를 추천하여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중앙부처와 관련하여 공공건축가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 조성업무 개선에 주력한다. 국내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의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업무 노하우 및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에서 운영되는 지자체 파견 공공건축가 업무는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중앙정부 단위 조직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센터가 있으며, 지원센터와는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 지원, 전문분야별 공공건축가 풀(pool) 추천 등의 협조가 가능하다.

또한 지원센터는 중앙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 민간조직인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등의 학·협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전문분야별 공공건축가 풀(pool) 형성 및 관리와 기획업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업무 협동수행체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6-1]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관계도

※ 출처 : 서수정외, 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p.217 일부수정

(2) 지자체 지원센터로서의 행정조직과의 유기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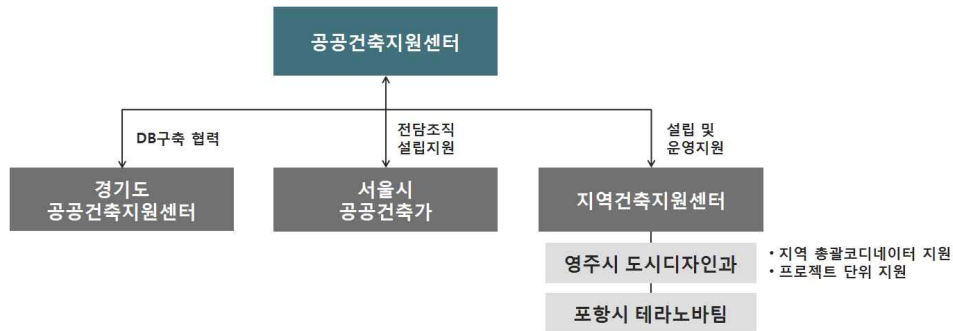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단위의 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있는 행정조직을 위해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지역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또는 지역 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을 경우, 업무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나 서울시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별도 센터를 계획하거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조직체계, 구성방안, 업무수행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직설립 과정 전반에 걸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패키지로 작성하여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전체 업무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거나 일부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영주시, 포항시와 같이 총괄형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행정조직 내 공공건축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위해서 지원센터는 전문인력 풀(pool)을 공유하고 업무 노하우에 대한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내에서 지자체 전담조직과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협력에 의해 기획서 작성, 디자인 리뷰, 디자인품질평가지표(DQI)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표 6-1] 지원센터와 관련조직간 협력방안 정리

구 분			협 력 방 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센터			· 공공건축의 발주,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심의 지원 및 보조 · 공공건축가 풀(pool) 관리 협조
중 앙 부 처	공공 건축 관련 전담 조직	정부청사 수급관리소	· 기획단계 업무 지원(예_다양한 사업관계자가 존재하는 합동청사 추진 시 기획단계 협의 및 지원업무 추진) ·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설계단계 디자인리뷰 지원 등
		조달청	· 기획 및 설계단계의 설계이행지침 운영지원, 디자인리뷰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 부처		·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제고를 위한 업무 노하우 및 정보 교류 등
지 방 정 부	지역건축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정 지원 · 지원센터 운영업무 개선방안 관련 정보 공유 등
	공공건축가 운영 지자체		· 전문인력 풀(pool) 공유 및 추천 ·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운영지원 등
	시설관리공단		· 공공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 공조
유관기관(학협회)			· 공공건축가 풀(pool) 형성 및 관리 협조 · 기획업무 및 디자인프로세스관리 업무 협동 수행



[그림 6-2]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관계

(3) 행정조직체계의 법정기구 및 비법정기구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 법정기구와의 관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조직의 조력자 및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와 차이가 있다. 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직의 전문성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디자인프로세스 환류를 통해 합리적 운영·관리체계를 도모하는 조직이다. 이에 반면 법정 심의기구는 제도적 틀 안에서 심의 대상 프로젝트가 적법한 지를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구분된다.

특히 지원센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획업무 컨설팅은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획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설계단계의 디자인 리뷰는 기존 법정 심의기구와 달리 설계안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획취지에 부합하는 설계안의 적정 구현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나 디자인리뷰의 참여 인력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공공건축가가 참여전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 회계, IT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끝으로 법적 심의기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만을 심의대상으로 선정⁸⁴⁾하고 있어 소규모 프로젝트는 심의대상에서

84) 건축위원회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4제4호에 근거하여 심의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배제되고 있으나 지원센터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시설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또는 디자인리뷰를 통해 검토된 사업에 한해서는 법정기구 심의운영 시에도 별도의 검토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심의운영 시 기획서안, 설계이행지침 및 디자인리뷰 결과서 등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제출서류로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과정에서 해당사업의 공공건축가 및 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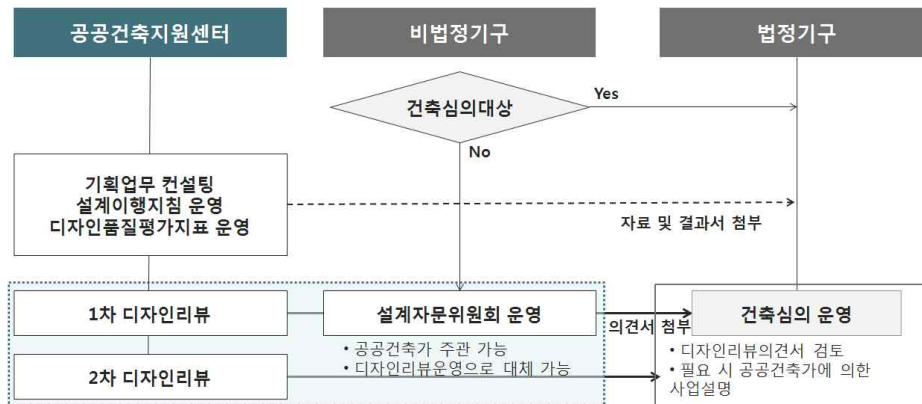
□ 비법정기구와의 관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계단계 지원업무는 요청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개입하였던 공공건축가가 참여함에 따라 설계안에 대한 자문범위 및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자체 설계자문위원회와 구별된다.

디자인리뷰 운영은 원칙적으로 기획단계 업무부터 관여하였던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또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전제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이해에 기반하여 명확한 논의주제에 입각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안의 미흡한 부분 또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도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 지자체 행정담당자 면담 결과 설계자문 운영과정에서 심의위원 변경으로 인한 상반된 심의의견, 기획의도 저해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자문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설계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비법정기구인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설계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디자인리뷰의 디자인검토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배경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에 의한 디자인리뷰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같은 대규모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5는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 시설에 대해, 제5조의6은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규정한다.



[그림 6-3] 지원센터와 법정 및 비법정기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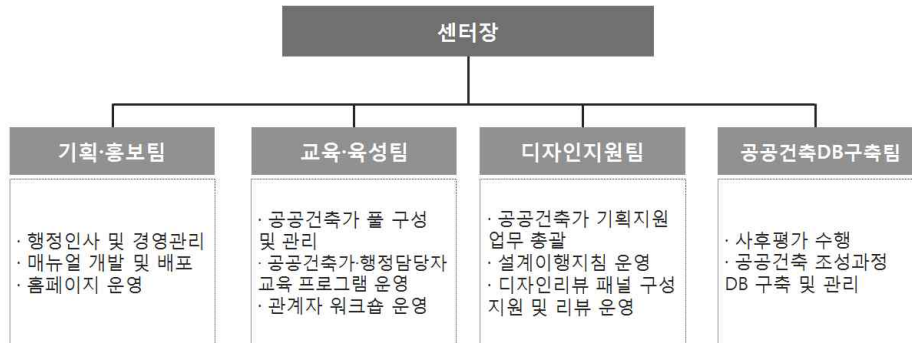
2) 조직체계

(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은 지원센터 핵심기능에 따라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을 토대로 기획·홍보팀, 교육·육성팀, 디자인지원팀, 공공건축 DB구축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⁸⁵⁾.

기획·홍보팀은 행정인사업무 및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과 업무범위를 협의 및 결정하며, 매뉴얼 개발·배포, 홈페이지 관리 등과 같은 홍보 업무를 병행한다. 교육·육성팀은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팀으로 전문가 풀(pool) 관리를 하며, 행정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자 연수와 지원을 수행한다. 디자인지원팀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의 기획 및 디자인리뷰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해 수행되는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공공건축 DB구축팀은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평가를 수행하며, 공공건축가 지원을 통해 생성되는 문서 등을 총괄 관리한다.

85) 1차년도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을 업무에 따라 6개 팀으로 분류하였으나 2차년도에서는 조직의 행정 및 홍보관련 업무를 1개 팀으로 통합하고 디자인지원팀을 통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를 전담 시키는 등 조직도(안)의 재편을 모색하였다. 향후 지원센터 업무 수요가 증가한다면 1차년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업무에 따른 부서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4]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2) 신설조직의 인력구성 및 운영전략

□ 국내외 유사 조직들의 설립당시 조직, 인력 및 예산규모

국내·외 유사 조직들의 설립당시 조직, 인력, 예산규모를 토대로 신설조직의 인력 구성 및 운영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먼저, 영국 CABE 인력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CABE는 1999년 설립 당시 관리자급 인사를 포함해 총 5인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자인위원회와 합병 이전의 조직체계는 의장, 커미셔너, 경영진과 5개 경영부서로 운영되고 있었다. 설립당시 예산은 약 51만 파운드(한화 약 10억원)였으며 이중 기관운영비용이 약 27만 파운드(한화 약 5억 3천만원), 인건비는 약 23만 파운드(한화 약 4억 7천만 원)였으나, 2009/2010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총예산은 약 2660만 파운드(한화 약 470억 원)로 설립초기에 비해 약 50배가량 증가했고 구성원 역시 125명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국가한옥센터 인력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한옥센터의 설립초기 조직은 총 10인(박사급 연구원 3인과 석사급 연구원 7인)으로 구상되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인건비 포함 총 연구사업 예산 8억원을 요청했었다. 주된 사업은 한옥정책개발 지원, 한옥산업화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한옥정보관리 등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업무 유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인력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에 설립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예산은 4억 7천5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현재 예산은 26억 1천8백만원에 인력은 11명

으로 증대(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운영)되었다. 예산 확대는 국토에 관한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토부, 행안부, 대법원, 국세청 등 5개 부처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관련 정보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예산은 당초 계획의 235.2%가 지출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확보한 지적, 건물, 주민, 시가, 과세 등 부동산 관련 DB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3억 건에 달하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통합 DB를 필요로 하는 공공민간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업무까지 관할하고 있다. 현행 센터 운영 관련 법령으로는 2010년 기존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신설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3112호, 2011.8.30. 최신개정)이 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 인력 및 운영구성(안)

앞서 제안하였듯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총 4개의 실무팀으로 구성(기획·홍보, 교육·육성, 디자인지원, 공공건축 DB 구축)해볼 수 있다. 우선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할 3~5년 임기의 센터장을 공모 방식으로 채용한다. 자격은 관련 업무 경력이 10~15년 이상인 공직자 또는 건축 관련 업계 및 학계 출신 인사여야 할 것이다. 기획·홍보팀은 행정인사 업무 및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학사급 행정 업무 인력으로 2명을 배정, 매뉴얼 개발·배포,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할 석사급 인력 1명을 증원한다. 교육·육성팀은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팀으로 전문가 풀 관리, 행정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운영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자, 연수 책임자, 지원 인력 3명을 증원한다(팀장은 석사급, 팀원은 학사급 교육 사업 유경험자 또는 건축 관련 전공자). 디자인지원팀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의 기획 및 디자인리뷰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해 수행되는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3~4명을 증원한다(팀장은 박사급, 팀원은 석사 및 학사급 공공건축 관련 실무 경험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DB 구축팀은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평가를 수행하며, 공공건축가 지원을 통해 생성되는 문서 관리 업무를 담당할 3명을 증원한다(팀장은 석사급, 팀원은 평가업무 담당 1명, DB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할 정보기술 개발 담당자 1명).

[표 6-2] 공공건축지원센터 인력운용(안)

(단위 : 명)

구 분	연구직		행정직	계
	박사급*	석사급*		
센터장	1			1
기획·홍보팀	—	1	2	3
교육·육성팀	—	1	2	3
디자인지원팀	1	1	2	4
공공건축 DB구축팀	—	1	2	3
계	1	4	8	14

*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위취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력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준

□ 신설 기관의 소요 예산 추정

단기적 발전구조를 제시해보면, 총 인력 14~15명(박사급 포함)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기본 경비(운영비 및 인건비)는 12~1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출범 당해 연도에 법적 위상을 가진 기관으로 출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본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화 이전에 기관이 설립될 경우 센터의 사업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체 경비 마련이 어려우므로 설립과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부터 센터의 예산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과 디자인리뷰 및 지원의 경우 소액의 비용을 청구해 점차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발전구조로 총 40~50명 수준의 연구인력(박사급 포함)을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기본 경비는 약 40~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센터의 사업과 활동이 확대되어 사업비 중 일부를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향후 기본 경비 외에 사업비 추가 책정이 필요하다. 즉, 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디자인리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앙정부 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서비스 이용비를 청구하여 자체 수입을 확보해 사업비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1) 지원센터 주요업무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관련 주요업무

□ 기획업무 지원 및 운영

공공건축의 기획단계는 사업목표 수립, 사업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시설 유지·관리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설계방향과 사업집행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며 궁극적으로 원활한 설계단계 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⁸⁶⁾. 전문성과 독립적 자문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사업기획은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설계자 선정과 전반적인 설계단계 업무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기획업무 및 사업타당성 업무의 위탁수행, 기획업무 검토와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기획서, 설계이행지침 업무 등의 코디네이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우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본구상, 사업타당성조사 등 용역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의 경우, 다양한 사업 참여주체가 존재하는 만큼 기본구상 단계에서 설계방향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사업 이해관계자 확인, 사업 추진체계 및 협의방식 등 주요사항들이 결정되므로 지원센터와 같은 독립적 기관 지원에 의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특히 기획단계에서는 설계자의 원활한 사업추진 환경을 위한 자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사업 예산규모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용, 설계원칙 등을 검토하여 사업정보가 설계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더 나아가 지원센터는 다분야 전문가 풀(pool) 관리주체로서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는 사업집행방식과 관련한 기획업무 컨설팅,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운영 등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공공건축가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지자체 총괄형 공공건축가에 대한 지원은 요청에 의해 개별 사업 단위의 디자인

86)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1차년도에서 제시된 내용과 더불어 2차년도 연구의 지원센터 시범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업무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프로세스 관리 지원 등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하는 공공건축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및 행정담당자간 의사결정과정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특성에 맞는 업무양식 제공, 문서의 취합 및 관리, 회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 디자인리뷰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

공공건축의 설계단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협력형 설계시스템으로서의 디자인리뷰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건축에 있어서 공공성 제고는 공공건축 디자인의 핵심 사안으로 우수한 설계안 도출 과정에서 시설이 사용자 요구에 부응시키는데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디자인리뷰는 설계안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를 논의하기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설계안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리뷰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사업 현장답사 및 일정관리 등 실질적 준비과정을 행정조직과 함께 수행하며 공공건축가와 행정조직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개·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는 또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 이해관계자들간 설계방향 설정의 툴(tool)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품질평가지표⁸⁷⁾를 운영하여 설계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품질평가는 이용자 및 운영관리자, 설계자, 행정가들이 참여하여 디자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설계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지표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 때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평가지표의 운영주체인 공공건축가(facilitator)를 선정하고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방식, 워크숍 개최방식 등을 숙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교육 및 선정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디자인품질지표 선정, 운영횟수 및 시기 등 실질적 운영에 따른 준비과정에서 발주기관, 수요자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87) 국내 적용가능한 디자인품질평가지표에 관해서는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김상호외, 20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해 별도로 수행중이며, 국내 적용 가능한 품질평가방식으로 PDAT(Participation Design Adjustment Tool)의 개발과 웹기반의 품질평가지표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설계공모사업 대행⁸⁸⁾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공모는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절차복잡 및 담당자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조직의 요청에 의해 설계경기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이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목적 및 특성, 사업의 문화적 가치, 설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경기방식을 선정하고 설계경기 기획·관리를 통해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모지침서 작성, 현상설명 및 심사과정 등을 지원하여 적합한 설계자 선정에 주력한 지원을 수행한다. 현상설계공모는 사업예산에 따라 다양한 운영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가 가격 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2억원 미만의 사업은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포함한 수행능력 평가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설계공모 대행을 통해 지원한 사업은 지원센터의 고유업무인 설계 이행지침, 디자인리뷰,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 등의 업무와도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 디자인전담조직 구성 지원

지원센터는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기존에 수행되지 않은 신규사업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야 하는 사업 등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 내 디자인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공건축가 개인에 의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수행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업추진 일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TF팀과 같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에 디자인을 조정·담당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조직 관련 담당자들과 외부 전문인력 등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88) 본 내용은 1차년도 연구 보고서의 내용(p.22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교육 및 홍보

□ 공공건축가 육성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조직의 지원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건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건축 관련 학협회, 지역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지원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굴한다⁸⁹⁾.

또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가 공공발주 프로세스와 지자체 행정담당조직 업무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역할, 조성단계별 세부지원내용 및 점검사항 등에 대한 연수를 운영한다. 전문가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시범적용을 통한 업무내용과 절차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행정담당자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체계 자료를 축적하고 교육하며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행정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가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건축 도시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건축 담당자의 디자인 가치판단 및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기획업무의 중요성, 체계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의미 등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 아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한다. 공공건축가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 행정담당자들이 실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운영도 필요하다.

89)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인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1차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 홍보 및 매뉴얼 작성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과정 및 업무수행체계 관련 매뉴얼을 개발·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은 발주자 및 설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획단계 디자인프로세스 추진방안, 디자인검토회의 운영방식, 사후설계관리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표 6-3] 해외국가별 주요 개발 매뉴얼

구 분	영국 C A B E	미국 P B S	프랑스 M I Q C P
우수 공공건축을 홍보·촉진하기 위한 매뉴얼	· 공공건축, 공원 및 공공 공간, 주거시설, 문화 시설, 재개발 지역 등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우수사례 발간	· 역사적 자산 보존사업, 시설 근대화 사업 등과 같이 사업특성별 조직 지향 목표, 가치 및 역할 서술	· 웹사이트와 간행물을 통해 우수사례 홍보 · 공공건축의 품질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MIQCP의 기능 설명 등
발주자 및 설계자가 참고 할 수 있는 공공건축 지침서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가이드 · 조달계약 업무 전략 · 디자인리뷰패널 형성 과정 및 운영방안 ·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가이드 등	· 『Capital Program』 운영 절차 및 가이드 라인 · 『Design Excellence』 정 책 가이드라인 · 사이트 선정 절차의 업무지침 등	· 발주기관용 업무 가이드 · 정책관련 사항 지침서 · MIQCP의 컨설팅 업무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
특화 매뉴얼 및 자료	· 에너지 관련 매뉴얼 · 노인·장애인 시설 디자 인을 위한 고려사항 등	· PBS관리 사업의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포 트폴리오 및 통계자료 발간 등	· 유럽 건축정책체계 연구 및 개선방안 제언 등과 같은 연구 활동 보고서 제공

* 출처 : 서수정의, 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38

또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 참여자 및 일반시민의 우수한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지속적으로 좋은 공공건축물 사례를 발굴하고 전시를 기획·운영하여 우수한 디자인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도도 운영 가능하며, 결과사례뿐 아니라 좋은 발주자, 공공건축가 등 다양한 주체를 위한 시상을 도입하여 조성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공공건축의 통합적 DB구축

공공건축의 DB구축은 시설 조성현황 관련 정보와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건축 시설 조성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시설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 노후도 등에 대한 통합적인 DB 구축을 통해 기존시설의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국유 재산관리와 지방재산관리 체계를 연계하여 신규 조성사업뿐 아니라 기존 재고에 대한 이용 현황, 위치, 면적, 프로그램, 관리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건축 조성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향후에는 기존시설의 관리 및 활용도 제고가 국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핀란드의 국유재산관리소와 같이 체계적인 공공건축 스톡(stock)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축적되는 공공건축 기획서, 설계이행지침 결과서, 디자인검토회의 결과서,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사후평가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예산계획, 사업추진체계, 프로그램 기획 등의 참조선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전문가 지원이 불가할 경우 행정담당자들이 벤치마킹하여 적정 예산 및 일정계획, 사업진행절차, 시설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건축 준공 이후에는 시설 관련 정보, 시설 이용시기에 따른 시설 평가 및 사용자 만족도 등 이용현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사업들은 사후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유지·관리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일반적인 사후만족도평가결과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주·관리하는 공공건축 및 관련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 지원대상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또는 시범사업 운영 지원을 요청하는 부처 또는 부서이며, 지방정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특히 지자체 중 지역의 디자인 정책⁹⁰⁾이 부재하고 공공건축 관련 전문부서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는 총괄형 공공건축가를 파견하여 지원하며,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지원은 지역 디자인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공공건축 관련 전문부서 또는 사업소가 있으나 실과부서 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요청하는 사업을 선정한다. 지원센터 설립 초기에는 행정조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나 향후 지원센터 업무가 정착된 이후에는 민간사업 중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지자체 요청 사업 중 40억 미만 사업은 지원센터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소규모 사업 특성상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하고, 시설 이용자가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사업예산규모가 40억 이상인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지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인 40억 이상의 사업은 사전기획 및 본기획 모두 작성한 이후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한다. 타당성조사 대상인 건축비 100억 이상의 사업은 기획단계 업무인 사전기획을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90) 이 때 디자인정책은 경관계획, 도시마스터플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에 의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등을 지칭한다.

사업인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 사업은 기본구상 검토 및 자문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표 6-4]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기관 내 전담조직이 부재하거나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발주기관
- ▶ 시설 이용자가 공무원 또는 특정관리인 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사업(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공원, 가로정비사업 등)
- ▶ 창의력 및 신기술을 요하는 고난이도 시설물 사업

3) 지원방법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지원 관련 방법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의 목표 및 특성, 예산계획 등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지원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이는 향후 공공건축가와 행정조직간 업무협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활용가능하다.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는 디자인전담조직의 구성 여부이다. 요청사업 중 예산규모 40억 이상 사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전담조직이 구성되도록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추진이 내부인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 또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일수록 전담팀 설립을 통한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⁹¹⁾가 있다. 외부 인력을 동원한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전담팀 내 필요한 직무를 설정하고 직무별 수행에 따른 사업집행방식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전문분야와 부서의 인력을 동원하여 설립된 전담팀은 업무중복을 방지하는 역할 분담과 추진체계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서,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 등의 운영주체로서 각 업무별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기획단계에서 지원센터는 사업특성에 따라 기획서 양식을 제공하고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설계이행지침 운영과정에서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도출된 설계이행지침 항목을 검토하며 선정사업의 실과부서 및 사업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디자인리뷰 운영을 위해 적정 디자인패널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공공건축가가 설정한 디자인리뷰 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자료 배포, 현장답사 등을 운영한다. 디자인리뷰 운영 이후에는 일정정리 및 결과서 통보와 같은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업 이해관계자간 설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품질평가지표의 활용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91) 영국의 경우, 100만 파운드(약 17억 5천만원) 이상 500만 파운드(약 88억원) 미만 사업은 발주기관 대표자와 디자인 챔피언 및 별도 외부 자문위원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500만 파운드(약 88억원) 이상 사업은 발주기관 대표자, 디자인 챔피언, 프로젝트 매니저 및 별도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축적된 사업자료, 시설 준공 이후 시설평가 자료 등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향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담당자 및 공공건축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2) 공공건축가 운영관련 지원방법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의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하는 공공건축가 유형 구분에 따라 구분된다.

지자체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지원은 공공건축 관련 업무관리가 공공건축가에 의해 모두 수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며, 공공건축가의 요청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이 가능한 업무로서는 디자인전담조직 구성 시 지역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되도록 하는 것과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판단하에 적정 분야 및 경험의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 풀(pool)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자체 업무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센터는 총괄 계획가의 요청에 한하여 독립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와 관련된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디자인전담조직이 구성되었을 경우 지원센터는 독립적 주체로서 이해관계자간 역할 및 협의방식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원센터는 요청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일정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축가와 지속적으로 지원업무 진행과정 및 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업무 지원과정에서 자료협조 및 업무협의를 통해 공공건축가를 지원하거나 워크숍 개최 및 운영, 기획서 작성 이후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후설계관리 업무에 대한 갈등 중개·조정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⁹²⁾.

92)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대한 지원은 6장 3의 디자인프로세스 운영방안의 (4) 단계별 운영 및 업무 범위를 참고

3.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방안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단계별 지원방안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대상사업

디자인프로세스의 관리대상사업은 지자체 전체 공간을 다루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과 디자인정책수립사업, 장소단위의 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사업’ 및 ‘마스터플랜수립사업’, 점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조성 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종 기본계획 수립은 별도의 관련법에 의해 수립지침이 정해져 있으나 주변여건과 관련사업과의 관계 등 전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차원에서 절차규정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디자인기준의 프로세스를 준용한다. 법적 기본계획 이외에 지자체 전체 공간관리나 디자인정책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수립사업으로는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통합적 계획’⁹³⁾ 등을 수립하여 거점장소를 찾아내고 개별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장소만들기사업 중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유형 또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역 연계, 문화, 풍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 목표 및 중점고려항목을 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반영정도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 및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건축물이나 공간에 대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도 지역주민과 관련 주체들과의 워크숍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조성 사업은 개별 건축물 및 단위 공간에 대한 국지적 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파급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개별 단위 건축물이나 공공공간의 경우에는 구체화된 결과물이 조성되므로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으며, 공공 건축물의 특성상 장기간의 사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디자인품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디자인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93) 영주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지자체의 공간전략을 담고, 거점장소를 찾아내 장소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전제되어야 장소단위의 공공건축 디자인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단계별 운영 및 업무 범위

공공건축가 지원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각종 법정 기본계획수립의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와 마을만들기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 단계별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연구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에 대한 정리만 예시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업무매뉴얼이나 각 단계별 업무, 절차, 범위, 행정절차와의 관계 또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례조사와 법규 검토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각종 매뉴얼이나 지침개발을 별도 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단계별 주요 업무내용은 행정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건축가가 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단계별 사업 참여 주체들을 명시하였다.

[표 6-5]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 단계별 주요 실시내용

구 분		주요 실시내용
기 획 단 계	사업 기본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시배경 명시 및 사업목표 수립 · 사업목표 설정 후 사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주체 워크숍 개최 · 사업의 중정고려항목 및 이에 따른 기대효과 설정 · 단계별 민간전문가 활용/설계이행지침 운영/디자인리뷰 운영에 대한 사항 결정 · 사업예산부지에 대한 주변현황 및 적정성 검토 · 기존시설의 이용현황 또는 기능저하 상태 파악 · 예산 확보방안 고려 및 사업예산에 대한 개략적 내역 작성 · 사업실시에 따른 적정한 일정계획 수립 · 기존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규모에 따른 예산, 사업일정 등 재검토
	사업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시설, 예산에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기본구상(사전기획)의 내용 재검토 · 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현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 수행 ·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적절한 시설개요 계획 · 기획서 작성 완료 후 설계이행지침 운영 · 발주방식 결정 및 과업지시서 검토
설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발주 시 과업지시서와 기획서를 함께 제시하고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참가 · 기획 내용에 입각하여 설계용역업체와 설계의도 및 방향 논의 · 예산 범위 내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확인 · 필요에 따라 설계이행지침 운영을 통해 설계업무의 부실한 부분을 체크하거나 항목을 정량화하여 평가 · 필요에 따라 실시설계단계에서 디자인 리뷰를 실시

구 분	주요 실시내용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주요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내용, 예산 및 일정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건축물이 기획내용을 실현하고 사업 목적이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
유지·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건축물품질조사,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이용상황이나 기능 저하 상태 파악 · 조사 결과는 쉽게 검색 및 참조할 수 있도록 DB화 · 시설 관리자에게 시설의 결함 등의 대응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 시설 관리자에게 시설 보전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보전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보전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 기획단계

• 기획업무 수행

공공건축사업의 첫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획업무는 사업목표 설정, 예산 계획, 부지조사, 건축물의 개요 검토 등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한 업무이다. 기획업무는 기획안이 설계, 시공을 거쳐 구현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업무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과 사업추진일정에 있어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기획단계의 주요 업무들은 사후에 발생할 리스크 관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충실한 기획업무는 설계단계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디자인 가치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현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⁹⁴⁾’에는 기획업무가 설계업무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의 목표 설정, 중점정비사항 등 사업의 기본 계획에 관련한 주요 업무에 대한 설정이 미흡하고 일부 업무는 설계단계의 업무단위와 중복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기획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시행의 배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중점고려항목, 설계원칙 등에 대한 항목은 전무하여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94)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59호, ‘별표 1 기획업무’ 참고하여 정리

[표 6-6] 기존 법에서의 기획업무와 연구제안에 의한 기획업무 내용의 비교

구 분		기획 업무 내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획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I.사업 기본 구상	0. 사업개요	· 사업유형, 사업배경, 시설 주요 프로그램, 부지, 시설규모, 예산, 사업공정	-
	1. 사업구상	· 사업목표, 사용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시설 기대효과, 법률·제도적 제약사항 검토, 중점 고려항목	· 사용자 면담, 행태조사, 회의
	2. 사업수행 방식결정	· 사업타당성 원칙, 사업집행계획, 디자인 품질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발주방식결정	-
	3. 사업진단 및 방향설정	3.1 부지 및 장소계획	· 부지계획, 향후 증개축 계획, 주변시설 현황
		3.2 유사시설 사례 개요	· 시설명, 발주기관, 위치, 준공년도,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용, 사업일정, 시설 규모, 외부공간 현황, 내부 공간 현황, 사진
		3.3 기존시설평가 (증·개축 시)	· 시설규모, 옥외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운영 및 관리, 실별 배치현황, 준공도 점검
		3.4 예산계획	· 부지매입, 대지조성, 측량 및 조사, 설계, 인종 및 심의, 시공, 기타
		3.4 일정계획	· 단계(기획, 설계, 심의, 건축 안허가, 시공, 준공) 별 일정
		3.5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설정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II. 사업 기본 계획	· 예정부지 면적, 인접도로 현황, 장애물, 고저차, 경사, 인접건축물 현황, 토질조사 자료, 구역 내 보존건축물 자료 등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 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방화지역 등, 건폐율, 용적률, 사선제한, 고도제한 등, 배면후퇴, 건축설비에 관한 조례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주요 필요시설, 외부공간, 내부공간, 시설 규모, 설비 기능 에너지 효율성, 시공성 고려, 기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이용자 설정, 운영방식, 운영경비, 운영 프로그램, 입주 관리자, 기타	·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3. 운영계획	· 이용자 설정, 운영방식, 운영경비, 운영 프로그램, 입주 관리자, 기타	-
	4. 예산계획	·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승강기설비, 적정공사비 산정	-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 개략적인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을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예산계획을 위해 간단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된 배치도, 평면도가 기획단계 이후 추가적인 수정업무 없이 설계발주 이후까지 고정된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이는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디자인가치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기획업무는 설계단위와 분리된 독립적인 업무단위로 설정해야 하며, 전문가가 개입해야 하는 업무내용으로 사업의 성격 및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기본구상’ 과 ‘사업 기본계획’ 을 구분하여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기본구상은 주로 그동안 행정담당자가 작성했던 예산계획수립단계에서 수행하는 내용으로 공공건축가의 지원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기본구상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기본계획은 기본설계이전에 수행되는 좀 더 면밀한 검토내용이 필요한 단계로 사업규모에 따라 별도의 용역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6-7] 사업규모별 기획단계 업무

기획업무		40억 미만	40억 이상 100억 미만 (건축비)	100억 이상 (건축비) 500억 미만	500억 이상
· 사업유형, 사업배경, 시설의 주요 프로그램, 부지, 시설규모, 예산, 사업공정		●	●	●	●
· 사업목표, 시설 기대효과, 중점 고려항목		●	●	◎	◎
· 사용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법률·제도적 제약 사항 검토		●	◎	○	○
· 사업타당성 원칙, 사업집행계획,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	◎	◎
· 발주방식 검토		●	○	○	○
· 부지 및 장소 계획	· 부지계획, 향후 증·개축 계획, 주변시설 현황	●	○	○	○
· 유사시설 사례 개요	· 시설명, 발주기관, 위치, 준공년도,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용, 사업 일정, 시설규모, 외부공간 현황, 내부공간 현황, 사진	●	◎	○	○
· 기존시설평가 (증·개축 시)	· 시설규모, 옥외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운영 및 관리, 실별 배치 현황, 준공도 점검	●	○	○	○
· 예산계획	· 부지매입, 대지조성, 측량 및 조사, 설계, 인증 및 심의, 시공, 기타	●	◎	○	○
· 일정계획	· 단계별(기획, 설계, 심의, 건축 안허가, 시공, 준공) 일정	●	○	○	○

기획업무		40억 미만	40억 이상 100억 미만 (건축비)	100억 이상 (건축비) 500억 미만	500억 이상
·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설정	· 용역단계별 과업지시서 내용 범위	●	●	●	●
· 부지 세부사항	· 예정부지 면적, 인접도로 현황, 장 애물, 고저차, 경사, 인접건축물 현황, 구역 내 보존건축물 자료 등	●	○	○	○
	· 토질조사자료	○	○	○	○
	·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방화 지역 등, 건폐율, 용적률, 사 선제한·고도제한, 배면후퇴, 건 축설비에 관한 조례	●	○	○	○
· 시설 세부계획	· 주요 필요시설, 외부공간, 내부 공간, 시설규모, 설비 기능 에너지 효율성, 시공성 고려, 기타	●	○	○	○
· 운영관리 계획	· 이용자 설정, 운영방식, 운영 경비, 운영 프로그램, 입주 관리자, 기타	●	○	○	○
· 세부예산	·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기계 설비공사비, 승강기설비, 적 정공사비 산정	●	○	○	○

● 공공건축가 수행 ○ 용역 수행 ● 공공건축가 및 용역 모두 수행 가능

■ 기획업무 수행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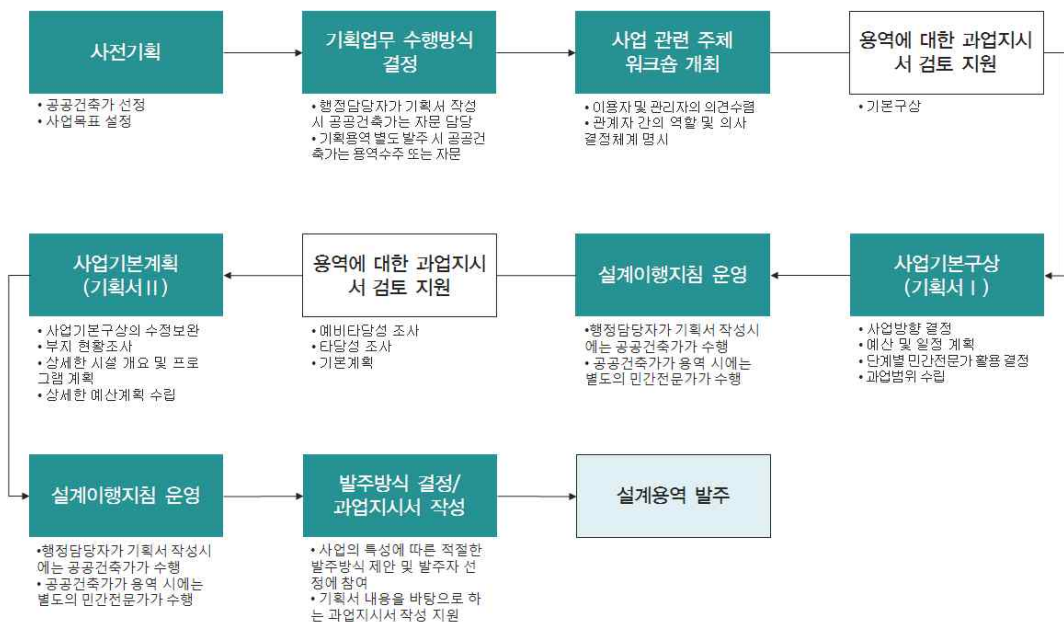
1. 공공건축가, 행정담당자 뿐 아니라 사업과 연관을 가지는 관련 전문가, 주민, 지역 시민단체 등 사업관련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서를 작성하며 예외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항목 등이 있을 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등과의 협의 후에 기획 내용으로 추가한다.
3. 사업에 따라 필요한 관련 전문가를 파악하여 기획단계부터 참여시킨다.
4.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세부적인 용역 발주에 따른 기획업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사업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공공건축지원센터와의 사전기획을 통해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며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 기획업무를 별도의 용역으로 수행해야 할지,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 선에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사업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사업기본구상단계에서 사업의 개요, 사업구상, 사업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틀과 전문적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을 결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관련주체를 파악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각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체계(예_사업 진행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시점, 결정권한자, 결정시기 등)를 구축한다. 이후 사업이 추구해야 할 디자인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고, 이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업의 중점고려항목 등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가는 사업방향의 설정을 위해 설계추진방향, 부지, 시설, 예산,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의 디자인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기본구상이후에는 공공건축가가 주도로 설계이행지침의 운영을 통해 내용의 누락사항이 없는가를 자가진단하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다. 이후 시장보고 및 승인, 사업예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완료되어 예산안이 확정되면 필요에 따라 앞서 작성했던 사업기본구상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부지, 시설개요, 예산 등 기본설계 발주를 위한 현황조사 및 상세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인 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사업기본계획 작성 이후에는 설계이행지침의 운영을 통해 내용의 누락사항이 없는 가를 자가진단하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며, 기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담당자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 행정 담당자는 발주시에 과업지시서와 함께 기획서가 첨부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발주 방식 및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공공건축가를 배석시키고 심사과정에서 단순 자문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림 6-5] 기획업무 지원 절차

공공건축가의 개입시기와 관련하여 지원센터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실시 결정 이후 초기단계인 사업기본구상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역할과 자문, 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담당자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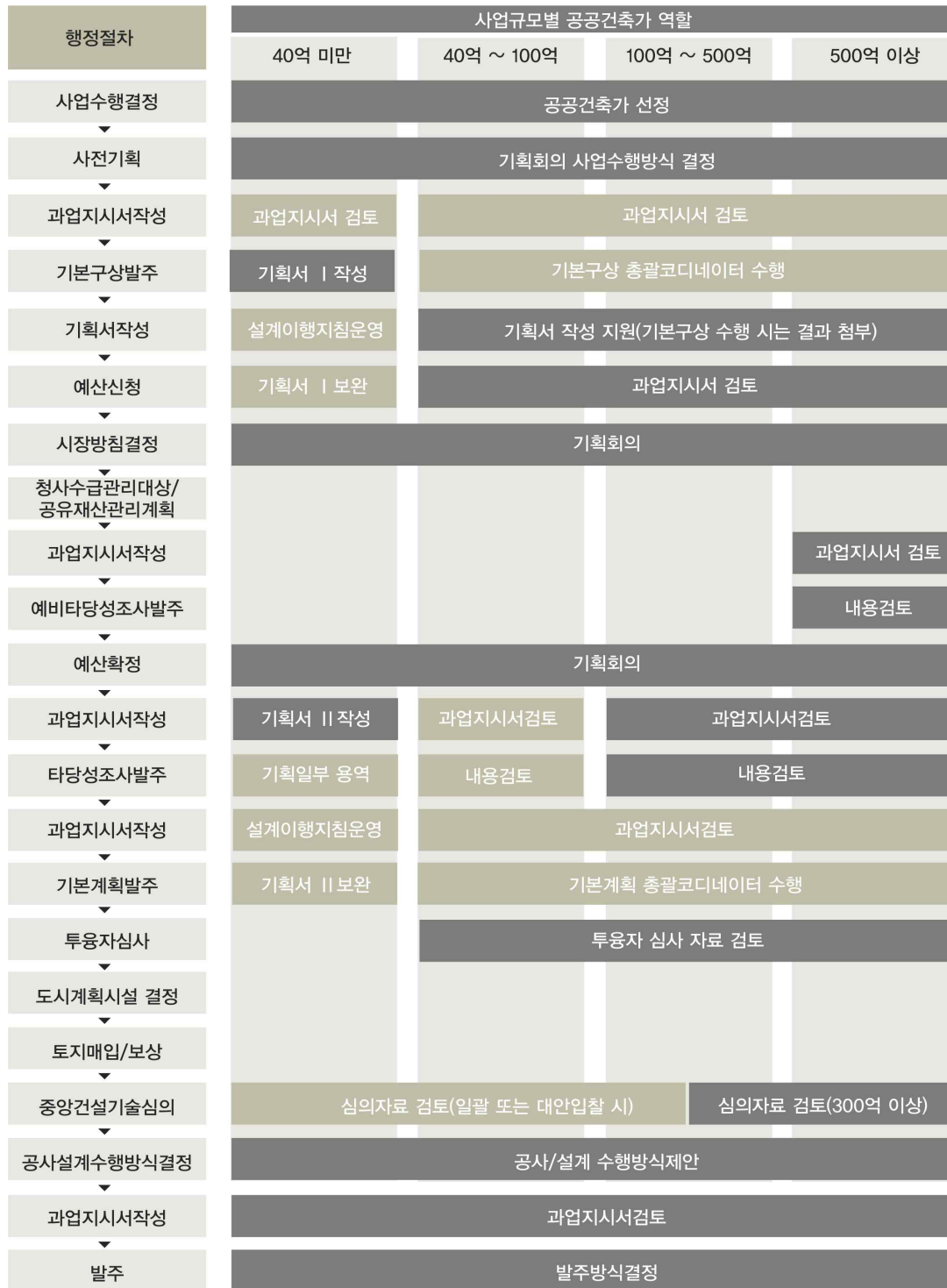
[표 6-8] 사업규모별 기획단계 용역 수행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역할

사업규모	역 할	단계별 별도용역 수행 여부
40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 작성(수의계약 내) · 용역 수행 시에는 기획서 항목에 기반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및 전문적 식견을 통한 자문 실시 · 기획서에 대한 설계 이행지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가능 함
40억 이상 100억 미만(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 작성(수의계약 내) · 용역 수행 시에는 기획서 항목에 기반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및 전문적 식견을 통한 자문 실시 · 기획서에 대한 설계 이행지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을 구분 하여 발주하되 협의에 따라 하나의 용역을 발주 가능 · 타당성 조사는 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발주하거나 별도로 발주
100억 이상(건축비) 500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행정 담당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와의 협의 통해 결정 · 용역 수행 시에는 기획서 항목에 기반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및 전문적 식견을 통한 자문 실시 · 기획서에 대한 설계 이행지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따라 사업기본구상 이전의 사전 기획단계를 단기용역으로 발주 가능 · 사업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을 구분발주 · 타당성 조사는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함께 발주하거나 별도로 발주
500억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행정 담당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와의 협의 통해 결정 · 용역 수행 시에는 기획서 항목에 기반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및 전문적 식견을 통한 자문 실시 · 기획서에 대한 설계 이행지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따라 사업기본구상 이전의 초기기획 단계를 단기용역으로 발주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용역 · 사업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을 구분발주 · 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용역으로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함께 발주하거나 별도로 발주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총 공사비 40억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본구상단계에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기획단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 공공건축가에게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기본구상서(기획서 I)를 작성하고, 행정담당자가 작성할 경우에는 공공 건축가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기획서 작성을 지원하며, 작성 완료된 기획서에 대해서는 설계이행지침을 운용한다. 예산확정 후에는 본 기획단계로 진행되며, 공공건축가가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설계이행지침을 운용한다. 이후 작성 완료된 기획서를 바탕으로 행정담당자의 과업지시서 작성을 검토한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총 사업비 40억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의 경우는 투·융자심사 시 타당성조사검토내용 필요)은 사업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건축가가 지원하며, 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은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고 공공건축가가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검토한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이행지침을 운용하고 투·융자심사 전 기본 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공공건축가는 행정담당자가 작성하는 투·융자심사를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한다. 건축비 1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 시 타당성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공공건축가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본 자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는 타당성조사에 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사업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은 사업기본구상의 내용과 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수행한다. 투·융자심사에 따른 업무단계 이후의 공공건축가 역할은 행정절차에 따라 발주방식 제안, 과업지시서 검토, 용역업체 선정 시 참여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림 6-6] 사업규모 별 기획단계에서의 공공건축가 개입 및 역할

□ 기획·설계 단계

• 설계이행지침 운영

설계이행지침은 기획업무의 내실화 평가수단이자 설계단계에는 디자인 시 필수 고려 항목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기획업무의 충실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기획 환류 업무를 수행하여 전체 사업진행에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단계에 있어서는 필요항목의 누락 없이 설계업무가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설계이행지침 운영 수행원칙

1. 기획서 작성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이행지침을 운영하여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공건축가 자가진단 시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설계이행지침 운영을 지원 받도록 한다.
3. 설계이행지침 운영의 결과로 전체적인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며 중요한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설계이행지침은 자가진단의 수단으로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항목들의 정량화를 통한 점수평가방식으로 운영 가능한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가진단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실행한 후 설계이행지침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점수평가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의 설계이행지침은 기획서에 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설계이행지침의 '1. 사업개요 및 집행기준' 과 '2. 사업진단기준' 위주로 검토하도록 한다.

[표 6-9] 기획단계 설계이행지침 운영 항목

구 분	내 용
1. 사업개요 및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목적,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 적용 법률제도 관련 사항 · 사업 타당성 원칙 관련 사항 · 행정절차 및 승인이 필요한 문서 확인 ·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 이해관계자 간 협의방식 ·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구 분	내 용
2. 사업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계획의 적절성 · 증·개축 계획 반영 · 부지 주변여건 분석 · 유사사업의 평가 및 분석 · 기존시설의 평가 및 분석 ·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 사업일정 수립 · 과업범위 설정

설계단계에서 설계이행지침 운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공건축가와 디자인리뷰패널들이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설계이행지침의 ‘3. 디자인 기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공공건축가는 필요한 경우에 디자인리뷰패널, 설계용역업체 등 관계자와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디자인리뷰패널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계이행지침결과서에 작성하여 통보한다.

[표 6-10] 설계단계 설계이행지침 운영 항목

구 분	운 영 항 목
3. 디자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 교통 관련 사항 · 환경 관련 사항 ·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공공건축가의 참여시기와 역할과 관련하여, 기획단계에서는 기획서 작성 완료 후 기획 내용에 대한 충실성, 항목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며 설계이행지침의 결과에 따라 기획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디자인 리뷰를 대신하는 과정으로 활용되며 기본설계단계의 1차, 2차 및 실시설계단계⁹⁵⁾에서 작성된 아이디어 및 설계도면에 대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항목들이 고려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결과에 대해 설계자의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5) 본 보고서의 3.디자인단계별 업무매뉴얼의 (3)디자인리뷰 기준 참조

□ 설계단계

- 디자인리뷰⁹⁶⁾ 실시

디자인리뷰는 기획단계 업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설계단계를 추진하여 우수한 디자인 품질과 합리적인 설계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사업취지, 사업진단 등을 기준으로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설계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 디자인리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8가지 준수사항

1. 충분한 자원 확보
 - 디자인리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디자인리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디자인리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행정적 코디네이션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설계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공간 확보 필요
3.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 정리
 - 디자인리뷰 진행 이후에 패널위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패널위원의 자문내용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함
4. 패널위원의 독립성 담보
 - 패널위원은 결정권자가 아닌 자문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주관적 의견제시가 가능하나 그 이후의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없음
5. 적절한 시기에 디자인리뷰 운영
 - 패널위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리뷰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 초기단계에 운영할 것을 권유
 - 승인 이전단계의 설계안을 리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피할 것을 권유
6. 적합한 패널위원의 선정
 - 다양한 분야, 경력, 전문성을 보유한 패널위원의 선정이 중요
7. 역량있는 의장 위촉
 - 패널의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며 건축 관련 전문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
8. 자문의 취지 충분히 설명
 - 자문을 받는 대상을 명시하며 자문을 받는 주체의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 출처 : 2006, CABE. 「디자인리뷰 운영방식(How to do design review, Creating and running a successful panel)」, p.20 내용 발췌하여 정리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리뷰 운영여부가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리뷰를 운영하고 공공건축가는 디자인리뷰의 총 횟수, 참여해야 할 전문가의 분야 등에 대해 제시한다. 우선 사업기획단계부터 참여하였던 공공건축가가 디자인리뷰의 디자인검토패널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디자인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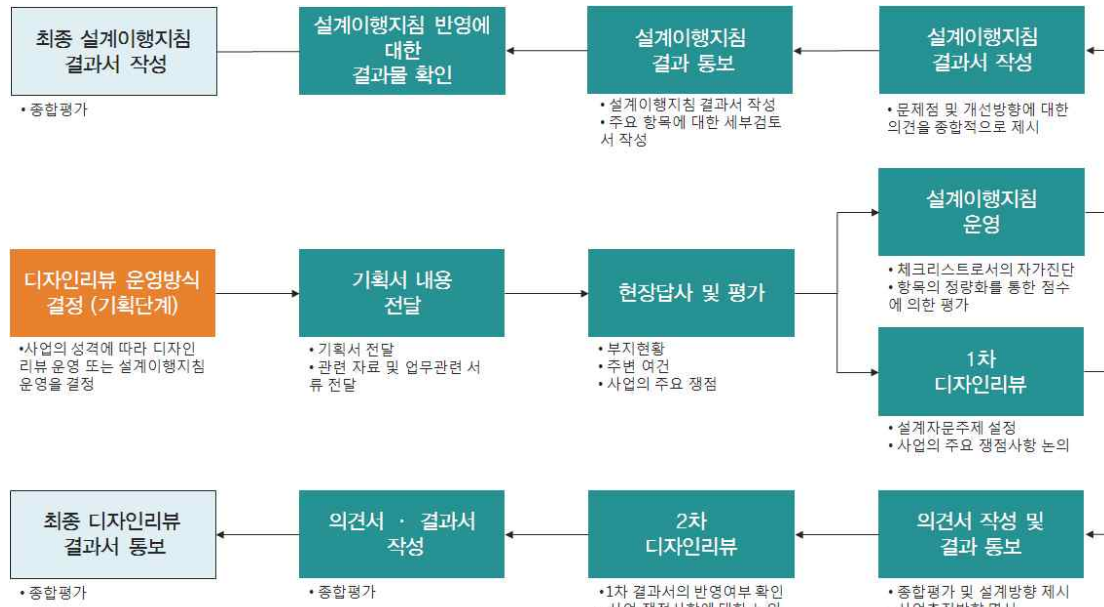
96) 1차년도 연구보고서(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부분임

패널의 후보자 및 우선순위를 추천받아 사업에 적합한 디자인리뷰패널을 3인 내외로 선정한다. 디자인리뷰패널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축, 도시, 조경 등의 분야 이외에도 경제, IT, 역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때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리뷰패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단계의 상세한 자료 및 업무내용 관련 서류 등을 전달하고 공공건축가와 디자인리뷰패널은 선정사업의 현장답사를 통해 부지현황, 주변여건, 사업의 주요 쟁점 등을 파악한다. 또한 기획단계의 업무내용 및 사업추진 현황, 현장답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디자인리뷰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디자인리뷰 항목을 설정하며, 이를 공공건축가, 디자인리뷰패널, 실과부서 담당자 및 관련 주체들에게 통보한다.

이후 공공건축가 주재로 디자인리뷰가 진행되며 디자인리뷰패널은 디자인리뷰 검토항목을 바탕으로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디자인리뷰 실시 이후 디자인리뷰패널은 디자인리뷰 검토항목과 사전자료 및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설계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한다. 공공건축가는 디자인리뷰패널이 작성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명확한 사업추진방향을 명시하는 1차 디자인리뷰결과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실과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차 디자인리뷰에서는 1차 디자인리뷰 결과서의 사업추진방향 반영 여부와 사업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대응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검토하며, 회의 후 디자인리뷰패널은 1차·2차 디자인리뷰에 따른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공공건축가는 디자인리뷰패널이 작성한 종합의견서를 참고하여 1차·2차 디자인리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실과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각종 심의에 의해 기본설계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디자인리뷰를 추가로 개최한다.

실시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리뷰는 실시설계도면과 주요 상세도면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및 디자인리뷰패널이 검토한 후 각각 디자인리뷰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이때의 실시설계도면은 그 다음단계인 시공과정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디자인리뷰패널로 시공관련 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기존의 디자인리뷰패널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 6-7] 디자인리뷰 절차 (기본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공공건축가는 디자인리뷰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안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설계업무가 진행되면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기획내용 및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디자인리뷰패널과 함께 선정사업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기본설계안의 컨셉이 스케치나 이미지 등으로 구현화되었을 때 1차 디자인리뷰를 실시하여, 공공건축가는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디자인리뷰패널들이 기획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리뷰결과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설계용역업체 및 행정담당자에게 전달하며, 구체적인 기본설계안이 도면화되면 2차 디자인리뷰를 실시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주체들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6-11] 디자인리뷰 주요업무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디자인리뷰패널의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공공건축가의 역할	디자인리뷰패널의 역할
운영방식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특성에 따라 설계이행지침/디자인리뷰에 운영여부 결정 · 디자인리뷰패널을 선정하고 회의 개최/서류검토 등의 운영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전문가가 디자인리뷰패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 사업에 따른 적합한 운영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회의에 참석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에 따른 적합한 운영방식 결정
현장답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 · 부지현황, 주변 환경, 기존시설 등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의 내용 및 사업추진현황 설명 · 현장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에게 받은 기획단계 내용 사전에 숙지 · 최소 1인은 현장답사 참석 ·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
디자인 리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업의 목표, 특성, 사업추진 일정, 현장답사 등을 바탕으로 설정된 주제에 대해 논의 · 종합 평가를 통한 의견서 및 결과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검토회의 주재 · 디자인검토패널들이 작성한 의견서 취합 · 디자인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주제에 적합한 디자인리뷰 의견 제시 · 디자인리뷰의견서 작성 · 필요시 디자인리뷰 의견서에 대한 설명

•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

디자인품질평가지표(Design Quality Indicator)는 디자인프로세스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최적의 설계안을 찾아가는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품질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공공건축가가 디자인품질평가지표의 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 초기부터 사용자의 의견, 유지관리 측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다. 디자인리뷰가 설계안에 대한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디자인품질평가지표의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타당한 안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디자인품질평가지표는 디자인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공공건축가가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은 웹기반이나 워크숍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012년 연구⁹⁷⁾결과에 따라 공익성, 디자인, 사용성의 3개 부문, 9개 영역의 100여개의 지표로 일반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지표를 선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97) '김상호 외(2012), 공공건축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의 중간보고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이후 구체적인 연구는 참고연구에서 지속 수행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단계에서 요청사업에 대해 전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전담할 공공건축가를 선임하며, 공공건축가가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은 기획단계에서 계획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횡수와 시기는 공공건축가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공공건축가가 직접 디자인 품질평가지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조정자(facilitator)를 공공건축지원 센터에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시행주체가 디자인품질평가지표 운영만을 요청할 경우, 조정자가 이를 수행한다.

□ 시공단계

- 사후설계관리 조율

시공과정에서는 설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장의 상황에 의해 임의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초기사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며 건축물의 디자인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설계관리는 설계자가 시공단계에 참여하여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는 변경내용, 예산 및 일정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설계의도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로 공사감리와는 별개의 업무이다. 사후설계관리는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단계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디자인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사후설계관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설계자의 설계업무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⁹⁸⁾ 중 ‘사후설계관리업무’

· 제6조 ④ 제5조제1호 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9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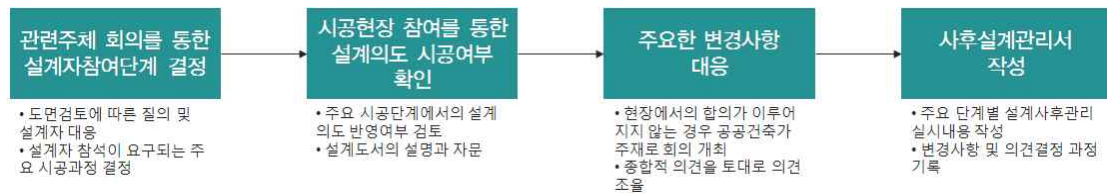
건축법 제 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등의 심의 등에서 설계자의 사후설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건축의 디자인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후설계관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운영한다. 설계자는 시공현장에 참석하여 설계의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의도에 의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을 실시하며, 설계결과 제출 시 현장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후설계관리 시점을 명기하여 발주처에 도면을 제출하여, 시공자가 이 시기에 반드시 사후설계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사후설계관리 수행원칙

1.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 사후설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시공과정에서 주요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협의에 공공건축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3. 특정 비율 이상의 예산과 일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작업을 수행한 후 예산과 일정을 조정한다.
4. 사후설계관리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다른 사업의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 관련 주체(예_시공자, 공사감리, 설계자, 행정담당자 등)들이 시공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도면 검토 등을 통해 설계자의 참석이 요구되는 주요 시공 단계를 확인하여 사후설계관리의 실시방법 및 횟수 등을 협의한다. 이후 협의된 시공단계 이외에 현장의 여건 등에 의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시공 현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설계자는 주요 시공단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후설계관리를 수행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설명이나 기타 자문을 수행한다. 만약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공공건축가 주최의 관련주체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자의 입장 표명 후 공공건축가의 주재에 의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담당자는 사후설계관리 중 발생한 갈등 및 주요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주체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의 근거로 활용한다. 사후설계관리 시 공공건축가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자, 시공자 또는 행정담당자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및 일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실시한다.



[그림 6-8] 사후설계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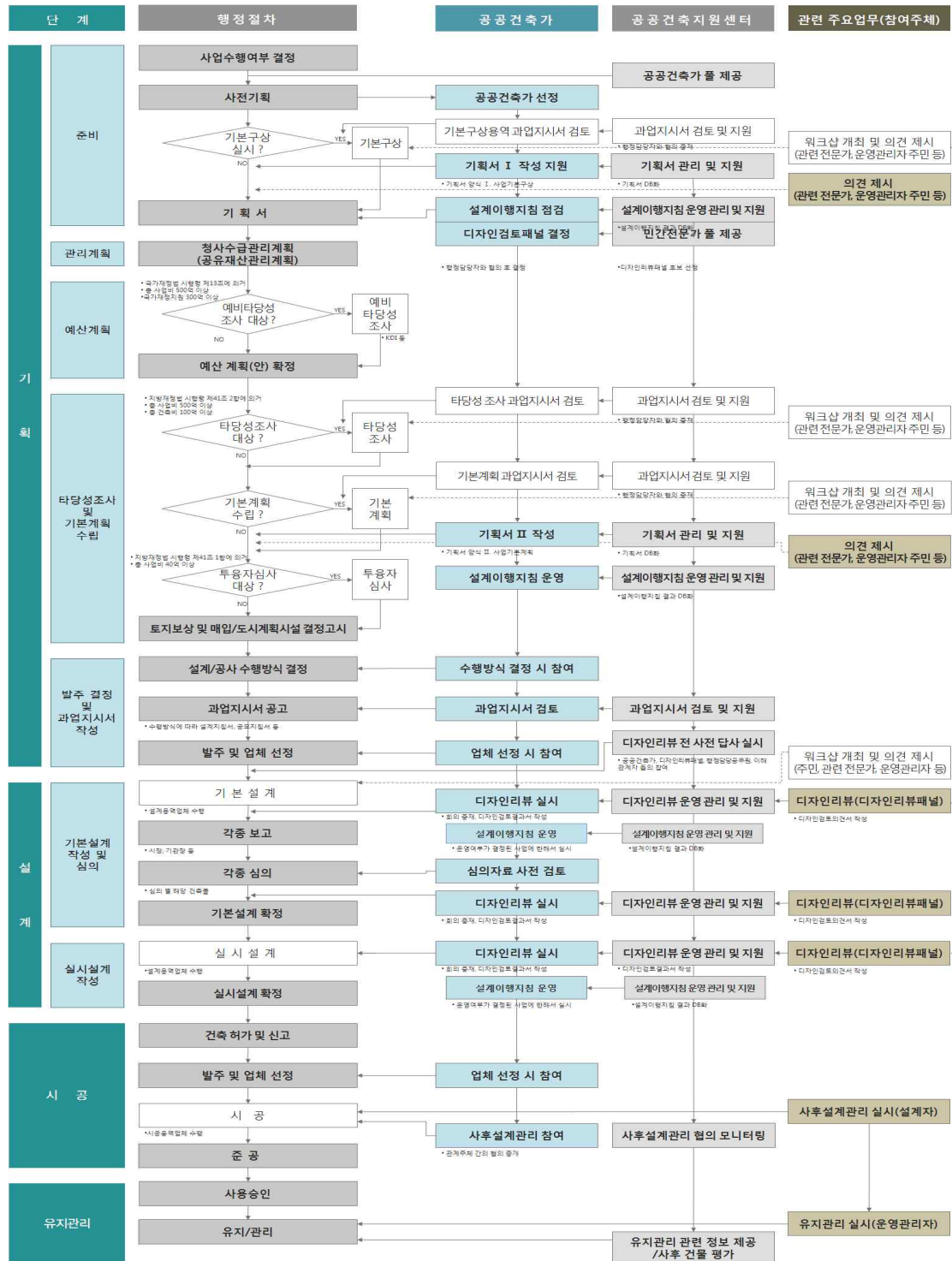
□ 디자인프로세스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모니터링은 사전기획,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등 디자인프로세스 상에서의 주요한 과정에서의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관련주체들에게 결과를 전달하여 다음단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프로세스에 따른 공공건축가, 행정담당자 및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를 중재하고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원활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행정담당자 및 용역수행자는 모니터링에 요구되는 관련 자료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한다.

기획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기획회의 시 참여하여 공공건축가와 행정 간에 발생하는 의견차를 조정하며 기획서 검토, 설계이행지침 운영,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검토 등을 실시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디자인 리뷰에 필요한 검토항목을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가 및 디자인리뷰패널이 합리적으로 검토하였는지 확인하며 용역수행자와의 의견차를 조정하고 디자인리뷰결과서 작성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주요한 설계변경 발생 시 협의에 참석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모니터링한다.

(3)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와 행정절차와의 관계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행정절차에 준용하며 단계별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건축가, 행정 담당자, 공공건축지원센터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와 관리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운영되어야 한다. 앞서 제안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업무를 기존 행정절차에 따라 정리하면 옆의 도표와 같다.



[그림 6-9] 행정절차에 따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2)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1) 공공건축가 역할에 따른 업무범위

□ 총괄형 공공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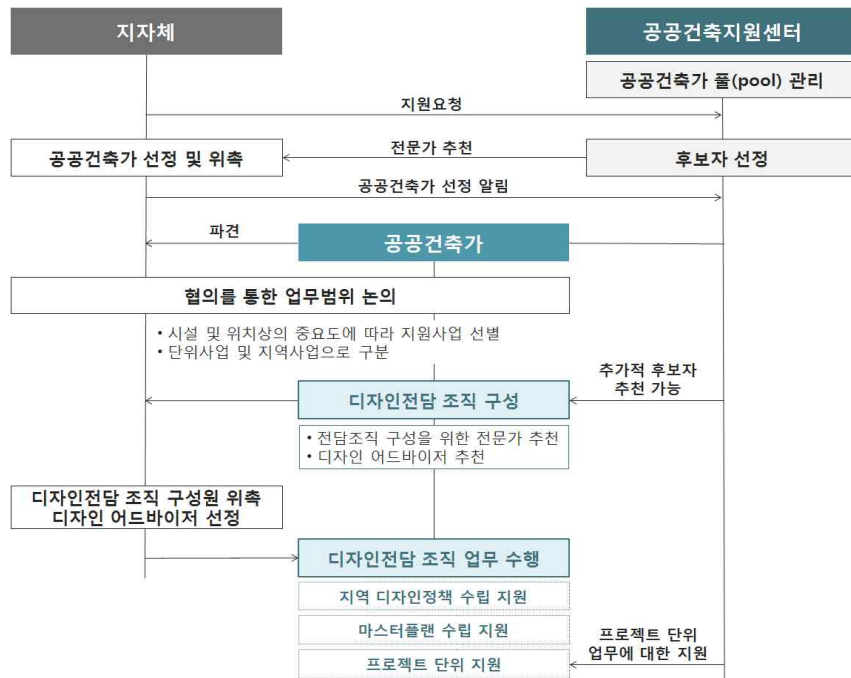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지자체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지자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범위 내에서 조정 및 운영될 수 있다.

첫째,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총괄관리자로서 본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 전담조직을 직접 관리하며, 디자인전담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범위, 내용, 구성원간 역할 등을 결정한다.

둘째,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지역의 디자인 방향을 조정해가는 전문가로서 지역 마스터플랜과 디자인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지역의 물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맥락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하며, 장소단위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 도시디자인의 전반적인 방향 및 정책을 설정하며 도시마스터플랜에 입각한 개별적 시설의 디자인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셋째,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지원 시에 공모사업 의지, 지역여건,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서 작성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실과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공모사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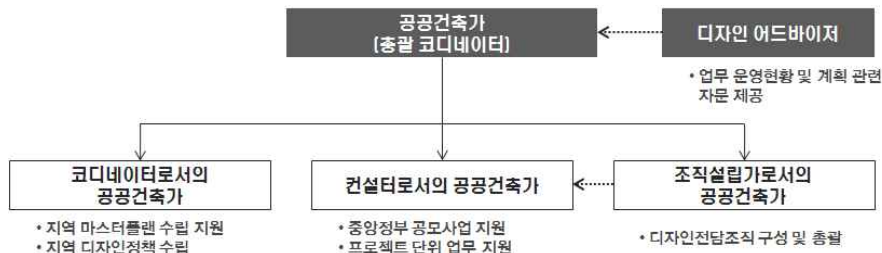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에 대한 관리로서 기획단계 업무인 사업 기본구상 컨설팅, 발주방식 결정, 과업지시서 작성 검토, 설계자 선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되 부서간 사업 연계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6-10] 총괄형 공공건축가 지원방법

□ 총괄형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디자인 어드바이저

디자인 어드바이저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고문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 설계자 선정과정과 같은 업무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디자인 어드바이저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전반적인 업무 운영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디자인 어드바이저가 운영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1988년부터 시행되었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6-11] 지자체 디자인 총괄관리자로서 공공건축가의 역할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커미셔너 및 어드바이저 운영



- 1988년부터 약 70건의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공 건축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
- 커미셔너의 설계자 추천 권한을 통해 실력이 인정되는 신진건축가 발굴
-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대교설계를 통해 도시 전체의 이미지 제고

[그림 6-1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지도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장**

- 도시디자인관리단장은 영주의 공공건축, 상업거점 지역, 수변 및 녹지의 연계를 추구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행안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예_공공시설 디자인시범사업,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등)
- 기존 공공건축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신설,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추진

□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건축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MP(Master Planner)/MA(Master Architect)와 공공건축 및 공공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중앙정부 시범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MP/MA는 해당 사업의 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디자인관리 방식을 결정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총괄계획 및 조정을 담당한다. 시범사업 또는 도시마스터플랜 수립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획제안서 검토 및 수정안 작성, 과업지시서 검토와 발주방식을 결정한다. 또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지역단체 및 지역전문가를 파악하여 소집하고 업무를 조율한다.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_디자인총괄계획가 및 디자인검토위원 운영



-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계획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디자인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인력과 함께 업무 수행
- 디자인검토위원은 디자인검토 전담위원 2인, 시범사업선정위원회 위원 1인 총 3인으로 구성되어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디자인 검토를 수행
 - 기획단계에서는 기획안의 적정성, 예산배정의 합리성 검토
 - 설계단계에서는 기획안의 계획내용 반영여부와 계획수립과정의 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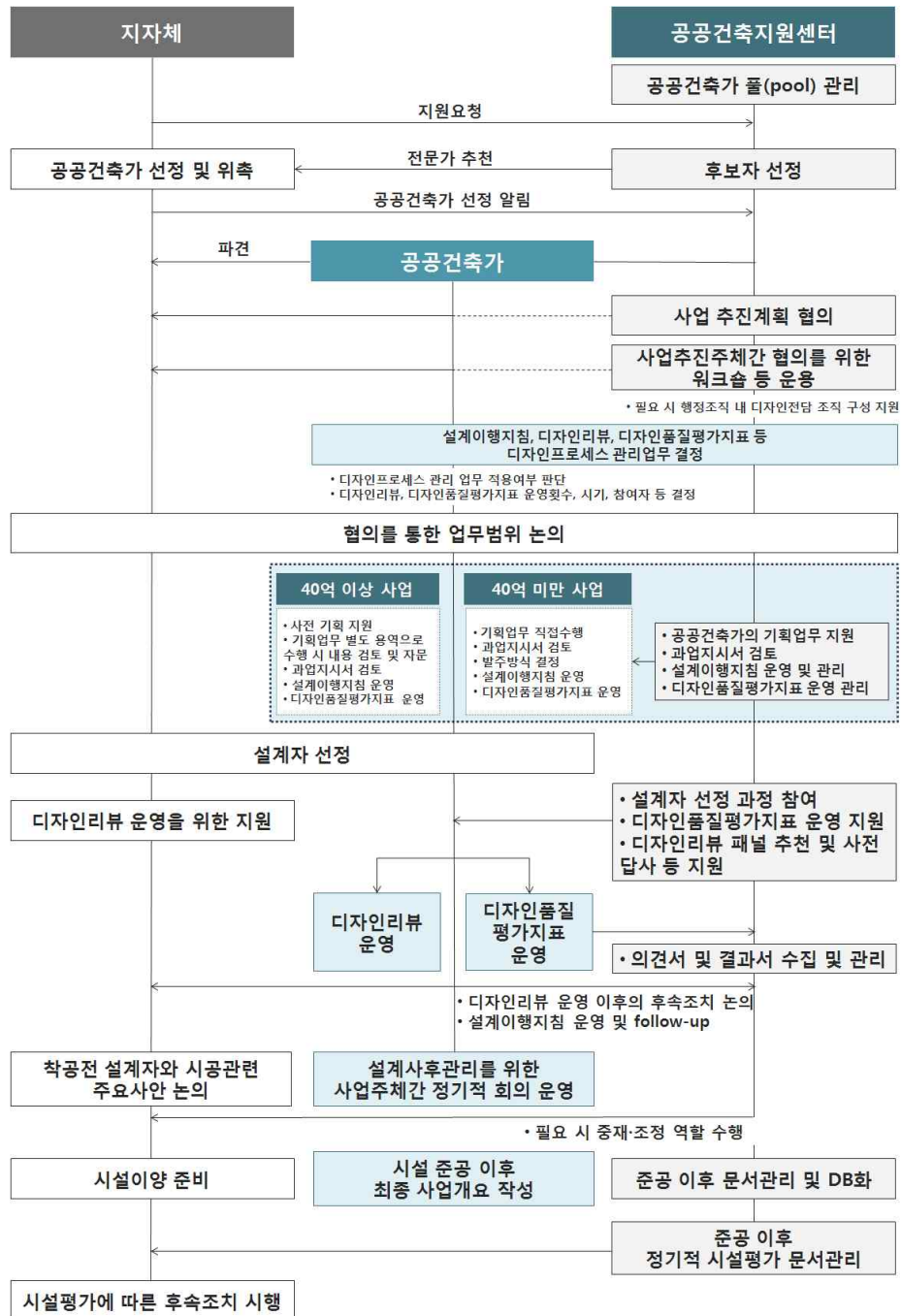
[그림 6-13] 시범사업 예시_부산 중구 영주동

개별 공공건축 및 공공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협력적 지원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가는 사업방향 설정 및 구상을 위한 전반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건축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계획, 시설개요 및 유사사례 분석 등과 같은 내용을 기획서양식에 맞춰 작성하거나 수정·보완한다. 또한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발주방식을 검토하여 기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기획단계의 충실성과 사업의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설계이행지침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간 사업집행에 있어 해결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기획단계의 최종적인 업무는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으로서 공공건축가는 설계과업범위 및 내용을 기획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발주방식 결정에 참여한다. 원칙적으로는 실과부서 담당자에 의해 과업지시서가 작성되나 공공건축가의 의해 최종 검토를 받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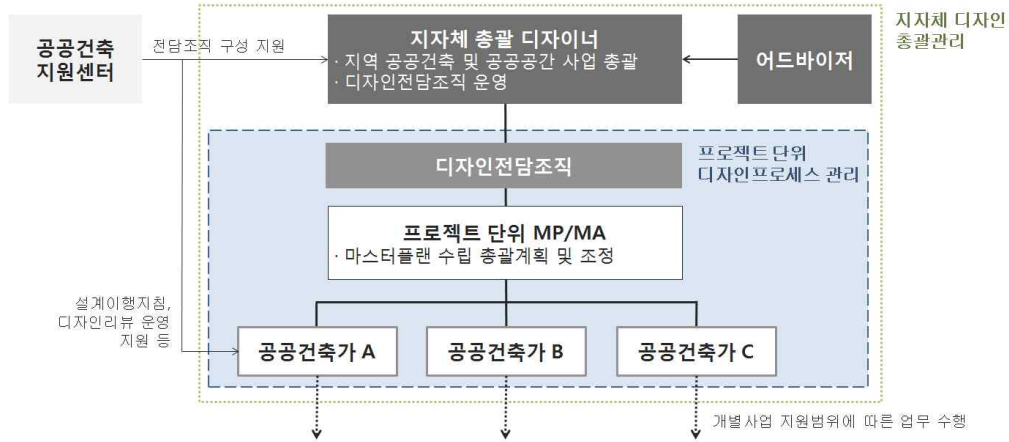
설계단계에서는 디자인리뷰가 운영되며 공공건축가는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파악하여 디자인리뷰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주제를 설정한다. 공공건축가는 기획단계의 내용이 설계안에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외의 설계단계에서의 주요역할은 설계자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건축가는 설계자 선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없으나 사업의 취지와 설계방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 후보자 및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이후에는 사후설계관리 지원자로서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계변경 정도 및 사유 등을 설계자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 준공 이후에는 최종 사업개요를 작성하며 당초 사업 기획양식에서 설정된 사업목표, 시설 기대효과 등과 비교하여 점검한다.



[그림 6-14]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 지원방법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총괄형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 어드바이저 간의 주요역할 별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그림 6-15] 지자체 총괄 및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 공공건축가 업무체계

(2) 공공건축가 선정 및 육성방안

□ 공공건축가 선정방식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파견하는 중앙조직이다. 공공건축가 선정방식은 단장기적인 적용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한 선정방식으로 지원접수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심사하고 공공건축 시설유형별 전문가 풀(pool)을 균형있게 구성·관리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건축사의 체계적 양성 및 전문적 관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 추진 중인 건축사등록원과의 연계를 통한 선정방식이다. 특히 건축사 자격시험⁹⁹⁾, 업무실적 관리, 실무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건축사협회와 연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선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인시험을 도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건축 및 도시 분야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국가 공인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99)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 가능하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이후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를 선별하고 특화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12] 공공건축가 선정방식 비교

구 분	포트폴리오 심사	건축사등록원 연계	공인시험 도입
공공 건축가 자격	· 기존 공공건축 사업 참여자	· 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되어 공공건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을 수료한 자	·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수료자 중 공인시험에 합격한 자
장 점	· 공공건축가의 시설유형별 전문분야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별 지 원업무에 용이 · 시설유형별 균등한 전문가 확보 및 관리 가능 · 저탄소, 저에너지 등과 같은 특수사항 및 시설 관련 전문가의 개별적 관리 가능	· 건축사등록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확보 · 공공건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시설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 · 공공건축에 대한 사회 전반 적인 인식 개선에 보다 폭넓게 기여	· 국가인증 시험을 통해 공공 건축가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공식적·체계적으로 인정 · 지자체 파견 시 행정체계 내 위상 및 업무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강함
단 점	·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심사의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 필요	· 건축사 자격이 없는 교직 및 연구직 인력 배제	· 국가인증 시험 개발을 위한 개별적 연구 및 도입방안 필요
적용 시기	· 단 · 중 · 장기적 적용	· 중 · 장기적 적용	· 장기적 적용

□ 공공건축가 육성방안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기능 중 하나로 제시된 공공건축가 육성 및 발굴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전문인력 확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공건축가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접점 역할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 전문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는 공공업무에 특화된 전문가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는 공공발주 사업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내용 및 집행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센터는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 전문가 육성의 전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기획업무는 공공건축가 개인에 의해 전담될 수 없으므로 법률, 경제, 사회인문학 등 다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긴밀한 네트워킹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육성¹⁰⁰⁾이 필요하다. 공공건축가가 다분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폭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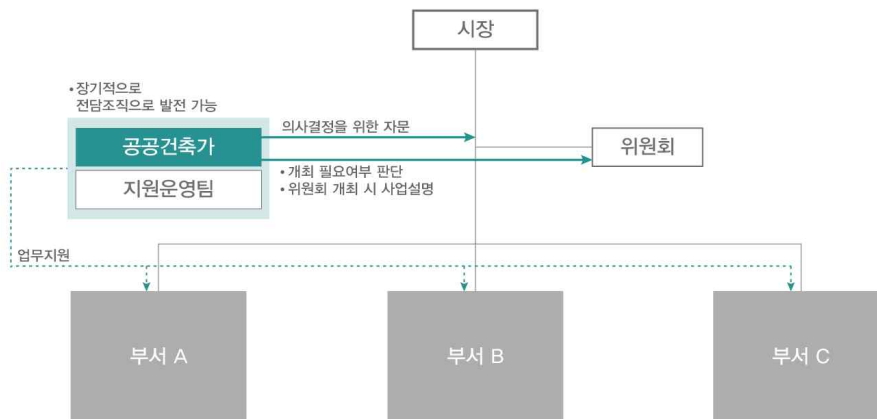
지식을 갖춰야하므로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 연계되는 전문가 육성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전문적 식견에 의한 사업 분석, 정책적 판단 고려 등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고등교육과 실무가 연계되어야 한다.

(3) 공공건축가 지위에 따른 권한, 책임 및 보수기준

□ 공공건축가의 지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 특성상 다양한 실무, 건축 및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시장직속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디자인과나 일부 해당부서에 전문직으로 고용될 경우 기존 공무원 조직의 위계에 의해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지자체 시장직속으로 관할되는 정무부시장급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무부시장급의 지위는 앞서 5장에서 밝힌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55.6%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이며, 이외에도 외부 자문위원단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7.8%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공공건축가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권한과 책임이 기존 행정조직과 독립되어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16] 행정체계 내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공공건축가의 위치(안)

100) 프랑스 MIQCP의 기획전문가인 프로그래미스트는 사회학, 지리학, 도시계획, 건축,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되며 4~8년간 전문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는 외부 전문가로서 기존 행정조직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건축가 업무에 대한 권한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가가 수행하는 기획서, 디자인리뷰 등의 결과 반영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공공건축가의 보수기준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에 대해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기획업무 수행을 별도의 업무단위로 구별하여 이에 대한 예산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0억 미만 사업의 기획단계 업무에서는 공공건축가의 컨설팅과 개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예_현장답사, 사업대안 검토,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등)를 명기하여 횟수 또는 시간에 따른 대가 산정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설계이행지침, 디자인리뷰, 시공단계 과정에서의 참여, 유지관리단계의 시설이양 지원 등과 같이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가 직급에 따라 일당으로 지급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도 지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검토결과서 작성, 공공건축 DB구축 자료인 최종 사업개요 등 문서작성에 따른 업무 역시 별도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 6-13] 국내외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비교

구 분	국 내		해 외
	포항시	영주시	리옹시
행정 체계 내 위치	· 국제화전략본부 산하 테라노바팀 소속 민간전문가	· 지역개발국 산하 도시 디자인과 소속 민간 전문가	· 리옹시 도시개발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자격 및 선정 방식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준수하되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위촉		<자격요건> · 국가인증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인 AUE (Architectes et urbanistes de l'État) · 프랑스 공인 건축사 · 경력 8년 이상의 전문가 <선정방식> · 리옹시 또는 AUE 소속 회원 커뮤니티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간행지에 채용 공고 기재 · 리옹시 자체 서류 심사 및 면접
업무 범위	· 포항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에 대한 총괄적 검토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사업간 연계성	· 건축가는 사유지 유지·보수, 시립시설의 신·증·개축 사업 참여 -(기준예산 이상 사업) 공공건축 현상설계 공모전의 기획, 발주, 프로그램 구성

구 분	국 내		해 외
	포항시	영주시	리웅시
	· 설계단계에서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문 수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 중앙부처 시범사업의 기획 제안서 작성 업무 지원 · 공공발주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자문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및 감독 업무 담당 -(기준예산 미만 사업) 소규모 시설의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설계 및 공사 추진 가능
근무 형태	· 비상근직으로 일주일에 2-3회 출근	· 비상근직 근무	· 상시 공무원 또는 개인사무소 운영을 병행하는 비상시직으로 근무 가능
계약 체계	· 공무원 '가' 급에 해당	·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직 · (비상시직) 영구적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 · (일반직원) 비공무원 직원으로 담당업무 보충 및 지속을 위한 임시 인력
보수 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기술사 단가 준용하여, 사안에 따른 심의비, 자문비 등 추가 지급		· 「국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평균월급」 표에 따라 월단위 1,754.88유로(한화 약 258만원)~4,898.85유로(한화 약 720만원)

제7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법제화 방안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법제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제시되었던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설립 방법과 센터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법을 기초로 건축기본법 개정, 일반법 제정, 별도 조직법 제정 방안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2차년도에서는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 및 공공건축 조성에 관한 포괄적인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건축 조성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각 법제화에 대한 개정 및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각 대안별 장·단점 검토 역시 1차년도에서 설정했던 조직화를 위한 대안설정 기준인 7개의 원칙(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조직효율성, 민관협력의 용이성, 입법 추진의 용이성)에 근거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장·단기 최적안을 제시하였다.

1) 건축기본법 개정 방안

□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 (제1안)

공공건축지원센터(가칭)를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으로 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한다. 이 안은 지원

센터를 행정조직으로 구성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건축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행정조직이 신설되고 관련 공무원인력의 충원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입법사례_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건축기본법」의 체계 구조상 기존의 장(章)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배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현행 「건축기본법」 제4장에 이어 제4장의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¹⁰¹⁾

지원 대상의 행정기관 범위나 공공건축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방안,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공건축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건축기본법」 제3조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안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¹⁰²⁾

한편 현행 「건축기본법」에서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고 이를 법률의 목적에 포함시키지 않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두기에 앞서 「건축기본법」의 목적 조항에서 지원센터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또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101) 장 안에 배치할 조문의 수가 적다면 현행 「건축기본법」의 체계 구조상 반드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행 「건축기본법」 제5장의 제명을 ‘건축문화의 진흥’에서 ‘건축문화의 진흥 등’으로 수정하고 제25조를 신설하여 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102) 아래 제시된 개정안에서는 후자에 따라 입법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건축의 정의는 국회 계류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의 정의를 따랐으며, 이하 각 입법방안에 따른 「건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입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각 입법방안에 따른 「건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도 이와 동일).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추가함에는 정책적 고려나 법률 전체의 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므로 여기서는 목적 조항 수정안만을 제시한다.

[표 7-1]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4장의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신설〉	제19조의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하 “공공건축”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업무·기술 등 지원 2.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세무 등 상담 및 자문 3. 건축물의 규모, 공사비 산정기준 등 책정 4.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공공건축 전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6. 공공건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관리 8. 그 밖에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특수법인(공익법인)으로 설립 (제2안)

건축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센터를 민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일종의 특수법인(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설립하여, 해당 기관이 지원센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편이다. 한편, 행정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이므로 약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용이하나 부처의 산하기관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입법사례_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센터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법제화할 경우 현행 「건축기본법」의 체계 구조상 반드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현행 「건축기본법」 제5장의 제명을 ‘건축문화의 진흥’에서 ‘건축문화의 진흥 등’으로 수정하고 제25조를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탁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7-2]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신설〉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등 제25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하 “공공건축”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업무·기술 등의 지원 3.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세무 등 상담 및 자문 4. 건축물의 규모, 공사비 산정기준 등 책정 5.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6. 공공건축 전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7. 공공건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8.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관리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법 (제3안)

그밖에 기존 건축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지원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고 그 공공기관(지정법인)으로 하여금 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행정사무의 민간수행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존의 유사 조직(법인)으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비교적 용이하나 센터의 기능과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존의 독립된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실현이 곤란하다.

■ 입법사례_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사·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사례_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특수법인 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건축기본법」 제5장의 제명을 ‘건축문화의 진흥’에서 ‘건축문화의 진흥 등’으로 수정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¹⁰³⁾

법률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수행업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절차,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업무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예_디자인심의)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탁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7-3] 유사기관을 지정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신 설〉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등 제25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하 “공공건축”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건축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업무·기술 등의 지원 3.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세무 등 상담 및 자문 4.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공공건축 전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6. 공공건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7.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관리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 기관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방법 (제4안)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임무는 원래 국토해양부의 권한사항이지만 기존의 기관(연구기관 등)에게 지원센터 수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위탁받은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민간위탁). 위탁받은 기관은 처분기능이 없고 단순한 조사연구기능 등에 국한되므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03)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센터를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산하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정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센터의 명칭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입법사례_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납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건축 조성·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기존의 기관(연구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건축기본법」에 해당 업무의 근거를 마련한 뒤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별칙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고, 장의 구분을 두는 법률의 경우에는 ‘보칙’에 둔다. 그러나 현행 「건축기본법」의 체계구조상 기존의 장에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권한 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보칙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제6장 ‘공공건축의 조성 및 지원 등’을 신설하여 위탁의 근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법인 설립이나,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지정 방안처럼 제5장의 장명을 수정하여 해당 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탁의 근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으나 공공건축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장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장 신설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⁰⁴⁾

현행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공공건축 조성·지원에 관한 업무로 위탁 사항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4) 공공건축 조성·지원 등에 관한 위탁은 그 성질이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될 것이므로 조명을 ‘권한의 위탁’ 보다는 ‘업무의 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탁 받은 기관이 그 수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7-4] 특정기관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장 공공건축의 조성 및 지원 등
〈신설〉	제25조 (공공건축의 조성 및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하 “공공건축”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업무·기술 등의 지원 2.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세무 등 상담 및 자문 3. 공공건축의 규모, 공사비 산정기준 등 책정 4.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공공건축 전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6. 공공건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 관리 8. 그 밖에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제26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별도의 조직법 마련 방안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센터를 국가가 그 행정작용에 속하는 국책적·공공적인 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단독법인으로 조직하는 방식(가칭 “국가공공건축연구원 육성법”, “공공건축진흥원법”,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수법인은 원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적·공익적 사업을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이 법률에서는 센터의 위상과 존립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다. 단, 특수법인의 설립법은 입법 정책적인 명분이 있어야 실현가능한 입법으로서 현 시점에서 실제로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독자적으로 안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입법사례_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특수법인의 성격을 갖는 공공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공건축진흥원법 제정안을 제시한다.

[표 7-5] 가칭 공공건축진흥원법 제정안

공공건축진흥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건축진흥원을 설립하여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공공건축 문화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공건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업무·기술 등의 지원
3.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세무 등 상담 및 자문
4. 건축물의 규모, 공사비 산정기준 등 책정
5.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6. 공공건축 전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7. 공공건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8.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관리
9.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〇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〇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〇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〇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 (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제12조 (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일반법 제정방안

현재 공공건축에 관한 구체적 의미를 규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가 없으므로 공공건축 지원, 조성 등을 위한 전반적인 입법정책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공공건축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공건축진흥법” 등). 단일 법률에서 규정된 공공건축의 지원·조성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률 내에 가칭 “공공건축진흥원”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공공건축진흥원은 특수법인(공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은 아님) 또는 행정기관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법의 성립도 불확실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적 입법례로는 ‘기상산업진흥법’을 들 수 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이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건축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일반법에 특수법인의 성격을 공공건축진흥원을 설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공건축진흥원법 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7-6] 가칭 공공건축진흥법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안

공공건축진흥법
<p>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건축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건축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지원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p> <p>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제4조 (공공건축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p> <p>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p> <p>제6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p> <p>제7조 (공공건축 기술개발의 촉진)</p> <p>제8조 (공공건축 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p> <p>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p> <p>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p> <p>제11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하 “공공건축”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업무·기술 등의 지원 3.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세무 등 상담 및 자문 4. 건축물의 규모, 공사비 산정기준 등 책정 5.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6. 공공건축 전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7. 공공건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8.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관리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④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 (진흥원의 경비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p>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7조 (벌칙)

4) 장·단점 분석을 통한 법제화 방안 제시

(1) 대안별 장·단점 비교검토

입법·정책적으로 보는 경우 앞의 6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공공건축 지원의 필요성 및 조직의 당위성이 명확할 경우에는 장점을 부각하여 그 당위성을 강조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 대안이 절대적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입법기술적으로 보는 경우 개별법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방식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기존 법률의 성격이 공공건축과 부합하지 않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언급될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므로 사실상 개별법의 제정과 동등한 입법작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법적 통제력이 강력할수록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직의 효율성도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법적 통제력이 약할 경우에는 반대로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나 부처지원이 약화되므로 예산 및 인력확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표 7-7]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대안별 비교

대안 비교 항목	국 토 해 양 부 소속기관으로 설립(1)	특수법인 (공익법인)으로 설립(2)	유사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을 지정(3)	특정 기관에 권한을 위탁 (4)	조직법 제정 (5)	일반법 제정 (6)
법적 통제력	강함	강함	보통	미약	강함	강함
범부처성	미약	미약	보통	강함	강함	강함
독립성	미약	보통	보통	보통	미약	미약
전문성	강함	강함	보통	보통	강함	강함
조직효율성	미약	보통	보통	보통	강함	강함
민관협력 용이성	미약	보통	보통	강함	강함	미약
입법추진의 용이성	보통	보통	강함	강함	미약	미약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합리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전략적 법제도 마련(최적대안)

□ 제1안 : 일반법의 제정을 통한 센터의 설치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최적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축기본법 일부 내용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대안으로 입법기술상 여러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 법제상 공공건축에 관한 명확한 개념설정이 규정된 것이 없으며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공공성을 규정한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법률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공공건축에 관한 명확한 개념설정을 도모하고 공공건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과 시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2011.10.7., 의원입법)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에서 공공건축의 의미와 공공건축의 진흥 및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열거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공공건축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설치할 수도 있고,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과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포섭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보다는 공공건축에 관한 별도의 단일법을 두고, 그 속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임무와 기능을 규율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규정할 경우 현재 법안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 및 보조기관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문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입법론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 및 보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동 법안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택일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건축의 지원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만을 둘 것이 아니라, 센터를 법인격으로 독립하여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표 7-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개 정 안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정부는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	제24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하 “공공건축”이라 한다)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개 정 안
<p>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지원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공공건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효율적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지원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공공건축업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 평가관리 9. 그 밖에 공공건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안 : 건축기본법의 일부개정을 통한 지정제도 근거조항의 신설

공공건축의 지원과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가진 현행 건축기본법의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공공건축의 지원을 위한 지정기관의 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제3안 참조)할 수 있다. 지정제도는 시험실시, 증명사무, 검정사무 등과 같은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일정한 자를 지정하여 그자에게 사무를 행하도록 하며, 그 지정을 받은 자를 법령상의 약칭으로서 행하는 사무의 종류에 의하여 지정 시험기관, 지정증명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검정기관 등이라고 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서도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제도는 부처간의 조정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건축의 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의 지원업무를 부처와의 연계성을 도모하며, 업무수행에서 비교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위상은 아래의 제3안과 같이 위탁제도보다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안의 추진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지정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고, 법인격이 구비된 일정한 조직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제3안 : 건축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위탁제도의 신설

공공건축의 지원과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가진 현행 건축기본법의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공공건축의 지원을 위해 특정 기관에게 공공건축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제4안 참조). 이때 위탁의 성격은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민간위탁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게 된다.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건축의 지원업무 역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원업무를 특정 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제3안은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방식을 취하므로 비교적 입법 추진이 원활한 점, 부처 간의 조정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위에 제시된 세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에 관한 구체적 정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관련사무 및 규정을 명시한 일반법 제정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현재 공공건축에 관한 명확한 개념설정을 규정하고 공공건축 조성관련 포괄적 법제가 없고, 기존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공공성을 규정한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법률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동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건축사무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공공건축에 관한 일반법을 새롭게 제정해 공공건축의 명확한 개념설정을 도모하고 공공건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적 권한 및 위상을 법으로 명시해 공공건축 관련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시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기적 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1)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권한 확보

□ 지자체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공공건축가의 지위 형태

일반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자문위원, 실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중간관리자, 의사결정권자와 함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최고 관리자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자문위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법정 자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자문 위원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문역할은 연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특별한 분야에 대한 조언이 요구되고 새로운 신개념 아이디어 도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1회 혹은 비정기적인 자문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내용의 질적 수준 문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고려 부족,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가 또는 관련 전문가를 공공디자인과(서울), 도시 디자인추진단(인천) 등의 특화된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임용하여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간관리자는 현행 전문계약직 또는 별정직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중간관리자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 급(5급 상당) 내지 ‘나’ 급(6급 상당)으로 채용되곤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반 행정직과의 협업의 어려움, 전문계약직·별정직 형태의 고용이 가지고 있는 조직 장악력 및 연속성의 문제가 지적된다.

한편,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다양한 행정 조직들 간의 협력 도모·갈등 조정을 위하여 영주시와 같이 공공건축가를 부시장급(정무직) 최고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한다. 최고 관리자는 자치단체장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학식과 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고관리자 형태의 공공건축가는 자치단체장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학식과 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선발되곤 한다. 이 형태는 공공건축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정체제로서 대부분의 공공건축가가 희망하는 형태이지만, 민선 시장의 선거결과에 좌우되는 정치적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의 보장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대형 공공건축 프로젝트인 경우 기존의 사업부서와는 별개로 TF팀 구성이나 추진 본부와 같은 별정 조직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를 책임자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공에서 새로운 부서나 추진단 신설 시 해당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규정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 1항, 2항에 근거를 두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9조 1항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7조 (채용권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 총괄형 공공건축가의 권한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함께 고려할 사항은 어떤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공공건축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로는 전문지식의 자문, 사업추진 과정의 리더(MP; Master Planner, MA ; Master Architect), 사업관련 담당자의 교육,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른 전문가를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 중계자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공공건축가를 단순 자문으로 활용할 경우 이들의 권한은 법정 자문에서의 심의와 자문 기능으로만 축소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 기획이나 기존 기획 업무에의 적극적, 실효적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건축가를 행정조직 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간관리자 혹은 부시장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 권한을 조례 등을 활용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활용할 경우 명시해야 할 공공건축가의 권한으로는 관련 외부 전문가 추천, 공공 건축 업무 담당자의 의무 교육 및 담당자 적합성 검토, 각종 공공건축물 기본 구상 단계에의 참여 및 심의, 기본 구상 수준의 예산안 검토 및 수정 권고 권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프로젝트단위의 공공건축가의 지위 형태

개별 프로젝트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건축가는 행정조직에서 위임인 부시장급의 공공건축가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1인의 공공건축가가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프로젝트단위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별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서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역할은 부시장급으로 위촉된 공공건축가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하며,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전담조직의 일원은 아니지만 전담조직과 협의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권한을 부여받도록 지원한다.

한편, 디자인리뷰와 디자인품질평가지표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단위의 공공건축가는 외부 전문가로서 일반적인 자문위원의 지위와 역할보다는 강조된 형태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건축가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반영한다.

2) 기획업무를 별도의 업무단위로 정착

□ 세부 기획업무의 구체적 구분과 내용의 명시 필요

세부 기획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명시화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의 기본구상 작업을 보다 세분화,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련 매뉴얼 제공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부적 기획 요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이 필요하다.¹⁰⁵⁾

■ 세부 기획업무 내용

- (사업 필요성) 공사가 필요한 이유의 명확화, 노후한 경우 안전진단 등의 검사 결과서 첨부, 확장의 경우 현재 운영상태와 부족도 제시, 신설의 경우 수요예측 제시 등
- (용도계획) 공공건축물이 사용될 용도 명확화,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의 상충여부 등
- (입지계획) 신축을 통한 주변여건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 국공유지 현황 반영, 용도에 따른 입지의 적합성 등
- (시설계획) 해당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 검토, 시설설치로 유발되는 주차수요 반영 등
- (규모계획) 시설의 예상 이용자 및 지역 분석, 실질 이용인구에 따른 규모 산정 등
- (디자인계획) 건축물의 외관 및 디자인에 대한 원칙 정립,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친환경적(에너지) 설계 검토 등
- (유지관리계획) 자체운영, 위탁운영, 별도 재단설립 등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등
- (예산계획) 사업의 소요금액(부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운영관리 비용 등) 도출,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
- (법률검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의 반영, 기타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등
- (의견수렴) 용도계획, 입지계획, 시설계획, 디자인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주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및 요구사항 반영, 구체적인 의견 수렴방법 제시(설문조사, 공청회) 등

□ 기획업무 정착 방안

첫째,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획단계에 대한 세분화 및 전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계획, 입지계획, 시설계획, 규모계획, 디자인계획, 유지

105) 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기본구상의 경우, 실제 업무에서 포괄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단계의 세부적 요소들을 규정하였음

관리계획, 예산계획, 법률검토, 의견수렴 과정 등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기본구상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또는 향후 기획 중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획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및 지원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기획단계의 세분화, 전문화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획단계에서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기획 단계가 즉흥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심의절차 및 공공건축가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교육 기능 및 공공건축가 선별, 파견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히 일반 행정담당자들이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교육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와 기획업무 수행방법을 교육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토목,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방법과 현장여건의 설계 반영 방법과 유사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담당 공무원이 행정분야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적 부분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기술용역 관리, 감독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 교육은 지자체 단위로 실시하기보다 광역단체, 또는 국토부 차원의 집합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점수 인정 및 수료증 수여와 향후 국비지원 심사 시 담당자 교육 시간을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넷째,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기관설립에 대한 무용성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지원 업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평가 기능을 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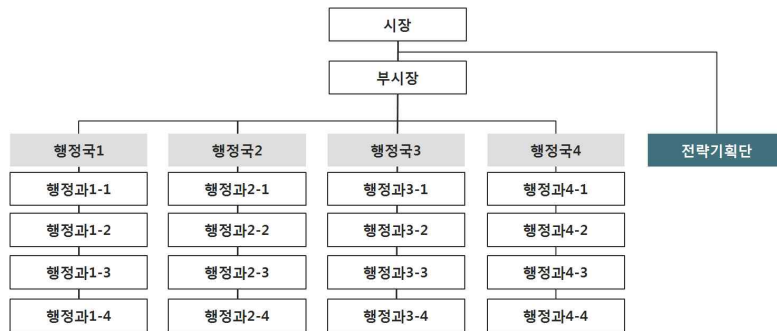
3)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

□ 별도 조직 신설 및 독자적 권한 부여 방안

중간관리자로서 공공건축가를 고용하고 독자적 팀을 구성하거나 부시장급 최고관리자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조직의 구성, 역할, 권한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빠른 속도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때 공공건축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단일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조직의 역할이 위축되고 기존 부서와 관련 업무의 이원화 또는 업무분장의 상충이 우려된다. 기존 조직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행정조직에 효과적으로 융합되기 어렵고, 최고 의사결정자(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기존 조직 활용·융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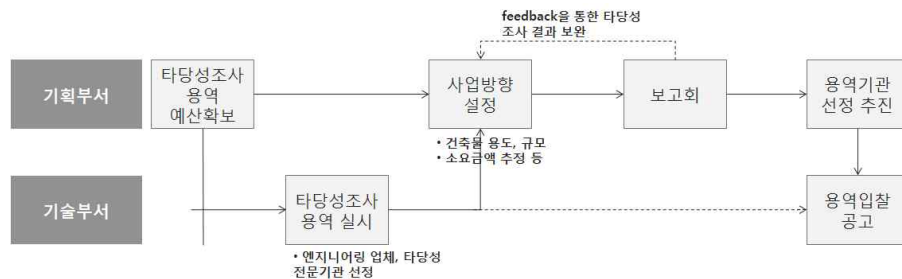
기존 행정체계와의 융합을 강조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부서의 특성을 유지한 채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융합형 조직을 고려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 구성된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경관법 제정에 따라 디자인 행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신설 또는 기존 조직의 업무를 변경하여 부서명을 변경한다. 여기서는 도시계획 업무, 건축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옥외 광고물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조직은 인·허가 분야를 담당토록 하고, 공공건축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은 도시경관, 도시환경 개선, 공공건축 등의 행정에 대해 종합기획 조정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신설 조직의 유지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외부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다. 신설 조직(가칭 ‘공공건축전략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또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구성하고, 행정 기획업무 수립과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이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략기획단에서 매년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확보(10천만원 ~ 20천만원)하면 회계연도 중간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의 타당성검토,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예산투입이 가능하여 예산문제로 부실하게 추진되는 기획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7-1] 가칭 '전략기획단' 조직구성(안)

□ 타당성 조사에 공공건축가의 적극적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재정법¹⁰⁶⁾에 의거한 투자심사 혹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는 실효성의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추진 주체의 의사에 따라 타당하다는 평가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당성 조사가 형식적 과정이며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건축가가 참여 하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건축가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2] 타당성조사 절차

10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위의 공공건축가 활용 방안의 세 가지의 특징, 장점, 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9] 공공건축가 활용 방안

활용 대안	별도 조직 신설 및 독자적 권한 부여 방안	기존 조직 활용·융합 방안	타당성 조사에 공공건축가의 적극적 활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로서 공공건축가를 고용하고 독자적 팀을 구성하거나 부서장급 최고관리자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이 경우 조직의 구성, 역할, 권한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부서의 특성을 유지한 채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융합형 조직 고려하는 방안 · 기존 조직은 안허가 분야를 담당토록 하고, 공공건축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은 도시경관, 도시환경 개선, 공공건축 등의 행정에 대해 종합기획 조정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건축가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업무 개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전문가 고용 안정성 확보용이 · 외부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참여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관부서와 이원화 및 업무상충 · 기존 조직의 반발 · 조직 연속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관부서와 이원화 및 업무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활용에 그쳐 사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외부전문가의 책임성 확보 어려움

4) 중장기 추진방안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적위상 및 조직 확대

단기적으로는 기존 건축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현재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을 지정법인으로 정하고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직화 및 예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인다. 또한 지정제도의 경우 부처 간 조정도 용이하고 공공건축의 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역시 비교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직 구성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총 14~15명 정도의 인력과 기본 예산 12~15억여 원 정도로 출발하는 것이 다른 유사 기관에 견주어볼 때 적정할 것이라 사료된다.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발전, 지속적 운영과 기능의 원만한 수행 및 안정적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을 별도의 조직법으로 제정하여 센터로 하여금 국가가 그 행정 작용에 관여하는 국책 공공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향후 지원센터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독법인으로 조직하는 방식(가칭 “국가공공건축 연구원 육성법”, “공공건축진흥원법”,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관한 법률” 등)으로 발전시켜야 센터가 수행하는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수행이 가능해짐은 물론 장기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현행 법제상 ‘공공건축’에 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조직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디자인 리뷰 및 지원 업무의 경우, 이용 기관들에게 점진적으로 비용을 청구해 자체 수익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조직 역시 향후엔 센터 고유의 지원 업무 안정화 및 시행 사업 영역의 확대에 따라 점차 인력 규모를 국내외 유사 기관들과 비슷한 규모인 40~5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규모 확대 등에 따라 기본 경비 역시 약 40~50억 원으로 증가하리라 추정한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확장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향후 지역차원에서 광역·수도별로 별도 설립·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단계별로 변화될 것이다. 2011년 연구에서도 제시하였듯이

기반구축단계, 센터 정착단계, 지역센터 확대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역할 및 기능이 변화할 것이라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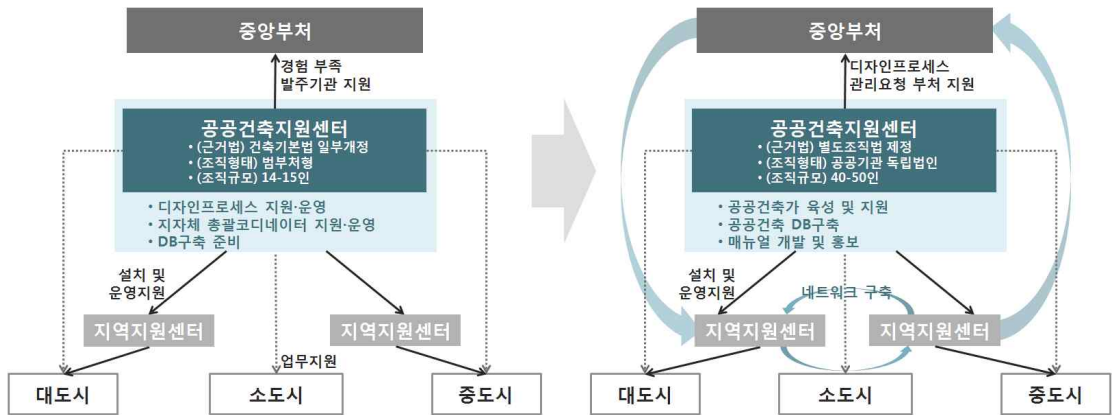
먼저, 기반구축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사업추진 사례와 시범적용과정을 검토하여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매뉴얼로 사용한다. 공공에서는 사례수집, 분석, 데이터 구축이 어려우므로 외부 연구기관에서 전국단위 사업데이터 구축 및 자료제공이 필요하며, 유사한 업무의 과정을 분석하면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DB구축을 전제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에 중점을 둔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디자인프로세스 지원에서 기획업무, 디자인리뷰, 디자인품질평가 지표 운영에 주목하며, 지자체 요청 시 지자체 총괄코디네이터 파견 지원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공공건축가 운영과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와 함께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 홍보 및 매뉴얼 작성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패키지화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을 지원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모든 분야와 과정을 지원하고 참여하기보다 공공과 외부 전문가의 협업 구성을 컨설팅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지원센터는 외부 전문가가 공공의 사업에 참여할 때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문가에게 합당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토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센터 확대단계에서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공공건축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를 위한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 홍보 및 매뉴얼 작성, DB구축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센터간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활용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예산지원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건축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국비 또는 광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통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사업기획을 작성 및 추진한 경우, 투융자심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비지원금 책정이나 국비의 분담율의 상향으로 예산확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지자체 인센티브사업 평가 시 평가항목에 공공건축지원센터 활용도나 외부전문가 참여도를 정량화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제도운영을 평가 및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파견한 전문가의 성실성, 문제 해결능력, 업무참여의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지자체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매뉴얼과 전문가 파견에 대하여 합리성, 시기적 적절성, 지자체 요구사항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며,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낮은 전문가는 인력 풀에서 교체하고 우수한 전문가는 표창, 파견희망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 평가를 근거로 사업추진 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사업 시기별로 필요한 전문가 인원 및 해당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7-3]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추진방안

[표 7-10]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추진방안

구 분	단 기 (기반구축단계)	중 기 (센터정착단계)	장 기 (지역센터 확대단계)
근거법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정		· 별도조직법 제정 - 특별법에 의한 단독 법인 설립
조직형태	범부처형의 행정조직 산하 위탁		공공기관으로서 독립법인형태
조직구성	14~15인 구성		40~50인으로 확대
지원대상	· 프로젝트 단위 40억 미만 지자체 사업 우선지원 · 프로젝트 단위 총 공사비 500억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 중앙정부 사업 및 40억 이상 지자체 사업 · 총괄계획가 파견 요청 지자체 ※ 단,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지원범위를 최소화		· 국가 차원에서 상징적이며 중요성이 인식되는 사업 · 다수의 지역 협의가 필요한 사업

구 분	단 기 (기반구축단계)	중 기 (센터정착단계)	장 기 (지역센터 확대단계)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자체 총괄코디네이터 파견지원 및 모니터링 · 공공건축 조성과정 DB 구축 사전준비 · 지역 지원센터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및 외부전문가 협업 구성 컨설팅 · 지역 지원센터 설립 확산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육성 및 지원 · 공공건축 관련 통합적 DB 구축 · 매뉴얼 및 지침 개발보급 · 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한 홍보
지역 지원센터와의 관계	지원대상으로서 지역의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수직적 관계	역할분담에 의한 상호 협력관계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독립적, 협력적 관계
공공건축 지원센터 활용증진 방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융자심사 시 가점 부여 · 요청사업의 국비예산확보 인센티브 부여

* 출처 : 서수정의, 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1차년도), p.242 참조

제8장 결론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지역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서 도시의 환경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국 약 14만 3천 동,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에 달하며, 해마다 공공건축관련 예산이 증대되는 등 국·공유자산으로서도 공공건축물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관련주체의 기획력 부재, 전문가 참여 미흡, 관료적인 행정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 등의 문제로 국내 공공건축물은 지역수요에 맞지 않는 과대·과다 시설이 조성되는가 하면, 이용자 수요 및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경관과도 조화되지 않는 획일적 디자인으로 도시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왔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성 취약, 시설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한 기획업무의 지원,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관리,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공공건축 조성절차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해외 공공건축 전담기구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공공건축 총괄지원 기구의 역할과 업무범위, 운영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총 2차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본 연구는 이러한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라고 판단된 지자체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실현가능한 법안 제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설계이행지침(PDRI),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일본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정비 기획서, 영국 CABE의 디자인리뷰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기획·설계과정에서 디자인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되는 공공건축가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에 활동 중인 공공건축가 운영사례도 깊이있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 개발과 공공건축가의 육성·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공건축가는 지자체 전반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총괄 기획·관리하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개별 공공건축 사업의 조성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가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병행·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공공건축 조성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프로세스 단계별 공공건축가의 활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공건축 관련된 각종 지침 및 기준을 보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및 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도 별도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중앙부처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디자인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수원시, 평택시, 영주시에서 기획 또는 설계 중인 공공건축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지원을 시범적용함으로써 본연구에서 제안한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운영, 디자인리뷰 등의 디자인프로세스 지원업무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설문 및 심층인터뷰, 지자체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설정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을 위한 단계별 세부업무와 공공건축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체계는 범부처 차원의 중앙센터로서, 지자체 지원센터로서, 그리고 행정조직체계의 법정 및 비법정기구와의 상호협력적 조직으로서 그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지원센터의 핵심기능에 따라 총 4개의 실무팀으로 구성되는 조직구성(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설립 방법과 센터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①건축기본법 개정, ②일반법 제정, ③별도 조직법 제정 방안 등 세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제정안을 제안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최적대안으로 일반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으로서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권한 확보 방안,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별도의 업무 단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기존 공공건축 행정절차에 공공건축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단기(기반구축 단계), 중기(센터정착단계), 장기(지역센터 확대단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향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후 사업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지자체의 지원절차 및 양식,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 공공건축 DB구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공건축 사업 규모별 및 발주방식별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운영기준에 대한 연구는 추후 연구 등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보고서

- 김성홍 외(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박인석 외(2007), 「공공 도시·건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 백승만 외(2007), 「공공건축의 디자인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석 외(2009), 「건축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 기준 및 유도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수정 외(2007),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조준배 외(2008), 「장소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상민 외(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욱 외(2009),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 행정지원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상호 외(2009),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외(2009),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염철호 외(2010),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광현 외(2006), 「건축기본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 이교선 외(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연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백서」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 연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좋은건축 좋은도시를 만드는 건축정책」

학술지 및 전문지

- 김상호(2007), 「건축기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건축과사회 2007년 겨울호
- 김상호(2008),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주거학회지 3권 특집
- 김성홍(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조임식 외(2009),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건축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5권
- 강욱(2003),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성(Public) 및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욱(2003),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 류임우, 변창훈(2006),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념의 중요도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17권 제 1호
- Chung-Suk Cho, G. Edward Gibson Jr.(Dec 2001), 「Building Project Scope Definition Using 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 Journa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 G. Edward Gibson Jr.외(Jan 2006), 「What is Preproject Planning, Anyway?」,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기타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06~2009) 「국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보도자료
- 조달청 시설국 공사관리과(2004), 「조달청 패키지서비스 이용요령」
- 조달청(2002), 「정부시설공사의 설계관리」
- 조달청(2007), 「시설공사기술용역 업무 편람」
- 조달청(2007~2008), 「시설공사 집행계획」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2007), 「기관별 청사수급관리계획 명세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2008), 「정부청사관리규정 해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2009), 「정부청사 건립 실무편람」
- CABC(2002), 「Client Guide for Arts Capital Programme Projects」
- CABC(2006), 「The Cost of Bad Design」
- CABC(2006), 「Design Review」
- CABC(2010), 「CABC Annual Report 2009/10 Financial Statement and Accounts」
- 영국 BIS(2010), 「The Design Council : A Review by Martin Temple CBE」

- Urban Task Force(2005), 「Towards a Strong Urban Renaissance」
- 프랑스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s(2002), 「The Attribution of Public Contracts to Project Consultants in Europe」

홈페이지

- 조달청 : <http://www.pps.go.kr>
- 정부청사관리소 : <http://www.chungsa.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pas.go.kr>
-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 <http://www.kamco.or.kr>
- 국가통계포털 : <http://www.kosis.kr>
- 일본 국토교통성 : <http://www.mlit.go.jp/gobuild>
- 일본 사단법인 공공건축협회 : <http://www.pbaweb.jp/>
-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부 : http://www.city.kyoto.lg.jp/tokei/soshiki/9-7-0-0-0_1.html
- 핀란드 Ministry of Finance : <http://www.vm.fi>
- 핀란드 Senate Properties : <http://www.senaatti.fi>
- 미국 PBS : <http://www.gsa.gov>
- 미국 CII : <https://www.construction-institute.org/>
- 프랑스 MIQCP : www.archi.fr/MIQCP
- 영국 CABI : <http://www.cabi.org.uk>
- 영국 디자인품질 평가지표 : <http://www.dqi.org.uk>
- 영국 건설위원회 : <http://www.cic.org.uk>
- 영국 디자인위원회 : <http://www.designcouncil.co.uk>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Seo, Soo Jeong
Kim, Young Hyun
Cho, Sea Eun
Lee, Eon Hwa
Lyu, Hyeon Suk
Chung, Ji Bum

Public architecture is deeply embedded in our society, embodies lo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affects the quality of our urban environment. Not only that, there are 143,000 public buildings in Korea amounting to 24 trillion KRW,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are increasing on a yearly basis, constituting towards a large segment of public asset. However, despite such increased significance of public architecture, the design quality remains low due to a number of reasons such as generally inadequate architectural project planning, absence of relevant expertise, and a bureaucratic design and build process. Such drawbacks have resulted in public facilities which fail to reflect the needs of local community by either being concentrated only in certain areas, or being built where there is no significant dema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overly standardized design of public architecture which equally bears negative effects towards the overall built environment. Hence, the research aims to presen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odel of a centralized design support and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enables sufficient architectural planning, systematically manages the design process at all stages of the project, operates a comprehensive public architecture database system, and fosters relevant specialists that are specifically required for public projects.

During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were analyzed in order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 centralized design advisory organization. Additionally, by investigating similar design management organizations from abroad, the research proposed a model suitable within the Korean administrative context, and a framework of its function, works, and its operational processes.

Building from the previous year of research, the second year focused on developing the design management process in detail, which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crucial works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and proposed feasible legislative establishment measures.

In order to put forward an effective design management standard, various systematic devices were investigated. This included the 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 used by the Public Buildings Service US, the public architecture design guidelines of Kyoto City, the public architecture management planning forms of the Government Buildings Depart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 Tourism Japan. Additionally, in order to induce the operational model of public architects who will directly or indirectly be involved in the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stages of public facilities, various relevant models both from within and outside of Korea were examined.

From such analysi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model of the 'public architect' needs to be operated in two strands. First, an individual can be employ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oversee local projects and manage projects in a holistic approach to construct a consistent local identity. Second,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public projects can work on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s of individual projects by request from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both approaches be utilized to effectively match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needs. Within this operation a continuous monitoring process needs to be in place to develop and amend relevant public architecture management guidelines and standards, and if the need arises, experts who can mediate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can also be fostered to enable a structured support system.

This research conducted both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sessions among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design pilot project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local architects who co-worked with existing city architects, in order to define the scope of work of an effective public architect. The proposed scope of work of public architects were tried and tested in architectural projects from Yeongju, Suwon, and Pyeongtaek. In turn, thi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and feedback process of the planning form, design performance checklist, and design review which were devised through this research and suggested as part of the main works of the public architect and the Center.

Based on the various case studies, surveys and application of proposed works of a public architect, the research se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model of a centralized design advisory and management organization. Specifically, the design management process at individual stages of a project were presented in detail highlighting the works and respective roles of the public architect,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enter as the main coordinator of the proces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was discussed in terms of a non-departmental central organization, a local government support organization, and a mutually dependent organization amongst existing entities within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legal alternatives of establishment of the Center was discussed in terms of three approaches: first, b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 second, by establishing general law; and third by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act. By discussing the feasibility and suitability of each individual approache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law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measure in terms of legal content and direction.

Additionally, in order to ensure a stable opera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a number of suppor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the 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public architect needs to be ensured to create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experts. Second, architectural planning needs to be recognized as a discrete stage in the overall planning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public architects. Third, there needs to be a consensus of the critical stages within the planning system where the role of the public architect is required. Furthermore,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was discussed in three developmental stages, first being the groundwork stage, second the center settlement stage and last being the expansion stage. The legal grounds, organizational model, required labor force, applicable projects of the organization we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Center.

The research identifies that detailed measures of securing operational funds, application processes etc are issues that needs further investigation. However, the achievement of the research lies in its detailed design management process proposition and the carefully thought out practical establishment measures, which will lay the foundations for further in-depth stud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부록1. 기획업무양식서 작성기준

□ 기획업무작성 매뉴얼 내용

기획서는 크게 ‘Ⅰ.사업기본구상’ 과 ‘Ⅱ.사업기본계획’ 으로 나뉘며 행정절차에 부합하며 순차적인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업기본구상에서는 사업 정비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전반에 대한 구상’ ,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집행방법 및 계획에 대한 ‘사업수행방식’ , 결과물을 위한 부지, 예산, 시설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 방향 설정 및 진단’ 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기본계획’ 에서는 부지, 시설, 예산 등에 대한 세부 항목과 운영계획 등의 유지관리 측면의 내용을 작성한다.

구 분	목 적
Ⅰ. 사업 기본 구상	0. 사업개요
	해당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명용 개요로 위원회 심의 시 활용
	1. 사업구상
	시설의 사용목적, 사업타당성, 주요 고려항목 등을 검토하여 명확한 사업목적 수립
2. 사업수행 방식	사업추진 타당성 원칙 수립 및 집행계획 등을 구상하여 협의를 통한 사업 이행
	3. 사업방향 설정 및 진단
	· 해당사업의 효율적 설계단계 추진을 위한 원칙들을 정립하며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 건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들을 초기단계부터 확인하여 디자인품질 확보 · 현실적 예산 및 일정계획 수립
Ⅱ. 사업 기본 계획	1. 부지현황
	원활한 설계단계 추진을 위해 면밀한 부지현황 검토 및 분석
	2. 시설개요
	시설 프로그램 기획, 다이어그램, 공개공지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도식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설계 준비
3. 운영계획	시설의 이용자 설정과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4. 예산
	건축, 전기, 기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산정

□ 기획서 작성 방법

사업수행여부가 결정된 후 기획서 I 에 해당하는 사업기본구상 0.사업개요, 1.사업구상, 2.사업 수행방식, 3. 사업진단 및 방향설정까지 작성한다. 예산확정 후에는 기획서 II 인 사업기본계획 1.부지현황, 2.시설계획, 3.운영계획, 4.예산표를 작성하며, 수정·보완된 내용이 있다면 기획서 I 에 구체적으로 재기입한다.

■ 기획서 작성 요령

I. 사업기본구상

0) 사업개요

- 내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1) 사업구상

-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항목에 따라 행의 삽입, 제거 등을 실시해도 좋으나 1페이지 내에 정리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포인트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하여 별첨으로 이미지 등을 첨부한다.

· 사업목표

- 설계이행지침의 사업진단기준 중 1-1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발주기관의 필요와 종합적인 기대효과를 기입한다.

· 사용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 시설 기대효과

- [사업의 목표]에 기입하는 종합적인 효과에 대하여 본 란에서는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효과의 내용을 기입한다.

· 법률·제도적 제약사항 검토

- 사업의 목표나 중점정비항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계획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등을 기입하고 관련성을 서술한다.

· 중점고려항목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설계·시공을 통해 중점적으로 검사확인을 실시해야하는 항목을 기입한다.
- 인명이나 재산의 안전확보와 같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실시에 관련된 기본적인 항목 (건축물 내로의 누구 등)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발주자로서 그 필요성과 현실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기획의도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시설정비를 실시할 때, 설계업체가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입한다.
- 기획내용의 검토과정에서 발주자로서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중점고려 항목]에 기입하지 못한 항목 등을 기입한다.

2) 사업수행방식

-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사업타당성 원칙
 - 사업목적 및 시설 기대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가능한지 판단하여 기입한다.
 - 증·개축의 고려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기입한다.
- 사업집행계획
 -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구성원과 사업단계 및 업무별 주요 수행주체 및 결정권자를 명시한다.
 - 단계별 주요 결정사항이 발생하는 시범에서는 협의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입한다.
-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사업 성격과 관련있는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기입한다.
 - 단계별로 구체적인 민간전문가의 활용 횟수, 인원수, 운영방안을 기입한다.
 - [민간전문가 활용]란에는 전문가의 참여단계를 표시하며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기입한다.
 - [설계이행지침 운영여부]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민간전문가 판단 하에 운영횟수와 운영 시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항목을 검토하여 기입한다.
 - [디자인리뷰 운영여부]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민간전문가 판단 하에 운영횟수를 결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가 무엇이며 운영 적정시기를 검토하여 기입한다.
- 발주방식 결정
 - 사업에 맞는 적절한 발주방식의 대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입한다.
 - 가장 적절한 발주방식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입한다.

3) 사업진단 및 방향

-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부지 및 장소계획
 -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설 입지를 위한 일반적 지리적 사항(예_이용자 수요분석, 교통 등)을 기입한다.
 - 부지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접근방식, 지역의 장소성, 기존시설평가 등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 유사시설 사례 개요
 - 국외사례보다는 비슷한 규모의 국내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입한다.
 - 기획서 양식으로 정리하지 못한 제반자료 등은 첨부할 수 있다.
- 기존시설 평가(증·개축 시설일 경우에만 기입)
 - 기존시설의 규모, 주변시설 및 공공공간, 준공도 등을 점검하여 서술한다.
- 예산계획
 - 사업에 필요한 예산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입한다.
 - 전문가 활용 및 디자인검토제도 활용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일정계획
 - 사업일정은 조달기간, 제작시간, 기자재의 구입, 승인기간 등을 고려하고 예측불가한 상황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설정
 - 과업지시서 작성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적 범위를 기입한다.
 - 설계원칙, 기존시설 평가, 부지선정계획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II. 사업기본계획

- 1) 부지 현황
 - 필요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를 기입한다.
- 2) 시설 계획
 - 필요로 하는 시설에 관련된 요건 등에 대하여 각 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동선계획, 배려계획, 각 실 상호관의 관계 등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고 방향, 이유 등을 구체적 내용란에 기입한다.(이미지나 다이어그램 등을 기입해도 좋다.)
- 2) 운영 계획
 -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4) 예산표
 - 예산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상세한 내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 표에 표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히 추가한다.

I. 사업기본구상 (사전기획)

0. 사업개요

항 목	내 용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증 축 <input type="checkbox"/> 수평 <input type="checkbox"/> 수직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사업배경				
	기존청사의 건축년차 ()년			
시설의 주요 프로그램				
부 지	예정부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시설규모	건물	면적		
		층		
	기타			
예 산	예산항목			
	예산액			

	〈연도별 예산〉									
	연도 예산									비고
사업공정	〈공정표〉									
										비고
	기 획									
	설 계	기본								
		실시								
	시 공									
- 단계별 심의, 보고 등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 상의 업무(절차) 명시										

1. 사업구상

항 목		내 용
①사업목표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우선순위	
	기 타	
②사용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③시설 기대효과		
④법률·제도적 제약사항 검토	상위계획과의 관계	
	적용법률 검토	-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법 등
	조 례	건축조례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조례
		가이드라인
⑤중점고려항목	사업관리관련 사항	- 예산조달 가능성, 사업 총비용, 주요 마감일정 등에 대한 고려사항
	설계관련 사항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설계·시공 시 특히 유념해야 하는 사항 기입
	시공관련 사항	
	시설유지·관리 관련 사항	- 시설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에너지효율화 방안 등) - 유지관리예산의 확보방안 등 - 임대 및 장기적 시설이용 계획 등
⑥기타 유의사항		

2. 사업수행방식

항 목	내 용																																																										
①사업타당성 원칙	- 사업목적 및 시설 기대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지 판단 - 산·증·개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사업집행계획	<table><tr><th colspan="2">단 계</th><th>참여주체</th><th>협의내용</th><th>협의시점</th><th>협의방식</th></tr><tr><td rowspan="2">기 획</td><td></td><td rowspan="2">·예_실과부서, 관련 부서, 공공건축가 등</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설 계</td><td rowspan="2">기 본</td><td></td><td></td><td rowspan="2">·예_설 계 단 계, 0월 초/중/말</td><td></td></tr><tr><td></td><td></td><td></td></tr><tr><td rowspan="2">실 시</td><td></td><td></td><td></td><td rowspan="2">·예_회의 〇회 개최 예정 등</td></tr><tr><td></td><td></td><td></td></tr><tr><td rowspan="2">시 공</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유 지 관 리</td><td></td><td></td><td></td><td></td><td rowspan="2">·예_주민설명회, 공청회 등</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단 계		참여주체	협의내용	협의시점	협의방식	기 획		·예_실과부서, 관련 부서, 공공건축가 등								설 계	기 본			·예_설 계 단 계, 0월 초/중/말					실 시				·예_회의 〇회 개최 예정 등				시 공											유 지 관 리					·예_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단 계		참여주체	협의내용	협의시점	협의방식																																																					
	기 획		·예_실과부서, 관련 부서, 공공건축가 등																																																								
	설 계	기 본			·예_설 계 단 계, 0월 초/중/말																																																						
		실 시				·예_회의 〇회 개최 예정 등																																																					
	시 공																																																										
	유 지 관 리					·예_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구성원, 사업단계 및 업무별 수행주체 및 결정권자 명시																																																										
	- 단계별 주요 시점에서의 협의 내용을 세부단계로 구분하여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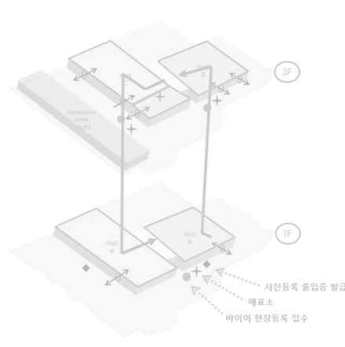
③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민간전문가 활용	참여단계	□ 기획단계 □ 계획·설계단계	
		참여업무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필수적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업무 기입	
	설계이행 지침 운영 여부	참여단계	□ 기획단계	□ 설계단계
		횟수	()회	()회
		운영 방안	- 필수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항목 도출	
	디자인 리뷰 운영 여부	참여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횟수	()회	()회
		운영 방안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위원의 전문분야 (예_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기입 - 디자인리뷰 운영의 적정시기 기입	
④발주방식 결정	적용가능한 발주방식	항목	장점	단점
		- 발주방식 별 장단점 분석		
	적정 발주방식			

3. 사업진단 및 방향

3.1 부지 및 장소계획

항 목	내 용			
①부지계획 (부지확정여부 표기)	부지선정	□ 확 정		□ 미 확 정 (예상확정 시기 기입)
	부지면적			
	부지 적정성 검토	- 규모 - 접근성		
	건폐율		용적률	
	법률적 제약사항 검토			
	부지계획 시 중점적 고려사항 □ 접근성 □ 주변시설 연계성 □ 문화성 □ 역사성 □ 환경성 □ 기타			
②향후 증·개축 계획	- 법률적 제약사항을 바탕으로 증·개축 가능성 검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건변동에 대처하여 증·개축 계획 수립의 필요성 판단 · 입주기관의 부서 및 기능조직들의 확충 가능성 판단 · 증축을 감안한 공간확보 가능성 여부 판단 · 5, 10, 15, 20년 후 시설의 사용자 예측 등			
③주변시설 현황	공공시설	시설명		
		주관부서		
		시설용도 및 사용현황		
	민간시설			
	통합연계/ 활용 방안	- 기존시설 주변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및 공간 파악 - 새로 추진되는 사업과의 물리적 관련성 파악 - 이미지/다이어그램 첨부 가능		

3.2 유사시설 사례 개요

항 목	내 용		
시설명		발주기관	
위치		준공년도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용			
사업일정			
시설규모	건물	면적	연면적 m^2 건축면적 m^2
		규모	
		구조	
	주차대수		
외부공간 현황	오픈스페이스	면 적 기타 기입할 사항	m^2
	근린특성		
	배치도	이미지/다이어그램 첨부	
	동선계획	이미지/다이어그램 첨부	
	기타		
내부공간 현황	실별 배치도	이미지/다이어그램 첨부	
	동선계획	<div style="text-align: center;">  <p>11. 18(목), 19(금)</p> <p>〈예시〉</p> <p>사전동작 포함을 위한 필요소 바이어 현장동작 접수</p> </div>	
	층간계획	이미지/다이어그램 첨부	
사 진	외부공간	이미지 첨부	
	내부공간	이미지 첨부	

3.3 기존시설 평가(중개축 시설일 경우에만 기입)

항 목		내 용
시설 규모	면적	- 기존시설의 수용규모 기입
	층	
옥외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 이용 시간대, 연령대 등
운영 및 관리	운영비	
	관리자 수	
실별 배치현황	지하	- 층별 평면계획 분석(이미지/다이어그램 첨부)
	지상	
준공도 점검		- 기존 시설의 준공도 확인 여부를 기입하며, 준공도 확인을 통해 파악된 유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3.4 예산계획(예산산정을 위해 참고해야하는 객관적 기준 및 개략적 예산을 산정하여 기입)

항 목		금 액(원)	비율(%)	비 고
부지매입				
대지조성	토목공사			
	도로개설			
측량 및 조사	지질조사			
	경계/현황 측량			
	기타			
설 계	기본 설계	건축		
		세부 항목		세부항목 기입
		총		
	실시 설계	건축		
		세부 항목		세부항목 기입
		총		

인증 및 심의	인증			세부항목 기입
	심의			세부항목 기입
시 공	12설계 관리			
	공사감리			
	공사비			
기 타	용역비	-기획용역, 타당성조사용역 등		세부항목 기입
	전문가 활용비	- 민간전문가 활용, 설계이행지침 및 디자인리뷰 운영여부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용 산정		
	예비비			
	기타			
합 계			원 100	

3.5 일정계획

내 용		기 간	일 수	비 고
기 획				
설계	계획			
	기본			
	실시			
심 의				
건축안허가				
시 공				
준 공				

3.6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설정

항 목	내 용		
용역 대상	<input type="checkbox"/> 기본계획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내용범위	- 효율적 설계단계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기입 · 과업기간, 내용 작성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기입 · 기존시설 평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의항목 고려 · 부지 위치 및 선정계획에 따른 유의항목 고려 · 시설용도/연면적/구조/개략적인 프로그램 등에 따른 유의항목 고려		

II. 사업기본계획(본기획)

1. 부지 현황

항 목			내 용						비 고
부지 개요	예정부지								사진첨부
	부지가 위치하는 행정구역의 인구								
	도시계획 등에서의 위치								
	면적	지적	m ²						위치도, 부지 평면도, 측량도 등 첨부
		실측면적	m ²						
	교통수단	지하철	()역, 거리 ()m						
		버스	()하차, 거리 ()m						
		기타							
	인접도로 현황			동	서	남	북	도로현황이 표기된 도면 등 첨부	
			도로 폭원						
			국도, 사도의 종류						
			보도의 유무						
			측량의 유무						
			포장의 종류, 두께						
			부지와외의 고저차						
	장애물		지상	유 무 (종류 : 가옥, 나무, 기타)					
지중			유 무 (건축물의 지중구조체, 전력선로, 통신선로,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소화관 등)						
상공			유 무 (전력선로, 통신선로)						
고저차		부지 내	평균					고저차도 첨부	
		도로와의 차이	평균						
경사		유 무 ()							
인접건축물 및 기타		유 무 ()						사진첨부	
		규모	m ² 정도						
부지의 이력		· 연못, 저수지, 하천, 기타							
		· 시설 이전시설 명칭 ()							
구역 내 보존건축물 자료		보존건축물 등급 ()						배치도 및 사진 첨부	
		유 무 (동,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배치도		유 무					

2. 시설 계획

항 목	내 용				
주요 필요 시설					
외부공간	주변과의 연계				
	필요주차대수				
	필요녹화면적 · 녹화율		m ² 이상		% 이상
	오픈스페이스	필요면적	m ² 이상		
		기타 기입할 사항			
	배치계획				
	동선계획				
기타					
내부공간	동선계획				
	층간계획				
시설규모	본 건물	연면적			
		규모			
		구조			
	부대시설	연면적			
		규모			
		구조			
	주차대수				
설비 기능	기계설비		상수	사용량 산정 ()m ³ /일	
			하수	처리방법	
				정화조처리량 ()m ³ /일	
			가스	사용량 산정 ()m ³ /일	
	기타				
	전기설비		전력	전력사용량 산정 ()kw	
			전화	회선수 및 종류	
기타			유지관리, 운영 등		
에너지 효율성	- 에너지효율 적용기준 명시 - 에너지효율등급 달성을 위한 개략적 디자인계획 서술				
시공성	- 건물구조에 따른 주요 시공방식 검토 - 신기술 도입여부 검토				
기타					

3. 운영 계획

항 목		내 용			
이용 자 설정	주요 대상	- 시설의 주 이용계층 설정			
	수요 예측	- 예상 이용자 수 등			
	기타	- 이용자 수 증감에 대한 예측 등			
운영 방식		- 직접경영, 위탁경영 등			
운영 경비		- 유료 / 무료 - 운영 경비 확보 방안			
운영 프로그램		- 상설 / 기획 프로그램 계획 - 이용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			
입주 관리자	입주 대상				
	입주자 수요분석				
	입주 인원	부서명			
		직원			
		비상근			
	입주 관리자 등의 관리구역 등				
	인주관리자 상호간의 연계				
기타					

4. 예산표(안)

항 목				예산배분			비 고
				금 액(원)	단 가(원)	구성 비(%)	
사전준비비용	전문가 활용	기획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운영					
		디자인리뷰 운영					
	측량조사	지질조사					
		경계측량					
		현황측량					
		기타					
인증 및 심의 비용	인증						
	심의						
대지조성	토목공사						
	도로개설비용						
조경공사							
건축공사	직접공사비	건물본체	직접				
			토공				
			지업				
			각 체				
			사상				
		부속동			-		
		옥외			-		
		기타			-		
						100%	
		공통비			-	-	
				-			
전기공사비	직접공사비	건물본체	전력설비				
			통신설비				
		부속동 · 옥외 · 기타				-	
						100%	
		공통비				-	

기계설비 공사비	직접공사비	건물본체	공조설비				
			위생설비				
		부속동·옥외·기타				-	
						100%	
	공통비				-		
승강기 설비	직접공사비	승강기설비			100%		
	공통비						
	부담금 등						
합계							

연면적		
구조·층수		
예정공사비와의 차이		

직접공사비의 구성비			예산 배분				
공종			금 액(원)	단 가(원)	구성비(%)		
직접공사비	본체	건축					
		전기설비					
		기계설비					
		승강기설비					
		부속동·옥외·기타					
	계					예산공사비	

부록2. 설계이행지침 운영기준

□ 설계이행지침 내용

설계이행지침의 내용은 크게 사업의 기본적인 전략 및 여건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주요사안을 검토하는 ‘사업진단 기준’, 사업의 개략적 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발주방식을 검토하는 ‘사업수행방식’과 부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디자인기준’으로 구분된다.

구 분		검 토 사 항		
		항 목 내 용	확인	기획서 해당 섹션
1	사업개요 및 집행 기준	1-1 ·사업추진 목적		I-1.-①
		1-2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I-1.-②, ③
		1-3 ·적용 법률제도 관련 사항		I-1.-④
		1-4 ·사업 타당성 원칙 관련 사항		I-2.-①
		1-5 ·행정절차 및 승인이 필요한 문서 확인		I-2.-②
		1-6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1-7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I-2.-④
		1-8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제시		
2	사업진단 기준	2-1 ·부지선정계획의 타당성		I-3.1-①
		2-2 ·증·개축 계획 반영		I-3.1-②
		2-3 ·부지 주변여건 분석		I-3.1-③
		2-4 ·유사사업의 평가 및 분석		I-3.2

		2-5	·기존시설의 평가 및 분석		I-3.3
		2-6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I-3.4
		2-7	·사업일정 수립		I-3.5
		2-8	·과업범위 설정		I-3.6
3	디자인 기준	3-1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II-1.
		3-2	·교통 관련 사항		II-1.
		3-3	·환경 관련 사항		II-1.
		3-4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II-2.
		3-5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3-6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3-7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3-8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II-3.

□ 설계이행지침 작성 방법

기획서 내용을 파악한 후 설계이행지침 첫 페이지의 해당 섹션에 따라 작성된 기획서 내용을 검토한다.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에서의 운용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항목에 따른 세부 설명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서술한다. 세부 항목 검토서 작성 후에는 종합적인 견해를 담은 설계이행지침결과서를 작성한 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제출한다.

설계이행지침 항목별 세부설명

1. 사업개요 및 집행기준

1-1 사업추진 목적 사업전략 및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해당 사업에 대해 명료하고,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사업 추진배경
- ☐ 시설의 사용목적
- ☐ 이용자/소비자의 요구 변화 고려
- ☐ 시장 여건 변동 고려
- ☐ 시설 사용목적의 우선순위 정립
- ☐ 기타

1-2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사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과 함께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공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대비한다

- ☐ 지역주민의 사용성
- ☐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성 파악
- ☐ 주변시설과의 기능 보완
- ☐ 주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의 가치 존중
- ☐ 지역경관 형성
- ☐ 기타

1-3 적용 법률제도 관련 사항 지역, 광역, 국가차원의 법률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대비한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차원의 법률 | <input type="checkbox"/> 화재관련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조례 |
| <input type="checkbox"/> 상위계획과의 관계 검토 | <input type="checkbox"/> 건축선 규제 | <input type="checkbox"/>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 |
| <input type="checkbox"/> 특수적용 사항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높이 규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역사보존관련 | <input type="checkbox"/> 일조량 | |
|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련 | <input type="checkbox"/> 옥외물 · 간판규정 | |
| <input type="checkbox"/> 입지관련 | <input type="checkbox"/> 건축조례 | |
| <input type="checkbox"/> 철거관련 |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 조례 | |

1-4 사업 타당성 원칙 관련 사항 사업의 추진목적과 지역사회 공헌, 시설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증개축의 합당한 사유 또는 다른 사업형태의 대안 모색이 가능한지 등을 분명히 파악한다

1-5 행정절차 및 승인이 필요한 문서 확인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사업진행단계별(기획-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행정절차 정립
- ☐ 시설유형에 따른 적용되어야 할 행정절차(예_심의 등) 확인
- ☐ 승인절차 소요시간
- ☐ 문서의 종류
- ☐ 문서 제출마감일
- ☐ 기타

1-6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사업진행단계별 관련 참여주체들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에 대해 명시하고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사업진행단계별(기획-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참여주체 정립
- ☐ 발주부서와 관련부서와의 관계정립
- ☐ 참여주체 간 실무관계 정립
- ☐ 의사결정권자 명시
- ☐ 기타

1-7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에 관련된 관계자간 (주민의견 포함)의 협의방식을 명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주민을 포함한 추진협의체의 수립
- ☐ 관계자 간의 협의방식의 장단점 검토
- ☐ 사업 관계자 간의 협의 횟수 설정
- ☐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 기타

1-8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제시 사업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방식을 명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사업에 적합한 발주방식 검토
- ☐ 설계자/시공업체 선정 방식
- ☐ 발주방식 선정
- ☐ 발주 일정 수립
- ☐ 기타

2. 사업진단기준

2-1 부지선정계획의 타당성 입지선정은 다양한 위계의 장소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전체 또는 일부)에는 부지확보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부지 확정일 경우

- ☐ 시설 이용수요 검토
- ☐ 시설 접근방식의 용이성 검토
- ☐ 커뮤니티 연계성
- ☐ 상징적, 미학적 사항 검토
- ☐ 역사적 보존가치성 검토
- ☐ 기타

부지 미확정일 경우 추가 검토 사항

- ☐ 부지매입 가능성 및 비용
- ☐ 부지매입에 따른 법률적 제약 검토

2-2 증개축 계획 반영 시설 설계 시 시설의 증개축계획이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수직·수평적 증축을 감안한 공간확보 가능성 여부 판단
- ☐ 신기술적 장비의 도입 필요성 여부 판단
- ☐ 5, 10, 15, 20년 후 시설의 사용자 예측
- ☐ 향후 시설이용 변화에 따른 시설의 물리적 전환 가능성 여부 판단
- ☐ 미래 증축 및 시설내부 개조에 따른 비용 효익 판단
- ☐ 기타

2-3 부지 주변여건 분석 부지주변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부지 인근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조성현황
- ☐ 문화재 및 역사적 보존가치 시설의 조성현황
- ☐ 부지 인근의 민간시설 조성현황
- ☐ 부지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 ☐ 용도지역
- ☐ 부지주변의 주요 교통현황
- ☐ 주변 개발계획 현황
- ☐ 기타

2-4 유사사업의 평가 및 분석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과의 비교·분석, 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시설 수요와 연계한 규모 검토
- ☐ 규모, 사업 특성 및 일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용 검토
- ☐ 시설의 주요 프로그램 검토
- ☐ 내·외부 공간의 활용방안 및 적정성 평가
- ☐ 사업일정, 집행방식 등 사업관리체계 확인
- ☐ 사업 진행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 ☐ 기타

2-5 기존시설의 평가 및 분석 추진사업이 기존시설의 증개축일 경우, 기존시설의 규모 및 이용자 요구사항, 운영 및 관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기존시설 규모
- ☐ 기존시설의 주요 프로그램 및 이용현황
- ☐ 실별 배치현황
- ☐ 옥외공간 이용현황
- ☐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및 필요 개선사항
- ☐ 준공도 점검
- ☐ 기타

2-6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추정 소요예산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부지매입 비용
- ☐ 대지조성 비용
- ☐ 측량 및 조사 비용
- ☐ 용역비용(예_기획용역, 타당성조사 용역 등)
- ☐ 전문가활용 비용(예_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따른 비용, 컨설팅 비용 등)
- ☐ 설계비용
- ☐ 사후설계관리 비용
- ☐ 공사감리 비용
- ☐ 시공비용
- ☐ 예비비(예_소요예산의 추정범위를 벗어난 자재(항목)의 가격 상승 등)
- ☐ 기타

2-7 사업일정 수립 사업일정은 사업진행단계별로 구분하여 현실적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사업진행단계별(기획-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소요기간 정립
- ☐ 심의, 건축인·허가 관련 일정 확인
- ☐ 장기적 소요기간이 필요한 업무 및 절차 확인
- ☐ 기타

2-8 과업 범위 설정 과업범위에 대한 서술은 사업일정 및 추정예산의 합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사업 참여주체별 책무 및 업무 등을 구체화시키는 문서로 과업지시서 작성 시 설계관련 주요내용의 틀과 필수항목들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한다.

3. 디자인기준

3-1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입지의 사선제한, 지형 등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토목/지질공학적 정보는 시설의 기반구조, 수문학적 구조 등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지형분석
- ☐ 접근성
- ☐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 ☐ 도시 컨텍스트
- ☐ 토목 관련 현황
- ☐ 지질현황
- ☐ 기타

3-2 교통 관련 사항 시설로의 차량 및 보행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차량동선
- ☐ 보행동선
- ☐ 진입로
- ☐ 인접도로
- ☐ 주차
- ☐ 기타

3-3 환경 관련 사항 부지이력과 관련하여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대기질
- ☐ 상·하수
- ☐ 지하수
- ☐ 소음
- ☐ 진동
- ☐ 생물다양성
- ☐ 기타

3-4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추진사업의 내부공간이 기능적으로 작동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건물 전체의 레이아웃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사용자 및 관리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요 필요시설 확인
- ☐ 프로그램 개요
- ☐ 내·외부 공간의 활용방안
- ☐ 시설 및 주차의 적정 규모
- ☐ 설비기능
- ☐ 평면다이어그램
- ☐ 수직동선다이어그램
- ☐ 기타

3-5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공간 프로그래밍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외부의 오픈스페이스 배치 및 기획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주변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 ☐ 인근 근린공원, 마당 등의 조성현황
- ☐ 완충녹지
- ☐ 건축물과의 관계 및 동선계획
- ☐ 기타

3-6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환경부하 저감 가능성, 지역 생태계 보전 및 주변 환경 배려를 위한 것으로 시설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패시브디자인계획
 - ☐ 단열
 - ☐ 창문처리
 - ☐ 환기처리
 - ☐ 친환경 자재사용
 - ☐ 기타
- ☐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획
 - ☐ 태양광발전 설비
 - ☐ 태양열 온수·난방 설비
 - ☐ 지열 냉난방 설비
 - ☐ 풍력발전 설비
 - ☐ 기타
- ☐ 기타

3-7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시공성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 조달, 사업집행 관련 시공 정보 및 경험의 최적 활용’ 이라 정의하며 체계적인 시공성 분석과 이를 반영한 설계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할 것을 권유한다

- ☐ 기존 시공정보/경험의 활용
- ☐ 주요 시공방식 검토
- ☐ 효율적 시공을 위한 입지 검토
- ☐ 신기술 도입 여부 검토
- ☐ 기타

3-8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사업 완료 후 시설의 유지관리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주요 시설 이용대상 확인
- ☐ 일일 최대 수용인원 파악
- ☐ 시설의 운영방식(직접경영, 위탁관리 등) 검토
- ☐ 입주대상 파악 및 요구사항 반영
-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계획(예_동선) 고려
- ☐ 특수 장비 및 시설(예_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관리방안 검토
- ☐ 기타

부록3. 디자인리뷰 운영기준

□ 디자인리뷰 내용 범위의 선정

기본설계가 발주된 이후에 실시되는 디자인리뷰에 앞서 디자인리뷰 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었던 ‘상위계획 및 관련 법·제도’ 중에서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디자인 기준’, ‘고도제한’, ‘경관 협정’, ‘에너지 절약 관련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리뷰 검토항목을 정한다. 특히 건축심의회나 경관심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필수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디자인리뷰 시에 필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도제한, 건축물 형태, 색채, 외장, 녹화 등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디자인리뷰 시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 및 행정담당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디자인리뷰 횟수 및 디자인리뷰패널 구성에 대해 협의한다. 설계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을 설정하여 복수의 디자인리뷰를 수행하거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협의한다.

기본설계와 실시단계에서는 각각의 검토 내용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초반에 각 단계별 디자인리뷰 내용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정한 후 설계 진행 및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건축물 설계 이외에도 설계 시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예_전시관이나

미술관 등의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며 디자인리뷰 시에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설계단계별 디자인리뷰 범위 - 공통

구 분		검 토 방 향	범 위	비 고
기본설계	1차	·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발주자의 의도대로 설계 컨셉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시	· 설계디자인 원칙, 사용자의 요구, 부지 현황 및 설계방향 등	·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단계에서 2회,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개최 · 사전 협의에 따라서 횟수의 변경 가능
	2차	· 설계 내용이 법·규제 등의 고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안	· 건축물 공간구조 및 외관 등에 관련된 항목 등	
실시설계		· 기본설계단계의 디자인리뷰 내용에 대하여 대응정도 검토 · 상세설계 등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검토	· 각종 도면의 통합설계 현황, 시공가능성 확인 등	

□ 디자인리뷰 내용 및 필요 관계 서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용역 발주 후 초반 설계컨셉 및 개략적인 규모·형태 등의 구상이 확정되었을 때 1차 디자인리뷰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획서 및 협의 등을 통해 발주자의 의도대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공공건축가 및 디자인리뷰패널은 사전에 파악한 자료 등을 가지고 설계자의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하면서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2차 디자인리뷰는 건축물의 공간구조 및 외관 등에 대한 구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며 제도 및 심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디자인리뷰의 객관성을 유지도록 하며, 설계자의 역량을 존중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는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디자인리뷰 내용이 주요 상세도면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시공 가능한 도면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실시된다.

설계단계별 디자인리뷰 내용 및 관계 서류 - 공통

구 분		내 용	관 계 서 류	비 고
기본설계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컨셉 · 규모 · 배치 · 형태(높이 포함) · 외부공간 계획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 중 설계 방향에 관련된 항목 · 현황 사진 등 · 설계컨셉 등이 반영된 일러스트, 스케치 등 · 기타 필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내용 및 관계 서류는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술적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공용역 수행자나 혹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는 디자인검토판의 참여가 필요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조 · 의장 · 색채 · 녹화 · 재료 · 식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자료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각종 심의 및 보고 등에 대비한 자료 · 건축재료 등의 관련 정보 및 견본 (필요시)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면을 중심으로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상세도가 통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주요 상세도면 등에 대한 기술적 요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자료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각종 상세도 등) 	

부록4. 민간전문가 활용현황 및 공공건축가 업무 적정성 파악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국내 공공건축의 총괄적 디자인관리 체계를 통해 품격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산으로서 공공건축물이 지닌 가치와 관련 예산의 규모가 건설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미흡하여 디자인품질 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공공건축 관련 행정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행정체계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정착화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건축가의 업무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한국행정연구원

설문 응답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식 문항의 경우 보기문항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란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식 문항의 경우 □칸에 직접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

▶ 응답자 정보는 설문조사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통계분석시 응답내용과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소속기관명		연락처	() -
휴대폰번호		성명	

※ 본 설문지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 “기반시설”의 ‘교통시설 중 철도역사, 공항, 항만 등’,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및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의미합니다.

※ 본 설문지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기획, 설계, 디자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총괄적 디자인관리체계를 형성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및 품격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본 설문지의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민간전문가로 특히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 본 설문지의 ‘민간전문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해 공공발주 업무에 참여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Chapt I. 민간전문가 참여 방식

문1-1. 건축디자인시범사업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셨습니다?

- ① 총괄계획가(MP/MA) ② 디자인검토위원

문1-2. 시범사업 지자체에 사업 이전에 이미 총괄코디네이터 또는 공공건축가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문1-3으로) ② 없었다(☞ 문1-4로)

문1-3. (문1-2에서 ①응답자만) 시범사업 지자체에 사업 이전에 이미 총괄코디네이터 또는 공공건축가가 있었다면,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진행 시, 기존 총괄코디네이터 또는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전혀 사업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사업진행에 관여는 하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사업진행에 관여하였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④ 사업진행에 관여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1-4. 시범사업 지자체에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문1-5 로)
 ② 없었다(☞ 문1-1에서 ‘① 총괄계획가(MP/MA)’ 응답자는 3page Chapt II로,
 ‘② 디자인검토위원’ 응답자는 Chapt IV로 이동)

문1-5. (문1-4에서 ①응답자만) 시범사업 지자체에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 있었다면,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기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등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 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② 미진하나만 약간 반영되었다
 ③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④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 위 문 1.1번에서

① 총괄계획가(MP/MA)를 선택하신 분	⇓	3page II. 총괄계획가 (MP/MA)수행업무 파악 문항으로
② 디자인검토위원을 선택하신 분	⇓	9page. IV. 디자인검토위원 수행업무 파악 문항으로

Chapt II. 총괄계획가 (MP/MA) 수행업무 파악

문2-1. 참여한 업무 단계는 무엇이며, 각 단계 시 회의는 주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귀하께서 참여한 각 업무 단계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각 단계 시 회의는
 주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업무단계		1) 참여여부(“√” 표시)	2) 주당 회의 횟수		
기획단계			주		회
계획 및 설계단계	기본설계단계		주		회
	실시설계단계		주		회
사후설계관리단계			주		회

문2-1-1. 기획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수행업무	관여도(보통) ← 낮음 → 높음					응답란
		①	②	③	④	⑤	
1)	적용 가능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사업대상지 조정 및 시설사업에 대한 입지 선정 계획	①	②	③	④	⑤	
4)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수요를 반영한 기능 및 공공건축 또는 공공 시설 규모 설정	①	②	③	④	⑤	
6)	관련 법률 검토	①	②	③	④	⑤	
7)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①	②	③	④	⑤	
8)	사업완료 후 공간 운영방안 등 프로그램 기획	①	②	③	④	⑤	
9)	계획 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10)	디자인 관리방안 제시	①	②	③	④	⑤	
11)	과업지시서 검토	①	②	③	④	⑤	
12)	예산계획 검토	①	②	③	④	⑤	

문2-1-2.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수행업무	낮음 ← 관여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 또는 공공시설별 설계방향 제시	①	②	③	④	⑤	
2)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설정 및 설계안 자문	①	②	③	④	⑤	
3)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①	②	③	④	⑤	
4) 실시 설계안 자문	①	②	③	④	⑤	
5) 설계 변경 및 기타 계획안 수정 시 검토 및 확인	①	②	③	④	⑤	

문2-2. 기획단계 업무가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의 수준을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낮음 ← 일관성(보통) → 높음					응답란
1)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①	②	③	④	⑤	
2) 설계 단계에서의 기획 내용 변경 정도	①	②	③	④	⑤	

문2-3. 전반적인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의 수준을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항 목	낮음 ←	보통	→ 높음	응답란		
의사결정	1) 시장 및 시의회 등의 의견에 좌우되는 의사결정 방식	①	②	③	④	⑤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행정팀과 디자인 팀 간의 이해관계 대립	①	②	③	④	⑤	
	3) 발주방식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분야의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음	①	②	③	④	⑤	
업무효율	4) 디자인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초래	①	②	③	④	⑤	
	5) 사업담당부서와 설계용역발주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절차의 혼선 및 업무중복	①	②	③	④	⑤	
전문성	6) 수행능력이 부족한 용역업체 선정으로 디자인 품질 확보가 어려웠음	①	②	③	④	⑤	
	7) 실무자 대상 사전 교육·세미나 부족에 따른 업무파악 미흡	①	②	③	④	⑤	
조직 간 협력	8) 주무부서와 타부서간의 협력 체계 구축 미흡	①	②	③	④	⑤	
	9) 기존의 각종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예산	10)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 부족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 설득	11)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신뢰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기타	(*아래 공란에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세요)						

Chapt Ⅲ. 총괄계획가 (MP/MA)의 역할

문3-1. 총괄계획가 (MP/MA)의 주요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3-1-1. 기획단계 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기획단계 수행업무	낮음	← 중요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적용 가능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사업대상지 조정 및 시설사업에 대한 입지 선정 계획	①	②	③	④	⑤		
4)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수요를 반영한 기능 및 공공건축 또는 공공 시설 규모 설정	①	②	③	④	⑤		
6) 관련 법률 검토	①	②	③	④	⑤		
7)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①	②	③	④	⑤		
8) 사업완료 후 공간 운영방안 등 프로그램 기획	①	②	③	④	⑤		
9) 계획 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10) 디자인 관리방안 제시	①	②	③	④	⑤		
11) 과업지시서 검토	①	②	③	④	⑤		
12) 예산계획 검토	①	②	③	④	⑤		

문3-1-2.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계획 및 설계단계 수행업무	낮음	← 중요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 또는 공공시설별 설계방향 제시	①	②	③	④	⑤		
2)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설정 및 설계안 자문	①	②	③	④	⑤		
3)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①	②	③	④	⑤		
4) 실시 설계안 자문	①	②	③	④	⑤		
5) 설계 변경 및 기타 계획안 수정 시 검토 및 확인	①	②	③	④	⑤		

문3-1-3. 시공단계에서 설계 사후관리의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시공단계 수행업무	낮음 ← 중요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최종 실시설계안의 적절한 시공 여부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설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	①	②	③	④	⑤	

문3-2. 사업 진행 시 설계이행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설문지의 ‘설계이행지킴’은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추진사업의 전략 및 목표를 확인하고, 효율적 설계단계 운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이 내실있게 검토되었는지 점검 할 수 있는 평가지표입니다.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없다 ④ 전혀 필요없다

※ 위의 문항에서 ①과 ②를 선택하신 경우,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검토 사항		낮음 ←중요도(보통)→ 높음					응답란
사업 진단 기준	1) 사업추진 목적	①	②	③	④	⑤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분석 (장기적 시설 운영·관리 비용, 매각 또는 임대 가능성, LCC분석 등)	①	②	③	④	⑤	
	사업규모에 따른 필요조건 제시 (이용자 수, 필요면적 및 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입지선정계획의 타당성(이용수요, 규모와 비용 대비 부지규모, 매입가능성 및 비용 등)	①	②	③	④	⑤	
	부지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부지 주변여건 분석 (주변 교통, 문화재, 용도지역, 공공건축 및 공공 공간, 주변개발계획현황 등)	①	②	③	④	⑤	
	유사사업의 평가 및 분석	①	②	③	④	⑤	
	과업 범위 설정	①	②	③	④	⑤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①	②	③	④	⑤	
10) 사업일정 수립	①	②	③	④	⑤		

검토 사항		낮음 ←중요도(보통)→ 높음					응답란
디자인 기준	1)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지형분석, 토질현황 등)	①	②	③	④	⑤	
	2) 적용 법률제도 관련 사항 (각종 시행령 및 조례, 도시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지역주민의 사용성, 지역경관 형성 등)	①	②	③	④	⑤	
	4) 환경 관련 사항(대기질, 지하수, 소음, 진동, 생물 다양성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①	②	③	④	⑤	
	5) 교통 관련 사항 (차량동선, 보행자동선, 진입로, 로비 및 입구, 주차 등)	①	②	③	④	⑤	
	6)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외부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공원, 마당, 완충녹지 등)	①	②	③	④	⑤	
	7)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프로그램 개요 및 시설의 통합적 공간 구성을 위한 다이어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8)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패시브디자인계획,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획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①	②	③	④	⑤	
	10)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①	②	③	④	⑤	
	11) 사업일정 중·개축 계획 반영 (향후 여건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증축 및 시설내부 개조에 따른 기술 및 비용 효익 검토수립)	①	②	③	④	⑤	

검토 사항		낮음 ←중요도(보통)→ 높음					응답란
사업 수행 방식	조달소요기간 확인						
	1) (장기적 조달소요기간이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재의 확인 등)	①	②	③	④	⑤	
	2) 조달절차 및 계획	①	②	③	④	⑤	
	3)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발주부서와 관련부서와의 관계정립, 참여주체 간 실무관계 정립, 의사결정권자 명시 등)	①	②	③	④	⑤	
	4) 주민의견수렴 방식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5) 소유주 승인이 필요한 문서 및 절차 확인 (승인절차 소요시간, 문서의 종류, 문서 제출마감일 등)	①	②	③	④	⑤	
	6)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문3-4. 총괄계획가 (MP/MA)의 지위는 어떠한 형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성을 고려한 정무부시장 체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및 전문성 제고
- ② 조직 안전성을 고려한 행정부시장 체제: 조직 융합 및 연속성 제고
- ③ 행정부서의 일환으로서 디자인 전담 팀장
- ④ 외부 자문위원단 형태로 운영
- ⑤ 기타()

문3-5. 총괄계획가 (MP/MA)의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Chapt IV. 디자인검토위원 수행업무 파악

문4-1. 각 단계별 수행한 업무의 관여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4-1-1. 기획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기획단계 수행업무	낮음	←	관여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해당지역의 현황 분석 내용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기획안 검토	①	②	③	④	⑤	
3)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	①	②	③	④	⑤	
4)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①	②	③	④	⑤	
5) 예산배정 검토	①	②	③	④	⑤	

문4-1-2.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계획 및 설계단계 수행업무	낮음	←	관여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디자인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	①	②	③	④	⑤	
3) 계획 수립과정의 주체별 참여형식 및 내용 검토	①	②	③	④	⑤	
4)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적합성 여부 검토	①	②	③	④	⑤	

문4-1-3. 설계사후관리단계 시 수행한 업무의 관여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계사후관리단계 수행업무	낮음	←	관여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최종 실시설계안의 적절한 시공 여부 검토	①	②	③	④	⑤	

문4-2. 디자인검토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미흡	←	보통	→	적절	응답란
1) 디자인검토회의의 참여시기는 적절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2) 디자인검토회의의 역할은 적절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3) 디자인검토회의가 디자인가치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4) 디자인검토 결과의 설계 반영 정도	①	②	③	④	⑤	

문4-3. 기획단계 업무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의 수준을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낮음 ← 일관성(보통) → 높음					응답란
1)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①	②	③	④	⑤	
2) 설계 단계에서의 기획 내용 변경 정도	①	②	③	④	⑤	

문4-4. 전반적인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의 수준을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항 목	낮음	←	보통	→	높음	응답란
의사결정	1) 시장 및 시의회 등의 의견에 좌우되는 의사 결정 방식	①	②	③	④	⑤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행정팀과 디자인 팀 간의 이해관계 대립	①	②	③	④	⑤	
	3) 발주방식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분야의 용역업체가 선정 되었음	①	②	③	④	⑤	
업무효율	4) 디자인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초래	①	②	③	④	⑤	
	5) 사업담당부서와 설계용역발주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절차의 혼선 및 업무중복	①	②	③	④	⑤	
전문성	6) 수행능력이 부족한 용역업체 선정으로 디자인 품질 확보가 어려웠음	①	②	③	④	⑤	
	7) 실무자 대상 사전 교육·세미나 부족에 따른 업무파악 미흡	①	②	③	④	⑤	
조직 간 협력	8) 주무부서와 타부서간의 협력 체계 구축 미흡	①	②	③	④	⑤	
	9) 기존의 각종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예 산	10)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 부족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 설득	11)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신뢰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기타	(*아래 공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세요)						

Chapt V.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문5-1. 디자인검토위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5-1-1. 기획단계 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기획단계 주요업무	낮음	←	중요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적용 가능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입지 선정 계획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수요를 반영한 기능 및 규모 설정	①	②	③	④	⑤	
5) 관련 법률 검토	①	②	③	④	⑤	
6)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①	②	③	④	⑤	
7) 사업완료 후 공간 운영방안 등 프로그램 기획	①	②	③	④	⑤	
8) 계획 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9) 과업지시서 검토	①	②	③	④	⑤	

문5-1-2.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계획 및 설계단계 주요업무	낮음	←	중요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기획단계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①	②	③	④	⑤	
2) 초기 기획의도와 부합성 검토	①	②	③	④	⑤	
3) 디자인 평가 및 논의 (디자인 리뷰)	①	②	③	④	⑤	
4)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	①	②	③	④	⑤	
5) 최종 실시설계안의 디자인 검토(시공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 등)	①	②	③	④	⑤	

문5-1-3. 설계사후관리단계 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계사후관리단계 수행업무	낮음	←	중요도(보통)	→	높음	응답란
1) 최종 실시설계안의 적절한 시공 여부 검토	①	②	③	④	⑤	

※ 본 설문지의 ‘설계이행지킴’은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추진사업의 전략 및 목표를 확인하고, 효율적 설계단계 운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이 내실있게 검토되었는지 점검 할 수 있는 평가지표입니다.

- ※ 위의 문항에서 ①과②를 선택하신 경우, 설계이행지침에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검토 사항		낮음 ←중요도(보통)→ 높음					응답란
사업 진단 기준	1) 사업추진 목적	①	②	③	④	⑤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분석 (장기적 시설 운영·관리 비용, 매각 또는 임대 가능성, LCC분석 등)	①	②	③	④	⑤	
	사업규모에 따른 필요조건 제시 (이용자 수, 필요면적 및 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입지선정계획의 타당성 (이용수요, 규모와 비용 대비 부지규모, 매입가 능성 및 비용 등)	①	②	③	④	⑤	
	부지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6) 부지 주변여건 분석 (주변 교통, 문화재, 용도지역, 공공건축 및 공공 공간, 주변개발계획현황 등)	①	②	③	④	⑤	
	7) 유사사업의 평가 및 분석	①	②	③	④	⑤	
	8) 과업 범위 설정	①	②	③	④	⑤	
	9) 개략적 추정 소요예산	①	②	③	④	⑤	
	10) 사업일정 수립	①	②	③	④	⑤	

검토 사항		낮음 ←중요도(보통)→ 높음					응답란
디자인 기준	1) 입지 감정/조사 관련 사항 (지형분석, 토질현황 등)	①	②	③	④	⑤	
	적용 법률제도 관련 사항 (각종 시행령 및 조례, 등)	①	②	③	④	⑤	
	2) 도시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에의 기여 관련 사항 (지역주민의 사용성, 지역경관 형성 등)	①	②	③	④	⑤	
	4) 환경 관련 사항(대기질, 지하수, 소음, 진동,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①	②	③	④	⑤	
	교통 관련 사항 5) (차량동선, 보행자동선, 진입로, 로비 및 입구, 주차 등)	①	②	③	④	⑤	
	6) 오픈스페이스 관련 사항 (외부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공원, 마당, 완충녹지 등)	①	②	③	④	⑤	
	7) 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방향 설정 (프로그램 개요 및 시설의 통합적 공간 구성을 위한 다이어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8)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패시브디자인계획,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획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방향 설정	①	②	③	④	⑤	
	10) 유지관리를 반영한 설계 방향 설정	①	②	③	④	⑤	
사업 수행 방식	사업일정·증·개축 계획 반영 (향후 여건변동에 11)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증축 및 시설내부 개조에 따른 기술 및 비용 효익 검토수립)	①	②	③	④	⑤	

검토 사항		낮음 ←중요도(보통)→ 높음					응답란
사업 수행 방식	조달소요기간 확인 1) (장기적 조달소요기간이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재의 확인 등)	①	②	③	④	⑤	
	2) 조달절차 및 계획	①	②	③	④	⑤	
	3)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발주부서와 관련부서와의 관계정립, 참여주체 간 실무관계 정립, 의사결정권자 명시 등)	①	②	③	④	⑤	
	4) 주민의견수렴 방식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5) 소유주 승인이 필요한 문서 및 절차 확인 (승인절차 소요시간, 문서의 종류, 문서 제출마감일 등)	①	②	③	④	⑤	
	6) 발주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발주방식 제시	①	②	③	④	⑤	

문5-4.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회 만원

부록5.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례 회의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핵심 업무인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획 및 설계단계 지원업무 시범적용을 통해 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주시, 평택시, 수원시 3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총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각 사업별 진행단계에 따라 기획업무 지원, 설계이행지침 작성, 디자인리뷰 등의 업무가 운영되었다. 공공건축가를 통한 지원업무 운영을 위해 연구진은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간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설명 및 소개를 통한 행정담당자 및 공공건축가와의 공감대 형성, 실제 업무범위 결정 및 논의,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회의록을 수록하였으며, 지자체별 회의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 분		회의개최 일정
영주시	월림보건진료소	· 3.14, 4.16 : 연구 설명 및 사업검토를 통한 업무범위 설정
	문수면사무소	· 4.30 현장답사 및 디자인리뷰를 비롯하여 2회 운영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 3.13, 3.22 : 연구 설명 및 사업검토를 통한 업무범위 설정 · 4.4, 5.3 : 디자인리뷰 운영 · 5.8 : 전문가 자문회의
수원시	물체험관	· 4.13, 4.24 : 연구 설명 및 사업검토를 통한 업무범위 설정 · 5.16, 6.7 : 기획추진단 회의 · 6.20, 7.6, 7.16, 8.7 : 전문가 워크숍,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준비 · 10.4, 10.11, 10.23, 10.25, 11.1, 11.12 : 용역발주 이후 진행과정

영주시 월림보건진료소 및 문수면사무소 시범적용 사례 회의록

일	시	2012년 3월 14일(수) 10:00~12: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div> <div>□ 영주시 공공건축가 운영관련 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는 건축과 도시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위해 자문을 수행하며, 지역 건축가와 연계하여 기본설계 수준의 작업 수행 • 공공건축가의 개입이 필요한 기획단계 업무는 사업 조기발주, 행정절차 복잡 등으로 인해 개입의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기발주의 형식으로 3~5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 담당 실과부서에서 사업신청 마감을 1~2주 앞두고 기획을 의뢰하는 경우 허다 - 회계, 허가, 고위직 및 시장 보고, 각종 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노력과 시간이 다소 소모적 </div> <div> <div>□ PDRI 도입 및 모니터링 가능한 사업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기획업무 시의 매뉴얼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기획 업무가 진행되므로 PDRI와 같은 업무지침이 유용하나 각 단위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수정·삭제하는 등의 변용 작업이 요구됨 • PDRI를 심의위원회나 고위공무원 보고용 등으로의 권한 부여에 관련된 설득 근거로서 활용 가능 • 현재 다양한 사업이 시행예정에 있으나 신축에 관련된 업무는 경로당, 읍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4개소가 있어 이에 대해 PDRI 적용·검토 고려 </div>

일	시	2012년 4월 16일(월) 16:00~18: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div> <div>□ 영주시 프로젝트 진행 상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림보건진료소는 지역건축가가 선정된 상황이며 공공건축가와 함께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중간설계부터는 지역건축가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되 공공건축가는 자문 및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은 현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월림보건진료소와 같은 진행현황을 보이고 있음 • 평은면사무소와 보건지소는 관계부처가 서로 다르나 같은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므로 함께 발주하는 것으로 회계과와 합의한 상태이며, 현재 예산과 정확한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음 </div> <div> <div>□ 프로젝트 별 지원방향 및 일정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림보건진료소와 문수면사무소 프로젝트는 설계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디자인 리뷰’를 실시하고 기획서 경우에는 역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함 • 영주시의 공공건축가가 기획서 작성과 설계이행지침이나 디자인 리뷰를 스스로 검토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수원시나 평택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과의 크로스체크를 실시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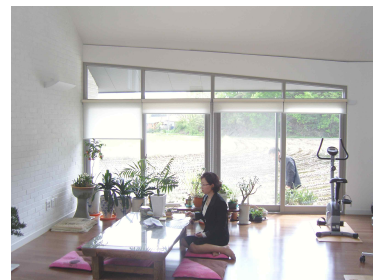
일 시 2012년 4월 30일(월) 11:00~15:30

장 소 영주시청 도시디자인과 회의실 및 공공건축 프로젝트 현장

내 용

- 공공건축가 운영과정에서 행정측면의 문제점 논의
 - 보건복지부에서의 예산 및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들이 설계 및 자재 등에서 여러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조제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건축가의 의지 및 노력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음
 - 현재 지어진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부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건축물과 많이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
 -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비해 행정상의 요구되는 서류 제출기간이 짧아 예산 집행 및 계획 부분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음
 - 중앙에서의 예산 지원은 대부분 시설비에 치중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에 금액이 많이 소모되며, 토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 수 차례의 부지 또는 설계 변경 등의 과정을 겪어 사업기간에 지장을 주기도 함
 - 시범사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중앙부처에서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11월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예산정산 등의 행정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업무추진이 비효율적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방안 논의
 -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적, 예산적 문제 등이 얹혀 있어 단순히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임
 - 현재는 건축사 일위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있으나 부족한 금액임
 - 지역의 시공업체가 도면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건축물이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현장감독도 중요하지만 시공 품질을 감독하는 시공감리가 더욱 중요
 - 적절한 사후설계감리에 대한 금액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며 시공감리에 대한 업무 지침 등이 필요

이 미 지



일 시 2012년 4월 30일(월) 16:00~18:00

장 소 영주시청 제1회의실

내 용 □ 월림보건진료소 디자인리뷰

- (이용자 수요) 수물지구의 이전지역으로 현재는 주변에 마을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의 부지 소유자가 보건진료소 건립 이후 근방으로 이주해올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예산) 예산은 약 2억 3~4천만원으로 건축비만 책정되어 있어서 토목, 조경 및 부대시설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음
- (부지) 1차적으로는 인근의 기존 마을 내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려 했으나 인접 마을에서의 민원 및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두 마을 중간 지점에 위치, 부지 분할 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지 못하여 부지의 형상이 애매하고 건축물의 배치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 (상하수도) 마을과 떨어져 상하수도 인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상수는 지하수개발을 통해 해결하고 하수는 정화조를 설치할 예정임. 지하수 관련 공사는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
- (정면성) 차량도로와 주진입로 중 어느 방향을 정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과차량 및 보행자가 극히 드문 곳이므로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정면성 확보
- (평면) 현관 부분의 공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도나 프로그램을 제안하지 않으면 버려지거나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 필요
- (입단면) 건축물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지붕 등을 통해 건축물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내부 실링의 경우 시공상의 어려움과 추가비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
- (단열) 겨울철의 난방비 절감부분은 창문크기가 일부 재료(단열바 등)의 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재료) 현재는 m2당 15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는데, 외관의 벽돌이나 지붕의 동판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료인지 의문이 생기며, 현재 입면계획상에서 벽돌의 시공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실내) 설계는 좋으나 가구, 운동기구 등의 집기나 수납 등을 초기에 고려하지 않으면 시공 후 내부 공간이 정갈하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면상에 가구 레이아웃 등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 또한 내부 가구의 경우 창문이나 개구부의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문수면사무소 디자인리뷰

- (이용자 수요) 기존 2층에 면장실을 1층으로 이동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며 불편한 화장실 공간의 증축을 요구
- (프로그램) 문수면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연령대도 높기 때문에 3층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할지에 대한 의문 발생. 부지 내의 보건지소에도 체력증강실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을 피하고 실제로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
- (예산) 3층 증축 및 리모델링(외장 및 창호)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간확장 및 외장 뿐 아니라 화장실 및 민원실 공간 증가로 인해 공사비에 차질 예상
- (부지) 파출소, 보건지소, 예비군중대 등의 공공건축이 모여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개체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부지 활용방안이 제안되면 좋을 것임
- (정면성) 주변의 주도로와 진입 시에 보이는 부분이 상이한 상태로, 주변에 비해서 높은 건축물이므로 주변의 주도로에서의 외관에 대한 인지가 높은 상태임. 현재는 일반 건축물의 뒷면처럼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

- (평면) 2층 대회의실의 경우에는 의사수납공간 등의 창고기능을 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공간에서의 자투리 등을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계획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야에 불필요한 장애물들이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증축 시에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층으로의 별도의 출입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 (실내) 1층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창문이 가구로 인해서 막혀 있어서 통풍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구 배치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함

이 미 지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시범적용 사례 회의록

일 시 2012년 3월 13일(화) 10:00~12: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추진주체간 역할 정립
 - (경기도) 지원사업 지자체와 AURI간 협약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광역차원에서의 지원센터 업무 확대 적용방안 모색
 - (지자체) 기획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공유 및 일정계획 관리를 하며, 민간전문가 컨설팅에 따라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
 - (AURI)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추진주체로서 기획·설계단계에서의 설정된 민간 전문가의 업무 적정성을 검토하며 모니터링 주관
- 지자체 공공건축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
 - (평택시) 평택시는 팽성읍사무소 신축사업의 설계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자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부지 옆 객사로 인해 문화재청 심의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 대지분석부터 평면·입면계획을 재수행해야 하며, 디자인검토회의를 통한 설계 단계에서의 전문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수원시)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사업은 부지선정 단계에 있으며, 팔달시장 인근지역 위치예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전문가의 개입 필요
 - 현재 총 사업비 약 200억원의 사업을 건축직이 없는 실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타 부서 건축인력과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확정 및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있음

일 시 2012년 3월 22일(목) 10:00~12: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층 대회의실

내 용

- 평택시 및 수원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 평택시 프로젝트는 기획단계에서의 업무 미숙으로 현재 설계디자인 단계에서 문화재심의에 걸려 난항 중에 있음
 - 평택시의 경우는 설계가 한차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업무의 성격보다는 디자인리뷰의 역할을 통해 올바른 설계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
 - 수원시 프로젝트는 물체험관 건축으로 예산 200억의 대형프로젝트이나 건축직이 아닌 환경직 공무원 1명이 기획단계에서의 업무를 진행 중에 있음
 - 수원시는 예산 등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단계까지 공공건축가가 개입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짐
 -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비용 및 예산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 평택시와 수원시 사업 시범적용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기획서 항목을 검토하고 기획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용역비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
 - 기획업무 시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권한 관련 논의
 - 기획업무를 통해 전체적인 공기 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한 점을 공무원 설득에 이용 가능
 - 기획업무 후에도 디자인리뷰를 통해서 기존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후설계관리까지의 관리업무 필요
 - 개별 공공건축가가 평택시 및 수원시의 담당 공무원과 각각 작업을 진행
 - 예를 들어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예산 자체 금액에 대한 검토보다는 적절한 예산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
 - 현 단계에서 AURI는 공무원과의 협의 시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는 대로 중재하도록 함
 - 기획업무에 대한 실효성 및 성과물에 대한 논의
 - 기획업무와 설계 디자인간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하며, 대상사업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시설 프로그램의 범위는 개략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
 - 기획업무의 본질은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수행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의문이 듦
 - 최종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획서와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는데, 기획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분이며 공공건축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려
 - 기획서 평가 시에는 체크리스트 등의 정량적 및 정성적인 가이드라인 모두 필요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업무 초반에는 입장 차이, 행정 지원 및 법 제도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

일 시 2012년 4월 4일(수) 10:00~12:00

장 소 평택시 건축과 회의실

내 용

□ 연구 목적 및 시범 적용 관련 내용 설명

-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건축 관련 업무는 전문가 부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이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공공발주시스템, 기획, 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 필요
- 공무원들이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에서 이틀, 일주일의 행정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설계자 선정 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능력있는 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해서는 발주단계 중요
 -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일관성 부족으로 의사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건축의 품질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향후에는 디자인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장 아래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함

□ 팽성읍사무소 진행현황 및 설계내용 소개

- 대상지 내에는 2m 이상의 고저차가 있으며 300년 이상 된 보호수가 3그루가 있고 주변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객사 존재
- 주변을 고려하여 배치에 대한 여러 대안 제시를 통해 현재의 안으로 완성되었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건축을 참조하여 근대적인 느낌이 나도록 벽돌, 화강석 등을 사용하도록 지시가 하달됨
 - 수지경량 한식기와(지붕), 회반죽, 기와(담장) 등의 재료 사용을 통해서 문화재 심의 준비 중에 있음
- 현재는 인근의 경찰서와의 부지매입문제, 문화재심의 불허 등으로 인해 협의 및 설계안 수정과정에 있으며, 사업진행은 작년 여름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황

□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갈등 및 어려움

- 기획단계 부실로 인한 문제점
 - 청사관리팀에서 부지와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달되었고 기획단계에서 건축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설계단계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
 - 신축사업 뿐 아니라 하자 및 개보수 공사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건축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 시공은 RC조로 평당 660만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587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평당 2,000만원에 이르는 한옥양식으로의 설계는 불가능
 - 시장과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기존 읍사무소의 요구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문화재심의 불허에 따른 설계안 수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문화재심의 결과를 수용하였으나 명확한 설계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고건축의 형식 및 이미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접목이 어려움
 - 문화재심의를 통해서 입면 자체의 정체성이 현대적이지도 고전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청에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한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음
- 기타
 - 평택시에는 대학은 있으나 건축과가 없어서 현지의 전문가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우며 행정적 프로세스가 없어서 전문가에게 대한 보수 지불이 불가능

- 평택시 경관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팽성을 객사 부근의 상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못함

□ 설계자문 방향 설정

- 문화재심의에 따른 설계방향 의견제시
 - 현 설계안은 근본적으로 입면 정체성의 문제보다는 객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객사와의 관계성은 단순히 외관의 모방이 아닌 배치 및 스케일의 모방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려
 - 보호수, 객사 등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이 블록은 70%가 공공건축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읍면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의 필요
 - 읍면 내에서 읍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공공건축물이며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이므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 필요
 - 현재 설계안의 규모는 배치도 상에서 객사와 비교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케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층, 규모, 동 분리 등의 조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고려
 - 현 설계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객사와의 관계만을 새롭게 부각시켜서 외부공간을 재계획할 수 있으나 임시적인 방편에 그칠 것으로 우려
 - 청사와 객사 사이의 외부공간이 현 설계안에서는 주차진입로 및 램프로 되어 있는데 활동마당 등의 용도로 수정하고 청사에서 객사로 향하는 길을 전통양식으로 바꾸면 일부 해결가능성이 보임
- 기타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 읍사무소와 경찰서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동으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통합적 접근 필요
 - 건축의 전면성 강조보다는 읍사무소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관리비용의 절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이용자 관점에서의 배려도 필요

이 미 지



일 시 2012년 5월 3일(목) 10:00~12: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 팽성읍사무소 설계단계 추진현황 파악 및 논의

- (정면성) 건축가가 생각하는 정면과 사용자가 생각하는 정면이 다를 수 있는데, 차량 출입구와 보행자출입구의 정면성이 다르게 계획되어 있음. 보호수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건물은 디자인을 단순히 하고 보호수를 살려서 계획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
- (평면) 현 평면은 객사방향이 서비스 공간 등으로 차폐되어 있어 경관녹지를 활용하는데 제약적이며, 평면상에서도 객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
 - 층고가 올라갈수록 객사를 조망할 수 있는 조건이 나아지므로 로비, 민원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객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유도
 - 지하층의 경우에는 다목적실, 전시공간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
- (옥외공간) 녹지는 공원의 이용이라는 현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개발에 대비하는 미래적 가치도 중요하므로, 인근의 구가나 시소유의 녹지 등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
 - 경관녹지의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들의 출입을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지속가능성) 20년 후에도 이 건축물이 읍사무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계획
 - 소규모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친환경성이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의 액티브 시스템보다는 패시브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
- (재료) 재료 선정에 관련해서는 지자체보다는 민간전문가가 경험이 있으므로 믿고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며, 재료는 내구성이 중요하며 지하토공사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약 가능하므로 재료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

이 미 지



일 시	2012년 5월 8일(화) 10:00~12:00
장 소	경기도청 문화예술과 회의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팽성읍객사 옆 경관녹지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종과 그루 수, 높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건물외관 형식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객사와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존의 약 17m 높이가 15.2m로 하향 조정된 것은 바람직함 • 객사와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지붕 마감재와 색채에 대한 사항도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Key'를 포함하여 정보 제공 • 객사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감도와 같은 비주얼적인 측면의 자료 작성 검토

이 미 지



수원시 물체험관 시범적용 사례 회의록

일 시	2012년 4월 13일(화) 10:00~12: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p>□ 수원시 물체험관 진행 현황 및 주체별 역할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현재 부지가 50%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사유지 일부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상의 문제로 인해 면적이 고정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는 팔달문 인근으로 화성과 인접하고 있고 수원천이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근처에는 지동시장 등이 형성 -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수반 필요 • (예산) 개략적으로 200억 정도의 총 예산에 80억 정도를 부지매입에 사용하고 130억 정도를 실질적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국가예산을 수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원의 비슷한 용도로 세워진 다른 건물과의 차별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될 경우에는 설계비와 전시 기획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설계비용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사업일정) 부지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4월 23일 시장님 토론(물관리과, 도시계획과, 시설공사와, 하수관리과, 화성사업소 등 관련 공무원 참석)을 통해 시장방침 결정 예정 • 추후에는 물체험관 관련 위원회 구성 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기획,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단계의 일관된 디자인 관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

일 시 2012년 4월 24일(화) 17:00~18:00

장 소 수원시청 별관 6층 물관리과 회의실

내 용

□ 수원시 물체험관 시장방침 관련 토의

- 화성 내부에 위치하여 3층 미만 18m의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사업부지는 일반주거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여러 관계가 맞물려 있음
- ‘물’을 테마로 하되 수원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설정
 - 수원지인 광고산에서 물이 생성되어 광고저수지, 화홍문, 수원천 등 일련의 과정들을 공간이나 전시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시의 비전이나 목표를 우선 정하고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공공건축가는 일련의 과정을 조절·자문하면서 심의 등에 대해서도 대비 가능

□ 물체험관 관련 참고 사례 소개 및 컨셉 논의

- 부지의 위치가 화성 내부 수원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수원천에 관련된 역사나 기억에 대한 프로그램이 포함하며 성곽과 연계한 복원작업은 좋은 아이디어임
- 부지 주변에 대한 해석과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물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수원시에서의 물은 서울시의 아리수와 같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의 형식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
 - 이름만 달리한 체험시설은 주변에서 부지기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빗물’의 이용에 관련한 체험 등의 특화된 테마설정이 적절할 수 있음
 -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남수문과 연계하여 화성, 기성시가지, 주변의 노후주거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능 고려
 - 현재는 주민을 위한 공원 등의 옥외휴게공간이 거의 없는데 물체험관의 옥외공간 계획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미 지



일 시 2012년 5월 16일(수) 9:00~11:30

장 소 수원시청 재난상황실

내 용

- 이용자 설정
 - 시장방침에 의해 물에 대한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설정 되었으나 중고교생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배려 필요
 - 부지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이나 물 관련 시민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
 - 주말과 주중에 따른 이용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하여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등에 반영
- 콘텐츠/프로그램 기획
 - 수원이 '레인시티'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아이템 반영 필요
 - 예상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확정되어야 이용자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필수 프로그램을 빨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수용인원에 대해서 미리 고려하여 프로그램이나 전시기획과 연결
 - 하수도 특별회계를 사용하므로 '하수도'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반영되어야 함
 - 물의 재생, 빗물 정화 등에 관련한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공간 계획
 - 부지 주변으로 성곽과 수원천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수원천의 경우에는 지하를 통해 물체험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고려
 - 물체험관은 외부공간에서의 체험활동이 중요하므로 주차장은 외곽의 것을 활용하고 외부공간을 최대 활용
 - 인근 100m 이내에 대형버스가 주차가능한 주차장이 2, 3곳 있으므로 이를 활용
 - '물'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외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반
- 운영관리방안 마련
 - 직영/민간 위탁 혹은 입장 유료/무료에 대한 사항이 기획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는데, 운영경비 절감이나 추가 지원 없이 자급자족 방안이 설정되어야 함
 - 기획부터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나 행정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 기획회의 운영 방식 결정
 - 대형 사업이므로 타당성조사와 병행 가능
 - 기존의 자문에 의한 참여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획단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워크숍 등의 형태를 통해 의견 제시
 - 이용자와 함께하는 'Social Design'으로 진행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며 '캐치프레이즈'나 '명칭' 공모를 통해 홍보효과 동반

이 미 지



일 시 2012년 6월 7일(목) 10:00~12:00

장 소 수원화성박물관 회의실

내 용

- (건축규모) 성벽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경사지를 활용한 건축계획이 필요하며, 수원천과 연계하여 건축 일부 지하화
- (건축규모) 현대적인 건축물보다는 전통이나 수원 근현대의 역사성 등을 반영하여 건축을 최소화 함
- (프로그램) 물체험관을 통해 ‘물’ 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복지, 휴식 등)를 설정
 - 초기에 설정한 ‘유아’ 가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힐링’ 개념의 물 관련 프로그램 도입 고려
 - 물이 없는 겨울철에 대비한 프로그램 필요
 - 유비쿼터스 등을 도입하여 물이 있는 공간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 안으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예_여수엑스포의 로봇물고기 : 카메라 부착을 통해 물 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함
 - 물의 사용에 의한 체험보다는 물의 절약에 관련된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예산) 충분한 설계비 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 책정 시 건축비뿐 아니라 교육·체험 관련 계획비용, 외부공간 계획 비용등을 별도로 충분히 확보해야 함. 또한 예산에 맞는 건축물 품질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자 설정) 전시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면적을 계산하므로 적절한 수용인원 설정하는 것이 중요
 - 물체험관이 화성이나 수원천을 방문한 사람들이 들리는 여러 곳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화성 방문객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
 - 화성 행궁 방문객은 연간 147만 명 수준으로 외국인은 27% 차지
 - 물체험관과 화성 내부의 다른 시설들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연계
 - 부지 주변 상권과 연계한 이용자 설정이 필요
-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건축,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얹혀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총괄코디네이터의 선정 필요
- (주차장 및 차량 동선) 화성 내의 화성박물관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사용방안 등을 고려하는 주차장 계획이 필요하며, 물체험관 내부에는 차량동선을 위한 드롭오프 존은 설정하되 시설 내 주차면적은 최소화
- 기타 논의사항
 - 타당성 용역 발주 시 건축에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되어야 함
 - 배리어프리를 배려한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
 - 물체험관의 운영에 대한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화 운영 필요
 - 상인 등에 의한 보상문제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의한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 있음을 감안

이 미 지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13:30~15:3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div>□ 사전기획 일정 관련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기획 시에는 기본구상의 방향, 과업의 내용, 프로세스 관리, 거버넌스체계, 벤치마킹 가능한 유사사례 조사 등의 내용 포함 • 사전기획 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구상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되, 사전기획서를 과업지시서의 붙임자료로 활용하여 업무의 연계성 확보 • 사전기획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달 정도로 예상되고 중간에 관련주체들의 워크숍을 통해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7월 중순 이후에는 기존의 TF형식으로 최종보고 수행 • 각각의 주체가 맡은 항목에 대하여 작성 후 7월 초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전기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 <div>□ 사전기획 관련 주체별 역할 설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관련 및 환경 관련 항목은 수원시 및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건축 및 프로그램에 관련된 항목은 공공건축가가 담당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발전연구센터) 사업공정, 사업집행계획, 사업목표, 사용자 및 관리자 요구 사항, 시설기대효과, 법률-제도적 제약사항 검토 등 - (공공건축가) 사업유형, 사업배경, 프로그램, 시설규모, 예산, 사업공정, 발주방식 결정,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등 - (AURI) 기획서 양식을 제공하고 각각의 주체협의 시 중재역할을 담당하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전기획 관련 내용 협의 및 관리

일 시	2012년 7월 6일(금) 9:30~12:30
장 소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 에머랄드 사파이어 회의실
내 용	<div>□ 수원시 물체험관 운영 참고사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생태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둘레길에 위치하고 숙박,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레길에 대한 가이드 투어 등을 실시 - 기존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사들여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였으나 사후디자인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 최초 안에 비해서 램프, 외벽 등에 대해 변경 작업수차례 발생 - 지열시스템, 우수정화시스템을 지하에 설치해서 교육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옥상의 태양광시스템에는 설명 등에 대한 패널을 설치하여 투어프로그램 중의 일부로 활용 - 시공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옥상녹화, 천창 등에 대해 부실시공이 이행되어 문제 발생 - 전시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벽걸이 식의 상설전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체험자들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 계획 • 판교생태학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위탁에 의한 운영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성남시에서 8억(공공요금 2억, 인건비 3억 5천, 프로그램운영 2억 5천)을 받고 있음 - 무료입장으로 유치원생에 의한 단체방문이 많으나, 건물계획이 이용자와 맞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기공간 및 식사공간의 부족으로 이용자가 몰릴 경우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며, 겨울에는 야외활동이 어려워 체험관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에너지관' 프로그램을 특화하려고 하였으나 '숲', '물' 등의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백화점식 전시 내용으로 됨
- 설계자가 식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남쪽을 체험공간으로 막아버려서 식물 재배를 위해 추가로 프리즘 등을 구비
- 곡면건물설계로 인해 유리창의 스케일이 모두 달라서 교체비용(유리교체 20만원, 인건비 200만원)이 지나치게 높음
- (수원시 해우제) 화장실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이며 외관에 비해서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사람들의 반응이 좋음
-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 설계 및 시공 시 관장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조언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

□ 수원시 물체험관 기본구상 업무내용 제시 및 논의

- 후보지 현황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화성 지구단위계획(10월 수립 예정), 화성 르네상스, 화성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며 물체험관 개별건물을 포함한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유사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시 해외사례보다는 국내사례 위주의 검토 및 분석이 요구됨
- 운영관리를 고려한 물체험관의 시설규모 및 프로그램 방향 설정 필요
 -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건축물의 규모는 최소화하도록 함
 - 패널식 전시를 지양하고 내부 공간은 비워두고 물로 인한 설비 등을 '상설전시'로 운영
- 대상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사 실시

□ MA 선임 및 협력 설계체계 구축

- 실무자 등이 사업기간 동안 변경되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가 필요하므로 타당성 용역 수행 이전에 MA 혹은 총괄코디네이터 선임 고려
- 초기부터 전시관련 전문가 및 운영 경험자들이 기획 및 설계에 함께 참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조기 파악하고 대응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미 지



일시	2012년 7월 16일(월) 16:00~18:00
장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내용	<div>□ 사전기획 관련 업무 일정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물체험관 사업 수행 방식(MA를 통한 디자인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결정하며,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일부 기본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발전연구센터) 현황 및 개발여건 일부 항목,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유사사례 조사분석 중 해외 사례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 정리 - (AURI) 설계기본방향 및 원칙과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방안을 고려한 과업수행 로드맵을 정리하여 과업지시서에 별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div>□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관련 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범위) 1차적으로 작성한 과업지시서 중 세부내용의 내용이 방대하나 용역 기간 및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주거나 기본계획 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현황 및 주변 여건 중에서 ‘지형 및 지질, 수원천 수량 및 수질 등의 자연 환경’, ‘지장물, 기존 설비 및 현황 건축물의 입주가구 등의 토지이용 현황’ 등은 기본계획으로 이행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제안’ 역시 용역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물체험관 건립관련 수원시 물 관련 역사적 의미 고찰 및 스토리텔링’ 과 함께 별도의 용역 발주 권장

일시	2012년 8월 7일(월) 16:00~18:00
장소	수원시청 본관 상황실
내용	<div>□ 사업 참여주체간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MA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기획추진단 및 공공건축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팀과 정기회의를 추진하여 진행사항 점검 - 공공건축가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범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타 사례의 기준제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입 • 물체험관의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발주됨에 따라 용역팀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주체간 업무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 <div>□ 향후 추진일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설계단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 - 용역 초기단계에서는 MA와 관련 주체간 집중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용의 충실성 관리 필요 -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애매한 용어는 자제하고 ‘전시, 교육 및 운영’ 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

일	시	2012년 10월 4일(목) 19:00~21:00
장	소	수원시청 본관 소회의실
내	용	<div>□ 물체험관 주요내용에 관한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체험관의 의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험’이라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물체험관은 위치 상 Urban Design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점적인 시설들을 연계하는 문화벨트로 고려 • (규모) 현재 제시되어진 건축연면적 800평이라는 수치는 현 부지에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고려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정할 때의 예정치이므로 타당성 조사에 의해 부지에 적합한 건축규모 제안 필요 <div>□ 사업수행방식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수행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는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공공건축가는 건축물 품질과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자문 및 MA를 보조하는 역할 수행 • 용역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촉박하여 과업지시 내용 중 하나인 지역주민과 시민 단체와의 워크숍 등은 약 1~2회로 실시하되 정교한 방법에 의한 접근 필요 • 과업내용이 과다하여 차후 회의에서는 여러 과업 중 선택·집중해야 하는 업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유사사례 및 현황분석 등은 빠르게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물의 의미, 규모, 프로그램 등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시 • 기획업무 회의의 진행방식은 MA가 미리 다음 회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용역팀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관련 과업을 작업하여 회의 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함
일	시	2012년 10월 11일(목) 16:00~18:00
장	소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604호
내	용	<div>□ 부지 및 사례조사에 관한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부지는 남수문, 남문, 지동시장 등의 상권과 연계되어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화성성곽과의 고저차는 대략 10M로 현 상황에서 지질조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 • 사례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지조사보다는 인터넷 등에 의한 자료 수집 위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 요망 • 국내 사례에서 중요시 여겼던 운영자와의 면담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 부족 <div>□ 용역수행방식에 대한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입찰의 문제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을 제안서가 아닌 가격으로 발주하면서 용역팀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용역팀이 MA 제도를 접해보는 것이 처음이지만 태도와 의지 등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향후 발주에 있어서 개선 또는 시정 필요 절감

일 시 2012년 10월 23일(화) 14:00~16:00

장 소 수원시청 본관 지하1층 소회의실

내 용

□ 전문가 및 주민워크숍 관련 논의

- 전문가 워크숍은 심층토의가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유사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
- 물체험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및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설정하기에 앞서 주민, 관광객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실시
 - 현재 물체험관이 건립될 예정부지의 거주가 반대가 극심한 상태이나 인접한 부지의 주민협의체에서는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 전시 및 프로그램 관련 논의

-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현재는 건축이나 도시 등 공학 분야에 치중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건축물 내부뿐 아니라 외부 공간에서도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고려

□ 기타 관련 논의

- 주요대상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나 관광객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객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
- 화성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건축물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 한옥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유의
- 착수보고서의 SWOT분석은 그 대상이 모호하므로 물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것인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법은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이므로 재검토
- 수원시 내에서 착공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원시 물체험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용역은 법적 타당성 용역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내용은 줄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기획추진단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재검토 요망

이 미 지



일 시 2012년 10월 25일(목) 16:00~18:00

장 소 수원시청 본관 지하1층 재난안전관계실

내 용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논의

- 콘텐츠 및 프로그램 설정 이전 주요 타깃층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재방문이 가능한 콘텐츠 구상
-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콘텐츠 역시 부지 및 건축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됨

□ 건축 관련 논의

- 건축물 내부에는 열린 공간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설정하며 외부 공간 및 수원시 전체의 물 관련 시설 및 자연공간을 범용적인 체험공간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생태, 특히 물에 관련한 기술 및 시스템을 검토하여 물체험관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지동시장 상권과의 연계여부는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물체험관 부지 내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등 단절극복방안을 모색 가능
- 하천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지하수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건축물과 직접 연계 또는 활용방안 등을 고려
- 화성 성곽 및 수원천은 부지와 직접 연계하는 주요 역사적 장소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거시적 측면에서 주변지역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 필요

□ 기타 관련 논의

- 국내유사사례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시설조사 및 운영자 인터뷰 등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은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
- 타당성 용역은 설계단계에서의 설계자의 고민시간을 줄여주고 사전에 발주처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의 잦은 설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인식
-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도 필요

이 미 지



일 시	2012년 11월 1일(목) 15:00~18: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div>□ 콘텐츠 및 타깃 결정 관련 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과 '물' 에 관련된 정확한 카테고리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기획전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 - 도입시설로는 중수, 하수, 빗물 등 물과 관련한 시스템 등을 고려 • 타깃층의 다양화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 고려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아 및 학생들은 체험 위주로 예약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는 목적성을 띠고 강제적인 방문 유도가 가능 - 외국인 및 관광객은 수원의 역사 및 문화와 연계, 우발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화에 대한 고려 필요 <div>□ 운영관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로 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합의되었으며 내부 혹은 기획은 유료로 외부는 무료로 하는 방안 고려 • 예약제는 일반적으로 20, 30명을 대상으로 가이드 관람을 하는 형태로 우발적인 방문에 대응할 수 없으나 방문객수를 예상할 수 있어 운영에 용이 • 지자체 운영시에는 주말 운영이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위탁 운영방식으로 가되 전면 위탁 혹은 일부 위탁에 대한 결정 필요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 16:00~18:00
장 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층 중회의실
내 용	<div>□ 전문가 워크숍 개최방식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를 크게 타깃, 물의 정의, 콘텐츠 세 개로 나누고 전문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토론하고 각 팀의 의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토론 시에는 각 테마별 2~3개 정도의 질문이 담긴 질문지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 • 분임토론 이후에는 각 조장들이 팀의 결론에 대하여 발표하고 MA가 내용을 정리 하는 형식으로 종합토론 진행 <div>□ 예산 항목 및 현황조사 관련 논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조달청 기준의 평균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친환경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추후 추가예산의 문제점을 경감시킬 수 있음 • 건축공사비 이외에도 인테리어, 전시, 콘텐츠, 설계자사후관리, VE평가 등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들을 검토해야 함 • 화성과 부지, 수원천을 연계하는 레벨과 주변건물 스케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면 작성 및 검토 필요 • 채재시장의 업종 분석을 통해 물체험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검토 • 도로폭 및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급 및 주차에 관한 자료 확보